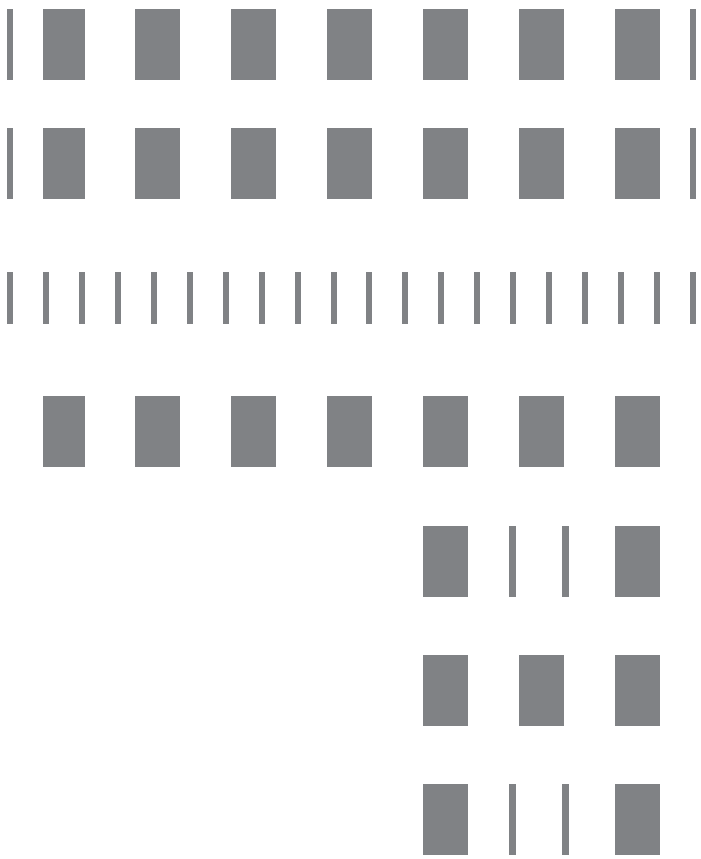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



진실의 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실태 기초조사 보고서를 펴내며

"2001년 여야 합의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온 것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었고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중략)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이곳(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인권단체들, 고문 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습니다."

- 6·10민주항쟁 31주년 대통령 기념사 중에서

지난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이로써 민주화운동가들이 온라인상에서 시작했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운동이 20년 역사 끝에 작은 결실을 맺고,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년)에 명시된 1호 사업 '민주화운동기념관 설립' 조항도 17년 만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위해 가장 먼저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피해 실태 기초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재단법인 진실의 힘>에 조사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진행해야 할 많은 연구조사 중 첫 번째 작업으로, 1976년부터 2005년까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일어난 고문 사건의 구체적인 실체 파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업회는 국회 및 유관 기관을 통해 남영동 고문피해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문서 보존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에 전문연구기관 '진실의 힘'에 의뢰하여 수집 가능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피조사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수십 년 전 신문기사와 잡지, 논문, 유인물 등 수많은 자료를 일일이 뒤져가며 연구자들이 찾아낸 숫자가 384명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진술, 가족 수기, 항소이유서, 고소장 등을 통해 고문 피해자 54명의 육성 증언을 요약하였습니다. 특히 여덟 분을 인터뷰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공수사기관이 어떻게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누가 어떻게 고문을 자행했는지, 또한 오랫동안 고문이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한정된 문헌 자료와 피해자 증언 등에 기초한 것으로, '완성'이 아닌 '1차 기초조사'의 결과물입니다. 사업회는 고문 피해자나 가족, 지인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비판이나 제안을 통해 후속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여름, 부당한 국가권력에 유린당한 이들의 기록을 복원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연구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인권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갈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 보고서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제출합니다.

2018.9.30.

책임 송소연
실태연구 박다영 이사랑
자료조사 김우창 김주연 김홍민
유서희 이소중 한정원
주관연구기관 재단법인 진실의 힘

목차

들어가는 말 ····· 1

1장 남영동 대공분실 개요: 남영동 대공분실의 탄생과 대공파트 확대의 과정 ····· 7
1. 치안본부 시대와 남영동 대공분실 설립 ····· 8
2. 제5공화국의 등장과 '대공과' 신설 ····· 9
3. 대공 분야의 확대과정(1986년) ····· 11
4. 박종철 열사의 죽음과 박처원 사단 ····· 14
   1) 박처원 연보 ····· 15
   2) 이근안 발탁과 박처원 사단 ····· 18
   3) 박처원 사단의 몰락 ····· 19
   4) 대공수사단의 '패밀리 의식'과 특진제 ····· 20
5. 경찰청으로의 개편과 '보안수사대' ····· 22
6. 남영동 그 후, 지금도 여전한 '보안분실' ····· 23

2장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피해 현황 및 고문의 방식과 수단 ····· 29
1. 남영동 대공분실 피조사자 목록 ····· 29
2.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방식과 수단 ····· 45
   1) 잠 안 재우기 ····· 46
   2) 구타 ····· 47
   3) 볼펜 고문 ····· 50
   4) 관절 뽑기 ····· 51
   5) 통닭구이 ····· 52
   6) 물고문 ····· 53
   7) 전기고문 ····· 58
   8) 협박 ····· 61
      (1) '이재문' 협박 ····· 62
      (2) 성적 굴욕감 ····· 64
      (3) 가족을 인질로 협박 ····· 65
   9) 밥 굶기기 ····· 65
   10) 심리 고문 ····· 67
      (1) 회유 ····· 67
      (2) 피해자 간 불신 강요 ····· 68
   11) '악의 평범성' ····· 69
3. 박종철 고문치사 이후 수사 방식의 변화 ····· 71

3장 고문의 결과 ····· 79
1. 사망 ····· 79
2. 사형집행 ····· 82
3. 고문후유증 ····· 83
4. '간첩 조작'과 장기간 감옥살이 ····· 90
5. '간첩 낙인'으로 인한 고립 ····· 91

4장 고문 중단을 위한 노력 ····· 101
1. 피해자들의 폭로 ····· 101
2. 고문을 폭로한 김근태의 투쟁 ····· 104
3. 인권 및 법률가 단체의 노력 ····· 109
4. 고문이 근절되지 않은 까닭은 ····· 110

5장 고문 가해자 현황 ····· 125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가담자들 ····· 125
2.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재판결과 ····· 127
3. 김근태 고문 사건 재판결과 ····· 130
4. 이근안을 고발한 고문 피해자 ····· 133

6장 고문 피해자가 기억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현황 ····· 139
1. 1층에서 5층으로 바로 연결된 '나선형 계단' ····· 140
2. 고문에 최적화된 조사실 ····· 141
3. '환기창'에 가까운 좁은 창문 ····· 143
4. 고문을 위해 존재하는 '책상과 침대' ····· 143
5. 고문을 위해 존재하는 '욕조' ····· 144
6. 죽음을 상징하는 '칠성판' ····· 145
7. 〈해양연구소〉 철문 ····· 147
8. 도심 한복판의 '고문 밀실' ····· 148

7장 고문 피해자 심층 인터뷰 ····· 153
8장 문헌 자료를 통한 고문 등 인권 피해자 증언 요약 ····· 223
참고문헌 ····· 336

들어가는 말

들어가는 말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0~80년대 당시 중앙정보부(또는 국가안전기획부)의 남산, 서빙고 보안사 분실과 함께 '고문과 폭압정치의 대명사', '독재정권 유지의 최선봉'으로 꼽혔다. 명목으로는 '국가안보'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독재정권에 비판적인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등 '정권안보'를 위해 활동했던 이력 때문이다. 이 기관들은 정식명칭이 있음에도 '남산', '서빙고', '남영동' 등의 별칭으로 불려왔으며, 이는 공포의 대명사였다. 소속기관의 건물과는 별도로 은폐된 독자적인 건물에서 자행해온 밀실수사는 필연적으로 고문, 조작 등 크고 작은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남영동 대공분실 청사는 치안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1976년 10월 2일 신축한 별도의 공간이다. 신설 당시 그곳은 직제상 치안본부 정보과였고, 1980년대 이후로는 내무부 치안본부 대공부의 별칭[1]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남영동' 또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었다. 그곳의 정식명칭이나 법적 근거,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남영역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 그곳은 <해양연구소>[2]라는 위장된 간판을 달고 높은 담장, 위압적인 검은 벽돌 건물,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철제 대문으로 무장한 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수많은 이들이 영장도 없이 끌려가서 면회마저 차단된 상태에서 고문 수사를 당했다. 생사를 확인하려는 가족들의 애끓는 외침은 둔탁한 철문 앞에서 멈췄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법정에서 고문당한 사실을 폭로했지만, 판사는 애써 외면했다. 그래서 그곳은 늘 건재했다.

악명성에 기댄 수사기관은 더욱더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처벌은커녕 고문 호소

---

1) '남영동 대공분실'은 내무부 직제 변경에 따라 정보과, 대공과, 대공부, 대공수사단, 공안분실, 보안분실 등으로 이름이 변경되어왔다. 시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에 걸맞은 명칭을 사용하겠지만, 이 건물을 통칭할 때는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별칭을 상용하기로 한다.

2) <해양연구소>라는 간판으로 위장했던 남영동 대공분실 이외에도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기능했던 치안본부 소속 대공분실로는 <신길산업>이라 불렸던 신길동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신한무역공사>라 불렸던 서울 종로구 옥인동 소재 대공분실(학원·종교담당), <경동산업>이라 불렸던 장안동 소재 서울시경 대공분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공식명칭, 소속 등을 비밀에 부친 채 분실의 간판 역시 위 이름으로 대체하고 있었으며 국가보안법 수사를 전담했다.

자체가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수사관들의 고문은 한층 조직적이고 잔혹해져 갔다. 이처럼 법률적 통제에서 벗어난 금단의 영역이 존재하는 한 1985년 민청련 의장 김근태 고문 사건을 비롯, 잔혹한 고문을 통한 조작사건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많은 피해자의 투쟁은 오랫동안 비밀리에 존재해온 대공분실의 실체를 제한적으로나마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 김근태와 이경일 등 고문 피해자들의 끈질긴 추적은 '성명불상의 고문기술자'의 정체와 남영동 대공분실의 일단을 드러냈다. 특히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곳의 존재와 실체, 그리고 이를 축소 은폐하려 했던 조직의 핵심 실세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대공분실이 수사 공간에서 인권 기념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2005년 7월 26일 허준영 경찰청장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보호센터'로 개칭하고 10월 4일 개소했다. 2008년 6월 10일, 4층과 5층을 박종철 기념전시실 및 인권교육 자료실로 단장했으며, 이후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진 509호가 공개되고 경찰인권사료 전시관도 개관했다. 그리고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할 것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투쟁의 시간을 오롯이 담아낼 <민주인권기념관>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을 신축하고, 세를 확장하고, 운영해왔는지를 확인한다. 내무부 치안본부의 한 부서에 불과했던 조직이 대표적인 인권침해 수사기관이라는 악명을 떨치며 '남영동'이라는 공포의 고유명사를 획득하기까지, 법적인 뒷받침은 어떻게 이뤄졌고 '남영동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단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를 살핀다. 악의 연대기는 한 개인에 의해 쓰이지 않는다. 그러한 악이 상존하도록 조력한 정권, 예산과 인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뒷받침해준 법과 제도, 그리고 '대공'을 필생의 신념으로 여겨온 분단시대의 초상들이 협력하고 연대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1장)

둘째,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고문은 느닷없이 닥쳐왔고, 느닷없이 끝났다." 대공분실의 수사는 고문 그 자체였다. 안기부나 보안사 수사관들이 저지른 고문도 잔혹했지만 남영동 대공분실의 특별한 점은 '완벽한 고문 도

구' 이근안의 존재였다. 박처원의 총애 아래 그가 자행했던 고문 방식을 본 보고서에 정리했다. 박종철의 죽음은 '특별한 사고'가 아니었다. 법률적 통제와 견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은폐된 고문 공간에서 그것은 이미 예견된 참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철 죽음 이후 남영동의 수사방식 변화도 짚었다.(2장)

이어 고문이 가져온 사망, 사형, 간첩조작, 고문후유증을 정리했다.(3장) 그와 함께 고문 피해자가 기억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해 살펴봤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육중한 철문, 층수를 알 수 없는 철제계단, 5층이지만 지하처럼 어둡고 긴 복도, 엇갈려 설계된 취조실 구조, 환기창 크기의 좁은 창문을 가진 취조실,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설계된 문, 소리가 차단된 방음벽 등 건물 자체가 거대한 '고문실'이었다. 김수근이 설계한 이 건물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그가 지은 그 건물에서 십수 일에 걸쳐 수사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건물의 용도와 목적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수년이 지났어도 남영동 대공분실을 떠올리면 "몸에 고문당한 자국 하나하나가 반응"한다고 증언했다. "그때를 떠올리기만 해도 진저리가 나는 기억"을 짚어준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록이 정리의 바탕이 됐다.(6장)

셋째, 고문의 목적은 더 이상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지만, 힘겨운 분투와 뜨거운 연대로 고문에 저항한 노력을 짚었다. 피해 속에 숨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검찰에서, 법원에서 고문을 폭로했다. 변호인들은 고문 수사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통해 고문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은 피해자들의 대변자가 되어 고문을 폭로하고 감시했다. 그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왜 중단되지 않았는가도 짚어봤다. 검찰의 동조, 법원의 외면이 낳은 결과였다. 고문 가해자로 지목되어 기소된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원은 언제나 관대했다.(4장) 고문 수사관들에 대한 재판의 결과도 정리했다. 고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고문은 언제든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5장)

넷째, 남영동 대공분실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이들의 명단을 정리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체포, 구속하여 수사한 인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출범 당시부터 공식명칭은 물론이고 소속, 조직체계, 종사자 등 운영현황 전반 및 법적 근거를 비밀에 부친 채 운영해왔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 다만 1988년 언론보도[3]를 통해 구속자 수치를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남영동 대공분실 5공화국 때 시국사범 379명 구속신청 내무부 국회 보고", 한겨레, 1988.9.17.

1988년 9월, 내무부가 국회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에서 1987년까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은 뒤 구속 기소된 시국 관련자는 모두 379명이다. 연도별로는 △1980년 40명 △1981년 21명 △1982년 10명 △1983년 2명 △1984년 6명 △1985년 48명 △1986년 147명 △1987년 105명 등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재)진실의 힘이 집계한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령 1980년만 보아도 학림·무림사건, 기자협회 집행부 집단구속, 경향신문 사건 등으로 인한 구속자는 56명으로 집계됐다. 내무부가 2명 구속이라고 밝혔던 1983년의 경우 야학연합회 사건,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등 구속자가 최소 20명으로 집계됐다. 비단 그 당시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도 양심수 통계를 제대로 내놓은 적은 없다. “범법자만 있을 뿐, 양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 정권의 공식 입장이었다. 고문과 조작 시비로 얼룩진 남영동 대공분실이 구속자 수치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여기에 실린 명단은 (재)진실의 힘이 각종 문헌, 피해자 증언, 가족 호소문, 보고서, 재판기록, 신문기사 등을 참고로 정리한 것이다. 폭넓은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민간단체의 한계와 조사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누락된 명단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누가, 언제, 어떤 일로, 얼마 동안 그곳에서 고통의 시간을 견뎠는지를 조사하는 일은 기념관 설립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문 피해자 54인의 개인 파일을 정리했다. 문헌, 출판물, 기사 등을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8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도 준비했다. 심층 인터뷰는 글을 통해서는 느낄 수 없는 당시의 긴박한 현장감,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는 고문 및 가혹행위의 기억을 담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남영동은 어떤 곳인지, 더 나아가 남영동이 어떤 곳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에 관한 피해자들의 육성이 날것으로 담겨 있다. 과거 고문의 현장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성찰의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장

남영동 대공분실 개요:
남영동 대공분실의 탄생과 대공파트 확대의 과정

1장. 남영동 대공분실 개요: 남영동 대공분실의 탄생과 대공파트 확대의 과정

남영동 대공분실의 역할과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곧 경찰조직에서 '대공' 파트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을 통해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1970년대 대공수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보인 곳은 주로 안기부와 보안사였다. 그러나 치안본부(경찰)는 1979년 남민전 사건을 시작으로 대규모 공안사건을 다수 터뜨리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경찰조직에서 한직이었던 대공수사 파트는 가장 높은 승진율을 자랑하며 경찰 내 주요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조직 규모도 비약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남영동 대공분실로 통칭되는 대공수사단의 존재가 있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용산구 갈월동 98-8번지)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계획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했을까.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남영동 대공분실은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김치열이 발주하고,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를 맡아 1976년 10월에 설립됐다. 그즈음, 내무부 치안국은 직제 개정을 통해 정보2과를 신설한다. 그때까지 정보과가 함께 담당했던 대공수사, 간첩 및 사회안전사범 수사업무를 분리해서 지도하는 부서가 새로 설치된 것이다. 정보2과가 신설될 즈음, 눈에 띄는 점은 치안본부 정보과 박처원이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1975년 12월)한 사실이다. 조직을 뒷받침하는 법제 및 조직을 채워 넣을 책임자가 준비되면서 대공수사를 위한 별도의 독자적인 공간이 설립된다. 이로 미뤄볼 때, 남영동 대공분실 신축은 정권 차원의 대규모 주요 사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치안국 건물과는 별도로 은폐된 공간을 신축하기로 한 점은 당시 맹위를 떨치고 있던 보안사의 서빙고 분실, 중정의 남산 분실을 염두에 둔 기획이었을 것이다.

제5공화국 출범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은 조직의 위상과 인원 구성에서 치안국 시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격상한다. 특히 1986년 5월 국가안전기획부의 '국가대공기능 강화방안'에 의거, 치안본부에 대공 업무를 담당할 '제5조정관'을 신설했는데, 그 자리에 앉은 이가 박처원이다. 3개 과였던 대공부는 모두 9개 과로 확대 개편되었고, 그 당시 209명의 대공 경찰이 증원되었다. 1987년 1월 박종철 열사 치사사

건이 발생하기 직전, 대공분실은 개소 이래 조직 확장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치안본부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립을 살펴보고, 이곳이 어떻게 대공수사의 근거지로 작동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주목하려는 점은 '대공수사의 사령탑이자 대부'로 알려진 박처원이라는 인물이다. 대공분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은 '박처원'의 승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결국 남영동 분실은 '박처원 사단'의 근거지였던 셈이다.

1. 치안본부 시대와 남영동 대공분실 설립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6년 당시 내무부장관 김치열이 발주하고,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해서 완성한 건물이다. 김수근이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와 건축에 관여하게 된 사정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그가 "특히 정치인들과의 인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것의 유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4]"으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람이었고, 가급적이면 그들의 이해관계를 잘 맞추어주려고 노력"[5]했다는 주장과 워커힐(1961년), 자유센터, KIST 본관(1967년), 올림픽 주경기장 설계 등 중요한 관급 공사를 맡을 때마다 빠짐없이 김종필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당시 발주자 입장에서 김수근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설계할 적임자였을 것이다.

남영동 대공분실 신설 당시 내무부장관으로 공사 발주를 한 김치열은 1970년 1월 중앙정보부 차장을 거쳐 1974년 검찰총장, 1975년 12월 내무부장관으로 입각했다. 박정희 정권을 지탱한 주요 기관의 수장을 거쳐온 김치열의 이력에 비춰볼 때 대공분실을 신설한 목적은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1976년이 경찰조직에서 대공 업무만을 전담하는 파트가 신설된 때라는 점이다.

해방 전후 이데올로기의 혼란 속에서 대공 업무는 일반 정보업무와 함께 북한의 대남공작 분쇄 및 국내의 용공혁신 계열의 소탕에 역점을 두고 전개되어 오다가 점차 대공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1976년 4월 15일자 대통령령 제8078호 등에 의하여 치안본부,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경

4) 정인하, 「김수근 건축론: 한국 건축의 새로운 이념형」, 도서출판 미건사, 1996, 18쪽.
5) 위의 책, 같은 쪽.

찰국 및 인천, 마산시를 포함한 시·도경 소재지 44개 경찰서에 대공 업무를 전담하는 정보2과를 설치.[6]

일반정보과로 함께 묶여 있던 1) 대공에 관한 첩보 수집 및 분석 2) 간첩 및 사회안전사범의 수사 및 수사지도[7]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2과를 신설한 것이다. 본부만이 아니라 전국 44개 경찰서에도 설치했다. 그에 따라 대공 인원도 대폭 확대되었을 것이다. 실로 엄청난 확장세였다.

이처럼 1976년 남영동 대공분실 설립의 의미는 단순히 경찰 소유의 건물을 하나 더 지은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박정희 정권을 떠받쳐온 중앙정보부 차장, 검찰총장을 역임해온 자가 발주했다는 사실과 바로 그해 경찰조직에서 대공부서가 독립적으로 신설되어 전국에 걸쳐 새롭게 설치된 점 등에 비춰보면,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 대공업무를 기획·지도하는 사령탑이자 정권 차원의 핵심사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건물을 지은 이는 당시의 대표적인 건축가로서 용도에 걸맞은 건물을 설계할 줄 알았던 이다. 건축가 김수근이 이 건물의 용도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가 지어놓은 그 건물에서 십수 일에 걸쳐 수사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건물의 용도와 목적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설립 당시부터 건물 자체가 수사기관으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하도록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법적으로도 대공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떼어 권한을 주는 등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제5공화국의 등장과 '대공과' 신설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정보2과는 '대공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대공분실'이라는 별칭이 붙은 때도 그즈음으로 미뤄볼 수 있다[8]. 1981년 6월 18일 내무부 직제 개

6) 경찰청, <한국경찰사> 제4권 제3편, 1116쪽.
7) 내무부 직제, 대통령령 제8078호, 1976.4.15., 일부개정.
8) <한국경찰사>(경찰청)에 따르면 1983년 12월 4일, 대공과 5계(관리반, 지도반 및 5분실)와 대공분실을 '대공수사단'으로 통합했다고 한다. 경찰청, <한국경찰사> 제4권 제3편, 1117쪽.

정(대통령령 제10355호)에 따라 치안본부 제4부[9]에 신설된 '대공과'가 포함되었다. 이 개편을 통해 '대공'의 개념이 등장했다. '공산주의(자)를 상대'하기 위해 신설된 대공과는 1) 대공경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대공에 관한 첩보 수집 및 분석 3) 간첩 및 사회안전사범에 대한 수사 및 수사지도를 도맡았다. 그동안 정보과에서 분장해오던 대공 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신설한 '대공과'로 전면 이관한 것이다.

정보과에서 대공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전 국민 모두가 대공요원"[10]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전두환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쿠데타와 학살을 통해 정권을 쥔 전두환 체제가 은신할 수 있는 곳은 '북한으로부터 위협'이라는 과장된 주술뿐이었을 것이다. '정보과'라는 단순한 정보 수집에 국한된 제한적 의미에서 적극적 대응의 의미가 강한 '대공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대공파트는 제5공화국 내내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며 명실상부 경찰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나아간다. 대공파트의 주요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다.[11]

〈표〉 제5공화국 대공파트 주요 변천과정(1980년 초반)

시기	변천 내용
1981.6.18.	·내무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0355호) ·제3부장 산하의 정보1·2과를 제4부장 산하로 조정 ·정보2과를 대공과로 개칭
1981.12.1.	·대공과 4계 설치 ·4계는 3계의 분석반 및 내외정책연구소 관장
1982.2.13.	·대공과 4계를 1계에 통합
1983.7.1.	·대공과에 5계(관리반, 지도반 및 5분실) 설치 ·5계는 좌경의식화 업무 전담 및 내외정책연구소 관장 ·1계의 분석반을 3계로 개편

9) 1981년 6월 직제개편 이전에는 치안본부 제3부 산하에 정보과를 두어서 "대공정보의 수집, 분석과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 및 수사지도"를 담당케 하였으나, 1981년 6월 직제개정을 통해 치안본부 제4부 산하에 대공과를 따로 설치한 것이다.

10) 1981년 1월 대간첩대책 중앙회의를 직접 주재한 전 대통령은 "대공사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고정간첩이나 불순세력이 합법을 가장하여 잠입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은 "이들은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여 민심을 교란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고자 획책하고 있으므로 관 기관은 물론 전 국민 모두가 대공요원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철저히 색출, 분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전 대통령 대간첩대책회의 유시", 경향신문, 1981.1.21., 12면.

11) 경찰청, 앞의 책, 1117쪽 참고.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충남, 전남 경찰국에 좌경의식화 업무 전담부서 설치
1983.12.4.	·5계와 대공분실을 '대공수사단'으로 통합 ·대공수사단은 관리계, 공작1과, 공작2과로 구성하고 내외정책연구소를 설치
1984.3.1.	·서울시내 파출소(552개)에 대공형사 배치
1984.6.1.	·대공과 3계에 북한반 설치
1985.9.20.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경찰국에 좌경의식화 업무 전담부서 설치

3. 대공 분야의 확대과정(1986년)

1986년은 대공부서가 두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조직 확장의 정점을 이룬 해였다. 첫 번째 개편은 1986년 1월 28일 이뤄진 내무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1851호)을 통해 그동안 '과(科)' 체계였던 경찰부서가 '부' 체계로 상향 조정된 일이다. 이에 따라 '대공과'는 '대공부'로 승격, 산하에 대공1과, 대공2과, 대공수사과 등 3개 과를 두었다.

3개 과로 증설된 것도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이는 앞으로 다가올 확대 개편에 비하면 소박한 것이었다. 당국은 5.3인천사건[12]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탄압에 돌입한다. '극렬좌경학생' 및 폭력시위의 배후로 민통련(의장 문익환, 부의장 계훈제, 사무국장 장영달 등)을 지목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시위사건은 '소요사태'로, 대학생들의 시위는 '극렬좌경', '좌경의식화' 등으로 규정되면서 단순 시위 가담자들도 대거 체포되기 시작했다. 위기에 몰린 전두환 정권의 대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짜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다. 최근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인천 5.3시위사건> 관련 기록물에 따르면, 안기부는 5.3시위사건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구속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 조정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

12)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열린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경인지부 결성대회 날, 서울과 인천 등지의 재야 민주세력이 총집결하여 시위를 벌였다. 대학생, 노동자, 재야단체 등 수천여 명의 시위대는 직선제 개헌, 독재정권 타도, 보수대연합 반대를 외쳤다. 당국은 319명을 연행, 129명을 구속했다.

은 '국가대공기능 강화방안'[13]이다. 안기부가 마련한 이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다만 국가안전기획부법상 안기부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제2조1항5호)' 및 '정보조정협의회 규정'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근거해서 이 방안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경찰의 대공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안기부, 보안사 전반으로 확대된 계획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1986년 보안경찰 변천과정[14]

시기	변천 내용
1986.1.1.	·5대 도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파출소(478개)에 대공형사 확대 배치 ·서울시내 파출소 대공형사 포함 1,030명 정원 확보
1986.1.18.	·내무부 직제개정으로 제4부장을 제4조정관(제4차장)으로 치안본부 대공과를 대공부로 외사과를 외사관리실로 개편 ·대공부를 대공1과, 대공2과, 대공수사단으로 구성
1986.7.24.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을 대공수사 1단(대간첩공작 전담) 및 대공수사 2단(좌경의식화 전담)으로 분리
1986.10.27.	·내무부 직제개정으로 제5조정관 신설 ·제5조정관 산하에 대공1부(대공 1·2·3과), 대공2부(대공수사 1·2·3과), 대공3부(대공수사 4·5·6과)를 둠
1986.10.27.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전남 경찰국에 대공과 3계 신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시내 경찰서(45개)에 대공과 3계 설치 ·경찰대학 부설 대공간부연구소 설치 ·경찰종합학교 대공학과 설치
1987.1.7.	·내외정책연구소 운용강화 계획 ·대공 3부장이 겸임한 연구소장을 제5조정관이 겸임토록 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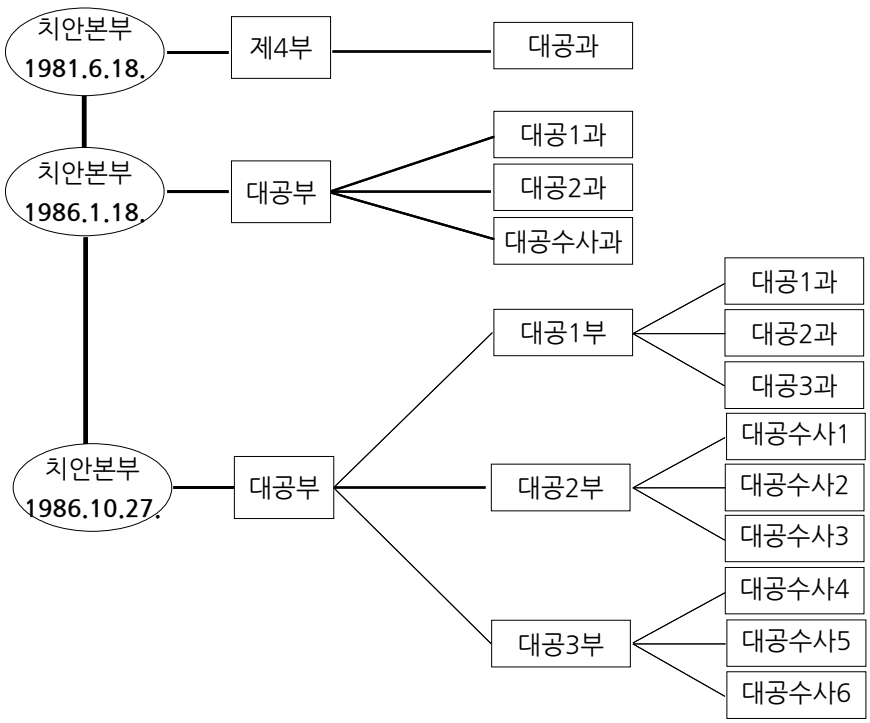
안기부의 '국가대공기능 강화방안'에 따라 10월 27일 치안본부 대공부는 전면적인 대규모 개편(직제개정, 대통령령 제11985호)을 단행했다. 첫 번째 개정을 통해 확

13) 경찰청, <한국경찰사> 제4권 제3편, 제6장 보안경찰 연혁, 1116쪽.
14) 위의 책, 1117쪽 참고.

대된 대공부는 대공1부, 2부, 3부로 더욱 확장되었으며 특히 대공수사과는 대공수사 1과에서 6과까지 세분화되어 설치되기에 이른다. 이 대공업무를 총괄할 직책으로 '제5조정관'을 신설하는데, 이때 제5조정관으로 임명된 이가 박처원이다. 3개 과에서 9개 과로 확대 개편된 대공부에는 대공요원 209명이 증원된다. 그리고 대공기능 강화를 위해 1987년까지 대공경찰 전문요원 1,045명을 증원[15]키로 했다.

특이한 점은 '좌경의식화사범'이라는 다소 애매하고 추상적인 용어가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는 5.3인천사건 이후 당국이 나서서 민주화운동 세력을 '급진좌경', '용공'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펼친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런 프레임을 통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반공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던 국민들과 분리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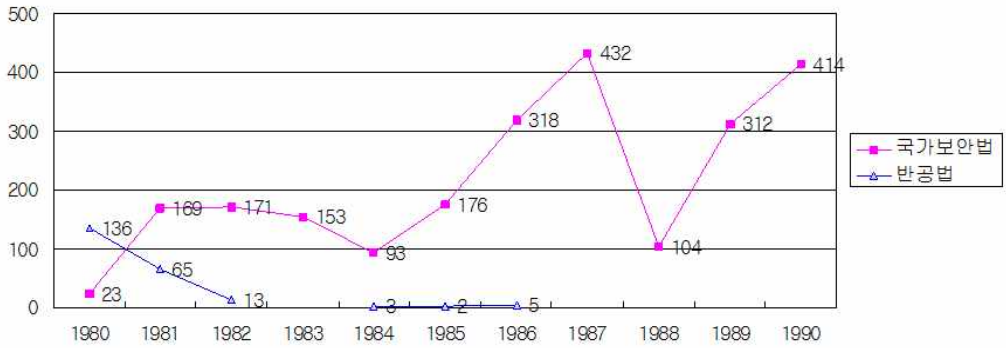
〈표〉 제5공화국 대공부 변화과정



15) "대공기능 강화", 경향신문, 1986.10.2., 11면; 당시 내무부장관 김종호는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급진좌경세력의 확산은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국기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이의 확산을 방지하고 뿌리 뽑기 위해 치안본부에 대공담당조정관을 신설하고 시도경찰국에 대공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공안기능을 강화"했다고 답변했다. "국회본회의 속기록", 경향신문, 1986.10.30., 5면.

대공관련 부서의 무한정 확대는 19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시국사건에 대한 용공조작 시비, 대량구속 사태를 빚어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아래 <표>[17]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기소사건(사법연감 통계)을 보면 1986~87년에 구속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국가보안법·반공법 기소인원



그 시기는 전두환 군사독재를 반대하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학생운동을 넘어서 노동자, 시민들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때다. 당국은 시민들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국기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안 드라이브를 가속화했다. 이때 '대공분실'은 당국의 정책과 의지를 직접 반영하는 행동대 역할을 했으며, 당국은 1986~87년 대공경찰 전문요원 1,045명을 증원키로 하는 등 그 역할을 한층 강화시켰다. 대공수사기관의 난립과 대공경찰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실적 올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마구잡이 체포사태를 유발시켰다. 아울러 박종철 고문 살인사건을 비롯, 숱한 고문시비를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4. 박종철 열사의 죽음과 박처원 사단

1987년 1월 15일, 중앙일보 석간에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라는 2단 기사가 실렸다. 다음 날인 1월 16일 강민창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치안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냉수를 몇 컵 마신 후 심문을 시작, 박종철 군의 친구의

16) 내무부 직제개편
17)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통계분석: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민가협 편, 2003., 재인용.

소재를 묻던 중 책상을 '탁' 치니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중앙대 부속 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사망하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고, 강민창은 다시 4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욕조에서 자행한 물고문으로 인한 사망이었음을 시인한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조한경, 강진규 등 고문경찰관 2명 구속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이는 사건을 축소 조작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임이 드러난다.

당시 치안본부 제5조정관으로 대공업무 최고책임자였던 박처원은 조한경, 강진규에게 "더 이상 대공요원을 희생시키지 말고 두 사람이 책임지고 교도소에 가라"고 범인 축소 조작을 설득했으며,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이 "양심선언 하겠다"고 말하자 "대공조직과 국가를 위해 조용히 있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조한경, 강진규 명의로 5천만 원짜리 개발신탁장기예금을 2계좌씩 개설해주며 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결국 박처원은 구속되었다. 1996년 대법원에서 '박종철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숫자를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고문경관이 허위진술 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1) 박처원 연보

남영동 대공분실의 역사는 '대공수사의 대부' 박처원이 걸어온 길과 맞닿아 있다. 1927년 평남 진남포에서 태어난 그는 해방 직후 단신으로 월남[18]하여 1947년 5월, 약관 20세에 종로경찰서 사찰계 대공형사(순경)로 경찰관 생활을 시작했다.

17살 때 평양에서 반소(련) 운동을 했고, 남조선에 내려와서 종로경찰서에 들어가 '빨갱이를 잡겠다'는 일념으로 경찰 대공과를 지망했고, 밑바닥에서부터 30년 동안 일해 왔다는 거야. '내 손으로 수천 명을 잡아넣고 골로 가게 만들었지'라면서 자랑을 해요. 자기 둘째 손가락을 보라고 하더군. 보니까 굳은살이 잔뜩 나와 있더라구요. '30년 동안 펜대를 잡고 빨갱이 잡는 조서를 밤낮으로 쓴 그 유물이 바로 내 둘째 손가락의 뚝살이오' 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19]

18) 평남에서 태어난 박처원 씨가 광복 직후 단신 월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박 씨와 함께 일했던 이들의 증언이 있다. "박처원 씨는 원래 북한에서 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를 비롯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집 마당에서 공산당한테 총살을 당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남한으로 도망쳐 내려와 20대 초반의 나이로 경찰에 투신했고, 남대문 서장 등 좋은 자리 다 준다 해도 사양하고 대공에만 매달린 사람입니다." 하종대, [발굴취재_조한경 인터뷰] "두 번 자살 시도했죠. 이름도 바꿨습니다", 신동아, 2000.1.

19) 리영희·대담 임헌영, 「대화」, 한길사, 2006., 485~488쪽.

1977년(「8억인과의 대화」등 출판)과 1983년(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사건), 두 차례에 걸쳐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취조를 당한 리영희 교수는 두 번째 연행됐을 때 박처원 방으로 불려 갔다. 박처원은 손가락을 보여주며 30년 동안 빨갱이를 잡아왔다면서 "자기의 행위를 윤색하지 않은 언어"로 자랑했다. 1977년 구속 당시 리영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는 장례식장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박처원은 그 일을 상기하며, 그 모든 사항을 결정한 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했다. 당시 중앙정보부에서는 「8억인과의 대화」등 세 권의 책만으로는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반대했는데, 박처원 자신이 "만약 리영희를 잡아넣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공 사찰의 기둥인 나를 잡아넣으라고 했다"며 고집을 부렸다. 청와대로 직접 올라가서 리영희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고 결국 관철시킨 이가 자신이라고 했다.

"첫 번째 사건의 재판 때 당신은 석방될 수 있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었고, 모친 돌아가셨을 때 최소한 분향이라도 하게끔 잠시 나갈 수도 있었지.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못 하게 한 것이 사실은 나야"라고 하더군. 모든 대공 관계사건은 정부의 5개 부처 합동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사실 중앙정보부에서는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우상과 이성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는 반공법으로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요. 학자가 쓴 중국혁명 관계의 객관적 내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요. 자기가 고집해서 뒤집어 놓았다고 자랑하더군. 그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 전환시대의 논리로 '젊은 애새끼'들이 전부 '빨갱이'가 된다며, 또 이런 책이 나오면 '우리가 해방 후 40년 동안 공들여 세운 반공국가의 토대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생겼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정보부에서 그 따위의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나에게도 견제가 들어왔지만, 만약 리영희를 잡아넣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공 사찰의 기둥인 나를 잡아넣으라고 했다'는 거야. 자기가 청와대로 직접 올라갔대요. '리영희는 이번 기회에 유죄판결하고 뽄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상통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내 부하들이 조서를 꾸밀 수가 없다. 여하간 법률적인 것과 관계없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유죄판결을 내려야 하고 징역을 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나오면 반공법 위반으로 때려잡도록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더군.[20]

스스로 자신을 '대공 사찰의 기둥'이라고 생각한 박처원은 1947년 종로서 사찰계로 대공경찰에 입문한 이래, 박종철 고문치사 진상조작 및 은폐 사건의 최고책임자로 옷을 벗은 1987년까지 만 40년 동안 대공 분야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해방 후 40년 동안 공들여 세운 반공국가의 토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로 인해 그에게는 '대공수사의 산증인', '대공경찰의 대부'라는 별칭이 붙었다.

20) 위의 책, 같은 쪽.

아래 표는 박처원의 승진 연보로, 총경으로 승진한 1975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1982년, 치안감으로 승진한 1986년 10월은 경찰 내 대공파트가 일정한 세를 형성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대공파트가 정보과로 따로 분리되거나, 남영동 대공분실이 신설되거나, 정보과가 대공과로 변경 또는 대공부로 확대 개편된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치안감으로 승진한 시기는 대공업무에 관하여 치안본부장을 직접 보좌하는 제5조정관을 신설한 때다. 박처원은 대공파트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거나 직책이 신설될 때마다 그 첫 번째 사령탑으로 오른 유일한 인물이다.

박처원은 총경과 경무관으로 승진했어도 "남대문 서장 등 좋은 자리 다 준다 해도 사양"[21]하고 "대공수사 현장이 좋다"며 대공경찰의 길만 걸어왔다. 그는 일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 국장 등과 같은 자리를 거치지 않고도 치안감 자리에 오른 (1986년) 경찰 내 유일한 경력자다. 40년간 대공업무만 맡아오면서 대공경찰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치안본부 제5조정관으로 부임했다.

〈표〉 박처원 연보[22]

시기	직위	소속	비고
1947.5.~	순경	종로서 사찰계	·사찰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경찰조직에서 대공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부서 ·남로당 지하조직 적발, 국회 프락치사건 등 수사
1960.	순경	종로서 사찰계	
1960.11.4. ~ 1966.	경위	전북 정보과	·1966.6.25. 개야도 간첩 검거 공로로 일 계급 특진
1966.6.25. ~ 1970.6.	경감	서울시경	
1970.6.17. ~ 1975.	경정	치안국 정보과	·1973.5. 5·16민족상 수상
1975.12.8. ~1982.	총경	치안본부 정보과 치안본부 대공과 대공분실장	·1976.10. 남영동 대공분실 신설 ·1981. 정보과에서 대공과로 개칭 ·1983.12. 대공수사단 신설과 함께 단장 취임
1982.6.1.	경무관	치안본부장 보좌관	·대공과, 대공부로 격상

21) 하종대, 앞의 기사, 이 인터뷰에서 조한경은 상급자로 모신 박처원 씨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1982.12.24.	경무관	대공과장	
1986.1.28.	경무관	치안본부 대공부장	·대공부에 대공1과, 대공2과, 대공수사과 등 3개 과 확장
1986.10.24.	치안감	대공수사 1단장 치안본부 5차장	·대공업무에 관하여 치안본부장을 보좌할 '제5조정관' 신설, 박처원 취임
1987.5.29.		구속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조작 지시

2) 이근안 발탁과 박처원 사단

박처원은 1980년 3월 25일, 당시 경기도경에서 근무하던 이근안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발탁, 주요 사건의 수사를 맡길 정도로 총애했다. 이근안은 1970년 순경에 공채된 후 1972년 8월경 치안본부 정보과 대공분실로 발령받아 본격적인 대공수사를 시작했다. 이때 분실장, 총경으로 재직하던 이가 박처원이었다. 최소한 그때부터 이근안은 박처원을 상사로 "모셨다." 1974년 7월 29일자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전근되었던 이근안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다시 오게 된 것은 1979년 남민전 사건 때다. 이근안은 박처원의 연락을 받고 남영동으로 와서 이재문을 수사했다. 그해 청룡봉사상을 받았고, 이어 1980년 3월 남영동 대공분실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이근안은 1999년 검찰 조사 시 김근태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박처원이 전화를 해서 올라오라고 하였고, '김근태가 10일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이근안 네가 나서서 신문을 해봐. 어설피 해서는 입을 안 열 거야' 해서 관여했다"[23]고 밝혔다. 1988년 12월 김근태를 고문한 이가 이근안임이 밝혀지자 그에게 도피를 지시하고 도피자금을 건넨 이도 박처원이었다.

그 과정에서 박처원은 이근안 등 대공수사관들을 적절히 불러 모아 사건을 맡겼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특진의 계기를 만들어줬다. 심지어 대법관이나 판사로부터 '격려금'을 받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다. 43일간의 불법감금과 고문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한 함주명 사건 당시 이근안은 "실황조사를 잘했다 하여 작성 요령을 책으로 작성하여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며 존함은 모르나 박처원 실장을 통해 어느 대법관님으로부터 격려금 100만 원을 받은 바 있"[24]다고 밝혔다. 또한 이근안은

22) 박처원 진급 관련 사실은 해당 시기 언론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23) 이근안, 진술서, 서울지방검찰청, 1999.

“이장형 사건에서 이재훈 부장판사로부터 격려금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장형 사건 역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대표적인 고문조작 사건이다.

이처럼 박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조직관리 방식을 통해 충성심 강한 ‘박처원 사단’을 형성[25]해나갔다. “국가를 위해서, 대공조직을 위해서”라는 특유의 사명의식과 의리를 강조한 그는 부하들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감싸고 돌봐주며 박처원 사단을 결속[26]시켜 나갔다.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5·16민족상 등 대공업적으로 받은 상훈만도 무려 40여 가지[27]에 달한다. 그런 만큼 대공경찰 조직에서 그의 지위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시대는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박처원은 과거의 대공수사 방식을 답습하면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진두지휘했다. 그가 치안감으로 승진한 시기는 전두환 정권의 후반기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격하게 일어날 즈음이었다. 그는 대공부서를 경찰 역사상 최대의 조직으로 확장시키고 대공경찰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정권의 위기를 막아서려고 했다. 민주화 세력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고문 및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국가안보’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정권안보’용이었다. 그는 엄밀히 말하면 대공통, 대공수사의 대부가 아니다. 정권안보의 첨병이었으며 최전선이었다. 무한정 확장된 조직은 결국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는 곧 박처원 사단의 종말이었고, 그들을 떠받친 독재정권의 무덤이었다.

3) 박처원 사단의 몰락

비밀리에 대공업무를 수행하며 철저히 감춰졌던 박처원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박종철 치사사건을 은폐 지시한 주범으로 밝혀지면서부터다. 1987년 5월 29일, 5차장 박처원과 경정 유정방(대공수사 2단 5과장) 및 박원택(대공수사 2단 5과 2계장)은 범인 축소·은폐 조작 모의 혐의를 받아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구속됐다. 치안본부는 그날 3명을 즉각 파면 조치하고 직위 해제했다. 전두환 정권은 박처원 사단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러한 눈가림식 대처는 오히려 전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박처원은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최종 유죄판결이

24) 이근안, 진술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기록 30쪽, 1999.
25) 손원제, “박처원 전 치안감 누구?”, 한겨레, 1999.11.16.
26) 문병호, “40년 외길, 대공수사의 대부”, 중앙일보, 1987.5.29.
27) 부형권, “박처원은 누구?”, 동아일보, 1999.11.16.

확정됐다. 이후 구속 4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비록 직위는 해제되었지만 그 뒤로도 고문경관들의 대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다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 때는 이근안이 자수한 1999년이었다. 박처원은 1988년 12월 21일자 한겨레에 김근태를 고문한 고문기술자는 '이근안'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이근안에게 도피를 지시했다. 이때 1,500만 원의 도피자금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비자금은 카지노업계 인사가 경찰발전기금으로 줬다는 10억 원 중 일부였다. 그 비자금이 이근안 도피자금으로 전달된 사실을 두고 이근안의 도피 배후에 치안본부의 조직적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놀라운 점은 이미 1987년에 파면 및 직위해제 된 박처원이 현직에 있던 이근안에게 도피를 지시했고 이근안이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 그리고 박처원이 퇴직할 때 경찰 총수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공식적 파면 후에도 박처원의 세는 여전했음이 입증된 것이다. 박처원은 다시 한 번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서울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박처원이 "고령인 데다 혈관성 치매 등 병환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28]고 밝혔다.

그 후 박처원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2014년 9월 사망했다. 자신이 저지른 고문 조작에 대해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4) 대공수사단의 '패밀리 의식'과 특진제

흔히 대공수사 관련 경찰들은 "국가안위를 쥐락펴락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고, 대공수사단 특유의 사명의식과 충성심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근안이 10년 10개월간 도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를 뒷받침해 준 대공수사단 특유의 '패밀리 의식'이 한몫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의 강고한 동류의식을 짐작케 했다. 하지만 대공조직이 특별한 조직풍토를 견지할 수 있었던 점으로 '특진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중요범인 검거 등 유공자에 대해 수시로 심사 임용함으로써 특진의 영예성 제고와 유공자의 사기진작 고양"을 위해 특진제도를 운용[29]해왔다. 그런데 경찰 자료를 살펴보면 이 특진제가 유독 대공(보안) 요원들에게 편중되었다

28) 김영화, "박처원 전 치안감 집유", 한국일보, 2000.5.24.
29)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대공수사가 승진을 위한 지름길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1960년대 이후 대공사찰과 간첩 색출에 주력해왔는데, 그 방안으로 (1) 간첩을 체포한 경찰관은 일 계급 특진시키며 (2) 현상금을 지급하고 (3) 신분보장을 해줬다[30]. 이 방안은 꽤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례로 1988년 10월 치안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31]를 살펴보자. 이 자료에 따르면 1986년 이후 경장, 경사, 경위, 경감 특진자는 모두 564명이고, 이 가운데 시국관련 수배자 검거 등 대공·정보 분야의 유공 특진자가 142명(25.2%), 청와대 경호경비, 시위진압 경비 등 경호경비 유공자는 200명(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범죄를 해결하는 수사분야에서 특진한 경우는 전체의 10.6%인 60명에 지나지 않아 민생치안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1998년 국정감사 자료[32]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가운데 한총련 수배자 검거 등 보안사범 검거로 특진한 보안분야 인력이 전체 특진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한 해 동안 전체 특별진급자 823명의 32.7%인 269명이 보안사범 검거(한총련 수배자 238명, 보안사범 29명, 간첩 2명)로 특진했다. 또한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9월 3일까지 특진한 수사관 204명 가운데 한총련 수배자 및 보안사범 검거(보안사범 12명, 한총련 수배자 51명, 간첩 1명) 등으로 특진한 수사관은 전체 특진자의 31.4%인 64명에 달했다.

〈표〉 경찰의 공적별 특진내역

시기 \ 내역	계	범인 검거	직무 탁월	청룡 봉사상	보안사범 검거	경호 경비	한총련 수배자 검거	간첩 검거	정보활동 유공	노동법 반대 수배자 검거	기소 중지자 검거	기타
1997	823	408	57	4	29	7	238	2	21	2	5	50
1998 9.3.	204	77	10	5	12	19	51	1	1			28

1998년 기준 전체 경찰인력 9만 555명 가운데 보안분야 근무인원은 4,200명으로

30) “간첩 꼼짝할 수 없게”, 경향신문, 1960.5.25.
31) “대공 경호경찰 특진 65% 수사분야 11%, 시국치안 치중”, 한겨레, 1988.10.21.
32) 경찰청, <1997년, 1998년 경찰 특진내역>, 1998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민가협 편, 2003, 326~329쪽.

4.6% 정도[33]인 데 반해 국가보안법 관련 특진율은 30%를 웃도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대공·보안수사 업무가 빠른 승진코스로 여겨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5. 경찰청으로의 개편과 '보안수사대'

익명으로 존재해온 대공분실은 1987년 고문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최초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당시 치안본부는 "대공수사 부서는 시국사건 수사에서 일체 손을 떼기로"[34] 하는 등의 유화적인 조치를 발표[35]하기도 했다. 1989년 8월 7일 대공수사 5과 및 6과가 폐지[36]됐다. 한때 남영동 분실을 폐쇄하고 홍제동으로 신축 이전[37]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남영동 대공분실은 2005년까지 운영되었다.

경찰조직은 1991년 5월 31일 경찰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내무부장관 보조기관인 치안본부에서 내무부장관 소속 외청인 경찰청으로의 개편[38]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각 체계 역시 변화를 맞게 되는데, 치안본부의 대공부는 경찰청의 '보안국'으로 개편되고, 보안국 산하에 보안1과부터 보안5과까지를 두었다. 이는 기존 치안본부에서의 대공과 조직보다는 축소된 것이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직제개정을 통해 보안국은 더욱 축소되었다. 1994년 직제개

---

33) 경찰청, 1998년 행자위 국정감사 제출자료; 민가협, <국가보안법 적용상 인권실태보고서> 재인용

34) "대공수사 부서는 시국사건 수사에서 일체 손을 떼기로", 조선일보, 1988.12.31.

35) 치안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당시 순수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대공수사 3과를 폐지, 대공2부 전체인원 129명 중 45.7%인 59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시국·공안 사건 수사를 해온 홍제동 대공분실 대공수사 6과도 폐지해 대공3부 인원 100명 중 38명을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치안본부 대공분실 축소", 중앙일보, 1989.1.17.

36) 이 시기에 개정된 내무부 직제를 살펴보면, 그동안 사실상 업무가 중복되던 대공수사 2과(국내의 간첩 및 반국가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와 대공수사 3과의 업무(해외에 거점을 둔 간첩 및 반국가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가 대공수사 2과('국내외에 거점을 둔…' 으로 개정)에서 단일하게 처리하도록 개편되었고, 학원 및 문화 분야의 좌경의식화 사범에 대한 수사를 분장하던 대공수사 5과와 노동 및 종교 분야의 좌경의식화 사범에 대한 수사를 분장하던 대공수사 6과를 폐지하고, 대신 대공수사 4과에서 이 모두를 아울러 좌경의식화 사범에 대한 수사를 분장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내무부 직제(대통령령 제12768호)

37) 1988년 10월 13일 학원·시국 사건을 전담하는 대공수사단 대공3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8 소재 신축청사로 이전하였다. 김선수, "신체의 자유", 「인권보고서 1987·1988 제3집」(대한변호사협회),, 역사비평사, 1989.

38) 경찰의 기본조직을 중앙은 기존의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인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 소속하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하고, 지방은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인 시·도 경찰국을 시·도지사의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법제처, <대한민국법제 50년사>, 1999.

정(1994.5.4. 대통령령 제14250호)으로 보안5과가 폐지되었고, 1999년 5월 24일, '좌익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해왔던 보안4과가 폐지되었다(행정자치부령 제00052호).

남영동 대공분실은 2005년 7월 26일, 경찰청 인권센터로 개소하기까지 보안국 보안3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지속했다.

6. 남영동 그 후, 지금도 여전한 '보안분실'

대공분실은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될 때 대공과가 보안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안수사대'로 변경됐다. 보안수사대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수사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국정감사 자료), 보안과장과 직급이 동일한 총경급의 보안수사대장이 지휘를 맡았다.

보안수사대는 1996년 12월 안기부법 개정 파동 당시, 내무부가 기존의 30개에 이르던 지역별 보안수사대를 39개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 '보안역량 강화계획'[39]을 발표한 이후 서울경찰청 산하에 구로수사대를 설치했다.

1998년 국감자료(행정자치위)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원감축 문제가 논란이 되던 98년 한 해 동안 오히려 5곳(강원 동해, 충남 서산, 전북 정읍, 전남 광양, 경남 통영)에 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안수사대는 2002년 현재 44곳에 설치되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로 보안법 수사를 지속했다.

2000년 초반 전국 보안수사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9) 국가보안법 7조, 10조 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던 1996년 12월 내무부(장관 김우석)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의 보수화에 편승하여 "보안역량 강화계획"을 추진하였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 안에 보안수사단을 설치해 전국 39개 보안수사대와 경찰서 보안과의 대공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하고, 해마다 공안사범 검거 실적이 우수한 공안요원 5명씩을 경위로 승진시키는 등 공안요원에 대해서는 경감까지 시험 없이 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공안사범 검거자에게는 따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들 공안요원에게 다달이 30만 원씩의 보안업무 추진비를 지급할 방침"이라는 것이었다. 여현호, "드러난 경찰 보안역량 강화계획", 한겨레, 1996.12.19. 이는 사실상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을 지난 1987년 박종철 씨 고문살인사건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전국 보안수사대 현황[40]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6	3	3	3	3	1	3	3	1	4	3	4	3	3	1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월, 전국 42개 보안수사대가 사용하는 30여 곳의 보안분실 가운데 6곳을 줄이고, 외근 보안수사 인력을 10%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41]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이들 대부분을 구속 수사해왔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대폭 줄어들고 구속 수사율이 낮아지는 등 시대적 변화 추세에 맞춰 보안수사대의 전면 개편 및 축소, 폐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경찰은 축소나 폐지가 아닌 오히려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2010년 10월 22일 경찰청은 직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국한돼 있던 보안국의 업무를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42]까지 포괄하며 보안분실을 지속시켰다. 이는 '북한이탈 주민'을 보안의 관점에서 관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2018년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2018년 6월 15일, "경찰청과

---

40) 경찰청이 송석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2002년 8월 31일 현재 현황
41) "경찰 보안인력 200여명 줄여 '치안현장' 배치", 서울신문, 2017.9.7.
4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5호, 2010.10.22.일부개정)
제12조(보안국에 두는 과)
①보안국에 보안1과·보안2과 및 보안3과를 둔다. <개정 1999. 5. 24.>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0. 22.>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0. 22.>
1.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2.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⑤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5. 24.>
1. 간첩 등 중요 방첩수사
2.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⑥ 삭제 <1999. 5. 24.>

지방경찰청의 보안분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청사 내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안경찰이 담당하는 북한이탈 주민 관련 업무 중 신변보호활동은 담당부서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권고안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별관으로 운영되어온 27곳의 보안분실이 해당 경찰청사 안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온 대공분실의 '비밀주의' 관행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를 어느 정도 개선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장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피해 현황 및 고문의 방식과 수단

〈일러두기〉

여기 실린 명단은 사건 발생 당시 언론보도, 공소장, 판결문, 진술서, 최후진술, 항소이유서, 가족호소문, 민가협 등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재)진실의 힘이 하나하나 정리했다. '사건명'은 검찰 등 당국의 발표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나이', '직업'은 당시 언론보도에서 따왔다. '체포일', '구속일', '재판결과'는 최종심 결과로, 기록에 근거했다.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었다. 따라서 이 명단은 1차적인 기초자료이다. 앞으로 더 많은 기록과 당사자 대면을 통해 정확하게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

2장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피해 현황 및 고문의 방식과 수단

1. 남영동 대공분실 피조사자 목록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1	1977	리영희	한양대 해직교수	1977.11.23.	1977.12.27.	리영희 필화	징역 및 자격정지2년
2	1977	백낙청	창작과비평사 발행인		불구속	리영희 필화	징역1년,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2년
3	1977	박관순	한길사 대표			리영희 필화	
4	1979	임동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총무부장		1979.4.20.	통혁당 재건위	무기징역
5	1979	김재욱	무직		1979.4.20.	통혁당 재건위	무기징역
6	1979	지정관	프랑스 감마통신사 동경특파원		1979.4.20.	통혁당 재건위	징역 및 자격정지7년
7	1979	박현채	충남대 강사		1979.4.20.	통혁당 재건위	징역 및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8	1979	양정규	한국농업근대화연구 회상무이사		1979.4.20.	통혁당 재건위	징역 및 자격정지2년6월, 집행유예4년
9	1979	임동환	음식점업		1979.4.20.	통혁당 재건위	징역 및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10	1979	임동석	농업		1979.4.20.	통혁당 재건위	징역 및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11	1979	신항우	한국 금속생산부 차장		불구속	통혁당 재건위	
12	1979	정윤택	서울 사법서사사무원		불구속	통혁당 재건위	
13	1979	이재문	전 대구매일신문사 기자	1979.10.4.	1980.12.10.	남민전	사형, 1981.11.22. 옥중사망
14	1979	신향식	서울대 철학과 졸	1979.11.		남민전	사형, 1982.10.8. 사형집행
15	1979	안재구	동국대 교수	1979.11.		남민전	무기징역
16	1979	임기묵	명성여상 교사	1979.10.17.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3년
17	1979	최석진	한국경제개발협회 연구원	1979.11.		남민전	무기징역
18	1979	이해경	서울대 고고인류학 졸	1979.11		남민전	무기징역
19	1979	박석률	서강대 경제과 졸	1979.11.		남민전	무기징역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20	1979	임동규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총무부장			남민전	무기징역
21	1979	차성환	서울대 농대	1979.10.4.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 15년
22	1979	이수일	성균관대 사학과 졸	1979.10.4.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5년
23	1979	김병권	감호소 수용 중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5년
24	1979	김남주	시인	1979.10.4.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 15년
25	1979	박석삼	광주고교 퇴학	1979.10.4.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5년
26	1979	황금수	무면허 침술사	1979.11.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5년
27	1979	금종삼	가톨릭농민회 조사부원	1979.11.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5년
28	1979	임규영	새한자동차 정비공장 기사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0년
29	1979	김승균	일월서각 대표, 사상계 편집장			남민전	
30	1979	박광숙	명성여중 교사			남민전	
31	1979	노재창	서울대 경영대 졸	1979.11.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0년
32	1979	김부섭	서울대 공대 제적	1979.10.4.	1979.12.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0년
33	1979	김영옥	사회당 창당위원	1979.11.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0년
34	1979	이문희	무직	1979.10.4.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7년
35	1979	김세원	슈퍼마켓 경영	1979.11.		남민전	
36	1979	임영빈	서울대 간호학과 중퇴	1979.11.		남민전	
37	1979	박문담	가톨릭노동청년연합회 회원	1979.11.		남민전	
38	1979	윤관덕	고려대 문리대	1979.11.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7년
39	1979	조계선	가톨릭농민회 노동면부회장	1979.11.		남민전	
40	1979	김봉권	목공	1979.11.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7년
41	1979	조봉훈	전남대 농경과 제적	1979.11.		남민전	
42	1979	이계천	대우개발 총무부 대리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5년
43	1979	이재오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5년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44	1979	임헌영	상황출판사 대표, 문학평론가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5년
45	1979	심영호	새한자동차 조정부장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5년
46	1979	이학영	전남대 국문과 중퇴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5년
47	1979	김홍	택시기사	1979.11.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5년
48	1979	최광운	국민학교 졸	1979.11.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5년
49	1979	김명	광성고교 교사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5년
50	1979	백정호	일신학원 강사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5년
51	1979	정만기	일유상사 직원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5년
52	1979	홍영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1979.11.		남민전	
53	1979	김충임	제약회사 사원	1979.11.		남민전	
54	1979	전수진	이화여전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3년
55	1979	권영근	크리스천 아카데미 강사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3년
56	1979	김정자	서울사대부중 교사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57	1979	김경중	서울대 공대			남민전	
58	1979	곽희숙	이화여대 영문과 졸, 조교			남민전	
59	1979	박미옥	한국외국어대 불어과			남민전	
60	1979	장혁수	서울대 수학과			남민전	
61	1979	김문자	파출부	1979.10.		남민전	
62	1979	최평숙	점술가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3년
63	1979	이은숙	일신여고 교사	1979.10.		남민전	
64	1979	권령동	크리스천 아카데미 농촌사회간사			남민전	
65	1979	김정길	전남대 상대 제적	1979.11.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3년
66	1979	이강	일간학습정보사 전남지부장	1979.11.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3년
67	1979	민동곤	서울대 화학과	1979.10.		남민전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68	1979	김희상	동서식품 사원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8월, 집행유예1년
69	1979	김재술	일월서각 영업부장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3년
70	1979	김특진	일신학원 강사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3년
71	1979	황철식	코리아슐츠경북지사 영업부장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3년
72	1979	최강호	세조양행 관리과장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3년
73	1979	권오헌	중기 대여업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3년
74	1979	이영주	동국대 국문과 졸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75	1979	곽선숙	여성유권자연맹간사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5년
76	1979	김성희	학원강사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2년
77	1979	탁무권	성균관대 사학과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78	1979	신영종	성균관대 경제과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79	1979	권명자	서울여대 국문학과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80	1979	서혜란	신용협동조합 농촌개발 부서기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81	1979	나강수	세창철강 총무과장	1979.11.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82	1979	김영철	금성출판사 교정원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83	1979	김정자	중학교 교사			남민전	
84	1979	황기석	서울대 농대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85	1979	박남기	근로복지공사 서기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86	1979	신우영	일신여중 교사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87	1979	김의상				남민전	
88	1979	장미경	행당여중 교사	1979.10,		남민전	징역 및 자격정지8월, 집행유예1년
89	1979	김기영	전 EYC 간사	1979.11.		남민전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90	1979	진항식	농업	1979.6.14.		삼척 가족간첩단	사형, 1983.07.집행
91	1979	김상회	의류행상 및 주점업	1979.6.15.		삼척 가족간첩단	사형, 1983.07.집행
92	1979	김태룡	미륭건설 사원	1979.6.16.	1979.7.21.	삼척 가족간첩단	무기징역
93	1979	진창식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생산부원	1979.6.15.		삼척 가족간첩단	무기징역
94	1979	진형대	선원	1979.6.15.		삼척 가족간첩단	징역10년
95	1979	김순자	보험회사 외무사원	1979.6.21.		삼척 가족간첩단	징역5년
96	1979	김건회	농업			삼척 가족간첩단	징역7년
97	1979	김달회	농업			삼척 가족간첩단	징역7년
98	1979	진윤식	동양종합상사 강릉영업소장	1979.6.15.		삼척 가족간첩단	징역5년
99	1979	진윤우				삼척 가족간첩단	
100	1979	윤정자	농업			삼척 가족간첩단	징역3년6월
101	1979	김경옥		1979.6.15.		삼척 가족간첩단	징역3년6월
102	1980	김태홍	합동통신 기자, 기협 회장	1980.8.27.	1개월 5일	기자협회 집단구속	징역2년
103	1980	노향기	한국일보	1980.6.8.	약 한 달	기자협회 집단구속	징역1년
104	1980	박정삼	서울경제신문 기자	1980.7.17.	약 한 달	기자협회 집단구속	징역3년
105	1980	유숙열	합동통신 기자	1980.7.17.	1980.7.21.	기자협회 집단구속	
106	1980	김동선	경향신문 기자	1980.7.17.	약 한 달	기자협회 집단구속	징역3년
107	1980	안양로	경향신문 기자	1980.7.18.	약 한 달	기자협회 집단구속	징역1년
108	1980	고영재	경향신문 기자	1980.7.17.		기자협회 집단구속	경향신문 사건으로 이첩
109	1980	정교용	중앙일보 기자	1980.7.17.		기자협회 집단구속	
110	1980	이홍기	KBS 기자	1980.7.17.		기자협회 집단구속	
111	1980	이수언	부산일보 기자	1980.7.17.		기자협회 집단구속	기소유예
112	1980	조건영	건축가			기자협회 집단구속	
113	1980	박윤배	흥국탄광 도계광업소	1980.8.27.		기자협회 집단구속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114	1980	정태기	조선투위 위원장			투위 위원 연행	
115	1980	서동구	경향신문 전 편집국장	1980.6.9.	15일	경향신문	징역2년 집행유예3년
116	1980	이경일	경향신문 외신부장	1980.6.9.	4일	경향신문	징역3년
117	1980	표완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1980.6.9.	15일	경향신문	징역2년
118	1980	노성대	MBC 부국장	1980.6.9.		경향신문	
119	1980	홍수원	경향신문 외신부 기자	1980.6.9.		경향신문	징역1년
120	1980	박우정	경향신문 외신부 기자	1980.6.9.		경향신문	징역1년
121	1980	박성득	경향신문 편집부 기자	1980.6.9.		경향신문	징역1년
122	1980	오효진	MBC 사회부 기자	1980.6.9.		경향신문	
123	1980	심송무	동아일보 사회부	1980.6.9.		경향신문	
124	1980	임재경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125	1980	송건호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1980.7.14.	1980.7.27.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군사재판 3년6개월
126	1980	홍종민	동아일보 해직기자	1980.5.18.	1980.6.16.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127	1980	황인오	통일사회당 당원, 동원탄좌 소속 광부	1980.6.27.	1980.7.8. (남영동대공분실 이첩)	미스유니버스 대회장 폭파미수	징역20년
128	1980	권운상	통일사회당 노동국장	1980.6.29.	1980.7.29.	미스유니버스 대회장 폭파미수	징역5년
129	1980	정구원	노동자	1980.6.29.	1980.7.29.	미스유니버스 대회장 폭파미수	징역10년
130	1980	권오창	통일사회당 정책실장	1980.6.29.	1980.7.29.	미스유니버스 대회장 폭파미수	징역5년
131	1980	문국진	연세대 철학과 졸			반공법 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32	1980	김명인	서울대 국문	1980.12.16.	1981.1.17.	무림	징역 및 자격정지3년
133	1980	박용훈	서울대 동양사학	1980.12.24.	1981.1.19.	무림	징역1년6월, 자격정지2년
134	1980	현무환	서울대 독문학	1980.12.22 경	1981.1.19.	무림	징역2년
135	1980	남명수	서울대 언어학	1980.12.11.	1981.1.19.	무림	징역1년6월
136	1980	김회경	서울대 교육학	1980.12.11.	1981.1.19.	무림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137	1980	윤형기	서울대 토목	1980.12.11.	1981.1.19.	무림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138	1980	남충희	서울대 철학	1980.12.11.	1981.1.19.	무림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139	1980	고세현	서울대 국사학	1980.12.13 경	1981.1.19.	무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40	1980	허헌중	서울대 정치학		1981.1.19.	무림	징역1년6월, 집행유예
141	1981	이원주	서울대 국어교육	1981.3. 이후		무림	징역1년6월(군법)
142	1981	최영선	서울대 사회학	1981.9.6.	1981.9.16.	무림	징역2년, 자격정지2년, 가석방
143	1981	이태복	광민사 대표	1981.6.10.	1981.7.23.	전민노련	무기징역
144	1981	양승조	경동산업공원 전 청계노조 지부장	1981.8.1.	1981.9.1.	전민노련	징역 및 자격정지2년6월
145	1981	신철영	영등포사업선교회 실무자	1981.8.3.	1981.9.1.	전민노련	징역 및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146	1981	김철수	서울대 신문학과	1981.8.7.	1981.9.1.	전민노련	징역 및 자격정지2년6월, 형집행정지 석방
147	1981	유해우	전 삼원섬유 분회장	1981.8.2.	1981.9.7.	전민노련	징역2년, 집행유예4년
148	1981	김병구	전 광산노조 연합노조지부장			전민노련	집행유예 4년
149	1981	박태연	전 YH노조 사무장			전민노련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150	1981	송병춘	서울대 사대 교육과 제적	1981.8.13.	1981.9.1.	전민노련	징역 및 자격정지2년. 형집행면제 석방
151	1981	송영인	서울대 사대	1981.8.12.	1981.9.1.	전민노련	징역 및 자격정지2년6월
152	1981	노숙영	서울여대 가정과 제적	1981.8.14.	1981.9.1.	전민노련	징역 및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4년
153	1981	최규엽	고려대 독문과 제적	1981.8.3.	1981.9.1.	전민노련	징역2년, 자격정지5년
154	1981	엄주웅	고려대 경제과 제적	1981.8.5.	1981.9.1.	전민노련	징역 및 자격정지2년6월
155	1981	오상석	고려대 경제과 제적	1981.8.5.	1981.9.1.	전민노련	징역 및 자격정지2년
156	1981	정경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81.8.4.	1981.9.1.	전민노련	징역 및 자격정지2년6월
157	1981	박태계	서울대 경제학과	1981.8.		전민노련	무죄
158	1981	이선근	서울대 경제학과 제적	1981.6.16.	1981.7.23.	전민학련	징역 및 자격정지7년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159	1981	박문식	서울대 경제학과 제적	1981.6.20.	1981.7.23.	전민학련	징역 및 자격정지5년
160	1981	박성현	서울대 정치학과, 방위병			전민학련	
161	1981	이덕희	서울대 미생물학과 대학원생	1981.6.20.	1981.7.23.	전민학련	징역 및 자격정지3년
162	1981	홍영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1981.6.20.	1981.7.23.	전민학련	징역 및 자격정지2년6월
163	1981	윤성구	서울대 수학과	1981.6.21.	1981.8.3.	전민학련	징역 및 자격정지2년
164	1981	민병두	성균관대 무역학과	1981.6.22.	1981.8.3.	전민학련	징역 및 자격정지2년
165	1981	김창기	한국외대 영어과	1981.6.23.	1981.8.3.	전민학련	징역1년6월
166	1981	최경환	성균관대 사학과	1981.6.22.	1981.8.3.	전민학련	징역1년6월
167	1981	김진철	서울대 사대 물리과	1981.6.22.	1981.8.3.	전민학련	징역1년6월
168	1981	손형민	연세대 수학과	1981.6.21.	1981.8.3.	전민학련	징역1년6월
169	1981	이종구	동국대 사범대	1981.6.21.	1981.8.3.	전민학련	징역10월
170	1982	이순희	도쿄 한식요정 금용각 가수	1982.6.7.	1982.6.17.	이순희 간첩조작	징역12년
171	1982	최을호	농업	1982.8.14.	1982.9.25.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형
172	1982	최낙교	초등학교 교사	1982.8.22.	1982.9.25.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공소 후 자살
173	1982	최낙전	농업	1982.8.22.	1982.9.25.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징역15년
174	1982	최연석	자영업	1982.9.	기소유예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175	1982	한희철	야학교사	1982.		야학연합회	
176	1982	김영미	야학교사	1982.		야학연합회	
177	1983	함주명	파지 납품업자	1983.2.18.	1983.4.4.	함주명 간첩조작	무기징역
178	1983	전민용	서울대 치대 예과	1983.11.		야학연합회	
179	1983	황주석	성수지역 야학교사	1983.12.20		야학연합회	
180	1984	강만길	전 고려대 교수	1984.1.7	1984.1.10.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공소보류 석방
181	1984	조승혁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장		1984.1.10.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공소보류 석방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182	1984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1984.1.10.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공소보류 석방
183	1984	김용복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부원장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184	1984	이미경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실무간사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185	1984	김한조	면목여중 교사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186	1984	유상덕	경기고 교사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187	1984	이순근	서울고 교사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188	1984	송영길	경복고 교사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189	1984	노웅희	구로고 교사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190	1984	송상헌	강남여중 교사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191	1984	안승문	연서중 교사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192	1984	이상길	수유국교 교사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193	1984	손명선	화양국교 교사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194	1984	박형규	한국기독교사회문제 연구원 이사회장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195	1984	이장형	무직	1984.6.14.	67일	이장형 간첩조작	무기징역
196	1985	신상봉	무직		1985.4.23.	재일교포 간첩조작	징역10년
197	1985	김근태	민청련 전 의장	1985.9.4.	23일	민청련	징역7년, 자격정지 6년
198	1985	이을호	민청련 상임위부위원장	1985.9.2.	44일	민청련	구속집행정지 석방
199	1985	김희상	민청련 대변인	1985.10.1.	1985.10.15.	민청련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200	1985	연성수	민청련 전 상임위부위원장	1985.10.8.	1985.10.28.	민청련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201	1985	김병곤	민청련 상임위원장		1985.7.19.	민청련	징역2년
202	1985	김종복	민청련 청년부장	1985.10.1.		민청련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203	1985	윤여연	민청련 사무국장	1985.11.04		민청련	징역8년, 집행유예2년
204	1985	한경남	민청련 의장			민청련	
205	1985	최민화	민청련 부의장			민청련	징역1년6월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206	1985	김희택	민청련 부의장			민청련	
207	1985	권형택	민청련 사회부장			민청련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08	1985	천영초	민청련 상임위원장			민청련	
209	1985	이범영	민청련 집행국장			민청련	
210	1985	서원기	민청련 집행국장			민청련	
211	1985	양재원	민청련 회원			민청련	
212	1985	문용식	위원장, 서울대 국사학	1985.8.31.	1985.10.29. 24일	민추위	징역7년
213	1985	박문식	서울대 경제학과 제적	1985.9.16.	1985.10.29.	민추위	징역 및 자격정지7년
214	1985	안병룡	서울대 국사학		1985.10.29.	민추위	징역 및 자격정지7년
215	1985	황인상	노동문제투쟁위원회 위원장		1985.10.29.	민추위	징역 및 자격정지5년
216	1985	이종원	서울대 지리학			민추위	
217	1985	민관홍	서울대 인류학		1985.10.29.	민추위	
218	1985	윤성주	서울대 동양사		1985.10.29.	민추위	
219	1985	조경애	서울대 의류학과 졸		1985.10.29.	민추위	
220	1985	이홍균	서울대 인류학과		1985.10.29.	민추위	
221	1985	성명섭	서울대 공법		1985.10.29.	민추위	
222	1985	김태룡	서울대 경영학과		1985.10.29.	민추위	
223	1985	민병렬	서울대 사회학과		1985.10.29.	민추위	징역5년, 자격정지 3년
224	1985	이흥구	서울대 공법		1985.10.29.	민추위	
225	1985	김희갑	서울대 동양사		1985.10.29.	민추위	
226	1985	김재광	서울대 영어교육		1985.10.29.	민추위	
227	1985	박충렬	서울대 법학과		1985.10.29.	민추위	
228	1985	장혜경	서울대 중문과		1985.10.29.	민추위	징역 및 자격정지2년, 집행유예3년
229	1985	김찬	서울대 국사학		1985.10.29.	민추위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230	1985	강신훤	서울대 정치학과		1985.10.29.	민추위	
231	1985	유경완	서울대 무역학과		1985.10.29.	민추위	
232	1985	김형섭	서울대 농대 졸		1985.10.29.	민추위	
233	1985	석미주	서울대 종교학과		1985.10.29.	민추위	
234	1985	황경희	경북대 불문과 졸		1985.10.29.	민추위	
235	1985	김경희	서울대 사범대 중퇴		1985.10.29.	민추위	
236	1985	박창수	서울대 경영학과		1985.10.29.	민추위	
237	1985	최석우	서울대 종교학과		1985.10.29.	민추위	
238	1986	정현곤	서울대 자민투위원장		1986.10.	건대농성	징역6년
239	1986	장기표	민통련 정책연구실장		1986.5.	5.3 인천시위 배후조종 혐의	
240	1986	이부영	민통련 사무차장		1986.10.27.	5.3 인천시위 배후조종 혐의	
241	1986	김유임	이화여대 서클회장		1986.11.24.	건대농성	
242	1986	고경대	보임기획대표	1986.3.25.	1986.4.16.	보임다산	징역 및 자격정지 3년
243	1986	고경미	연세대 건축과 졸	1986.3.25.	1986.4.16.	보임다산	선고유예
244	1986	강우근	보임기획 사원		1986.4.16.	보임다산	징역 및 자격정지6월
245	1986	김미영	서울대 응용미술과 졸	1986.3.25.	1986.4.16.	보임다산	구속취소 석방
246	1986	채선미	서울대 응용미술과 졸		1986.4.16.	보임다산	구속취소 석방
247	1986	김희준	치과의사	1986.3.31.	1986.4.16.	보임다산	징역 및 자격정지1년
248	1986	이창우	서울대 기계공학 휴학			보임다산	징역 및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
249	1986	고성국	다산기획 대표	1986.3.25.	1986.4.16.	보임다산	징역 및 자격정지3년
250	1986	박성인	다산기획 총무부장	1986.3.25.	1986.4.17.	보임다산	징역 및 자격정지2년
251	1986	김해중	다산기획 편집부원	1986.3.31.	1986.4.18.	보임다산	징역 및 자격정지1년
252	1986	전수호	다산기획 자료부장	1986.3.25.	1986.4.19.	보임다산	징역 및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자격정지1년
253	1986	곽탁성	다산기획 자료부장	1986.3.25.	1986.4.20.	보임다산	징역 및 자격정지1년6월
254	1986	이범	백산서당 대표	1986.3.25.	1986.4.21.	보임다산	징역 및 자격정지3년
255	1986	김진순	구로지역 탈춤연구소		1986.4.22.	보임다산	징역 및 자격정지1년6월
256	1986	김상복	전 기독청년연합 교육문화분과 위원장	1986.3.31.	1986.4.23.	보임다산	징역 및 자격정지4년
257	1986	이왕준	서울대 의대	1986.5.29.	24일	서울대 자민투	집행유예
258	1986	남승우	서울대 정치과, 노동자해방동맹선전부장	1986.9	22일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 사건	
259	1986	성유보	민통련 사무처장	1986.11.17.		5.3 인천시위 배후조종 혐의	기소유예 석방
260	1986	박용수	민통련 보도실장	1986.11.17.		5.3 인천시위 배후조종 혐의	기소유예 석방
261	1986	김민한	민언협 공동대표	1986.11.17.		5.3 인천시위 배후조종 혐의	기소유예 석방
262	1986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	1986.12.15.	1987.1.30.	보도지침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263	1986	김태홍	민언협 사무국장	1986.12.9.	1987.1.30.	보도지침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264	1986	신홍범	민언협 실행위원	1986.12.12.	1987.1.30.	보도지침	선고유예
265	1986	박동선	서울대 미학과	1986.10.	20일 이상	서울대 대자보	집행유예 2년
266	1986	황인욱	서울대 서양사	1986.10.28.		서울대 대자보	징역 및 자격정지5년
267	1986	최형석	서울대 철학과			서울대 대자보	집행유예2년
268	1986	서진석	서울대 지리학	1986.10.		서울대 대자보	징역 및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
269	1986	박옥주	서울대 지리학	1986.10.		서울대 대자보	징역 및 자격정지7년
270	1986	박유상	서울대 심리학	1986.10.		서울대 대자보	
271	1986	박금섭	서울대 법대	1986.10.		구학련 관련	
272	1986	김찬훈	서울대 외교학과	1986.10.		HWCT	선고실효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273	1986	이돈명	변호사	1986.10.23.	1986.10.30.	이부영 은닉	징역8월, 자격정지1년
274	1986	서영교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1986.12.			
275	1986	방병규	반월교회 전도사	1986.12.1.	1986.12.23.	안산 노해투	
276	1986	김현수	안산노동교회 전도사	1986.10.26.		안산 노해투	
277	1986	김봉수	반월 광진상공	1986.12.10.		안산 노해투	
278	1986	이광호	원곡감리교회 전도사	1986.12.1.	1986.12.8.	안산 노해투	
279	1986	민병래	안산 노해투 공장소조장, 반월 신창전기	1986.12.	1986.12.24.	안산 노해투	
280	1986	성영호	반월 혜성섬유	1986.12.9.	1986.12.24.	안산 노해투	
281	1987	최석주	반월 H금속공원		1987.1.10.	안산 노해투	
282	1987	이동진	반월 현대특수나염		1987.1.10.	안산 노해투	
283	1987	유상선	반월 신광염직		1987.1.10.	안산 노해투	
284	1987	이정형	반월 유신염직		1987.1.10	안산 노해투	
285	1987	최정은	반월나염시범단지공동화작업장		1987.1.10	안산 노해투	
286	1987	양회구	서울대 철학과		1987.1.10	안산 노해투	
287	1987	김영진	고려대 법대	1987.1.11.	1987.1.15.	노해사	징역10년
288	1987	박재국	숭실대 국문과		1987.2.27.	노해사	
289	1987	강은정	이화여대 영문과		1987.2.27.	노해사	
290	1987	홍영이	숭실대 역사학		1987.2.27.	노해사	
291	1987	신미란	이화여대 사범대		1987.2.27.	노해사	
292	1987	박태연	한울야학 전 노조사무장		1987.2.27.	노해사	
293	1987	공계진	고려대 사학과		1987.2.27.	노해사	
294	1987	김진정	한광야학 강사		1987.2.27.	노해사	
295	1987	임란	고려대 국문과		1987.2.27.	노해사	
296	1987	김정규	한광야학 강사			노해사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297	1987	황정옥	고려대 사회학과	1987.1.15.	1987.2.27.	노해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98	1987	남춘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조교	1987.1.6.~9	1987.1.14.	노동운동후 원회	구속취소
299	1987	박제균	문공부 간행물심의실 임시직	1987.1.6.~9	1987.1.14.	노동운동후 원회	구속취소
300	1987	윤윤규	KDI연구원	1987.1.6.~9	1987.1.14.	노동운동후 원회	구속취소
301	1987	김종수	KDI연구원	1987.1.6.~9	1987.1.14.	노동운동후 원회	구속취소
302	1987	김종오	대우기획실	1987.1.6.~9	1987.1.14.	노동운동후 원회	구속취소
303	1987	정이환	섬유노조 섭외부장	1987.1.9.	1987.1.14.	노동운동후 원회	구속취소
304	1987	남충희	L상사 대표	1987.1.6.~9	1987.1.14.	노동운동후 원회	구속취소
305	1987	성두현	형성출판사 번역사원	1987.1.6.~9	1987.1.14.	노동운동후 원회	
306	1987	강상호	서울대 신문대학원	1987.1.7.	1987.1.14.	노동운동후 원회	
307	1987	김관영	서울대 신문학과	1987.1.			
308	1987	박종철	서울대 언어학과	1987.1.13.		박종철 고문치사	
309	1987	장유식	서울대 산업공학과	1987.2.			
310	1987	신형식	녹두출판사 편집부장	1987.4.25.	1987.4.28.	녹두출판사 사건	징역3년, 집행유예5년
311	1987	최규엽	고려대 사학과 졸업	1987.11.10.	1987.11.	남노련	징역2년6월
312	1987	박성희	고려대 간호학과	1987.4.26.	1987.5.1.	남노련	
313	1987	서원기	고려대 심리학과	1987.4.27.	15일	남노련	
314	1987	송종환	고려대 교육학과 제적	1987.4.26.	1987.5.1.	남노련	
315	1987	이재권	고려대 사학과 졸업	1987.4.26.	1987.5.1.	남노련	
316	1987	최동규	연세대 중문과 제적	1987.4.26.	1987.5.1.	남노련	
317	1987	유용화	남노련 위원장		1987.5.1.	남노련	
318	1987	이명춘	서울대 대학원 법학	1987.4.26.	1987.5.1.	남노련	
319	1987	윤지환	고려대 정외과	1987.4.26.	1987.5.1.	남노련	
320	1987	정연주	고려대 국어교육과	1987.4.26.	1987.5.1.	남노련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321	1987	김동성	안산고려병원 수련의	1987.4.26.	1987.5.1.	남노련	
322	1987	김창현	고려대 사회대	1987.4.26.	1987.5.1.	남노련	
323	1987	김영배	연세대 전자과 제적	1987.4.26.	1987.5.1.	남노련	
324	1987	이상기	고려대 경제과	1987.4.26.	1987.5.1.	남노련	
325	1987	지선 스님 (최형술)	불교정토구현 전국승가회지도위원	1987.6.10.	1987.6.13.	6.10 국민규탄 대회	
326	1989	김철	무역업	1989.4.26.	1989.5.2.	일본관련 간첩조작	징역 및 자격정지7년
327	1990	오봉옥	시인	1990.2.21.		시집 〈붉은 산 검은 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328	1990	이문구	소설가, 실천문학사 대표	1990.2.21.	불구속입건	시집 〈붉은 산 검은 피〉	
329	1990	송기원	소설가, 실천문학사 주간	1990.2.21.		시집 〈붉은 산 검은 피〉	징역6월
330	1993	허탁	자주·민주·통일그룹		1993.11.1.	자민통	집행유예
331	1993	박영재	자주·민주·통일그룹		1993.11.1.	자민통	집행유예
332	1993	노태훈	인권운동가	1993.7.13.	1993.7.14.	양심수 서화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333	1994	신지애	한누리 노동청년회		1994.9.5.	한누리노동 청년회	집행유예
334	1994	김현정	한누리 노동청년회		1994.9.5.	한누리노동 청년회	집행유예
335	1994	김성룡	한누리 노동청년회		1994.9.5.	한누리노동 청년회	집행유예
336	1994	배영미	한누리 노동청년회		1994.9.5.	한누리노동 청년회	집행유예
337	1995	김무용	방통대 강사		1995.3.23.	빨치산 관련 글	집행유예
338	1996	서미연	나라사랑청년회		1996.5.29.	나라사랑청 년회	보석
339	1996	황윤미	나라사랑청년회		1996.5.29.	나라사랑청 년회	보석
340	1996	서형준	나라사랑청년회		1996.5.29.	나라사랑청 년회	집행유예
341	1997	유해정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1997.4.30		북한대학과 교류	집행유예
342	1997	김용운	장백서점 대표		1997.4.15.	서적 판매	집행유예
343	1997	은종복	풀무질서점 대표		1997.4.15.	서적 판매	구속취소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344	1997	유정희	그날이오면 서점 대표		1997.4.15.	서적 판매	구속취소
345	1997	전상봉	서청협 의장		1997.10.27.	서울청년	집행유예
346	1997	신영균	서강인 대표		1997.10.29.	사회과학서점	보석
347	1997	이재필	논장 대표		1997.10.29.	사회과학서점	보석
348	1998	박효근	국민대 졸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징역2년
349	1998	박종호	외국어대 졸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징역1년6월
350	1998	주수영	덕성여대 졸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보석
351	1998	이정원	서울시립대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52	1998	문명주	서울시립대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징역1년6월
353	1998	한규한	서울시립대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54	1998	한은솔	서울시립대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55	1998	류민희	서울시립대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징역1년6월
356	1998	이지영	한양대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57	1998	김미경	단국대 졸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58	1998	모승훈	한국항공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59	1998	이의철	인하대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징역1년6월
360	1998	권오현	국민대 졸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61	1998	이우봉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62	1998	공선숙	경기대 졸		1998.5.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63	1998	김복자	항공대		1998.6.11.	항공대 학생연대	집행유예
364	1998	최원석	항공대		1998.6.11.	항공대 학생연대	집행유예
365	1999	이정구	고려대(졸)		1999.6.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징역1년
366	1999	김현옥	과학나라		1999.6.9.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67	1999	홍교선	책갈피출판사		1999.6.9.	이적표현물 판매	집행유예
368	1999	노영민	월간 충북자치21 발행인		1999.10.11.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NO	연도	이름	직업	체포일	구속일	사건명	재판결과
369	2000	김희준	북막스출판사		2000.10.11.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70	2000	정건	민노당학생위		2000.11.14.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71	2000	최하란	민노당학생위		2000.11.14.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72	2000	강성철	전해투 연사국장		2000.11.14.	국제사회주의자들(IS)	보석
373	2001	두혜전	한양대		2001.2.28.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74	2001	김성훈	민노당학생위		2001.2.28.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75	2001	소병선	민노당학생위		2001.3.12.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76	2001	장준걸	항공대		2001.5.2.	대우자동차 집회	집행유예
377	2001	박재균	연세대		2001.6.24.	대우자동차 집회	집행유예
378	2001	전문기	외국어대		2001.6.27.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79	2001	김낙준	전국시설관리노조		2001.10.4.	대우자동차 집회	집행유예
380	2001	민경호	연세대		2001.10.4.	대우자동차 집회	집행유예
381	2001	정명아	민주노동당		2001.12.7.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징역6월
382	2001	금수경	민주노동당		2001.12.7.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집행유예
383	2002	고승우	동성애자인권연대		2002.9.4.	국제사회주의자들(IS)	보석
384	2002	홍인분	민주노동당		2002.9.4.	국제사회주의자들(IS)	보석

2.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방식과 수단

고문은 “느닷없이 닥쳐왔고, 느닷없이 끝났다.”[43] 대공분실에서의 고문은 일상 그 자체였다. 수사관들은 의자에 앉아 취조하다가도 돌연 주먹을 날려 구타했고, 머리채를 잡고 욕조로 끌고 가 물고문을 했다. 고문의 마지노선은 “죽지 않을 만큼 기술적으로”[44] 괴롭히는 것이었다. 고통의 크기는 극대화하되, 고문의 물증이 될 만한 상처는 남기지 않아야 했다.[45] 이것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물고문, 전기고문

43) 황인욱 심층 인터뷰.
44) 이창섭, “80년 기협·경향 사건 전말”, 신문과 방송, 332호, 1998.8.
45) 이수일,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 한겨레출판, 2010., 43쪽.

에 꼭 참여했던 이유다. 고문도구가 든 '델시 가방'을 들고 전국 각지로 불려 갈 만큼 이근안은 '공인' 고문기술자였고, "완벽하게 살아 있는 고문기구"[46]였다.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집권세력 공안기관의 총애를 등에 업고, 피해자들의 고문 폭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대공수사 2반장 백남은은 피해자들 앞에서 "이 자리에서 이재문, 이태복, 김근태, 허인회가 모두 나한테 당했다", "김근태는 결국 내 앞에서 살려달라고 말하며 기었다"고 떠들어댔다. "고문으로 내 목이 날아갈" 리 없다는 말도 스스럼없이 내뱉었다.

"김근태가 나가더니 고문받았다고 떠드는데 너도 나가서 실컷 떠들어봐라. 그러나 나는 끄떡도 안 한다. 증거가 있느냐? 고문으로 내 목이 날아갈 것 같았다면 아예 고문하지도 않는다. 어디 한번 싸워보자."[47]

1) 잠 안 재우기

연행된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태어날 때부터 잡힐 때까지 전 과정을 쓰는 '1단계 신문'이다. 이때 잠을 자야만 하는 인간의 생리를 이용하는데, 약 1주일가량 잠을 재우지 않고 몽롱한 정신상태에서 진술서를 쓰게 한다. 잠들지 못한 상태가 3일을 넘어서면 방어능력이나 저항의지가 상실돼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써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48]

장시간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는 침대를 보는 행위만으로도 고문이었다. 피해자들은 침대를 보기만 해도 잠들고 싶고, 그러기 위해 허위진술을 해야 한다는 욕망[49]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이후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잠 안 재우기는 "일상"[50]에 불과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보편적이었다.

처음 4일간은 의자에 앉혀두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전투복 차림의 경관 2~3명을 교대로 배치하여 욕설과 협박을 해대고 수시로 머리를 쥐어박는 식으로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렇게 졸지도 못하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몽롱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들어 있는 기억과 생각들을 모두 토해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3일 정도 지나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써주고 오로지 빨리 써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비몽사몽 중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쓴 내용을 다시 쓰고 또 썼다. 깜박깜박하는 순간에 볼펜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곤 하였다. 이게 차

46) 한겨레, "'나도 이근안에게 당했다' 폭로 잇따라", 1988.12.22.
47) 한겨레, "발가벗긴 채 물고문, 전기고문", 1988.10.25.
48) 이수일, 앞의 책, 32~33쪽.
49) 연성수,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50) 황인욱 심층 인터뷰.

라리 긴 악몽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는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 조직과 운동이 너무나 참담하여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51] (이수일)

(전기고문 후) 나는 의자에 앉아 헉헉거리는 숨을 쉬며 그 고통 속에서도 잠을 자고 싶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러나 전경은 잠을 못 자게 꼬집고, 머리를 가볍게 때렸다. 잠 고문이 시작된 것이다.[52] (김재술)

철제 책상이 있죠. 20여 일 동안을 책상에 앉아서 계속 밤을 새웠어요. 낮에는 계속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고 인제 밤 되면 거기에 앉혀 놓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그 앞에 앉은 놈이 철제 책상을 발로 뻥 차요. 그럼 이제 폭탄 소리 같은 거예요 완전히. 뻥 차면 기겁을 하고 벌떡 일어나, 그럼 그 앞에서 히죽히죽 웃고 있어요. 또 졸면 뻥 차. 밤새도록 철제 책상 차는 소리를 듣고, 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먼동이 트고 깨면, 혼비백산하는 거죠. 혼이 나간 거지.[53] (연성수)

잠은 거의 못 자요. 그보다 더 강한 고문이 있으니깐 잠 안 자는 건 일상 같아요. 잠자는 시간을 따로 줘 놓고는 수시로 와서 막 깨워요. 수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요. 지들은 교대하면서 잠도 자는데, 우리는 들어오는 수사관마다 취조해대니까 못 자죠.[54] (황인욱)

남영동 대공분실 형사들이 고문에 정통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납치를 당하고 나서부터 잠을 재우지 않아 깜박 졸면서 고개가 숙여지면 육각 볼펜을 책상 위로 세게 굴리는데 이때의 볼펜 구르는 소리는 천둥소리같이 커서 놀라게 되었고. 또 볼펜으로 옆구리, 가슴, 배, 얼굴을 찌르는데 참아낼 수가 없었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모두 다 들어주고 잠만 잘 수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55] (김철)

2) 구타

고문자들이 피해자를 연행했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고문이다. 구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비체계적 구타는 몽둥이나 쇠파이프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방식이다. 연행 직후 “살쾡이처럼 달려들어 나의 뺨을 좌우로

51) 이수일, 앞의 책, 같은 쪽.
52) 김재술,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거름, 1987., 76~78쪽.
53) 연성수, 앞의 출처.
54) 황인욱 심층 인터뷰.
55) 김철, 의견서, 6~7쪽.

갈겨대거나" "온몸이 찢어지도록"[56] "개 패듯 몽둥이질을"[57] 해댔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다음, 체계적 구타는 발바닥, 허리 등 특정 부위를 구타한다. 특히 고문으로 생긴 상처 부위를 집중적으로 난타했을 때의 고통이 가장 컸다.

이근안은 '양심봉'이라는 글씨가 쓰인 박달나무 방망이를 가지고 다녔다. 스스로 '보물'이라고 표현하는 이 방망이는 손잡이가 짧고 배 부분이 크고 둥글어서 마치 복어 모양처럼 생겼다.[58] 이것으로 손바닥, 발바닥, 허벅지를 마구 난타하면 처음에는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맞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른다.

본격적인 고문은 방망이를 세워서 절구질하듯 아래로 내리찍기 시작할 때부터다.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짓이"길수록 점점 고통이 커지고 다리의 모든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섰다고 한다.[59] 시간이 지나면서 표피가 벗겨지면 통증의 강도가 더욱 깊고 강렬해졌고, 방망이를 내리찍을 때마다 몸이 반사적으로 튕겨 나갔다.

이근안의 구타는 정교했다. 방망이를 눕히고, 세우는 것만으로도 강도 조절이 가능했다. 무엇보다 개인적인 감정을 거세하고 오로지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기에, 동작이 매우 기계적이었고 "끝없이 반복되는 자신의 작업에 몰두"[60]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고통에 대한 무관심하고 심드렁한 태도 앞에서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절망했다.

그는 살쾡이처럼 달려들어 나의 뺨을 좌우로 갈겨 댔다. 주먹으로 안면과 가슴팍 등을 구타했다. 나의 코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얼굴은 부어올랐다. 그는 말했다. "야, 이 새끼야! 여기에서 살아서 성한 몸으로 나가려면 다 불어!"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 나는 말했다. 무슨 혐의가 있으면 말로 심문하면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통하지가 않았다. 그가 자행하는 통상과정을 거친 다음에 심문할 모양 같았다. 의자에서 내려와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몽둥이로 무차별 구타했다. 나는 시멘트 바닥을 나뒹굴었다. 그러나 또다시 엎드려뻗치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길질을 해 댔다. 그는 나에게 "죽기를 원하면 죽여주겠으니 말해보라"는 것이었다. 내가 "죽일 테면 죽이라"고 한마디만 던지면 아마도 그는 나를 죽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를 개 잡듯이 고문을 하고는 "이 새끼 안 되겠구만" 한마디 뱉고 밖으로 나갔다. 나의 코에서 붉은 선지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다시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들어왔다. 체격은 항우같이 컸다. 그들은 전경에게 명령했다. "이 새끼 코피 닦고 수건을 아구리에 물려!" 하는 것이었다. 그 후 그들은 비틀거리는 나를 욕조로 데리고 가 더러운 물을 거푸 마셨다. 숨이 막히자 마지막 힘을 다해 용솟음쳤다.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힘은 그들도 제압하지 못했다. 그들은 바닥에

56) 김철, 의견서, 4쪽.
57) "[고문기술자 이근안 자수] 고문 피해자들의 증언", 동아일보, 1999.10.30.
58) 이수일, 앞의 책, 38~39쪽.
59) 이수일, 위의 책, 같은 쪽.
60) 이수일, 위의 책, 같은 쪽.

다 나를 내동댕이쳤다. 나는 큰 숨을 쉬고는 쓰러졌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다시 깨어났다. 두 사나이는 간 곳이 없고 전경만이 벽을 보고 담배를 피우고 서 있었다. 시간은 밤이 된 것 같았다. 조사관이 들어왔다. 그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 나서 성장 과정을 자술케 했다. 쓰면 다시 쓰라고 하고, 또다시, 또다시 썼다. 손에 힘도 다 빠지고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몽둥이를 들고 다시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그리고 잔인하게 고문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만! 다른 놈은 다 불었는데 니가 무슨 용가리 통뼈냐!" 그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흥분하며 고문했다.[61] (김재술)

남영동에서 조사받는데 간첩으로 실제 활동한 것처럼 자백하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자 수사관이 사정없이 뺨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얼굴에 감각이 없어졌다. 당시 귀 뒤쪽을 몽둥이로 맞아 지금도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양어깨를 몽둥이로 너무 맞아 팔을 움직이지 못했고, 엎드린 채로 허벅지를 맞아 살갗이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어 대변을 보기 힘들 정도였다.[62] (김태룡)

이근안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중에도 두 손으로 계속 어루만지는 물건이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가 하는 말보다도 거기에 신경이 가 있었다. 그도 그것을 눈치 챘는지 "작년에 설악산에 놀러 가서 기념품으로 사 온 박달나무 방망인데, 이게 아주 보물이야!" 묻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손잡이가 짧고 배 부분이 크고 둥글어서 마치 복어 모양으로 생겼는데 괴상하고 기분 나쁜 느낌을 주었다. 본래의 용도가 무엇이었건, 예감대로 그 물건은 그가 오늘 나를 위해 선택한 무기였다. "몸 좀 풀고 시작하자"며 나의 두 손바닥을 그의 보물로 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그저 따끔따끔하더니 횟수가 늘수록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며 통증도 커져갔다. 나는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각오로 순순히 손을 내밀어주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과 함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점점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되었다. 아무리 다그쳐도 내가 응하지 않자 그는 잠시 그 동작을 멈추었다. 그리고 내 팔을 허리 뒤로 돌려 뒷수갑을 채우더니 자신의 의자를 나에게 바짝 붙이고 다가앉는다. "볼펜심문이라고 들어봤어? 내가 하룻밤 고생해주면 조사관이 편하지. 작년에 삼척사건도 내가 고를 풀어주어서 깨끗이 해결했잖아!"
본격적인 고문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그의 보물로 내 허벅지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손바닥을 칠 때와는 달리 방망이를 세워서 절구질하듯이 아래로 내리찍었다. 두 다리의 허벅지를 번갈아 가며 아주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짓이기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고통이 커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현상은 손바닥을 칠 때와 원리가 비슷하였다. 손바닥을 칠 때는 어느 한도에서 내가 손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통증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강렬하였다. 칠 때마다 나의 다리와 몸이 반사적으로 튕기듯이 반응하였다. 그러나 나의 비명과 몸부림 따위는 무시되었다. 그의 동작은 거의 기계적이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자신의 작업에만 열중하는 듯했다. 그의 지치지 않는 동물적 체력과 고통에

61) 김재술, 앞의 책, 같은 쪽.
62) 김태룡, 진술서.

대한 무관심함이 이 고문 행위가 그에게는 얼마나 익숙한 일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었다.[63] (이수일)

마구 구타를 하는데 꼭 가슴을 계속 때려서 숨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빨랫방망이로 손바닥을 때려서 손바닥이 퉁퉁 부었는데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말 못 할 통증이 찾아와요. 그렇게 15일쯤 잠을 전혀 못 잤어요. 계속 의자에 앉혀놓은 상태에서 책상 모서리에 강력한 백열등을 켜놓고 그 백열등을 들여다보게 해요. 그러다 졸면 빨랫방망이로 손바닥을 내려쳐요. 일주일 이상 잠을 못 잤으니 자연히 눈이 감길 수밖에요. (함주명)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말 제대로 안 한다고 때리는 건 뭐 다반사였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혁대 풀어 때리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대고. 일상이었죠.[64] (김주언)

3) 볼펜 고문

얼핏 단순한 것 같지만 피해자들은 볼펜 고문을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의 하나로 기억했다.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바늘, 쇠꼬챙이 등 뾰족한 도구로 손톱 속 살을 찌르거나 짓이긴다. 구타로 인해 이미 살갗이 벗겨지거나 부어 있는 상처 부위를 찔렀을 때는 피부가 벗겨지거나 피가 나는 등의 고문 상처를 남기지 않고도 극악의 고통을 가져온다.[65] 박종철의 경우에도 사타구니에 볼펜으로 세 차례 찔렸던 상처가 남아 있었다.[66]

상처 부위에 볼펜이 닿을 때마다 피해자들은 고문의 기억을 그대로 소환했다. 긴 시간 방망이로 구타당해 살갗이 벗겨지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신체는 볼펜 끝으로 살짝 찌르기만 해도 마치 방망이로 찧을 때와 같은 통증이 재현됐다.[67] 이외에도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껴서 꽉 조이거나[68] 위에서 누르기도[69] 했는데, 마치 손가락이 으깨지는 듯한 통증이 온다. 이근안은 '볼펜 한 자루면 모든 걸 끝낸다'고 자랑해댔다. 혹독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겪은 피해자들도 '볼펜 고문은 도저히 참아낼 수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

63) 이수일, 앞의 책, 같은 쪽.
64) 김주언 심층 인터뷰.
65) 손우정, "'이제부터 내가 널 맡겠다' 이근안의 관절꺾기에 그만", 오마이뉴스, 2015.8.18.
66) "두 고문경관 구속기소", 동아일보, 1987.01.24., 1면.
67) "나도 이근안에게 당했다" 폭로 잇따라, 한겨레, 1988.12.22.
68) 최연석 심층 인터뷰.
69) 유해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전화 진술청취), 2009.6.2.

이근안과 이봉구 등이 내 양어깨를 수도와 몽둥이로 무수히 구타하여 퉁퉁 부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볼펜심으로 쿡쿡 찌르면 아주 자지러지는 고통을 겪곤 하였다.[70] (함주명)

볼펜으로도 고문하더라니까요.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볼펜을 하나 껴놓은 상태로 손을 꽉 조이는 거예요. 그럼 아주 손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요. 진짜 곧 끊어질 것 같죠. 얼마나 아픈지.[71] (최연석)

"어디 고가 잘 풀렸나 볼까?"라며 그는 조사관에게 보라는 듯이 내 허벅지를 볼펜 끝으로 쿡쿡 찔러 보였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지경이었다. 볼펜 끝으로 건드리는데도 어젯밤에 그가 그의 보물인 박달나무 방망이로 찍었을 때의 바로 그 고통이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비로소 그가 자랑하는 '볼펜 심문'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볼펜 끝으로만 찔러 주어도 아주 효과만점일 것이다.[72] (이수일)

첫 번째는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요. 이게 피는 안 나면서 굉장히 아픕니다. 두 번째는 손톱 누르기.[73] (김명인)

황정웅은 병자, 사이코 같아요. 황정웅이 가장 무서웠어요. 언제나 볼펜으로 찔러대는데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이후에도 뾰족한 것을 볼 때 느낌들이 남아 있어서. (김찬훈)

볼펜으로 옆구리, 가슴, 배, 얼굴을 찌르는데 참아낼 수가 없었다.[74] (김철)

4) 관절 뽑기

이근안의 전매특허로 불리는 고문 방식이다. 큰 손으로 팔을 확 잡아당겨 관절을 뽑았다가 다시 밀어 넣는다. 관절을 순식간에 해체하는 기술이다. 관절 뽑기를 당한 피해자는 기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때 수사관들은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다시 고문을 시작했다. '반달곰'이라 불리던 거구의 이근안만이 구사할 수 있는 고문 방식이어서 이근안은 대구 등 타 지역으로 출장 고문을 가서 관절 뽑기 고문을 가했다.[75]

---

70) 이근안, 함주명 대질 검찰 조서(1999.11.18.) 121~122쪽.
71) 최연석 심층 인터뷰.
72) 이수일, 앞의 책, 42쪽.
73) 손우정, "'이제부터 내가 널 맡겠다' 이근안의 관절꺾기에 그만", 오마이뉴스, 2015.8.18.
74) 김철, 의견서, 6~7쪽.
75) "'나도 이근안에게 당했다' 폭로 잇따라", 한겨레, 1988.12.22.

‘관절 뽑기’ 고문으로 유명한 사건은 1979년 남민전 수사 때다. 당시 이재문이 재판정에서 “관절을 떼었다 붙이는 식으로 고문”[76]당했다고 진술했다. 이근안은 이재문의 무릎, 팔 관절을 꺾은 후 그에게 ‘5미터만 제 발로 걸어가면 석방해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남민전의 다른 피해자들도 이근안으로부터 “이재문이도 (나한테) 개구락지 여러 번 됐다”[77]는 말과 함께 ‘관절 뽑기’ 위협을 받았다. 남민전 이후에도 이근안은 “남민전, 무림 모두 내가 고문으로 해결했다”[78]고 자랑하며 관절 뽑기를 멈추지 않았다.

내가 연행되자 유도 8단이라는 건장한 남자 대여섯 명이 나를 이리 메치고 저리 메치고 집어던졌다. 심지어는 접골사를 불러 관절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고문했다.[79] (이재문)

세 번째가 ‘관절 꺾기’였어요. 손목만 꺾어도 뼈가 탈구되는데 너무 고통스럽더군요. 남민전 관련자인 이재문 씨에게도 고문하면서 무릎 꺾고 팔 꺾고 나서 ‘5미터만 제 발로 걸어가면 널 석방하겠다’고 했다더군요.[80] (김명인)

발가벗긴 채로 통닭구이로부터 관절 뽑기, 물고문을 서너 차례씩 당했다. (이재오)

당시 고문을 담당했던 사람은 ‘반달곰’이라고 불린 이근안 경위와 젊은 형사 2~3명이었는데 그의 주특기는 관절을 뽑았다 끼웠다 하는 것이었다. 그는 “남민전도 내가 고문해서 만들었고 무림도 내가 다 해결했다”고 자랑스레 말했는데 경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문식)

5) 통닭구이

‘통닭구이’는 사람을 통닭처럼 만들어 파이프에 매다는 고문 방식이다. 손목과 발목을 묶은 후, 그 사이에 긴 파이프를 끼워서 한쪽 끝은 욕조 벽에 다른 한쪽은 책상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파이프에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가 된다. 이때 목은 자연히 아래로 처지게 되는데, 얼굴에 수건을 덮고 주전자나 샤워기로 물을 붓는다. 순식간에 수건이 콧구멍과 협착되면서 호흡이 어려워진다. 고통 때문에 심하게 몸부림치면 결박한 손목, 발목의 근육과 인대가 파열됐으며, 기절하기도 했다.[81]

---

76)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거름, 1987., 225~228쪽.
7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2000.10~2002.10) 제3부: 개별 사건 보고, 653쪽.
78) “발가벗긴 채 물고문, 전기고문”, 한겨레, 1988.10.25., 11면.
79)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앞의 책, 같은 쪽.
80) 손우정, “‘이제부터 내가 널 맡겠다’ 이근안의 관절꺾기에 그만”, 오마이뉴스, 2015.8.18.

일제강점기부터 전수되어온 '통닭구이' 고문은 1986년 반제동맹당 사건 피해자들이 폭로한 고문 방법이기도 하다. 반제동맹당 사건[82]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아닌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한 사건이지만, 이근안이 수사책임자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통닭구이 고문 피해자가 나타난 건 1989년 김철 재일교포 조작간첩사건 이후다. 1987년 김근태가 칠성판에서의 전기고문을 폭로한 후, 사라진 칠성판의 자리를 대체한 고문 방식으로 보인다.

발목과 손목을 끈으로 묶고 긴 쇠파이프를 상하로 끼워서 한끝은 화장실 담벽(차폐막) 위에 다른 한쪽 끝은 책상에 올려놓으면 저의 몸은 쇠파이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데 이때 목은 쉽게 아래로 처지게 되고 노란 수건을 얼굴에 덮어씌우고 주전자로 얼굴과 코에 물을 부으면 호흡과 동시에 물을 삼키게 되고 수건이 콧구멍과 협착되면서 호흡이 곤란해져 금방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면 묶어놓은 손목과 발목의 아픔은 더욱더 가중되면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83] (김철)

6) 물고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됐던 대표적인 고문이다. 나이, 성별, 조직 내 직책,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는 대공분실에 연행된 첫날 물고문을 당했다. 수사기관의 '기선제압'과도 같았다. 갓 스무 살이 된 대학생에게까지 물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보아 물고문은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온 거의 모든 사람에게 행해진 일종의 통과의례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어쩌면 필연적 결과였다.[84]

물고문 방식은 다음과 같다. 물을 가득 받은 욕조에 머리를 처박거나, 머리를 뒤로 젖힌 뒤 코에 대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칠성판에 눕힌 후, 샤워기나 주전자를 이용해 얼굴에 집중적으로 물을 붓기도 했다.

물에 고춧가루나 소금을 넣어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피해자가 수십 일간 신었던 양말에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물을 부어 코에 들이붓거나[85], 소금물을 하루

81) 김철, 의견서, 8~10쪽.
82) 박충렬 등 12명의 반제동맹당 사건 당사자들은 1986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한종철, 이강원 등에게 통닭구이, 날개꺾기, 관절꺾기,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을 쉼 없이 당했다며 수사관들을 독직,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각종 고문사건 수사 '실종'",한겨레, 1989.2.15., 11면.
83) 김철, 의견서, 6~7쪽.
84) 박동선,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85) 이창섭, "80년 기협·경향 사건 전말", 신문과 방송, 332호., 1998.8.

5~7시간 동안 코로 먹이기도 했다.[86] 피해자에게 식사로 짬뽕을 주면서 '국물을 남기라'고 지시한 후 이것을 입과 코에 들이붓는[87] 방식도 자행됐다. 온몸의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숨이 턱턱 막히지만 물고문을 벗어날 방법은 없었다.

피해자들이 물고문은 일상이었다고 주장할 만한 정황은 고문 직전의 상황으로 유추할 수 있다. 먼저 물고문 전에 30분 이상 뜀박질이나 앉았다 일어서기 등을 시켜 몸에서 땀이 나게 했다.[88] 일종의 준비운동이다. 고문은 주로 초저녁에 진행됐는데 고문 당일에는 밥을 먹이지 않았다.[89] 고문을 받다가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거나 쇼크사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90]

쇼크사를 막으려는 응급조치도 이어졌다. 물고문 중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면 수사관 한 명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배를 눌러 물을 빼내고, 다른 한 명은 심장 부위를 압박했다.[91] 그러나 기절했다고 해서 물고문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한 피해자는 연이은 물고문으로 온몸이 늘어진 자신에게 이근안이 다가와서 배를 쿡 찌르며 했던 말을 생생히 기억했다. "거 장 파열은 아니구먼. 더 부어도 돼."[92]

물고문을 시작하였는데 칠성판의 발 쪽을 들어서 그대로 욕탕에 밀어 넣었다. 그렇게 하자 입과 코로 물이 들어왔고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때 수사관들은 항복할 의사가 있으면 발가락을 움직이라고 하였다. 항복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입을 벌려서 주전자로 물을 붓기 시작했고 한참 물을 마시고 까무러쳤다. 이 과정을 몇 번에 걸쳐 반복했다.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자 이제는 젖은 수건을 얼굴 위에 덮고 그 위에다 물을 붓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는 숨을 쉴 수가 없어 무척 괴로웠다. 그래도 버티자 다음 단계로 수건을 입에 넣고 코를 막은 상태에서 물을 부었다. 이때도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고, 입으로 똥물까지 다 토해내야 했다. 물고문은 욕탕에 집어넣는 것은 6~7회, 얼굴에 수건을 덮고 하는 것은 3~4회가량 당하였다.[93] (이태복)

딱 한 사람만 누울 수 있는 판이에요. 그 위로 눕힌 후 온몸을 꼼짝 못 하게 묶어요. 다음에 얼굴에 수건을 대고 샤워 꼭지를 틉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렵고 죽을 것만 같아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싶어요. 물고문을 받은 후 다시 진술하는데, 이번엔 북괴 노동당에 가입했다느니, 신문 광고를 통해 간첩들끼리 알아보는 암호를 냈을 거라면서 바른대로 말하라는 겁니

86)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김 전 의장 부인 인재근 씨의 증언", 40쪽.
87) 김태룡 진술서, 2009.7.
88) 김찬훈, 제2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3.10.
89) 김근태, 「남영동」, 중원문화, 2007., 86~89쪽.
90) 송창석, "이근안 전 동료경관이 밝힌 당시 고문수법", 한겨레,, 1999.11.25.
91) 김철, 의견서, 8~10쪽.
92) 이창섭, 앞의 기사.
93) 이태복,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 2009.3.24.

다. 저는 광고를 낸 적도 없고 모른다고 하니까 또 고문이 시작되는데 이번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수갑을 뒤로 채우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그대로 기절해버렸죠. 그러니까 욕조에서 끄집어내서 이근안이 배에 올라타서 물을 빼요. 깨어나서 물을 한 양동이 이상 토하고 실신 상태에 있으면 더운 소금물을 가져다 강제로 먹여요.[94] (함주명)

욕조에 머리를 젖히게 한 후 샤워 꼭지를 코에 대고 물을 트는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무릎 사이로 손을 넣게 해서 수갑을 채우고, 발목에도 끈을 묶어 다리 사이로는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발목에 묶은 끈을 허리로 연결을 해서 꼼짝을 못 하게 하더니 두 명의 수사관이 나를 들어서 욕조에 집어넣었습니다. 욕조에 옴짝달싹 못 한 채로 있는데 얼굴에 손수건을 덮고 샤워 꼭지를 얼굴에 틀어댔습니다. 순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문을 두어 번 정도 당했습니다. 제가 기절을 하니 다음에는 그냥 손을 뒤로 묶어서 수갑을 채워 가지고 욕조에 꿇어앉으라고 하더니 머리채(그때 제 머리가 긴 편이었습니다)를 잡아당겨 욕조 뒤로 젖혀서 수건도 씌우지 않고 샤워 꼭지를 들이댔습니다. 그것도 두어 번 당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에게 짬뽕을 시켜주며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국물은 먹지 말고 다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욕조 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얼굴에 수건을 덮어 물을 부었습니다. 입으로 코로 들어오는 것이 짬뽕 국물이었습니다. 그 매운 국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오니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소리 지를 힘조차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참 모욕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도 짬뽕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95] (김태룡)

보통 집에 있는 욕조 반 정도 크기인데, 가득 물을 받더니 두 사람이 내 머리를 잡아서 물속으로 푹 집어넣어요. 입속으로 콧속으로 눈속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물속에 눈이나 코가 떠다니는 것 같고,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죽기 직전이 되면 다시 꺼내놓고,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고… 서너 번을 반복했어요. 정말 진저리 나는 고통이에요. 아주 치가 떨립니다.[96] (최연석)

칠성대 위에 올려 눕혀진 나는 순식간에 완전히 결박되었습니다. 협박자들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물고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백남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따라 눈이 가려져 있는 내 얼굴에 수건이, 노란 세수수건이 덮어 씌워지고 세상은 희뿌옇게, 누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현규와 최상남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 양쪽을 힘을 주어 고정시키고 그 위에 수도꼭지를 틀어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했습니다. 육척 거구인 김영두가 그 샤워 꼭지를 잡고 사정없이 얼굴에 물을 들이댔습니다. 그러는 한편 주전자에도 물을 담아 동시에 붓고 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칼을 갈면서 견디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숨을 어떻게 몰아쉬고, 또 안 쉬고 또 몰아쉬고 하면서요. 하지만 애당초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탁탁 막히고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안간힘일지도 모르는 그 순간이 덮여온 것이었습

94) 함주명 심층 인터뷰.
95) 김태룡, 진술서, 2009.7.
96) 최연석 심층 인터뷰.

니다. 주위는 신 냄새 나는 짙은 깜깜함으로 뒤바뀌고 속은 메스꺼워지다가 완전히 뒤집히고 콧속으로 노린내가 치솟고, 물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불길이 치솟고요. 온몸을 버둥거리고 혼신의 힘으로 뒤척거리니 칠성대도 기우뚱하였지요. 몸은 완전히 땀으로 젖어 버리고 담요도 땀으로 물컹해졌습니다. 샤워기와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의 감촉, 물소리는 공포가 되어 온몸에 덮쳐오고 천근만근 무게로 짓눌려 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견디었는지, 아니 단 1분이라도 견디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근태)

일단 옷을 벗기고 샤워기로 물을 뿌려서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게 만들어요. 실제로도 매우 춥고, 공포스러워요. 이게 물고문 가기 전 단계예요. 그리고 등 뒤로 손을 넘겨서 수갑을 채운 채로 머리를 욕조에 박아요. 세 번 이상은 받았던 것 같아요. 박종철의 경우, 욕조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고 욕조 밖에서 몸을 눌렀어요. 물고문이 시작되면 내 의지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걔들이 꺼내줘야 하잖아요. 강한 힘으로 눌러대는데 꼼짝 못하고 그냥 물먹는 거죠.[97] (황인욱)

가장 두려웠던 건 물고문 한 번 당하고 나서, 옆을 보니 유리잔에 고춧가루가 한 4분의 3 정도 담겨 있더라고. 저걸로 내가 당했구나 싶었지. 7월 17일 한여름인데도 추위 때문에 담요를 몇 겹이나 뒤집어쓰고서 온몸을 막 떨었어. 그 방에 들어온 딴 놈들이 날 보고선 “얘 왜 이래? 얘 전기 했어?” 이러더라고. 그때 알았지. 아, 전기도 하는구나. 참 기가 막혀서, 앞으로 어떤 일을 더 당할지 알 수 없구나. 그때 처음으로 겁이 났어.
‘이제 난 죽었다’ 이거지. 아는 게 있다면 다 불겠더구만 뭐. 몰라도 불어야겠더구만. 물이 얼굴로 쏟아지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 몇 분이나 당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기절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 공포스럽지. 앞으로 또 뭐가 올지 모르니깐. 물고문 후에 어쩌다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해골처럼 보이더라고. 하루 딱 지났을 뿐인데, 사람 얼굴처럼 안 보였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싶었지.[98] (유숙열)

두 발목을 밧줄로 묶고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역시 밧줄로 묶어서 무릎을 두 팔 사이로 넣고 굽힌 무릎 사이로 침대 봉을 넣어 거꾸로 매달았다.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었다. 이제부터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이 시작되는구나. 나는 이미 겪은 경험에 따라 살아나가길 체념하고 빨리 내 의식이 사라져 주기를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게 기원했다. “나를 빨리 거두어 주소서.” 수건으로 덮은 얼굴 위로 고춧가루를 탄 주전자 물을 붓기 시작했다. 눈, 코, 입으로 들어가는 맵고 따갑고 화끈거리는 고통에 혼신의 힘으로 버둥거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침대 봉이 부러지고 다시 막대기가 끼워졌다. 그들은 숙련공처럼 침착했고 나는 짐승처럼 버둥거리다 지쳐 의식을 잃었다. (이재오)

97) 황인욱 심층 인터뷰.
98) 유숙열 심층 인터뷰.

나는 훗날 이근안 경위로 밝혀진 그 수사관으로부터 몽둥이찜질과 물고문을 당했다. 팬티만을 걸친 채, 이른바 칠성판이라고 불리는 판자 위에 몸이 꽁꽁 묶여지고 얼굴에는 큰 수건이 씌워진 나에게 수사관들은 계속 물을 부으면서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렸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제발 의식이 빨리 사라져 달라고. 큰 주전자에 가득 찬 물은 나의 입으로, 코로 마구 들어갔다. 그러면서 한 수사관은 조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표시로 발가락을 까딱까딱하라고 협박했다. 물고문에 굴복하지 않으면 전기고문으로 들어가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나는 숨이 턱턱 막히자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머지 의식이 차라리 없어지기만을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은 어째서 그렇게 빨리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나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내 딸 정아가 이렇게 속삭이는 환각에 사로잡혔다. "아빠, 빨리 그렇다고 말해주고 벗어나세요. 아빠가 죽으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살아요." 도저히 참지 못한 나머지 내가 발가락을 까딱거리자 수사관들은 칠성판에서 나를 풀어주었다. 안경을 받아 쓴 나는 고문실 바닥이 흥건하게 물로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강제로 거짓조서에 날인한 나는 너무도 억울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소변을 보았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게 보였다.[99] (이경일)

끌려온 지 며칠이 지나자 칠성판에 올려졌다. 수건 대신 신고 있던 수십 일 된 양말 안에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물을 부어 코에 강제로 들이부었다. 몇 번이나 혼절했다. 물고문을 할 때는 반드시 이근안 경위가 참여했다. 죽지 않을 만큼 기술적으로 고문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루는 묶인 채 축 늘어진 나에게 이근안이 다가오며 손가락으로 배를 쿡 찔렀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다. '거 장 파열은 아니구먼! 더 부어도 돼.'라고.[100] (노향기)

99) 이경일, 「10년 전에는 무얼 하셨죠?」, 우석출판사, 1993., 23~27쪽.
100) 이창섭, "80년 기협·경향 사건 전말", 신문과 방송, 332호., 1998.8.

7) 전기고문

전기고문은 고도의 기술이 동반됐다. 몸에 충분히 땀을 냈거나, 물고문으로 온몸이 젖어 전기가 잘 통하는 상태에서 시작됐다. 칠성판에 결박한 후 양쪽 엄지발가락에 볼펜 굵기의 전선을 연결하고, 전동기 장치를 작동시켜 온몸에 전류를 통하게 했다. 처음에는 발가락으로 시작해서 손가락, 그리고 나중에는 성기에 전선을 감아 고문하기도 했다.[101] 칠성판에 꽁꽁 묶여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면 상체와 팔,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떠올랐다.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시작하다가 점점 길고 강력하게 전류의 세기를 높였다. 피해자가 '이겨낼 수 있는' 반응 정도에 따라서 전류의 강약을 조절했는데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전류가 약했다가 강해"[102]지는 느낌을 받았다.

전기고문은 전류가 흐르는 시간과 방향을 철저히 계산해서 조절하지 않으면 장이 파열되거나 목숨까지도 앗아 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의학적 지식과 노련한 경험을 갖춘 기술자만이 구사할 수 있었다.[103] 그 '고문기술자'가 바로 이근안이다. 그는 신체 반응에 맞춰 고문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했다.[104]

이근안은 군용 전화기에 있는 발전기[105]를 이용해 고문용 전동기를 직접 고안했다. 평소에는 델시 상표의 검은색 사무가방에 이 장비를 넣어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고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같은 대공분실 수사관들조차 "(전기고문) 장비에 손을 대면 큰일" 났으며, 실제로 고문할 때에도 절대 다른 사람이 장비를 사용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전기고문이 큰 외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고 극도의 고통과 공포를 수반했다고 말한다. "핏줄을 뒤틀어 놓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마디마디를 끊어내는" 고통이었으며, 전기가 발끝을 통해서 머리끝까지 쑤셔댈 때마다 "미친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온통 휘감고, 희번덕거리는 눈동자가 내 눈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공포와 광란이 소용돌이"쳤다고 한다.[106]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고서 몸속의 오물을 모두 쏟아내기"도 했고,[107] 한 피해자는 전기고문 후 자신의 모습을 "도살당하기 바로 직전의 돼지"[108]라고 표현했다.

---

101) 이태복,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 2009.3.24.
102) 함주명 진술조서 중 제2호10, 1999.11.16., 검사 이진우 참고.
103) "고문, 끝나지 않은 전쟁",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0.10.22.
104) "'고문경관' 이근안 자수, 관절뽑기…전기찜질 악명 높았다", 동아일보, 1999.10.29.
105) 함주명 수사관 이봉구 진술.
106) 김근태 진술.
107) 이선근 심층 인터뷰.
108) 김철, 의견서, 6~7쪽.

전기고문, 그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8시 반부터 9월 6일 새벽 1시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전기고문이라고 하니까 고문담당자는 이것은 전기고문이 아니라 '배터리고문'이라고 했습니다. … 칠성대 위에 또다시 꽁꽁 묶여진 다음에 고문자들은 발바닥과 발등에 붕대 같은 것을 여러 겹 감았습니다. 새끼발가락과 그다음 발가락 사이에 전기 접촉면을 끼우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았고, 이 붕대도 전기담요처럼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발에, 사타구니에, 배에, 가슴에, 목에, 그리고 머리에 주전자로 물을 들어부었습니다. … 고문기술자는 뭔가 쉴 새 없이 떠들고 겁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제 전기가 통하면 회음부가 터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팬티를 벗겼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물고문이 진행되어 몸에 땀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전기고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그러다가 점점 길고 강하게, 강력하게 전류의 세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약해지고, 가끔씩은 발등에 전기를 순간적으로 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희미한 자국으로 남아 있지만, 그래서 발등의 살가죽이 꺼멓게 타 버리게 되었습니다. …

전기고문, 그것은 한마디로 불고문이었습니다. 외상을 남기지 않으면서 치명적으로 내상을 입히고 극도의 고통과 공포를 수반하는 고문입니다. 물고문과 불고문의 조화라고나 할까요. 그 상승효과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문이 밑바닥에 닿지 않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질식해 가는 것이라면 전기고문, 즉 불고문은 담금질해서 뜨거워진 불 인두로 지져서, 바싹 말라 바스러뜨리고, 돌돌 말려서 불에 튀기는 그런 것입니다. 전기고문, 그것은 핏줄을 뒤틀어 놓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마침내 마디마디를 끊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빠개질 듯한 통증이 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파고드는 것처럼 아른거리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온몸이 저리고 칙칙해져서 끈적끈적한 외마디를 계속 질러 대게 되더군요. 전기가 발을 통해서 머리끝까지 쑤셔 댈 때마다 어두운 비명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의 각 부분은 해체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 미친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온통 휘감고 그 희번덕거리는 눈동자가 내 눈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환상이 공포와 광란의 소용돌이로 닥쳐왔습니다. 이것은 슬픔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파괴, 그 자체였습니다.

8일에 있었던 물고문, 그것은 4, 5, 6일에 자행한 것보다 지독했습니다. 그것은 세수수건 대신 코와 입 위에 거즈를 덮고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수수건을 덮고 고문할 때에도 호흡이 완전차단, 그것인 것입니다. 공기가 끼어들 여지를 배제해 버리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날 물고문의 중간에 한 번 입을 벌려서 고춧가루를 처넣었습니다. 곧 뱉어 버리긴 했지만 입속이 얼얼하고, 고문대 위 담요에 고여 있는 땀과 물속에 떨어진 고춧가루 때문에, 등 전체가 따갑기도 했습니다. 무슨 화학약품이라고 겁주면서 거즈 위에 한 움큼을 집어다 놓고 물로 녹여서 입·귀·콧속으로 녹아들도록 했습니다. … 이는 심리적 압박으로 고문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기고문의 전류가 더 잘 통하도록 핏속의 전리도를 높이려는 이중적 계산이 내포된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날의 고문은 잔인무도의 정점이었습니다. 목이 완전히 붓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연거푸 비명을 질러 댔기 때문에 목이 쉬게 된 것이지요. 팔꿈치와 발뒤꿈치는 이미 헤어져 상처가 어느 정

도 깊어지기도 하고요.[109] (김근태)

전기고문 도구는 밧데리 몸체가 있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전선 끝부분에 코일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코일을 발가락 등에 감는 방법을 사용했다. 밧데리 몸체에 있는 손잡이를 통해 전기의 강도를 조절하였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돌리다가 점차 빨리 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기고문 부위도 처음에는 발가락으로 시작해서 손가락, 성기로 이어졌다. 이때는 신체적 고통보다는 심리적 공포가 대단했고, 전기고문은 10여 차례 당하였다.[110] (이태복)

칠성판에서 물고문 하다가 중간중간 전기고문도 해요. 발가락에 전선을 꽂아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 몸이 뜨게 돼요. 허리가 부러지거나 잘리는 듯한 고통이에요. 그걸 얼마나 반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속의 온갖 오물을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도 안 분다고 지독한 놈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다 까무러치면 다시 깨워서 반복해요. 이렇게 3~4일 당했어요.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무엇인가를 돌리는 소리가 나면 곧바로 충격이 왔어요. 충격이 오면 허리가 꺾이면서 하늘로 붕 뜨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손가락도 똑같이 당했고요. 물고문, 전기고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세트예요. 욕조에 거꾸로 집어넣다가,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붓고 그러다가 전기 하고. 때리는 건 안 멈추죠. 주먹으로 계속 가슴을 난타하고 머리를 벽과 책상에 찧어대고 구둣발로 발가락을 짓이기는 등 다 헤아릴 수 없어요.[111] (이선근)

방에는 무슨 철제침대 같은 게 있는데 한 사람이 누울 만한 크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눕히는 겁니다. 아. 그 침대 같은 것에 혁대 같은 게 세 개가 달려 있어요. 그걸로 제 다리, 팔, 배를 묶어요. 내 양쪽 손가락, 발가락에 전선을 꽂은 후에 한 놈이 전선을 콘센트에 꽂아요. 뭔가 장치를 누르면 온몸에 전류가 통하고 그럼 아아아아악!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니깐 입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놈이 커다란 주전자로 입안으로 물을 쏟아부어요. 하도 물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남산처럼 차오르면 아까 뚱뚱한 놈이 내 몸에 올라타서는 배를 눌러대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물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배가 홀쭉해져요. 서너 번 당했더니 안 되겠더라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그만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수사관이 "나가서 딴 말하면 죽는다"고 그래요.[112] (최연석)

물고문도 참기 어려운데 이제는 양쪽 새끼발가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넣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묻는데 여기에 시인하면 손끝을 움직이라고 해요. 진술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다 꾸며내는 거예요. 내용을 불러주면 저는 "네네"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하면 죽는데? 시키는 대로, 무조건 "네네" 해서 엉터리 조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들이 부르는 '칠성판'에 저를 묶어놓고 이근안이 가슴에 올라타고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씌운

109) 김근태, 앞의 책, 65~111쪽.
110) 이태복,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 2009.3.24.
111) 이선근 심층 인터뷰.
112) 최연석 심층 인터뷰.

상태에서 샤워기로 물을 쏟아붓고 발아래에서는 양발의 새끼발가락에 전선줄을 감고는 전류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라고 약 10여 분 정도 위와 같은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고문 과정에서 물고문은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숨을 쉴 수 없어 곧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공포감이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먹고 의식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그 공포감이나 고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말을 안 해도 알 것입니다. 더구나 온몸을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묶어놓아 발버둥도 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함주명)

8) 협박

한 대도 때리지 않고서도 피해자를 굴복시키는 방법이었다.[113] "젖 먹을 때의 똥물까지 다 게워내도록 하겠다"[114]는 발언을 비롯해 "조상에게 보내겠다"[115], "너 같은 새끼는 한 달만 있으면 겉으로 표시 안 내고 죽일 수 있다"[116], "여기서는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너 같은 빨갱이 하나 죽인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다"[117]는 말로 살해 위협을 가했다.

피해자들은 단순 협박을 넘어서 실제로 죽음에 근접하는 공포를 느꼈다. 이근안으로부터 "죽기를 원하면 죽여줄 테니 말해보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는 당시 "'죽이라'고 한마디만 던지면 이근안은 본인을 실제로 죽였을"[118] 것이라고 진술했다. 모의사형이 당장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고 느꼈다.

계속해서 그들의 말에 시인을 하지 않자 "네가 죽겠느냐, 이선근이가 죽겠느냐"고 하더니 "한강에 돌을 매달아 빠트려 죽이겠다"고 하고 "죽여서 휴전선에 갖다 버리고 월북하려는 것을 죽인 것이라고 발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각본이 다 짜여진 대로, 즉 반국가단체의 수괴이고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해대었습니다. 그동안 죽었다 깨어나기를 세 차례나 하였습니다. 또한 자살로 발표한 서울 법대 최 교수 역시 유사한 고문에 의해 고문치사 당한 것이라 합니다.[119] (이태복)

---

113) "고문, 끝나지 않은 전쟁",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0.10.22.
114)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7차공판, 김종복 청년부장의 진술", 42~43쪽.
115)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앞의 책, 거름, 76~78쪽.
116) 구속자 가족 일동, "학림, 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7.5., 14~15쪽.
117) 김철, 의견서, 8~10쪽.
118)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앞의 책, 같은 쪽.
119)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고문근절대책공청회 자료집 - 고문피해의 증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7.1.20., 8~9쪽.

"네놈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독한 놈"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너 같은 빨갱이 하나 죽인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이 하나 없다"면서 입과 코, 얼굴에 물을 붓기 시작하였는데 수건으로 가려진 코는 물에 젖어 호흡을 할 수 없었으므로 입으로 숨을 쉬려고 하니까 물이 넘어 들어갔습니다.[120] (김철)

"너 같은 새끼는 한 달만 있으면 겉으로 표시 안 내고 죽일 수 있다"면서 "새끼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면서 엎드려뻗쳐 시키고 마구 때렸습니다.[121] (신철영)

(이근안) 그는 나에게 "죽기를 원하면 죽여주겠으니 말해보라"는 것이었다. 내가 "죽일 테면 죽이라"고 한마디만 던지면 아마도 그는 나를 죽였을지도 모른다. … 몇 시간을 쉬게 한 뒤 다시 불러주고 받아 적게 했다. 그리고는 손도장을 찍게 하고는, 이 이상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그 때는 아예 생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122] (김재술)

(1) '이재문' 협박

수사관들이 주로 사용한 협박은 "이재문처럼 당해볼래"였다. 이재문[123]은 1979년 10월 남민전 사건으로 끌려와 이근안으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앓다가 서대문구치소에서 옥사했다. 그 협박은 피해자들을 "죽음의 공포"[124]로 몰아갔다. 이재문과 동일한 '반국가 수괴 혐의'를 받은 1980년 학림 사건 이선근의 경우 "(이재문을 언급하자) 우리도 이제 넥타이공장(사형대)으로 가는구나 싶었다"[125]고 진술했다. 실제로 남민전 사건 후 이근안은 대공분실 내에서 확실한 지위를 확보했으며, 전속 고문기술자로 자리매김했다.

상당수의 피해자가 '이근안이 이재문을 언급하며 협박했다'고 진술했는데, "5층에서 무술 경찰관들이 이재문을 마치 개구리 집어 던지듯 고문했다"[126]거나 "너희 수괴 이재문도 나한테 죽다 살았어. 골병 많이 들었다"는 내용이다. 이재문이 옥사

120) 김철, 의견서, 8~10쪽.
121) 구속자 가족 일동, "학림, 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7.5., 14~15쪽.
122)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앞의 책, 같은 쪽.
123) 이재문은 1980년 12월 23일 사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건강이 악화됐으나 구치소 측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병원에서 '위 유문부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술로 쉽게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구치소로 다시 이송된 후 치료도 없이 방치되었고 결국 두 달 후인 1981년 11월 22일 4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위의 책, 225~228쪽.
124) 이선근 심층 인터뷰.
125) 이선근 심층 인터뷰.
126)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2000.10~2002.10) 제3부: 개별 사건 보고, 650~651쪽.

한 1981년 이후에는 협박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고, 이재문이 옥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이재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이 부서져서 병사했다"[127], "이 자리에서 이재문이 나한테 당했다"[128], "이재문이 죽어 나간 방으로 가자"[129]는 말로 공포감을 조성해 고문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나 피해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재문처럼) 3개월, 6개월 뒤에 죽을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준다"[130]는 말에 몸서리쳤다. '죽음의 시기'마저 고문 수사관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뉘앙스 때문이다.

이근안 씨 말이, 이재문은 내가 죽였다.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3개월 뒤에 죽일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죽일 수도 있고,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1년 뒤에 죽게 할 수도 있고. 이재문은 딱 6개월쯤 살다가 죽게끔 만들어 놨다. 그놈은 살아도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다.[131] (김명인)

장의사 사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다. 이재문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를 했다.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가 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줄 테니까 그때 너가 복수를 해라. (김근태)

걔네가 겁주는 말이 있어요. "남민전 이재문이가 여기서 수사받고, 사형당해 죽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나도 끝나겠다'라고 생각했죠. 말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길 기억하는 것만 봐도. 다른 상황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건 기억하거든요. 남민전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옥사한 것도요. 이재문 선생님 얘기는 대공분실에 온 모두에게 다 한 것 같아요.[132] (김주언)

백남은은 "이 자리에서 이재문, 이태복, 김근태, 허인회가 모두 나한테 당했다", "근태는 결국 내 앞에서 살려달라고 말하며 기었다"고 계속 자랑했다. 백 전무는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해댔다. "허인회가 나가더니 고문받았다고 떠들고 김근태도 계속 떠드는데 너도 나가거든 실컷 떠들어봐라. 그러나 나는 끄떡도 안 한다. 증거가 있느냐? 고문으로 내 목이 날아갈 것 같았다면 아예 고문하지도 않는다. 어디 한번 싸워보자."[133] (김상복)

이재문이 여기서 죽어 나갔다고 협박하는데 공포스러웠어요. 이재문이 옥사했잖아요. 죽음의 공

127)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36~37쪽.
128) "발가벗긴 채 물고문, 전기고문", 한겨레, 1988.10.25., 11면.
129) 유숙열 심층 인터뷰.
130) "국가에 충성한 죄? - 고문기술자 이근안", KBS 인물현대사, 2004.4.2.
131) 위의 프로그램.
132) 김주언 심층 인터뷰.
133) "발가벗긴 채 물고문, 전기고문", 앞의 출처.

포가 몰려왔어요. 우리도 반국가 수괴 혐의라고 하니 '나도 죽겠구나. 우리가 이제 넥타이공장(사형)으로 가는구나' 싶었어요. 1976년 반공법 전과도 있었으니깐. 나중에 1심 구형에서 무기징역 나온 거 보고 살았다 싶었지만.[134] (이선근)

첫날 새벽에 도착해서 '김태홍 어디 갔는지 아느냐'고 협박하다가 '남민전 이재문 죽어 나간 방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 이재문에 대해선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 하지만 약간 무섭긴 했지. 뭔가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했어.[135] (유숙열)

옆방에 송건호 선생이 잡혀 왔는데 수시로 소름 끼치는 비명이 들려왔어. 수사관들은 나에게 '송건호 저 새끼 머리에 총을 대고 쏴 죽여버릴까 말까 한다'고 겁을 주었어. 그땐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홍종민)

(2) 성적 굴욕감

성적 굴욕을 주는 방식도 자행됐다. 성기를 직접 때리거나[136], 성기에 전선을 감아 전기고문[137]을 했다. 심지어 '가족'을 인질 삼아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발가벗은 상태로 가족과 대질시키겠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전술 앞에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모든 협박은 '실행'으로 이어졌기에, 피해자들은 가족 앞에서의 성적 고문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느꼈다.

고문담당 기술자가 고문 도중에 지쳐서 잠시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본인의 생식기를 가리키면서 "야, 이렇게 작은 것도 X이라고 달고 다니냐. 너희 민주화운동 하는 놈들은 다 그러냐"라는 성적인 모욕도 하더군요.[138] (김근태)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은 아내를 들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발가벗겨 놓고 무릎을 꿇려 앉힌 채 성기를 때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자백하지 않으면 네 마누라를 데려와서 이 꼴을 구경시키겠다"고도 하고, "네 마누라도 이 꼴로 만들어야 하겠느냐"며 끔찍한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태세로 보면 정말 그러고도 남음이 있을 법했습니다.[139] (김태룡)

---

134) 이선근 심층 인터뷰.
135) 유숙열 심층 인터뷰.
136) 김태룡, 진술서.
137) 이태복,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 2009.3.24.
138) 김근태, 앞의 책, 74~78쪽.
139) 김태룡, 진술서.

(3) 가족을 인질로 협박

남영동 대공분실이 만들어낸 '삼척 가족간첩단 사건',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등 일가족이 붙잡혀온 사건의 경우, 수사관들은 부부, 모자, 삼촌-조카, 형제 등 가족 관계를 이용하는 반인륜적 수사도 서슴지 않았다. 어머니의 신음을 들은 아들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허위자백을 해야 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형은 동생만은 살려달라며 허위자백을 하기에 이르렀다. 가족을 몽땅 붙잡아오는 것이 수사관들로서는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 누님, 남동생, 숙부, 당숙, 오촌 형제들이 고문받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살을 찢어내는 것 같았다. 공포스러웠다. 그런다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피할 수도 없었다. "신음소리,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나는 '아, 아버지구나, 항식이 삼촌 맞고 있구나, 태룡이 비명소리구나',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서워서 벌벌 기었어요. 수사실 벽이 올록볼록한 방음벽이래요.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말라는 벽인데도, 그렇게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형사들은 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제일 큰 죈데, 그것은 다들 이미 인정했으니까 이제 다른 '자잘한 것'들을 말해라. 니가 부인하면 네 동생 태룡이만 더 죽을 줄 알아라고 했어요. 당숙한테 지령을 받았다, 간첩활동을 했다, 이런 것을 말하라는 것인데, 뭘 했어야 말을 하죠. 그때는 차라리 간첩이라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덜 맞을 테니까. (김순자)[140]

수사관들은 가족관계를 이용해서 더욱 압박했다. 딸들을 데려와서 조사를 하고, 툭하면 가족을 다 잡아들이겠다고 협박했다. "제가 제일 겁이 났던 일은 옆방에서 들리는 위협과 신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큰어머니(서순녀)가 바로 옆방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너 하나쯤 죽어 나가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는 소리가 내 방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문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서로 듣게 하고,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조카가 죽는다고 협박하면서 그들은 원하는 각본을 만들어나갔다.[141] (최을호 딸 최명자)

9) 밥 굶기기

고문 가해자들은 굶기는 것을 육체적·심리적 고문으로 활용했다. 자술서를 쓰는 수사 초기단계에는 피해자들에게 밥을 거의 주지 않았다. 5일가량 밥을 먹지 못했던 한 피해자는 "빨갱이는 밥 먹이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의 눈앞에서 밥그릇을 차버렸던[142]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특히 10일간 물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

140) 진실의 힘, "김태룡의 오래된 기다림" 소식지 20호, 2014.
141) 송소연, "피고인 없는 무죄…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2017.7.10.

자, 어쩔 수 없이 변기 물을 마시면서 버텼다는 진술도 있다.[143] 물고문, 전기고문을 앞두고 식사를 주지 않아 고문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심리적 고문도 이어졌다.[144]

밥 앞에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상황도 있었다. 밥은 단순한 요기 수단이 아니었다. 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초주검이 된 상태"로 고문을 한 후, 피해자를 위로하며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다. 김근태는 "고문 없이 하루가 지난 것을 고마워하면서 주는 라면에 콧등이 시큰해지는 미묘한 혼란상태로 들어갔다"[145]고 기록한다.

거듭된 고문으로 피폐해진 피해자 앞에서 수사관은 밥 한 그릇을 내밀며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부모님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다. 피해자는 "'적'이 주는 밥 한 그릇에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다."[146] 대공분실에서의 '밥'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붕괴시키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며칠간은 밥도 전혀 안 줬어요. 밥을 주는 척하다가도 수사관 새끼들이 "이런 빨갱이는 밥 먹이지 마" 하면서 내 눈앞에서 밥그릇을 차버려요. 한 5일 굶었을 거예요.[147] (이선근)

10일 동안 버텼는데, 어떻게 버텼냐.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할 수 없이 방에 들어가면 침대가 하나 있고, 철제 책상이 하나 있고, 저쪽에 변기통이 하나 있어요. 변기통 물을 10일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148] (연성수)

식사를 주지 않아 고문이 박두했음을 경고하는 심리적 고문, 조건반사에 기초한 압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밥의 제공 여부가 고문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알림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밥은 요기 수단이 아니었으니까요. 평균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이른바 고문자들이 말하는 본인의 해이함을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심리적 고문을 해왔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인 5시 반부터 대략 10시까지는 초주검이 된 상태로 지내게 되고, 밤 10시가 지나면 이 고문자들은 본인을 위로하면서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고문 없이 하루가 지난 것을 고마워하면서, 주는 라면에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본인은 남영동에서 살았습니다. 미묘한 감정의 혼란상태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149] (김근태)

---

142) 이선근 심층 인터뷰.
143) 연성수,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144) 김근태, 앞의 책, 102쪽.
145) 김근태, 위의 책, 103쪽.
146) 최규엽 개인 블로그.
147) 이선근 심층 인터뷰.
148) 연성수, 앞의 출처.

10) 심리 고문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신체적 고문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게 한다. 이에 비해 심리적 고문은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협박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혼란스럽게 하거나, 회유를 통해 자포자기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가족은 물론이고 변호인과 면회도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수사를 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고문의 강도는 신체적 고문과 다를 것이 없었다.

(1) 회유

수사는 철저히 분업체계로 이뤄졌다. 한 사람마다 4~5명의 수사관이 조를 이뤄 낮과 밤에 번갈아 들어왔다. 어떤 수사관은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을 가하는가 하면, 어떤 수사관은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척했다. 고문하고 협박하다가 순식간에 돌변해 어르고 달래는 수사가 반복됐다. 강압적 수사가 계속되다가 중간중간 "상담하듯 편안하게"[150] 대하는 수사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로부터 정서적 위로를 얻은 피해자들은 보다 편하게 상황을 진술했다. "고통이 심하고 고생이 되는 줄 안다면서 고문대에서 내려오도록 채근했을 때는 눈물이 핑 돌고 콧등이 시큰해"[151] 질 지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나갈 수 있다', '아는 것을 얘기하면 괜찮다'는 식의 유도신문도 이어졌다.[152] 이렇게 회유를 통해 나온 새 정보는 또 다른 피해자를 취조하는 데 쓰였다. 또한 회유 후에는 꼭 협박, 구타 등 강압적 고문이 이어졌다. 정교하게 설계된 수사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왔을 때는 '야, 얘네들은 진짜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통을 아프게 겪는 것보다는 잔인한 게 심리적으로 더 힘들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놀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앞서 말했던 달래고, 어르는 수사관의 방식이 상당히 정교했어요. 어떤 때는 겁을 막 주다가, 어떤 때는 달래고 위로하다가도 갑자기 뒤집어엎는 수사를 베테랑처럼 했어요. 그때 '아, 이놈들은 닳고 닳은 놈들이다' 생각했죠. 긴 시간 계속해서 자백 받아내려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도 잔인했어요.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회전계단을 내려가던 상황 자체가 살 떨렸던 거죠. 회유하는 수사관들은 늘 있어요. 상담해주는 것처

149) 김근태, 앞의 책, 102~103쪽.
150) 황인욱 심층 인터뷰.
151) 김근태, 앞의 책, 94~95쪽.
152) 연성수,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럼 저를 편안하게 대해줘요. 굉장히 따뜻해서 울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죠. 성격이 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작전인 것 같더라고.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봐야 너만 힘들어"라는 식으로 달래줘요. 팁이라면서 "그럴 때는 니가 아는 것을 꺼내놓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유도신문이죠. 웃긴 건 다음에 들어오는 놈은 항상 강압적으로 대해요. 때리고, 달래주고, 때리고, 달래주고 이런 수사를 반복하는 거죠.[153] (황인욱)

아까 악마라고 했잖아요. 여기 오니 두 종류의 악마가 딱 있더라고요. 한 놈은 얼굴이 완전히 불독이에요. 난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살이 이렇게 늘어져서, 그냥 얼굴이 불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놈은 주로 무엇을 하냐면 패고, 고문하는 역할을 맡아서 해요. 또 한 놈은 삐쩍 말랐어. 머리가 하얘. 근데 눈에서 사악한 빛이 흘러. 딱 보면서 사탄이 있다면 저렇겠구나. 근데 이놈은 주로 달래는 역할을 해요. 막 패고 고문당하고 나면 들어와서 "힘들었지, 나도 옛날에 학생운동 해봤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넘어가서 내 개인사를 조금씩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놈이 그걸 다 취합을 해요. 나가서. 그다음에 또 새로운 방법으로 고문을 하는 거예요.[154] (연성수)

(2) 피해자 간 불신 강요

같은 사건으로 연행된 피해자끼리 서로 불신을 강요하고 이간질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대규모 인원이 연행된 조직사건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자백을 유도하고 퍼즐처럼 사실관계를 맞춰나갔다. "A는 인정했는데 너는 왜 부인하냐", "너희 우두머리가 이미 다 불었다"며 같이 조사받는 다른 피해자들이 이미 진술했다는 사실을 흘린다. '동지'가 입을 열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분노한 이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판단을 내리고, 결국 본인도 입을 열게 된다. 대공분실의 전형적인 수사기법이다. 1979년 남민전, 1980년 학림, 1985년 민청련 등 대형 조직사건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진술한 내용이다.

"야, 김재술! 두목급들도 잡혀서 실토했는데 왜 고집을 부리는가?" 하고 청승맞게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그가 언제 증거를 제시하고 사건 내용을 제시하고 나를 고문했는가? 고문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던가?[155] (김재술)

하루는 이만큼 진술서를 던지는 거예요. "봐라, 너희 대장이 불었어." 하고 던진 거예요. 보니까 정말 김근태 선배 글씨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막 썼어. 그리고 그걸 보고 절망했어요. "대장이

153) 황인욱 심층 인터뷰.
154) 연성수,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155)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앞의 책, 76~78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아무리 고문을 받아도 그렇지," 이 마음이 한 10년 동안 갔어요. 근데 최근에 김근태 선배가 고문후유증으로 죽고 나서, 내가 여기(남영동)에 다시 와보니, 고문이 얼마나 심한지를 느끼고, 반성하게 됐어요.[156] (연성수)

한편 고문 끝에 동료나 선후배의 이름 또는 정보를 자백했다는 사실에 치욕[157]스러움을 느끼는 심리적 붕괴도 많았다. "덜 불고, 더 숨기려고 노력"[158]했지만 결국 실패했을 때 자괴감이 찾아왔다. 한 피해자는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거짓자백을 한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 모멸스러"웠으며 "그곳에 흉기나 독약이 있었다면 서슴지 않고 자결했을지 모른"다고 고백한다.[159] 허위자백 이후 찾아오는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강하고 질겼다.

20명가량의 학생들이 같이 조사를 받으니깐 서로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진술하다가 애들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냥 쥐어패는 거야. 그러면서 "너 인마 감추는 거 있지?"라고 협박해요. 그러면서 누가 이런 내용 불었다, 걔가 이걸 얘기했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간질하니깐,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죠.[160] (이선근)

예전에 서승 선생님이 고문을 받다가 난로 기름을 부어서 분신을 시도하신 적이 있잖아요? 저도 라디에이터에 머리를 박으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내가 자결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육체적 고통보다 제가 선배와 동료들의 이름을 밝히고 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최대의 치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문당한 사실을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결국 적과의 싸움과 나 자신과의 싸움 모두에서 진 거니까요.[161] (김명인)

11) '악의 평범성'

고문으로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는 순간에도 수사관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전기고문 중인 칠성판 옆에서 의연하게 "샤워를 하고"[162], "킥킥거리면서 음산하게 웃음을 흘리는"[163] 수사관들 앞에서 피해자들은 오히려 현실감각을 되찾았고, 그때

156) 연성수,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157) 손우정, "'이제부터 내가 널 맡겠다' 이근안의 관절꺾기에 그만", 오마이뉴스, 2015.8.18.
158) 이선근 심층 인터뷰.
159) 이경일, 앞의 책, 23~27쪽.
160) 이선근 심층 인터뷰.
161) 손우정, 앞의 기사; "국가에 충성한 죄? - 고문기술자 이근안", KBS 인물현대사, 2004.4.2.
162) 김근태, 앞의 책, 97쪽.
163) 김근태, 위의 책, 60쪽.

마다 어떤 저항도 통하지 않는 자신의 현실에 좌절했다.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40, 50대 가장이라면 흔히 나눌 법한 평범한 대화가 오갔다. "시집간 딸이 잘사는지 모르겠다", "아들놈이 체력장을 잘 치렀는지 모르겠다"[164] 등 가족에 대한 애정 어린 말을 주고받았다. 고문 때문에 입을 벌리지도,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피해자 옆에서 "점심을 뭐 먹을지"[165] 고민하는 기묘한 풍경이란. 게다가 고문하느라 힘들었다며 보약을 마시는 고문 수사관[166] 앞에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눈물 나는 희극"[167]이었다.

고문기술자가 피로하여 주춤하니 김수현이 직접 나서서 장치를 들고 전기고문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김수현이 전기고문을 하는 동안 고문대 옆의 욕조에서, 고문대 위에서 샤워를 하고 몸을 닦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키득거리고, 왜 그런지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슬픔과 상처를 안겨주더군요. 나는 아주 초라한 존재로서 미물처럼 짓밟히고 있는데, 그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근태)

유정방과 박원택. 유정방은 내 눈앞에서 집에서 가져온 보약 먹으면서 이래요. "아, 힘들어 죽겠다. 늙어서 힘들어서 집에서 보약 싸 왔다" 맛있게 먹더라고 이 개새끼들이.[168] (이선근)

저를 차에 태우고 인천 월미도로 갔는데 제가 이곳 같기도 하고 저곳 같기도 하다고 하니 이 새끼가 똑바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구둣발로 차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실신시키는 애들 장난감 놀이 같은 조사도 받아보았습니다. 너무나 고문에 질린 나머지 헛소리같이 했던 말에 속았다며 나중에는 그들끼리 웃고 있었습니다.[169] (김철)

자기들끼리 가정사 얘기도 하고요. 별 얘기 다 합니다. 옆에서 한 사람은 정말 단식을 하고 있다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워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고 서로. 비인간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상황에서 죄의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론 자기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애국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업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무리한 수사를 한다거나 못 할 짓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자의식, 주저함은 별로 없습니다.[170] (김명인)

허위자백으로 겪는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오래간다. 수사가 끝난 뒤 집에서는 잠

164)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김근태 전 의장 1차공판 진술", 36~39쪽.
165) "국가에 충성한 죄? - 고문기술자 이근안", KBS 인물현대사, 2004.4.2.
166) 이선근 심층 인터뷰.
167) 김근태, 앞의 책, 82쪽.
168) 이선근 심층 인터뷰.
169) 김철, 의견서, 6~7쪽.
170) "국가에 충성한 죄? - 고문기술자 이근안", 앞의 프로그램.

을 못 잤는데 숨을 쉬면 목에서 비릿한 물 냄새가 났다. 고문은 인간성 파괴행위다. 수사관들은 자식 진학 걱정과 교회 생활 등을 은근히 자랑했다. 야만과 이성을 동시에 가졌던 가해자들도 고문으로 인해 인성 파탄에 이르렀을 것이다.[171] (문용식)

단 한 번의 물고문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은 무자비하게 파괴됐다.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은 "차라리 의식이 없어지기만을 간절히 빌었"고, "이대로 깨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172]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거듭된 허위자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길었고, 이후 찾아온 치욕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거짓자백을 늘어놓은 자신이 너무도 분하고 부끄러워서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워야 했다."[173] 살아 있다는 모멸감, 나의 진술로 인해 누군가 고문받았다는 죄책감, 끝까지 버텨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피해자들을 더욱 피폐한 상태로 몰아갔다. 스스로 "인간의 허약함을 송두리째 폭로"[174]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고문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문의 공포를 잘 모를 것이다. 고문 자체도 무섭지만 고문을 받기 전까지의 두려움이 더욱 무섭고 고통스럽다. 이 경위는 나를 물고문하기에 앞서 몽둥이를 두 다리 사이에 끼워 넣고 밟았으며, 그다음 단계로 물고문실로 데려갔던 것이다.
고문이 끝난 후에 다가오는 치욕은 더욱 견디기 어렵다.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거짓자백을 늘어놓은 나는 너무도 분하고 부끄러워서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워야 했다. 살아 있다는 것이 그렇게 모멸스러울 수가 없었다. 만약 내가 고문받았던 곳 주위에 흉기나 독약 따위가 있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자결을 했을지 모른다.[175] (이경일)

3. 박종철 고문치사 이후 수사 방식의 변화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직전, 치안본부에서는 대규모 인원을 구속 수사하고 있었다. 그즈음, 남영동 대공분실로 안산 노해투(안산지역 노동운동자해방투쟁위원회), 노해사(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 관련자들이 연행됐다.

치안본부는 대규모 연행으로 조사공간이 부족해지자, 테니스장 뒤편에 임시로 설

171) 정윤섭, "'민추위'사건 문용식씨 고문피해 증언", 연합뉴스, 2004.4.13.
172)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고문근절대책공청회 자료집 - 고문피해의 증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7.1.20., 8~9쪽.
173) 이경일, 앞의 책, 23~27쪽.
174) 김근태, 앞의 책, 95쪽.
175) 이경일, 앞의 책, 같은 쪽.

치한 2층짜리 대공수사 2단 가건물에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5층 조사실처럼 1인실로 나뉘어 있어 단독 수사가 가능한 곳이었다.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된 것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다음 날이다. 치안본부 쪽에서 원하는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고문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전날과 달리 갑자기 "수사관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이다.[176]

제가 이상했던 게 그다음 날 되고, 조서가 제대로 안 나오면 고문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데 애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박종철 열사가 그때 5층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저희는 박종철 열사와 다른 팀이었겠죠. 비상이 걸리면서 애들이 굉장히 달라졌어요.[177] (황정옥)

한편 구치소와 교도소 내부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1986년 11월, 건국대 연합시위 및 농성 사건 전후로 공안정권의 칼바람이 몰아치면서 학생운동 세력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었다. 교도소 내부에서도 철창 너머로 매일 아침 구호를 외치던 기존 분위기와는 달리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러던 중, 박종철 고문치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는 모두가 싸우겠다고 결의했고, 단식투쟁도 시작됐다.

법정투쟁도 이어졌다. 황인욱은 검찰 조사에서도 반박할 수 없었던 사항들을 모두진술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했다.[178] 황인욱을 비롯한 구속자들에게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사관으로부터, 같은 고문을 받은 박종철의 사망은 곧 '나의 죽음'을 의미했다.

법정에 가서 결정적인 사항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을 20여 일 앞두고 박종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남영동에서 물고문을 받다가 죽었다는데, 저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고문을 겪었잖아요. 게다가 저는 다른 곳에서 기름 푼 물에 처박히기까지 했는데, 전 살았고 그 친구는 죽었어요. 그때였어요. 나의 고문 사실도 폭로해야겠다는 마음이요. 그 이후로 단식을 시작했어요. 물만 마시고 버티니 교도소 내에서도 완전 독한 놈으로 통했죠. 자해도 많이 했어요. 순진하게도 죽을 정도가 되면 그냥 내보내줄 것 같다는 생각도 한 거예요. 그리고 첫 모두진술에서 고문 사실을 전부 밝혔어요.[179] (황인욱)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여파로 전

176) 황정옥,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177) 황정옥, 위의 출처.
178) 황인욱 심층 인터뷰.
179) 황인욱 심층 인터뷰.

기고문은 자취를 감췄지만, 그 외 물고문, 구타, 협박 등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1987년 1월 22일, 노해사 사건으로 연행된 딸을 면회 간 한 어머니가 “왜 김영진(노해사 의장)은 면회를 허락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수사관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면회를 시켜줄 수 없다”면서 면회를 계속 요구하면 “수사받는 당사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위협을 가했다.[180]

어렵게 이뤄진 가족 면회에서 물고문 정황도 발견됐다. 1987년 4월 28일 남노련(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서원기는 대공수사 2단 6과 소속 김정동 경사에게 보름간 구타를 당했다. 면회를 온 서원기의 부인 이경은에게 “(서원기에게) 물을 댓 주전자 먹였다. 짓밟지는 않고 인사 정도 했다”[181]며 천연덕스럽게 물고문 사실을 자인하기도 했다. 이는 ‘여전히 고문해도 무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현이었다. 면회 중 가족에게 건넨 “빨랫감이 완전히 물에 젖어 손으로 물을 짜낼 수 있을 정도”[182]였다거나 “왼쪽 얼굴이 상처와 함께 무척 부어 있”[183]었다는 증언도 있다.

1987년 5월에 남노련 이재권은 “덩치가 산만 한 수사관이 빗장뼈(쇄골)에 손가락을 걸고 빡하면 잡아당겨 나중에는 뼈가 흔들흔들해”[184]졌다. “너 같은 놈들은 수없이 인천 앞바다에 돌 매달아 던져봤다”는 등의 협박을 하다가 ‘박종철’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종철 같은 빨갱이 새끼 하나 죽은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말하면서, 콜트 45구경 권총을 관자놀이에 대고 연신 방아쇠를 당겼다.[185] 권총에 탄피는 들어 있지 않았지만 ‘딸깍’ 하는 방아쇠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고문기술자 한 놈은 비쩍 마른 나의 쇄골 안쪽 깊숙이 손가락을 집어넣어 잡아당기며 무조건 항복과 범죄사실의 인정을 강요했고 다른 한 놈은 콜트 45구경 권총을 내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며 ‘너 같은 놈들 수없이 인천 앞바다에 돌 매달아 던져봤다’고 위협했다. 한 놈은 쇄골을 뽑아대고 한 놈은 빈총의 방아쇠를 연신 당기며 화풀이하듯이 하는 말이 ‘박종철이 같은 빨갱이 새끼 하나 죽은 것이 뭐 그리 대수냐’며 고문을 계속했다.[186] (이재권)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대공수사 2단 6과 소속 김정동 경사에게 계속적인 구타를 보름 동안 당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남노련 관계 조사 때문이 아닌 박계동, 이범영 등의 수배자를 잡아

---

180) 구속자 가족 일동, “김영진을 가족에게로 구출하자, 노동자 해방사상 연구회 사건 경위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7.1.22.
181)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안사 및 치안본부의 살인고문 박살내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7.5.21.
182) 위의 기록.
183) 위의 기록.
184) 이종호, “신문을 키우는 건 독자들의 작은 실천”, 울산저널, 2014.1.09.
185) 이재권, “[이재권의 따따부따] 포기하지 않는 1%의 소중함”, 울산저널, 2016.1.20.
186) 위의 기사.

현상금과 특진을 하려는 개인적 탐욕 때문에 빚어진 고문이었다. 김정동이라는 놈은 서 씨의 처 이경은 씨에게 "물을 댓 주전자 먹였다. 짓밟지는 않고 인사 정도 했다"고 천연덕스럽게 고문사실을 자인하기도 하였다.[187] (서원기)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고문은 근절되지 않았다. 제5·제6공화국의 폭력적인 인권침해가 그대로 재현됐다. 체포영장 없이 임의동행 하는 구태는 여전했으며, 사람 정면을 향해 권총을 겨누고 공포탄을 쏘며 강제연행[188] 하기도 했다.

특히 이 기간 남영동 대공분실은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민가협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으로 1992년 2월 18명의 첫 구속자가 발생한 이래 2002년까지 약 10년 동안 163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189].

이 사건은 주로 남영동 대공분실이 도맡은 사건이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지만, 1998년 이후로는 이적단체로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죄를 적용해 지속적으로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거론될 때마다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은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돼왔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전기고문, 물고문이 사라진 자리에 낡은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끊임없이 인신을 체포 구속해왔던 것이다.

이외에도 가족 및 변호인 접견권 제한[190], 구속기간 연장 등의 무리한 인신구속 상태[191]가 계속됐다.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남영동 대공분실을 항의 방문하는 가족들을 연행해 불구속 입건시키거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192]

---

18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안사 및 치안본부의 살인고문 박살내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987.5.21.

188) 인권하루소식,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1998.7.07.

189)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민가협 편, 2003.

190)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을 경찰이 임의로 침해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 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제34조)는 규정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1997.11.24.

191)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92) 인권하루소식, "항의방문자 전원연행", 1996.6.3.

잠을 안 재우거나 구타하는 고문도 여전했다. 밤샘 수사가 거듭됐고, 피해자가 정당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더 많은 형을 받을 것이다”, “진술거부는 곧 공소사실의 인정이다”,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골수 IS다” 등등의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체포하면서 발목골절 등 부상이 발생해도 치료해주지 않고 그대로 수사실에 방치했다.[193]

경찰청 남영동 분실은 5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제사회주의자 관련자 10명을 술집에서 체포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았으며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당시 구속자들에 따르면 5월 7일 밤 10시경, 위생병원 근처 한 술집에 50여 명의 사복경찰이 공포탄을 쏘며 진입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10명을 벽 앞으로 끌어내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손에 수갑을 채우고, 눈을 붕대로 감은 채 강제연행 했다고 한다.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손님들과 술집 주인이 항의하자 경찰은 욕설을 퍼부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호송버스 안에서도 체포된 이들의 안경을 빼앗고 무차별 구타를 남발했다고 한다.
연행된 이들 가운데는 환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수영(덕성여대 졸) 씨는 발목 복사뼈 골절로 허벅지까지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포되었다. 경찰, 검찰 조사 시 휠체어를 제공하지 않아 집에서 대여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 까닭에 의사가 8주면 낫는다고 했던 다리가 지금까지 낫기는커녕 뼈조차 접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194]

193) 인권하루소식, “누구는 통근, 누구는 밤샘”, 1998.5.8.
19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998 인권실태 보고서>, 30쪽.

3장
고문의 결과

3장 고문의 결과

1. 사망

1) 박종철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 전기고문을 받던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 사망했다. 1월 13일 연행된 박종철은 10시간 동안 구타와 전기고문을 받았고, 다음 날인 1월 14일 오전 11시경 물고문 도중 욕조 턱에 목이 눌리면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의식을 잃었다.

조사실에서 가장 먼저 박종철을 검안한 중앙대학교병원 의사 오연상은 "동공이 모두 열린 채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며 변을 배설한 것으로 보아 항문도 열려 있는 등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오연상은 수사관으로부터 "물을 많이 먹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조사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고 박종철은 복부팽만이 심했고 폐에서 수포음이 들렸다"[195]며 '물고문으로 인한 사망 정황'을 밝혔다.

실제 부검에서도 구타로 인한 머리 피하출혈을 비롯하여 목, 가슴, 하복부, 사타구니 등 수십 군데에 멍자국이 있었고, 특히 검지, 엄지에서 전기고문에 의한 출혈반(전류반) 흔적이 발견됐다. 법의학상 최종 사인도 전기고문에 의한 충격사였다.[196]

2) 이재문

이재문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받았던 고문후유증으로 옥중에서 사망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위궤양이 발병했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국립경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수술로 충분히 완치 가능한 '위 유문부 협착'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교도소 내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고, 진단 두 달 만인 1981년 11월 22일 서울구치소에서 병사했다.

'이근안이 이재문에게 특히 고문을 심하게 가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이재문은 법정에서 이근안에게 극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

195) "물고문 도중 질식사", 동아일보, 1987.1.19.
196) 신민당 박종철군고문살인사건진상조사및고문근절특별대책위원회,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 진상보고서>, 1987.2.

도 8단이라는 건장한 남자 대여섯 명이 나를 이리 메치고 저리 메치고 집어던졌다. 심지어는 접골사를 불러 관절을 떼었다 붙였다"[197]며 고문 사실을 폭로했다. 이외에도 남민전 사건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이근안이 이재문을 심하게 고문했다'고 진술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이재문 관련 고문 진술[198]

이름	이재문과의 관계	진술 내용
이남진	조카	구치소에서 이재문을 면회했을 때, 이재문이 입회 교도관 몰래 '고문을 당했다'는 동작을 취했다.
금종삼	남민전 관련자	이근안이 자기를 고문하면서 "너 이 새끼야, 너희 수괴 이재문이도 나한테 죽다 살았어, 인마. 골병 많이 들었을 거야"라고 말했으며, 자신을 패대기친 이후에 나중에 깨어나니까 "이재문이도 개구락지 여러 번 됐어"라고 말했다.
김영옥	남민전 관련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들이 모여서 "5층에서 무술 경찰관들이 이재문을 마치 개구리처럼 집어던지면서 고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박미옥	남민전 관련자	'칠성판'이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이 자신에게 "얼마 전까지 너희들 수괴 이재문이 여기서 당했는데, 너도 당해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는 고문이 전문이어서 여기서 모셔왔다"고 이야기했다.
나강수	남민전 관련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의 담당경찰관이 "이재문이 그 정도 당했으면 골병이 들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유정방	대공분실 수사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유정방은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진술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재문이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고, "고문이 이재문의 위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고문으로 인해 그 질환이 악화됐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199]

19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앞의 책, 225~228쪽.
198)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2000.10~2002.10) 제3부:개별 사건 보고, 650~651쪽.
199) 위의 보고서, 653쪽.

3) 최낙교, 최낙전

1982년 김제 가족조작간첩단 사건의 최낙교와 최낙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근안과 수사관들은 40여 일 넘게 고문으로 '허위사실'들을 짜 맞춰 가족을 통째로 간첩으로 만들었다.

먼저 최낙교를 살펴보자. 이근안에게 고문을 받아 간첩 지령을 받고 북한과 암호문을 주고받았다고 '자백'한 최낙교는 당시 서울지검 정형근 검사의 공소 제기 후 서울구치소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정형근 검사는 자살이라고 결론지었으나 가족들은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200] "목 매달 것도 없는"[201] 감옥 내에서 자살이 가능하겠냐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최연석은 조카 최낙교를 만났을 때 이미 "넋이 나가서 반절 죽어 있는 상태"였다고 증언한다. 당시 정형근 검사는 '최연석한테 이북에 가자고 했는지'를 거듭 물었고, 최낙교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자 옆에 있던 우산을 들어 최낙교의 눈을 찌를 듯이 협박했다고 한다. '죽어 있는 눈동자'의 최낙교가 최연석이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검찰 조사 중에 최낙전, 최낙교를 만났죠?

조금 있다가 낙교 조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낙교 조카는 반절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 같더라고. 정형근 검사가 "너 최연석이한테 이북 가자고 했어?"라고 물으니깐 "그런 일 없습니다" 해요. 낙교가 계속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정형근 검사가 옆에 있던 우산을 들어서 낙교 눈을 곧 찌를 듯이 막 들이댔어요. 진짜 눈을 찌를 것처럼요.

검사실에서 만났던 최낙교의 상태를 더 말씀해주세요.

정말 멍하게, 넋 나간 사람이었어요. 눈동자가 아예 죽어 있었어요. 고문을 많이 당했구나 싶었지. 걔는 초등학교 선생이고 얼마나 똘똘했는데. 근데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병신 같더라고. 그게 내가 본 낙교 마지막 모습이야.

최낙교가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자살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당연히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감옥에 목 매달 게 없잖아. 걔가 혀 물고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넋이 나갔더라니까. 낙교는 나보다 더 약해요. 나는 바깥에서 일이라도 하는데, 걔는 펜대 잡은 선생이었고. 내가 10대 맞았을 때 고통을 느끼면, 걔는 2대면 충분할 정도로 많이 약해요.

---

200) 송소연, "피고인 없는 무죄…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2017.7.10.
201) 최연석 심층 인터뷰.

그만큼 성격도 순하고. 자살했다고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고문으로 죽인 거예요.[202] (최연석)

최낙교의 죽음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최낙전은 "강제로 이끌려 북한에 다녀온 뒤 신고하지 못한 잘못은 있겠지만, 간첩은 절대 아니"라고 호소했지만,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9년의 감옥살이 끝에 1991년 5월 석방됐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에 따른 경찰의 집요한 감시가 그를 옥죄었고, 1991년 9월 30일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석방된 지 4개월 만이었다. 최연석은 "(낙전이) 또다시 잡혀갈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으며, "자신을 간첩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거라고 진술한다.[203] 고문을 통한 '간첩조작'이 아니었다면, 지극히 평범한 두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최낙전은 1990년 출소한 후 만나셨죠? 어땠나요?
낙전이는 출소해서 전주에 오면 우리 집에서 자고, 교회도 함께 다녔어요. 내가 그랬지. "낙전아, 거기 살지 말고 전주 와서 나랑 같이 살자. 거기 동네 사람들도 간첩으로 몰고 그러는데 아예 모르는 데 와서 사는 게 낫지 않냐"고 했어요. 그런데 전주로 이사 와도 형사들이 다 따라온다고 불안해하더라고. 김제경찰서에서 자주 불러대고, 집으로도 찾아왔다고 했어요. 처음 붙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당했으니 또 잡혀갈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같이 살자고 계속 그랬는데 이놈 새끼가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지나고 죽었어. (눈물이 맺힘)

최낙전의 죽음을 접하고 어떠셨어요.
기가 막히죠. 망연자실. 몇 년간 형을 산 놈이 집으로 왔으면 악착같이 살아야지. 감옥 사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감옥은 몸이 고생이지만, 나오고 나서는 다들 자기를 간첩으로 보는 시선이 두려웠을 거 아냐. 낙교, 낙전이 둘 다 참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는데.[204] (최연석)

2. 사형집행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는 다음과 같다. 형은 선고가 내려지기 무섭게 빠르게 집행됐다.

202) 최연석 심층 인터뷰.
203) 최연석 심층 인터뷰.
204) 최연석 심층 인터뷰.

〈표〉 사형집행 사망자 명단

이름	연행일	사건명	사형집행일	재심 여부
김상회	1979.6.15	삼척 간첩단 조작사건	1983.7.9.	무죄
진항식	1979.6.15.	삼척 간첩단 조작사건	1983.7.9.	무죄
신향식	1979.10.4	남민전 사건	1982.10.8.	-
최을호	1982.8.14.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1986.5.27.	무죄

3. 고문후유증

남영동 대공분실 피해자들에게 남영동은 결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다. 남영역 근처를 지나기만 해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공포스럽고[205] 불쾌해졌다.[206] 다시 고문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축된 심리와 불안한 정신상태가 계속되면서 불안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수사관이 큰소리를 치기만 해도 심장이 떨렸던 것처럼, 덜커덩거리는 문 여는 소리에도 놀랐다.[207]

무엇보다 '몸'은 고문을 기억했다. 고문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사건 당시의 경험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208] 연성수는 "(남영동 대공분실) 철제문을 보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몸에 고문당한 자국 하나하나가 박혀" 있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즉시 몸이 반응"했다고 말한다.[209]

몇 년 전인가 민주시민 교육한다고, 후배들이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증언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철제문을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마비가 오더라고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권형택과 같이 와서 그 친구 얼굴을 봤는데 사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문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 기억해요. 몸에 고문당한 자국 하나하나가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다가 고문과 비슷한 조건이 발견되면, 그 즉시 몸이 반응해요. 이곳을 몇 번 더 왔는데, 남영동 근방에 오면 막 피가 솟아요. 남영동의 좁은 문 있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심장박동이 100, 150으로 올라가기 시작해

205) 이선근 심층 인터뷰.
206) 김주언 심층 인터뷰.
207) 문용식, "항소이유서" 중 '고문수사의 책임', 10~11쪽, 1986.4.4.
208) 정혜신, "'함주명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의견서", 6쪽.
209) 연성수,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요. 안에 들어오면 목과 입이 마르기 시작해요.[210]

1) 몸이 기억하는 고문 '악몽'

기억은 악몽으로 재현됐다. 피해자들은 긴 시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고문 수사관들은 "얼굴이 커다란 괴물"[211]로 형상화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쫓기거나, 여럿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하는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그려졌다. 악몽을 꾸는 밤이면 "치가 떨려 밤새 잠 못 이뤘다."[212]
'자백'하겠다며 손끝을 까딱이는 것 외에 모든 자유가 제한되었던 대공분실의 감금 상황은 꿈에서도 발현됐다. 황인욱은 "내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 없거나, 혼자서 어딘가를 맴도는 꿈"[213]을 꿨다. 더욱 괴로운 건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른"[214]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관련된 증언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를 떠올린 날이면 어김없이 악몽이 찾아왔다. 1983년 조작간첩 사건의 함주명은 2005년 열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꿈속에서 고문을 받고, 그때와 같은 다리 통증을 느끼며 깨어난다.[215] '시간'으로 망각할 고통이 아니었다.

꿈속인데도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트라우마 같아요. 꿈속에 이상하게 얼굴이 커다란 괴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남영동인 거죠.[216] (김주언)

몸으로 받은 충격은 근육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때때로 근육통이 찾아오거나, 밤에는 악몽을 많이 꾸고 그랬어요. 그건 아마도 평생 따라다닐지도 몰라요. 수사관들이 쫓아오거나,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서 집단구타 당하는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나와요. 그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파김치된 상태로 깨는 거죠. 오랫동안 그랬어요.[217] (이선근)

실제로 고문을 경험한 지 20년이 지났고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난 지금도 함주명은 그때의 경험이 반복되는 악몽과 환영에 시달리고 있다. 자다가 고문받던 당시의 꿈을 꾸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다리에 통증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곤 한다. 깨어난 후에도 그 당시의 감정과

---

210) 연성수,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211) 김주언 심층 인터뷰.
212) 함주명 심층 인터뷰.
213) 황인욱 심층 인터뷰.
214) 이선근 심층 인터뷰.
215) 정혜신, "'함주명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의견서", 7쪽.
216) 김주언 심층 인터뷰.
217) 이선근 심층 인터뷰.

감각들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증상이 지금도 한 주에 2~3번씩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218]

2) 몸에 새겨진 고문의 흔적

'기술적' 구타는 속으로 골병이 들게 만들었다. 설령 유전 요인이 작용한다고 해도 '건강한' 상황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불치병이 덮쳐온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파킨슨병으로 타계한 송건호와 김근태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대공분실에 연행된 송건호는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질"[219] 정도로 모진 구타를 당했다. 출소 후 허리와 팔 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종합진찰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220] 그러나 1994년 고문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이 발병한 후, 송건호는 8년간의 긴 투병 끝에 2011년 타계했다.

'이근안 고문'을 최초로 폭로한 김근태는 어떠한가. 이근안으로부터 10차례의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은 그는 '고문 당시가 떠올라' 누워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했고, 몸에 도는 한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쐬지 못할 정도로 심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왔다.[221] 특히 대공분실로 잡혀갔던 9월이 되면 매년 크게 앓았다. 김근태는 2007년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후, 뇌정맥 혈전증으로 투병하다가 2011년 12월 30일 별세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에는 동아투위 활동을 한 홍종민이 있다. 그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송건호 바로 옆방에서 고문을 받았다. 송건호 선생의 "소름 끼치는 비명"을 들으며 물고문을 받은 홍종민은 20여 일 만에 체중이 13kg이나 빠질 정도로 혹독한 물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심장병이 발병한 그는 1985년 심장박동기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1988년 4월 20일 작고했다.[222]

기술적으로 행해진 알몸에 대한 구타는 온몸에 시퍼런 자국을 남겼고 속으로 골병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때 당하신 구타로 허리와 팔 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출감 후 원자력병원에서 종합진

218) 정혜신, "'함주명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의견서", 7쪽.
2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참 언론인 송건호 1(www.kdemo.or.kr/blog/people/post/227)
2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송건호 선생의 장남 송준용 탄원서, 1998.5.5.
221) 조수진, "파킨슨병 김근태, 뇌정맥혈전증 입원", 동아일보, 2011.12.9.
222) 이태호, "꺾이지 않은 대의로 살아온 26년", 신문과 방송, 364호, 2001.4., 48쪽.

찰을 받았으나 고문기술자들에 의해 받은 고문이라 그런지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은 1993년 파킨슨증후군이라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하시기까지 심한 불면증과 가끔씩 찾아오는 허리와 다리, 팔 등에 엄청난 고통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223] (송건호)

1980년 5월 18일, 집에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23일 동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잠 안 재우기, 물고문(실내에 욕조가 있음), 구타 등을 당한 끝에 심장병을 얻었으며 체중은 10kg이나 빠졌다. 그는 석방된 후 심장박동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다.[224] (홍종민)

비록 '사망'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참혹한 고문은 온몸에 새겨졌다. 피해자는 대공분실 조사 과정에서 심장 이상과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고[225], 신장에 염증이 생기고[226], 척추가 비껴나가고[227], 갈비뼈 3대가 금이 가고[228], 척추와 양쪽 다리가 골절[229]됐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 불구가 될 수 있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깁스[230] 외에는 어떠한 적극적 치료도 해주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바깥에 나가서 쉬는 게 좋겠다'고 권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사례도 있었다.[231]

조사 당시의 참혹한 고문은 태복이의 온몸과 정신 속에서 그대로 새겨져 남아 있습니다. 특히 84년 10월부터는 소변에서 출혈이 심해 충남대 부속병원, 대전 성모병원 등 여러 군데에서 진찰을 해보니 '정낭염'이라는 것을 알고 한의사에게 문의했더니 발바닥과 다리, 허벅지로 이어지는 신경이 신장으로 이어져 있어 이곳에 생긴 이상이 신장에 염증을 생기게 하여 비뇨로 출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232] (이태복)

집단구타와 물고문 등으로 인해 갈비뼈 3대가 금이 가고, 앞니 2개와 어금니 2개가 심하게 흔들리고, 밥을 먹지 못하는 등 상태가 심각했다. 구속에서 풀려났으나, 가난한 노동자의 형편에

---

2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송건호 선생의 장남 송준용 탄원서, 1998.5.5.
224) 이태호, "꺾이지 않은 대의로 살아온 26년", 신문과 방송, 364호, 2001.4., 48쪽.
225)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연성수 전 상임위 부위원장 병상일지", 58~59쪽.
226)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앞의 책, 89~91쪽.
227) "발가벗긴 채 물고문, 전기고문", 한겨레, 1988.10.25., 11면.
228) 인권의학연구소, 고문 방지 및 고문 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2012.11.19.
229)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앞의 책, 226~227쪽.
2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구속자 가족 일동, 1987.2.4.
231) 이선근,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232)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앞의 책, 89~91쪽.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갔다. 흔들리던 이빨 4개는 이내 빠져버렸고, 갈비뼈에 금이 간 것도 석방 뒤 X-ray를 찍어보고 나서야 알았다.[233] (유해우)

3) 이을호의 경우

고통과 공포감은 정신에도 생채기를 냈다. 안전기획부를 거쳐 1985년 9월 3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이을호는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물에 처박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으며 "먹지도 못하고 한 번도 용변을 보지 못"했다. 거듭된 물고문과 폭행 후 이을호는 정신적 환각에 빠졌다. "지렁이도 되고 뱀도 되며 닭이 2마리, 돼지 2마리 등"[234]이 보이는 환각이 지속됐다.

대공분실 조사 초기에 정신분열증 증세가 발현됐지만 병원진료나 가족 면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사실에서의 면회가 전부였다. 당시 이을호의 어머니는 "내 아들을 병신 만들고 만나게 해주지도 않는단 말이냐"며 통곡했고, 이을호의 아내 최정순은 "건강한 내 남편을 정신이상자로 만든 게 누구냐"며 절규했다.[235]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이을호는 "예수, 부처, 백두산 신 등 무수한 형상을 보았"고 "밤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몸을 지탱할 수 없다"며 고통스러워했다.

〈표〉 이을호 발병일지[236]

일자	발병 내용
1985.9.2	안전기획부로 연행, 무차별 구타를 당한 후 자신이 '올빼미'로 생각되고 밤새 옥돌을 갈고 있는 환상 속을 헤매었음. (본인 진술)
1985.9.3	치안본부 대공수사단(남영동 소재)으로 옮겨 물고문과 폭행 등의 물리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에 시달림. 지렁이도 되고 뱀도 되며 닭이 2마리, 돼지 3마리 등의 계속적인 동물 환각 속에 있었음. (본인 진술)
1985.9.26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해 관심 없이 의식이 다른 데 있었고, 항상 무수한 형상을 보았음. 예수도, 부처도, 백두산 신도…. (본인 진술)
1985.9.28	검사실에서 부인 첫 면회. "온몸에 기가 안 통한다. 잠을 못 잔다" 등의 이상 증세 호소. (부인 증언)

233) 인권의학연구소, 고문 방지 및 고문 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2012.11.19.
234)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이을호 상임위 부위원장 발병일지", 46~47쪽.
235) 이을호의 처 최정순 호소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86~87쪽 재인용.
236)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앞의 백서, 같은 쪽.

1985.9.29	구치소 내에서 옷을 홀랑 벗는 등의 이상한 행동. (목격자 증언)
1985.10.3	종전에는 현실과 환각이 교차되면서도 환각은 환각으로 인식되었는데, 그때부터 환각이 현실인 양, 현실이 환각인 양 거꾸로 되었음. 이후로 전혀 기억이 없음. (본인 진술)
1985.10.7	"죽은 아버지가 나를 징역 살린다. 형이 죽은 것이 내 책임인 것 같다. 김대중의 하수인이 치안본부에 있는데 그가 나를 징역 살린다" 등 횡설수설. (부인 증언)
1985.10.11	검찰 취조 중 갑자기 목구멍을 딱 막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며 쉬게 해달라고 청한 후 구치소로 돌아옴. (본인 진술) 몸에서 진땀이 나고 조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의사를 불러달라고 검사에게 요청함. (검사 증언) 저녁부터 본격적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남.
1985.10.12	발작증세가 나타났는데 발을 구르고 창을 흔들며 옷을 찢어버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름.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함. (목격자 증언)
1985.10.15	서울 시립정신병원에 8주간 감정(관찰) 유치됨.
1985.10.16	시립병원 정신과장이 "증세가 심각하다. 감정이 끝나면 병원에 입원하여 3~4개월 치료하고 2~3년 동안 통원 치료해야 완치가 가능하다. 잘못하면 폐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
1985.10.21	"죽어버리겠다"는 등 횡설수설. (병원 간호사 증언)
1985.10.22	20여 분간 부인 면회. "춥고 배고프다.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구치소는 천국이다. 씨,엔,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법정에 가서 씨,엔,피의 내용을 떳떳이 밝혀내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 (부인 증언)
1985.11.20	국립정신병원으로 옮김. 1985.12.23일까지 2주간 감정기간 연장.
1985.12.23	감정유치기간 2차 연장(2개월). 담당의사가 "감정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치료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검찰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두로 감정유치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병원 측에 통고.
1985.12.30	심한 조울증 현상 보임. 부인 면회.
1986.2.23	감정유치 기간 3차 연장(2개월).
1986.2.25	김근태 전 의장 증인으로 병원에서 임상신문 받음.
1986.4.1	국립정신병원에 감정유치 중(통산 24주째).

교도소로 송치된 10월부터는 현실과 환각이 구분되지 않는 본격적인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났다. 옷을 찢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1985년 10월 15일, 서울시립정신병원에 감정유치 되었다. 연행돼 간 지 44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237] 이후에도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지금까지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4) 관계의 단절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은 '잊혀진 사람', '미친 사람'[238], '이상한 사람'[239]이 되었다. 그날의 끔찍한 경험과 기억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으로 발현됐다. 일상에 적응하지 못했고, 때로는 포기 수준에 이르렀다. 가족을 의심하고, 심하게 자책하고,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가족, 동료 그리고 사회와 단절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의 박탈"[240]이었다.

특히 유해우의 경우, 출소 후 극도의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 그는 남영동 대공분실에 한 달간 있으면서 경찰병원에 3차례나 실려 가야 했을 만큼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 학림사건 구속자 총 24명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도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재판부에서 고려한 것이다.

구속 상태에서는 풀려났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해졌다. 특히 극도의 공포감과 악몽에 시달렸는데, 방에 혼자 있으면 누가 꼭 잡으러 오는 것 같아 수시로 집을 나갔고, 몇 달간 노숙자 생활을 하며 구걸하는 일이 잦았다. 극도의 대인기피증으로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렸으며,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아내와 딸이 정신과 치료를 권유할 때마다 부딪히는 등 공격성향이 심해지면서 가족들과의 갈등도 깊어졌다.[241]

극도의 공포감과 악몽에 시달렸고, 불면증이 심해갔다. 90년도에는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아파트 4층에서 뒤쪽 베란다를 타고 도망치다 떨어져 발가락 3개가 골절상을 입었다.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무모한 탈출이었다.
방에 혼자 있으면 누가 꼭 잡으러 오는 것 같아 수시로 집을 나갔고, 몇 달이고 노숙자 생활과 구걸을 하는 일이 잦았다. 아내와 딸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오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극도의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렸다. 운동권에도 잊혀진 사람이 되어갔다.

---

23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86쪽.
238) 인권의학연구소, 고문 방지 및 고문 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2012.11.19.
239) 정혜신, "'함주명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의견서", 9쪽.
240) 황인욱 심층 인터뷰.
241) 인권의학연구소, 앞의 공청회.

보다 못한 아내와 딸이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였다. 그때마다 “왜 나를 미친놈 취급하느냐”, “내가 미쳤으면 헤어지면 될 거 아니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었고, 시비를 걸었다. 짜증과 분노가 쌓여갔고, 공격성향이 심화되면서 가족들과의 갈등도 깊어갔다.[242] (유해우)

4. ‘간첩 조작’과 장기간 감옥살이

남영동 대공분실의 수사 과정은 은폐된 공간에서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채 장기간 지속된다. 많게는 60여 일, 적게는 20여 일 동안 변호인 접견조차 보장되지 않았다. 특히 불법적인 장기구금은 고문과 조작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자행한 고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수많은 학생과 민주인사들을 체포해서 정치적으로 탄압하려는 목적과 무고한 시민을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 그것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학생, 노동자, 재야인사 등 주로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이 체포와 수사의 표적이 되었지만, 무고한 시민을 붙잡아서 간첩으로 탈바꿈시키는 ‘조작간첩’ 사건도 적지 않았다.

간첩이 아닌 자가 간첩으로 조작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잔혹한 고문은 간첩 아닌 자가 중형이 선고될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간첩임을 자인하게 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만들어진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40여 일 이상의 장기간 불법 감금상태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을 당해야 했다.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고 나면 수사관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조서를 작성해야 했다. 조서를 쓰는 과정은 스스로 간첩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검찰 송치 전까지 허위로 작성한 조서를 수없이 반복해서 쓰면서 외워야 했다. 잠 한번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낮과 밤의 구별도 없이, 24시간을 취조실 고정 의자에 앉아서 고문에 시달리노라면 허구가 진실이 되어갔다.

검찰로 송치될 때는 고문한 수사관이 동행, 동석한 상태에서 1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검사한테 억울하다고 항변하면 “다시 남영동으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들었다.

법원의 판사들도 비슷했다. 고문으로 허위자백 했다고 주장해도 판사는 외면했다. “인정하고 선처 받으라”고 하는 국선변호인의 터무니없는 조력이 합쳐져 간첩죄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간첩죄 성립의 충분요건으로 “공지의 사실도 국가기밀”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

242) 인권의학연구소, 위의 공청회.

다.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북괴에 유리하다면 기밀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밀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출장 오가면서 알게 된 지역 사정, 마을에 있는 파출소나 초소 위치, 동네 부근 미군 부대, 군복무하면서 알게 된 군대 편제 등 자신이 알거나 혹은 몰랐어도 그것은 모두 국가기밀이 되었다. 그렇게 '간첩'이 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을 다 산다고 해서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에 가장 큰 장애로 등장한 것이 '보안관찰'[243]이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감옥살이를 한 것만도 억울한 일인데, 경찰 감시라는 장치는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극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경찰이나 검찰이 보안관찰 심사를 할 때 반드시 묻는 것이 "반성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에게 '반성'이란 '조작을 용인한다'는 뜻이다. 결국 조작을 인정할 수 없으니, 2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보안관찰을 4년이고 6년이고 10년이고 받게 된다. 경찰의 감시 속에 사는 '간첩'이니 일자리 하나 구하기 쉽지 않다. 사회 복귀와 재활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다.

김제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 최낙전은 1983년 이근안의 고문으로 간첩으로 조작된 후 1991년 5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경찰의 혹독한 감시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자결을 했다.

5. '간첩 낙인'으로 인한 고립

고문이 빚어낸 결과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자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반공지상주의가 지배하던 1970~80년대 한국사회에서 '간첩'으로 산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고통이었고, 잔인한 '주홍글씨'였다. 피해자들은 간첩으로 낙인찍힌 채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

19년 2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온 김태룡은 고향, 집, 가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 무능력자'가 돼 있었다. 극단적인 사회적 비난과 고립도 이어졌다. 친척 결혼식을 찾아가도 "너 같은 조카 둔 적 없다"[244]며 피하기

243) 보안관찰의 특징은 무제한, 무기한이다. 국가보안법상 4, 5, 6, 8조항 위반으로 3년 이상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들은 현행 보안관찰법에 의해 보안관찰 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출소사실, 출소 이후 행적 등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3개월에 1회씩 자신의 동정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심지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무제한적 감시에 놓인다. 보안관찰자는 2년마다 갱신하는데 그 갱신은 제한 없는 무기한이다.

244) 진실의 힘, "김태룡의 오래된 기다림", 소식지 20호, 2014.

일쑤였고, 경찰의 보안관찰을 받는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다.

함주명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립됐다.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의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이며 의처증 증세마저 생겼다. 16년간 옥바라지한 아내와의 갈등은 아들에게로 번져나갔고, 이들 가족은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교류가 없다시피 한 상태로 치달았다. "차라리 아버지가 교도소 안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 할 정도였다.

가족들의 '공포증'도 컸다. '빨갱이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 아들을 보호해야 했던 부인 이춘자, '간첩 조작'이라는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혐오했던 아들 함종우, "선생님과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거나 빨갱이 아버지를 두었다고 해코지를 할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린 아들 함종호가 그러했다.[245]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망가진 상태에서 외부 사람이라고는 가족을 만나는 게 전부였으니, 16년간 제 인생은 간첩으로 낙인찍힌 채 사회와는 철저하게 차단된 고립무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246] (함주명)

거의 20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나와 보니까 내가 살던 서울이라는 곳이 바늘 끝만치도 남아 있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 집, 가족들…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대한민국 이 땅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지도'가 없었어요. 나 홀로 허공에 떨어진, 무능력자가 된 것 같아 누구하고도 마음을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말 한마디를 섞지 못했어요. 세상을 등지고 홀로 산 거죠. (김태룡)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친척 결혼식이 있었어요. 당연히 저도 갔죠. 근데 대뜸, 왜 왔느냐? 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고모한테 엉겁결에 아는 척을 했더니 '너 같은 조카 둔 적 없다'고 피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도 피해를 봤다는 거겠죠. 그 뒤로 삼척은 안 가요. 아니 못 가죠. 아버지 어머니 묘도 다 용미리 공동묘지에 썼어요. 형제도 친척도 이렇게 다들 피하는데, 하물며 이웃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간첩이라고 피하니까 눈치만 살피게 되죠.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뭘 잘못 말하지 않았나,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247] (김순자)

1998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함주명은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던 옷을 가족들이 버린 사실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평생 교도소에서

245) 정혜신, "'함주명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의견서", 7쪽.
246) 함주명 의견서(2003.5), 16~17쪽.
247) 진실의 힘, 앞의 출처.

살 거라고 생각했느냐?"며 트집을 잡고 걸핏하면 화부터 내고 난폭해졌다. 의처증의 증세가 생겼다. 집에 말 없는 전화가 걸려 오거나 잘못 걸린 전화가 오게 되면 아내를 의심했고, 옷걸이에 걸린 옷만 봐도 의심하고, 기초 화장품이 화장대 위에 놓인 것만 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일하러 나가는 아내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급기야는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출소 후 거의 1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아내를 괴롭혔다. 16년간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며 견뎌왔던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 정도였고 아들마저 차라리 아버지가 교도소 안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248] (함주명)

이들에게 고문과 수감생활은 '지나간 일'이었지만,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현재적 고통이었다. "가족과 인간관계의 말살은 더할 나위 없이 분하고 참을 수 없는"[249] 일이었다. 조작간첩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큰 트라우마는 결국 '인간에 대한 불신'이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하여 조사한 사건 가운데, '간첩죄(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조항)'가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들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남영동 대공분실의 간첩조작 사건

이름	연행일	구속영장 발부일	불법 구금기간	사건명	형량	재심 여부
김태룡	1979.6.16	1979.7.21.	37일	심척 조작간첩 사건[250]	무기 징역	무죄
함주명	1983.2.18.	1983.4.4.	46일	월남자 간첩조작 사건	무기 징역	무죄
이장형	1984.6.15.		67일	일본관련 간첩조작 사건	무기 징역	무죄
이순희	1982.6.7.	1982.6.17.	10일	일본취업 간첩조작 사건	징역 12년	무죄 2010.2.5.
최을호	1982.8.14.	1982.9.25.	43일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사형	무죄 2017.6.29.
최낙교	1982.8.22.	1982.9.25.	35일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공소 후 자살	무죄 2017.6.29.

248) 정혜신, "'함주명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의견서", 8쪽.
249) 정은주, "고문기억, 심장에 박혀 멈춘 시간", 한겨레21, 2012.11.22.

최낙전	1982.8.22.	1982.9.25.	35일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15년형	무죄 2017.6.29.
최연석	1982.9.	불구속	약 2주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김철	1989.4.26.	1989.5.2.	7일	조총련관련 간첩조작 사건	7년형	무죄 2010.2.5.

주목할 점은 1989년에 발생한 김철 간첩조작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 중 대부분 이근안이 수사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근안은 이장형을 검거한 공로로 '경감'으로 특진했다.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간첩을 잡은 공로'가 인정되어 격려금도 받고 특진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오랜 감옥살이와 고문후유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다행히 이들은 2000년 이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자료1〉 삼척 조작간첩 사건 개요

1979년 수사기관에 의해 일가족 12명이 고정간첩으로 몰린 대규모 가족 조작간첩 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남파된 북괴간첩에 포섭돼 북괴노동당에 입당한 후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지하당을 조직, 대중을 선동하고 민심을 교란"했다고 발표했다. 친족관계인 남파공작원 진현식으로부터 북한체제 우월성에 대해 교육받고, 그에게서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 제보했으며,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다가 1968년경 북한 공작원으로 남파된 진현식의 은닉을 돕고 이를 공안당국에 알리지 않은(불고지) 혐의였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불고지 건 외에도 간첩 혐의를 일가족 모두에게 뒤집어씌웠다. 구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성고문 등을 가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삼척 지역에서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군사기밀을 탐지, 제보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허위자백하게 해 대규모 가족 간첩사건으로 조작한 것이다.

김태룡과 어머니를 포함한 친인척 29명은 삼척경찰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강원도경 대공분실로 옮겨 다니며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수사를 당했다. 조사받은 기간은 짧게는 10여 일에서 길게는 38여 일이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었으나 고문으로 만들어낸 '자백'만으로 법원은 간첩행위를 인정했고, 1980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렸다. 집안 어른이던 진항식, 김상회는 사형을 집행당했고 김태룡은 19년 2개월을 살고 풀려났다.

〈자료2〉 김제 가족 조작간첩 사건 개요

1982년 8월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 이근안 등은 전북 김제의 작은 마을(진봉면 고사리)에

250) 김태룡 등 삼척사건 관련자들은 삼척경찰서에 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이송되었다. 1주일가량 고문수사를 당한 뒤 강원도경 춘천 대공분실로 옮겨져 춘천지검으로 송치됐다.

모여 살던 최을호, 최낙전, 최낙교를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다. 마을 이장을 지낸 최낙전과 초등학교 교사인 최낙교는 형제이고, 최을호는 두 형제의 숙부다. 이들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외부와 완전 차단된 채, 40일이 넘는 불법 감금 수사를 받았다.

문제가 된 일은 1959년에 일어났다. 6.25 때 헤어진 최을호의 숙부 최규인이 집으로 찾아와 "인천에 일자리를 마련해놨으니 함께 가자"고 했다. 최을호는 그를 따라 배를 탔는데 도착하고 보니 인천이 아니라 북한이었다. 어찌할 수 없이 북한에 20여 일 정도 있다가 구사일생 집으로 돌아왔다. 1966년 7월 다시 찾아온 북한 공작원의 협박에 따라 북한을 또 다녀왔다. 오랫동안 폐병을 앓고 있던 최을호는 북한이 두려워 자수하거나 신고하지를 못했다. 자신만 함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기며, 북쪽에서 다시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김제와 군산 등지를 전전했다. 그리고 더 이상 북쪽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이들을 강제로 연행할 당시에는 혹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이 북한과의 연계가 오래전에 끊어졌고, 설령 북한을 다녀온 잘못이 있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 가능한 시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관들은 '간첩 조작'으로 몰아갔다. 이들에게 허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자백을 강요했고 증거를 조작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간첩활동을 순순히 자백할 리 없으니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비롯한 수사관들은 40여 일씩 잔혹한 고문을 자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북한에 포섭된 고정간첩단"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행위로 날조됐다. 이웃과 함께 배 타고 놀러 가면서 봤던 풍경들, 동네 해안가에 설치된 해안초소들, 예비군 훈련을 받은 일, 경계근무 상황에 대한 것들,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었던 미군 부대의 모습 등.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국가기밀을 탐지한 행위로 조작됐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기밀'이라던 당시 대법원의 비정상적인 판례와 하지도 않은 일을 허위 자백하게 만든 잔혹한 고문이 합쳐져서 가족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판결과 최을호는 사형, 최낙전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최낙교는 당시 서울지검 정형근 검사의 공소 제기 후 서울구치소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최을호는 1985년 12월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서대문구치소 사형장에서 집행을 당했다. 최낙전은 9년 감옥살이 끝에 풀려났지만 경찰의 집요한 보안관찰 감시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2017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최을호, 최낙전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최을호 등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고사마을에 살던 많은 이들을 참고인으로 끌고 갔다. 최 씨 형제의 5촌인 최연석도 남영동에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겪으며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허위자백을 해야 했다. 3명의 목숨을 앗아 간 엄청난 사건임에도 그 시간을 기억할 분들이 거의 없다.

〈자료3〉 이순희 조작간첩 사건 개요

1976년 일본 도쿄 소재의 한식 요정 '금용각'의 가수 이순희는 고객으로 만나 알게 된 조총련 고위간부로부터 간첩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고문수사를 당했다.

이순희와 가족들은 이 사건은 고문으로 인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한식 요정의 손님이었던 주일대사관 직원 전재덕이라는 인물이 이순희에게 조총련 고위간부인 전연식을 전향시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일이 실패하자, 오히려 이순희에게 전연식을 만났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씌웠다는 것이다. 이순희가 접대부로 있으면서 △조총련 간부를 만난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죄로 △그로부터 접대비를 받은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귀국한 뒤 그와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 연락한 것으로 각각 조서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귀국한 뒤 몇 차례 일본을 왕래한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한 잠입, 탈출로 각색됐고, 남동생이 군에 있을 때 면회를 다녀온 것도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해 누설했다는 간첩죄가 씌워져 결국 12년을 선고받았다.

〈자료4〉 함주명 조작간첩 사건 개요

함주명은 한국전쟁 전 남한의 관할구역이던 개성에서 태어나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당시 개성상업고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함주명은 등교했다가 이미 학교를 포위한 인민군에 편입되어 그 길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참전 중에 한쪽 눈을 잃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제대를 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가족들은 모두 남쪽으로 피신하였고, 북한 관할이 된 고향에 외톨이로 남게 되었다. 의지할 곳이 없었던 함주명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우순학의 집에서 하숙을 하였다. 함주명에게는 오로지 가족을 만나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일념이 생겼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남공작원을 자원했다.

1954년 4월 14일, 함주명은 휴전선을 넘은 즉시 자수하여 미 CIC에서 20여 일간 조사를 받은 뒤 곧 춘천경찰서로 넘겨졌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재판결과 가족들을 만날 목적으로 '위장'하여 대남공작원이 되고, 남파 즉시 자수한 것이 인정되어 춘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곧바로 풀려났다.

석방된 뒤 가족을 만난 함주명은 결혼도 하고 자녀들 양육에 힘쓰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갖은 고생을 하며 대한민국에 정착하였다. 1968년에는 중앙정보부로부터 '요시찰 대상에서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다.

1983년 2월 18일,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납품하러 가던 중에 종로5가 기독교회관 앞에서 일단의 사내들에게 납치되듯이 끌려갔다. 그곳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다. 함주명은 그때부터 영장이 발부된 4월 4일까지 45일간 불법 감금되었고, 검찰에 송치된 4월 21일까지 63일에 걸쳐 대공분실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수사를 받아야 했다. 그를 고문한 이는 이근안이었다.

잔혹한 고문을 통해 함주명은 "1954년 북한에서 대남공작원으로 자원하여 남파된 후 자수한

것이 허위(위장)이며, 실제로는 그 뒤로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하면서 북한공작원과 접선하고 공작금을 수수"한 간첩이 되고 말았다.

함주명은 1회 재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63일 동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잔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허위 자백했고, 검찰 송치 당일에 동행한 이근안의 협박으로 1회 피고인 신문조서도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리가 300원짜리 담배를 피울 때 500원짜리 담배를 사주고,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때 설렁탕을 대접하고, 우리가 바닥이나 소파에서 잠을 잘 때 침대에다 재우고 합니다"라며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문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이근안의 수사기록과 이근안의 동석하에 이뤄진 검찰 진술에 대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진 임의의 진술"임을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주명은 16년을 복역하다가 1998년 8월 15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는 수감 중이던 1993년, 그리고 이근안이 자수한 1999년 고문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1999년 이근안 수사 당시 대질 조사를 통해 이근안의 고문사실을 입증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고, 2005년 7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재판에서 함주명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간첩으로 조작된 지 22년 만이었다.

〈자료5〉 김철 조작간첩 사건 개요

무역업자 김철은 1989년 4월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유원호 등 수사관들에게 불법 감금된 채 밀실·고문 수사를 당한 뒤 간첩으로 조작됐다. 김철은 동업자인 정숙이 부탁으로 정숙이의 부친 정춘식을 나리타공항에서 만나 돈을 전달받았고, 그 뒤로 2차례 3,600만 엔을 송금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유모 씨, 내연관계의 양모 씨에게 입북을 제의하고, 북괴방송을 청취하며 암호 지령을 받고, 전방의 군부대를 촬영, 고위 군 장성의 명단과 보직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보냈다고 공안당국은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은 김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개업자 강모 씨가 치안본부 대공 2부에 간첩 허위제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부인 유모 씨, 내연관계였던 양모 씨도 개인적 원한, 포상금 및 김철의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증거물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철은 정춘식을 나리타공항에서 만나 사업자금을 받은 것만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김일성 선집, 북괴방송 청취, 국가기밀 전달 건 등은 모두 조작된 내용이다.

이 사건은 치안본부가 정숙이의 아버지 정춘식이 조총련 간부라는 추정하에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정숙이를 북한공작원으로 상정하고, 불법구금과 구금장소의 위법한 임의적 변경,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신청인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물을 조작하고, 참고인의 진술과 증언을 허위로 유도하여 날조한 결과물이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의 고문과 허위자백에 대한 진술을 무시하고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만을 작성하는 자백 위주의 수사로 일관하였고, 법원도 이와 같은 위법한 사실을 증거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유죄판결을 내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4장
고문 중단을 위한 노력

4장 고문 중단을 위한 노력

1. 피해자들의 폭로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는 “동물적인 능욕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생명에 대한 위협”[251]이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공간을 벗어나도 고문 수사관들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검찰 조사 중 경찰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검사가 직접 고문 수사관을 불러들였고, 이때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다시 남영동으로 가야겠다”[252]고 협박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피해자들은 다시 고문을 받는 듯한 착란상태에 빠졌고, 더는 자신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절망에 빠져 ‘허위진술’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남영동의 가혹행위를 용감하게 고발하고 폭로했다. 고문관련 진술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검사와 판사 앞에서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멈추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건이 △1979년 남민전 △1980년 전민노련, 전민학련 △1985년 민청련 △1985년 민추위 등이다. 남민전 이재문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법정에서의 모두진술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 탄원서, 의견서를 통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가혹행위를 낱낱이 밝혔다.

내가 조사받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입에 올리기조차 소름 끼치는 곳입니다. 구치소에 송치되기까지 내가 받은 강제고문은 살인적인 잔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불법으로 무차별 고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간 이하의 짐승적인 취급, 악랄하기까지 한 경찰의 고문에 대해 비로소 폭로할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 경찰은 개인의 욕망과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나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다했고 치안본부 수사력의 과시 수단 및 편파적 정치 이용물로써 충분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700여 장의 초기 조서가 오늘 74장의 공소장으로 축소되어 이 자리에 놓여 있지만, 나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나의 양심을 위한 이 부정의 근거는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짐승 취급, 인격말살 및 조작된 결과가 낳은 이유 없는 재판을 거부합니다. 나는 진실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의 무죄선언 및 양심선언과 더불어 더 이상 이 시대의 희생물이 되고 싶지 않은 나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황인욱 1심 공판 법정진술)[253]

경찰 수사 중 제게 임기묵의 자술서에 나와 있는 대화 내용을 베껴 쓰라고 강요하여, 제가 강요

251) 김근태 1차 공판기록 중, 김근태, 앞의 책, 121쪽.
252) 최연석 심층 인터뷰.
25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엮음, 앞의 책, 102~105쪽.

에 이기지 못하고 저의 자술서에 베껴 써넣음으로 하여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은 바로 긴 경찰 수사과정에서 강제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장기간의 수사와 임신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지도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254] (김정자 항소이유서)

검찰은 검사 조사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검찰조서와 자술서의 임의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가 자기기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수사 지휘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고문행위에 대해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양심을 속이는 짓이리라. 검찰은 고문수사를 직접 지시했거나 방조, 묵인했을 것이다. 고문수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검찰로서 어떻게 '순순히 자백' 운운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255] (문용식 항소이유서)

가족 면회를 통해 고문 정황을 외부로 알리려는 노력도 있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가족 면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구치소에서도 검찰 조사 등의 핑계로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등 악조건이었지만 피해자들은 굴하지 않았다. 1986년 보임·다산기획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면회 온 가족들에게 고문 정황을 상세히 전달했고, 가족들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항의성명서를 발표했다.[256] 대한변협 인권위원회가 주관한 고문근절대책공청회에서 가족이 피해자의 몸 상태를 대신 증언하기도 했다.[257] 1986년 노해투 사건으로 안산지역 교회 전도사들이 연행되자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나서서 구체적인 구타, 물고문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258]

누나인 제가(의사) 직접 29일 첫 면회를 했습니다. (고경대는) 당시 29일에 면회했던 9가족 중 가장 심한 상태로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절과 신경의 이상은 물론 몸의 중심도 가누지 못한 상태로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으며 무슨 말이든 모른다고만 하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과 손을 만지면 따가운 듯 떨쳐버리지도 못하고 속으로, 속으로 움츠려만 드니 무슨 말을 물어볼 수도, 그토록 애태웠던 동생을 만져볼 수도 없었습니다.[259] (고경대 누나 고경심)

---

254) 남민전 김정자, "항소이유서[80노1109 국가보안법위반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0.7.28.
255) 문용식, "항소이유서[깃발사건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6.4.4.
256) "다산기획, 보임기획, 백산서당 등 소위 '의식화 출판조직'에 대한 최근 수사당국의 조치에 관한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6.
257)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고문근절대책공청회 자료집 – 고문피해의 증언>, 1987.1.20., 34쪽.
258) 한국기독교장로회 안산노동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반월교회, 대한기독교감리회 원곡교회 교우 일동, "안산 시민에게 드리는 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7.1.21.

우리 안산시에 있는 반월교회 방병규 전도사님과 원곡 감리교회 이광호 전도사님도 지난 12월 1일 박종철 군을 죽인 동일 장소인 남영동 대공분실 2단에 강제로 연행되어 박종철 군과 같은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저들은 전도사님들을 연행하자마자 팬티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긴 채 수갑을 뒤로 채워 무릎을 꿇게 하고 군홧발로 허벅지와 발꿈치 등을 수없이 구타하고, 치안본부의 장기인 물고문을 자행했습니다. 큰 욕조에 찬물을 가득 붓고 장정 4명이 사지를 붙잡아 물속에 죽지 않을 만큼 처박아 물을 먹였다가 꺼내는 고문을 수차례 했으며, 거꾸로 매달아 입을 수건으로 막고 물을 먹이기, 또한 통닭구이라는 악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욕조에 처박히다가 눈 가장자리가 찢겨 피가 나자 그제서야 고문행위를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노해투' 건으로 같은 시기에 강제 연행된 김봉수 등 많은 노동자, 학생들도 치안본부의 기본 고문인 욕조에 처박히기, 거꾸로 매달려 물 먹이기 등의 물고문과 뒷수갑 한 채 무릎 꿇린 후 구타하기, 통닭구이 등을 당했다고 합니다.[260]

익명성에 숨어 있던 고문 수사관들의 정체도 폭로했다. 1980년 경향신문 사건으로 연행된 이경일은 조사받던 중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이근안의 이름을 확인했고, 이를 김근태에게 전달하면서 이름 모를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신원을 밝혀내는 계기가 됐다. 1983년 조작간첩 사건의 함주명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5일간 고문을 받으면서도 "고문받은 사실을 세상에 밝히고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261] 고문 수사관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했다. 그리고 1999년, 자수한 이근안을 불법감금 독직폭행죄와 허위증언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했다.

선생님께서는 당시 고문했던 수사관 이름을 모두 기억했던 것이죠?
이근안, 이봉구, 이동구, 최평선이었어요. 당시에 수사관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진술서 맨 아래 수사관들이 이름 사인하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 나가서, 고문받은 사실을 세상에 밝히려면 수사관들 이름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름조차 모르면 무엇으로 내가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겠어요.[262] (함주명)

1986년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으로부터 고문수사를 받은 납북어부 조작간첩 사건의 김성학과 반제동맹 사건의 박충렬, 이민영 등은 각각 1987년, 1989년 이근안을 고발했다. 이 중 김성학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도피 중이던 이근안의 공소시효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끈질긴 노력은 무려 1,500일간

259)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고문근절대책공청회 자료집 - 고문피해의 증언>, 1987.1.20., 34쪽.
260) 한국기독교장로회 안산노동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반월교회, 대한기독교감리회 원곡교회 교우 일동, "안산 시민에게 드리는 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7.1.21.
261) 함주명 심층 인터뷰.
262) 함주명 심층 인터뷰.

도망을 다니던 이근안이 1999년 끝내 자수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되었다.

2. 고문을 폭로한 김근태의 투쟁

남영동 대공분실 5층 15호실, 이곳에서 1985년 9월 4일부터 26일까지 23일간 민청련 전 의장 김근태가 고문을 당했다. 그해 12월 19일, 김근태의 1차 공판이 열렸다. 모두진술이 시작됐고 김근태가 입을 열었다. “본인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남영동에 있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참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검사의 제지가 이어졌다. 김근태는 굴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네 장례 날이다’라는 협박을 가하면서 전기고문을 가했습니다.”
“장의사 사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다. 이재문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를 했다.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가 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줄 테니까. 그때 네가 복수를 해라!”

남영동 수사관들은 서로 사장, 전무, 주임 등의 호칭을 사용하며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고문이라는 불법행위가 드러난다 해도 ‘성명불상’의 방패 뒤에 숨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김근태는 10여 차례의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하는 와중에도 고문자들의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을 기억했다. 조서에 강제 날인할 때마다 거기에 쓰인 수사관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했다. 고문이라는 고통과 싸우며 필사적으로 기억을 했고, 이 기억은 이후 수사관들이 행한 고문의 행태와 남영동 대공분실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됐다.

1) 김근태 고문폭로 사건일지

일자	내용
1985.9.4.~25.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김근태는 전기고문, 물고문, 폭행 등의 고문을 당함
1985.9.26.	검찰 송치 중 검찰청에서 기다리다 만난 인재근에게 고문당한 사실을 알림. 이후 가족 면회, 변호인 접견권 실질적 금지
1985.12.9.	홍성우 변호사, 20차례 거부 후에야 겨우 김근태 첫 변호인 접견

1985.12.13.	변호인 접견 중 고문의 증거인 양쪽 발뒤꿈치 상처딱지를 재판 증거로 제출할 것 요청. 그러나 구치소에서 상처딱지 탈취당함
1985.12.19.	김근태 1차 공판.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사실 폭로
1985.12.30.	김근태, 대한변협이 수사관 8명을 고문 및 불법구속 혐의로 검찰에 고발 (총경 윤재호, 경정 김수현 · 백남은, 경위 김영두, 경장 정현규 · 최상남 · 박병선 · 신원미상의 고문기술자)
1986.1.30.	인재근 등은 위 8명의 수사관과 김원치, 김재기, 안왕선, 신광옥 공안부 검사를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1986.9.24.	대법원, 김근태에 대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확정
1986.10.7.	김근태, 고문에 대해 5,100만 원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1987.1.6.	서울지검, 김근태의 고문경관 고발 건을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정 및 불기소 처분
1987.2.23.	김근태, 고문경관 등 16인 고발 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1987.3.13.	인재근, 김근태 고문경관 고발 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1987.5.25.	김근태, 저서 「남영동」 출간
1988.6.30.	김근태, 2년 10개월 만에 가석방
1988.12.15.	서울고등법원, 김근태 고문경관 고발사건 재정신청 인용. 그러나 김수현, 백남은, 김영두, 최상남 4인에 한함. 나머지 12인에 대해서는 기각
1988.12.21.	신원미상의 고문기술자,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으로 밝혀짐. 이근안은 바로 도피에 들어감
1991.1.30.	서울형사지방법원, 김수현(징역5년), 백남은(징역3년6월), 김영두(징역2년6월), 최상남(징역2년) 실형선고. 도피 위험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안 함
1992.1.30.	서울민사지방법원, 계류한 지 6년 만에야 김근태의 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5천만 원 지급할 것을 판결
1993.8.23.	김수현(징역3년), 백남은(징역2년), 최상남, 백남은(징역1년6월)로 고문사건 발생 8년 4개월, 재판회부 5년 만에야 김근태 고문경관 고발사건 종결
1999.8.15.	이근안의 김근태 고문사건 공소시효 완성
1999.10.28.	이근안 자수

2) 김근태 투쟁의 의미

재판정에 선 사람은 김근태 혼자였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조력자가 있었다. '결정적 증거'인 전기고문으로 인한 발뒤꿈치 상처딱지가 변호인에게 전달된 데에

는 김근태 부인 인재근의 노력이 컸다. 인재근은 검찰 송치일에 김근태와 마주치기 위해 기약 없이 검찰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우연과 필연이 뒤섞인 1분의 짧은 만남에서 김근태는 자신이 당한 고문 내용을 샅샅이 전달했고, 발과 팔꿈치의 상처, 발등의 전기고문 흔적을 보여줬다. 이에 인재근은 민청련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기 원한다>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유인물은 재야와 정치권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고문수사 및 용공조작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의 계기가 됐다.[263]

한편 학생, 노동자, 구속자 가족들의 견고한 연대도 시작됐다. 반고문투쟁과 양심수 석방운동을 펼치던 가족들은 1985년 12월 12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결성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4년 4월 11일 인권위원회를 조직해 본격적인 반고문투쟁에 나섰다. 시민사회는 김근태 사건을 국제사회에도 알렸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근태의 안전, 나아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됐다.

김근태의 노력은 '폭로'에만 그치지 않았다. 1987년 5월, 김근태는 대공분실의 고문 실태를 담은 저서 「남영동」을 출간했다. 그는 여전히 민청련 사건으로 구속 상태였지만, 이 책의 발간만으로도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큰 힘을 얻었다.

가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 고발도 진행했다. 1985년 12월 30일 김수현 등 고문 수사관 및 책임자에 대한 고발을 시작으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받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위반사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김근태의 법률투쟁은 그의 고문 진술만큼이나 치밀했다.

김근태의 고문 폭로는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근안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해준 결정적 계기였다.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됐다. 고문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는 등 김근태의 몸은 망가졌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고문, 수사관 그리고 이것을 모두 '허락한' 공안정권과 끝까지 맞서 싸웠다. 문익환 목사의 말처럼 김근태가 소중한 이유는 "지난날의 투쟁 때문만이 아니"었다. "지난 투쟁을 미루어 앞으로 전개될 민족사에서 그가 담당할 몫"이 더 컸다. 수많은 피해자에게는 용기를, 가해자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준 것처럼 말이다.

263) 한홍구, "법정에 선 '밀실 고문'…재판부는 '증거 보전' 기각", 한겨레, 2009.12.21.

3. 인권 및 법률가 단체의 노력

1) 인권단체의 노력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KNCC')는 인권운동의 본산지였다[264]. 먼저 1974년 4월 설립된 KNCC 인권위원회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기독교 신자 학생들이 대거 구속될 당시에 탄생했다. KNCC 고문대책위원회는 1985년 10월 김근태의 고문 폭로에 항거하며 구성된 조직이다.

반고문투쟁에 앞장서온 KNCC 인권위원회는 "고문은 사람의 본성을 파괴하는 죄악행위이며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KNCC는 매년 연말 인권주간 자료집을 발행해 해당 연도의 인권침해 사례, 구속사건 일지, 교도소별 양심수 명단 등을 발표[265]하는 '반고문운동의 결정체'였다.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도회와 보고대회, 진상조사가 열렸으며 구속자 변호사 선임도 주선했다.[266]

KNCC 고문대책위원회에서는 공안기관의 고문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항의성명을 발표해 각계에 알리고, 공안당국에 항의서와 공개서한을 보냈다. 전국 교회 단위에서는 고문 폭력 추방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기도 했다.

(2)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가톨릭은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중심으로 고문 반대운동을 펼쳤다.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구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평신도사제직협의회 등은 공안당국의 결정적인 탄압 순간마다 제 목소리를 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직후 김수환 추기경은 권인숙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으며,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자 전국의 사제와 신자들이 반독재투쟁 기도운동을 벌였다. 특히 사제들이 단식투쟁에 돌입하자 명동성당에서 단식사제 571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267]

---

264)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3 - 전두환에서 노무현 정권까지」, 역사비평사, 2006., 257쪽.
26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3년 인권주간자료집 - 민생과 인권>, 1983.12.11.
266) 박원순, 앞의 책, 같은 쪽.
267) 어수갑,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사제단의 박종철 고문치사 진상발표",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 2015.5.6.

(3) 고문 및 용공조작 공동대책위원회

각자 반독재투쟁을 벌이던 재야와 정치권이 한데 묶였다.[268] 투쟁의 방향을 두고 이견을 빚던 원로 민주화운동가와 재야인사들이 모여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결성에 합의한 것이다.

1985년 10월 17일 공대위는 발기문에서 "종교계, 민통련 등 재야단체, 민추협, 신민당에서 독자적으로 전개해온 고문 및 용공조작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며 "앞으로 각종 선전, 집회, 서명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야당을 회유하고 재야세력을 분쇄하려는 작전을 구사하던 전두환 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다.[269]

(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985년 12월 12일, 구속자 및 수배자 가족들이 중심이 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도 탄생했다.[270] 민가협은 설립과 동시에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화운동 탄압 금지, 반고문운동 등을 전개했다. 남영동 대공분실뿐만 아니라 남산, 홍제동, 장안동 등 공안 수사기관이라면 어디든 민가협 가족들이 있었다. 사법절차도 없이 납치되듯 연행된 가족의 신고를 받아, 공안 수사기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면회를 요구했다.[271] 이외에도 「10대 조직사건」(1989년),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1987년) 등 고문 피해자 증언을 담은 책을 발간해 고문 실태를 널리 알렸다.

이근안 검거에도 적극 나섰다. 1988년 12월 21일, 이근안이 종적을 감췄지만 검찰과 경찰은 허술하고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했다. '이근안 도피를 고의적으로 방조'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공식적으로 현상수배를 내린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수사의 진척은 없었다. 이에 민가협과 KNCC 인권위원회, 전민련이 직접 이근안 현상수배에 나섰다. 자체 현상금도 내걸었고, 제보를 받을 때마다 해당 장소에 가서 몇 시간이고 '이근안'이 나타날 때까지 대기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현상수배는 이근안의 11년에 걸친 도피기간 내내 이어졌다.

고문 가해자들을 고문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1994년 7월 7

---

268) 박원순, 앞의 책, 255쪽.
269) 유시춘 외 9명, "[실록민주화운동] 제4부 58. 김근태 고문사건", 경향신문, 2004.5.30.
270)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22쪽.
271) "'고문은 최대죄악' 분노의 메아리, 특별취재반", 동아일보, 1987.1.23.

일, 민가협은 유신정권부터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국사건으로 공안기관에 연행돼 고문을 당한 양심수 등 고문 피해자 66명을 대리해 담당 수사관들을 서울지검에 형법상 폭행가혹행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고문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2) 법률가 단체의 노력

피해자들에게 변호인들의 조력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 고립돼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겪은 피해자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인물이기도 했다. 김근태는 검찰 송치 당일 "내가 당신의 변호사입니다"라고 말하며 악수를 건넸던 김상철 변호사와의 첫 만남을 또렷이 기억한다.[272] 김근태의 변호인단은 접견을 거부당할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구치소에 있는 김근태에게 변호인 방문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거듭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변호인의 존재는 단순한 법률 조력자를 넘어, 피해자가 극한의 가혹행위를 겪으면서 무너졌을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긴 투쟁을 함께 준비하는 동지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시국사건이 급증하면서 인권변호사의 기틀도 잡혀나갔다. 1970년대 유신 시기에 시국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한 이병린, 이돈명, 한승헌,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등 1세대에 이어, 1980년대에는 조영래, 이상수, 박성민, 박원순 등 2세대 변호사들이 시국사건 변론에 참여했다.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변론 활동을 확대해나갔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에서는 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4~5명의 인권위원으로 조사단을 구성, 인권침해가 확실한 경우 시정을 촉구하거나 검찰에 고발했다. 김근태 사건 당시에도 고문사건 보고서를 발간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 사례 자료를 모으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판, 평가했다.[273]

1988년 5월 28일 설립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권인숙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의 굵직한 시국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변론을 맡았다.[274] 함주명, 김성학 등 고문 수사관을 고발한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변론도 담당했다. 민변 소속의 박원순, 조용환, 천정배 변호사는 유엔

272) 김근태, 앞의 책, 159쪽.
273) "'고문은 최대죄악' 분노의 메아리, 특별취재반", 동아일보, 1987.1.23.
274) 민변 공식홈페이지 참조.

인권위원회[275]에 한국의 인권현실을 전달하고, 유엔 자유인권위원회에 국제규약에 위배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통보하는 등 국제인권기구의 장을 새롭게 열었다.

이렇게 축적된 인권변론을 기록으로도 남겼다. 1세대 인권변호사 홍성우는 20~30년 동안 보존한 기록을 「인권변론 한 시대」(2011년)와 자료집으로 묶어 냈다. 단순한 변론을 넘어선 고문과 폭력에 맞서 싸운 저항과 헌신의 역사 기록물이다.[276]

10년 가까이 기록을 모아 「야만시대의 기록」(2014년)을 저술한 박원순 변호사도 있다. 박원순은 일제강점기부터 참여정부까지 이어진 고문의 역사를 파헤치고 고문의 본질, 고문에 관한 법제와 현실,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의 방대한 내용을 '고문 백과사전'처럼 담아냈다.

4. 고문이 근절되지 않은 까닭은

1) 고문 호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대응

(1) 검찰의 대응

검찰은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진 상급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277] 피해자들이 검찰 조사 시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한 사실을 밝히고 경찰조서가 강압과 폭력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호소했을 때 검사가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조사했더라면 대다수의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재심에서 잇단 무죄판결이 이를 반증한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불법수사에 협력했고, 수사관의 고문과 협박을 고백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무시하거나 방조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작성된 진술서, 의견서, 신문조서를 그대로 공소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검찰은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조사를 받는 장소가 치안본부에서 검찰청으로 바뀌었을 뿐, 피해자들은 폭력에 대한 공포로 위축됐고, 방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신상태는 여전했다.[278] 피해자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 "계속 그러면 다시 (대공분실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여기 15층에도 심문실이 있다"[279]고 협박하거나, 심지어 직접 폭력을 사용한 검사도 있었

275) 유엔인권이사회의 전신.
276) 2013년 제3회 진실의 힘 인권상 결정문.
27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나는 간첩이 아니다" 조작간첩사건자료집③>, 15쪽.
278) 문용식, "항소이유서" 중 '고문수사의 책임', 1986.4.4., 10~11쪽.

다. 결국 피해자 대다수의 검찰조서는 경찰조서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작성됐다.

① 검사가 직접 폭력을 사용

검찰 조사 중 피해자가 검사한테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다. 경찰조서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검사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사나 치안본부 조사관 등에게 폭행을 지시했다. 폭력과 협박이 더 은밀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검사 사무실이 아닌 장소로 이동하기도 했다.

검찰에 와서 "내가 치안본부에 와서 조사받은 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니 다시 하자"고 했더니 "너 혼자만 부인하면 되냐"면서 4~5시간 또 맞았습니다. (양승조)[280]

처음 검찰 취조과정에서 뒤를 돌아보니 남영동에서 온 수사관이 있었고 "사회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나중에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자 "그동안 국가 조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것이 무효가 되지 않느냐"라면서 "만일 네가 그런다면 다시 돌려보낼 수 있고 여기 15층에도 심문실이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검찰 조사도 남영동과 별반 다른 것이 없었는데, 당시 내가 부인하면 검사가 나의 따귀를 2~3차례 때리면서 조사실 문밖에 있는 남영동 수사관들을 불러 '너희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기에 이렇게 진술이 바뀌느냐'면서 15층 조사실로 데려가 다시 조사해보라고 하였다.[281] (이선근)

검찰 송치 당일인 1989년 5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505호실에서 담당 이춘성 검사에게 '저의 자술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수사관들이 고문을 하여 할 수 없이 수사관들이 쓴 것을 보고 베낀 것입니다'라며 진실을 호소했지만 '간첩새끼는 맞아야 바른 말을 한다', '이 새끼 13층으로 데려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을 감시하고 있었던 수사관들 4명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하더니 이제 너는 죽었다'라며 검찰청 13층으로 끌고 갔습니다. 고소인은 13층 낯선 방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고문이 시작된다'는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곧바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위 피고소인들 4명이 정신을 잃은 고소인의 몸에 물을 뿌려 고소인을 깨웠습니다. 정신을 되찾고 두리번거리니 위 피고소인들과 함께 조사실에 와 있던 검사는 '개새끼, 무릎 꿇어!'라며 명령했습니다. 고소인이 거부하자 위 피고소인들 4명이 주먹과 구둣발로 고소인을 짓밟으며 무릎을 꿇렸습니다.[282] (김철)

---

279) 이선근, 항소심 공판 진술, 1982.4.26.
280) 구속자 가족 일동, "학림, 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피고인들의 고문에 대한 법정진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2.5., 14~15쪽.
281)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권, 514쪽.
282) 김철, "고문 수사관 고소장"(1994.7.7. 제출), <"나는 간첩이 아니다" 조작간첩사건자료집 ③>, 민가협, 46쪽.

② 고문 수사관 동석

치안본부 고문 수사관들은 검찰 송치 전 피의자를 협박했다. 검찰에 가서 경찰조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할 경우 피의자를 다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직전까지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이 수사관들의 협박에 공포를 느끼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고문 수사관들이 검찰 조사 중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강박상태는 효과적으로 지속되었고, 피해자들은 순식간에 심리적으로 남영동으로 돌아갔다. 고문 수사관들이 검찰 조사에 직접 참석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청사로 오기 전에 남영동에서 '너는 간첩이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협박하더니 검사실에도 남영동 수사관들이 네 놈이나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 아침에 구치소에서 불러내면 하루 종일 구치감에서 대기시켰다가 저녁 5시, 6시부터 심문해서 자정쯤이나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밤새워 조사하곤 했어요. 물고문했던 남영동 경찰들이 내 눈을 가린 채 '죽여버릴 수 있다'고 공갈협박 했는데 검사가 말리기는커녕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형무소에서 죽어 나와!'라며 한술 더 떴어요.[283] (김철)

이장형은 검찰에서 반성문을 2~3회 작성한 이유는 1984.8.27. 서울구치소로 이감 시 수사관이 검사 앞에서 한 가지라도 틀린 말을 하면 공소보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의 악몽이 검사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썼던 대로 반성문을 썼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284] (이장형)

검사실에 들어갔더니, 최낙전 조카가 와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정형근 검사가 낙전 조카에게 아주 악을 쓰고 있었어요. … 그런 다음 저를 불렀습니다. 나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전화기를 들더니 "들어오세요" 그러더군요. 바로 나를 고문한 수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나한테 같이 가자면서 진짜로 데리고 가려고 양팔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내복을 두텁게 입고 왔어도 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285] (최연석)

③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하고 무시

검찰은 잔혹한 고문 탓에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피의자에게 더 이상의 번복은 무의미하다고 설득하거나, 관련 피의자 신문이 모두 종료되었으니 부인해도 소용없다며 피의자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또한 검찰은 본래 정해진 수사 방향대로 공소장

283) 민가협, <"나는 간첩이 아니다" 조작간첩사건자료집③>, 53쪽.
284)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3권, 245쪽.
285) 최연석 진술서, 최을호 최낙전 재심청구서.

을 작성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진술을 무시하고 왜곡했다. 대공분실에서 강제, 허위로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검찰에서의 번복은 결국 불가능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검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앉자마자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 가서도 조사가 합법적이라기보다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것과 사회주의, 계급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는데 공소장에 계속 나오니 이해가 안 갑니다.[286] (최규엽)

검사실에 있던 사람이 나한테 "어차피 했다고 하나 안 했다고 하나, 저 사람들(조카 낙전, 낙교)은 형을 받을 것인데, 당신이 계속 그러면 당신만 골치 아프니까 그냥 사인하고 가라!"고요. 아, 고문한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지, 거기 끌려가면 이번에는 정말 죽을 것 같지,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검사 보는 앞에서 사인을 하고서야 검사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287] (최연석)

④ 공안검사들의 활약

고문이 일단 끝난 뒤 형사들은 김원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시나리오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그 뒤에 남부지청장과 김원치 검사는 축배를 들고 부하들과 승진을 자축하기 위해 아지트 서림장 여관으로 왔다. 그 뒤 형사들이 주고받은 얘기는 '이젠 지청장님 승진은 확실하다', '관악서 자식들이 몇 개월 동안 헛수고만 할 때 우리는 다 해결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남부지청은 문제없다', '오늘 같은 날 수고비 좀 듬뿍 지급 안 하나?' 등등이었다.[288] (황인상)

검경과 법원이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안사건'을 완성하면 피해자들에게는 주홍글씨가 새겨진다. 반면 가해자들은 사건 종결을 기뻐하며 성과를 기념했다. 그뿐 아니었다. 공안사건에서 '특출하다'는 것은 곧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탄탄대로를 걷는 것과 다름없었다. 본 보고서의 서두에서 살펴본 대로 치안본부 대공과 수사관들은 성과금, 실적 등을 챙기며 승승장구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는 위상이 남달랐다. 전두환 정권 시절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중요한 시국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했다. 공안부 검사에 대한 인사는 지검장이 아니라 대검 공안부장과 검찰총장이 직접 챙길 만큼 여러 모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공안검사는 뛰어난 '감각'으로 시국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해 신속하고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한번 공안은 영원한 공안"이라는 말이 돌 만큼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공안통'

286) 최규엽 법정진술(1982.5.3.), 위의 책, 245쪽.
287) 최연석 진술서, 최을호 최낙전 재심청구서.
288)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12쪽.

검사들이 자연스레 생겨났다[289].

'공안검사'로 이름난 이들도 당연히 남영동 사건을 담당했다. 민추위 사건(깃발 사건)의 담당검사 김원치도 그중 하나다. 김원치는 1975년 검사로 임명된 후 서울고등법원 차장, 대검찰청 감찰부장, 형사부장을 지냈다.

남부지청에서 김원치 검사를 만났을 때 김 검사가 몇 가지를 물어봤다. 김 검사는 당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서의 출처와 '깃발'의 주모자라는 황모 씨의 소재를 물었다. 그래도 대답이 시원치 않았는지 김원치가 형사들에게 '안 되겠구만, 아래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그때 느낌이 이상했다. 공포감이 직감적으로 들었다. 수사관들이 남부지청 지하로 나를 끌고 갔다. 그곳은 주차장처럼 넓은 곳이었는데, 양동이와 주전자도 여러 개 눈에 띄었다. 형사들이 두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는 빗자루를 중간에 걸어 대롱대롱 매달았다. 그리고 물수건을 두른 다음, 주전자로 물을 부었다. '맞냐, 아니냐'고 묻는데 '맞으면 발가락을 까딱까딱하라'고 명령했다. 소위 '통닭구이'라는 고문이 그것이었다. 수사관들은 맛이 좀 약한 모양이라면서 고춧가루까지 부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그다음이었다. 2~3시간 고문을 당하고 다시 검사실로 올라갔다. 내심 검사가 고문당한 것에 대해 알아채고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돼 있었는데 김 검사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다. 시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만 늘어놓는 게 전부였다. 그리고 '넌 혐의가 없어서 나가지만 앞으로 주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끌려간 지 20여 일 만에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290] (최용석)

특히 김원치 검사는 민추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남영동 대공분실 못지않은 악명을 떨쳤다. 피해자들은 "서울 양평동 소재 서림장 여관에 설치된 임시 수사본부"는 "서울지검 남부지청 지원 또는 남부지청 김원치 검사가 사재를 지출하여 설치한 것으로 학내에 알려져 있었"[291]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민추위 사건 피해자들은 서림장 여관에서 물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안강민 검사는 1981년 전민학련/노련 사건을 수사했다. 안강민은 이후 대검 감찰부장, 중수부장, 형사부장, 그리고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다음은 전민노련 이태복, 전민학련 이덕희의 법정진술이다.

이돈명 변호사: 검찰에서 시인하였습니까?

이태복: 아닙니다. 시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 검사는 <최근 대학가의 좌경화 동향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보고 있으면서 혼자 묻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문답을 한 것은 인적 사항만 문답을 했고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검사가 자문자답하며 직접 타자를 칠 때도 있었고 나중

289) 이태훈, "검찰 '로열 패밀리', 공안검사 영욕 30년", 신동아, 2006.3.13.
290)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민가협 편, 2003., 458쪽.
291) 경찰청,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2007.11., 259쪽

에 타자수를 불러 쳤습니다. 검찰이라 하면 법을 전공한 법조인으로서 사법경찰이 닦아온 터전보다는 좀 더 높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제가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보다 오히려 더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고문당했다는 것을 검사는 알고 있는데도 우리 사건 때문에 휴가도 못 갔다고 했는데, 검찰조서는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중략) 검사님이 "이선근일 죽일까 너를 죽일까" 하는 말에 "선근이보다 내가 나이가 몇 살 많으니까 죽이려면 나를 죽이시오"라고 했었습니다.[292]

황인철 변호사: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는 그 자리에 남영동에서 고문하였던 사람들이 동참하였습니까?

이덕희: 네, 검사가 "너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느냐"고 해서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자 저지하고 인적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중략)

변호사: 첫날 심문이 끝난 뒤의 사항은?

이덕희: 20일이 지난 뒤 본격적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담당검사가 "다른 사람은 다 끝났다"고 했음을 미루어보아 자신이 마지막인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그때 가서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았습니까?

이덕희: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책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니 "딴 사람이 다 말했다"면서 무릎을 꿇게 하고 따귀를 때리며 "남영동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고 싶냐"고 위협했습니다.[293]

정형근 검사 또한 빠질 수 없다. 1970년 검사로 임명된 정형근은 1982년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담당검사였다. 그는 남영동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피의자들을 협박하고 윽박질렀다.

검사실에 들어갔더니 낙전 조카가 와 있더라고. 낙전이 울면서 "왜 숙부님(최을호)은 나한테 그런대요.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했대요. 숙부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울면서 말해요. 정형근 검사는 "이 자식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염병질 한다"고 소리 질러요. 꼭 죽일 기세로요. 낙전이가 계속 부인을 하니까 정형근 검사는 윽박지르면서 기록을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낙교 조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낙교 조카는 반절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 같더라고. 정형근 검사가 "너 최연석이한테 이북 가자고 했어?"라고 물으니깐 "그런 일 없습니다" 해요. 낙교가 계속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정형근 검사가 옆에 있던 우산을 들어서 낙교 눈을 곧 찌를 듯이 막 들이댔어요. 진짜 눈을 찌를 것처럼요.[294] (최연석)

피의자의 법률적 무지를 이용해 허위자백을 유도하기도 했다.

---

292) 이태복 법정진술(1982.4.26.),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민가협 엮음, 거름, 231~232쪽.
293) 이덕희 법정진술(1982.4.26.), 위의 책, 235~236쪽.
294) 최연석 심층 인터뷰.

(정형근)검사님께서는 공소시효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에게 책을 펴 보이면서 공소시효가 넘은 걸 가지고 무얼 부인하려 하느냐고 하시면서 나에게 공소사실대로 시인하라고 했을 때도 저는 눈물로써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최낙교)[295]

협박, 기망, 폭행의 방식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완성한 정형근은 공안사건 '통'으로 승승장구하며 1983년 안기부의 대공수사국장으로 특별채용 됐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는 안기부 수사단장 신분으로 사건 은폐를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 다음은 은폐를 지시한 그의 발언이다.

5월 11일 오후 2시 30분, 장충공원 앞 앰배서더 호텔 1817호실, 신창언 부장과 나, 그리고 안기부의 J단장[296]이 마주 앉았다.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안기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안기부로서는 이 시국에 사건의 진상이 새로 밝혀지면 정부가 견디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재야와 학생이 들고일어날 테고 야당이 단합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5공화국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 이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야 한다. 이것이 안기부 방침이다.… 지난 1월 박 군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 차라리 그냥 심장마비라고 발표하고 묻어버리는 것이 옳았다는 말이 안기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묻혀야 하고 또 묻힐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훗날 깨져도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안 된다. 1심만 무사히 지나면 영원히 묻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안기부의 입장이다.[297] (안상수)

이사철 검사 역시 공안통이었다.

담당검사인 이사철 검사는 "내가 제주지검에 있어봐서 제주사정에 밝다"면서 이장형 씨를 동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조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부인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씨가 "살려달라,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자 검사는 180도 태도를 돌변하더니 어딘가로 전화연락을 했다. 이 검사가 수화기에 대고 "왜 저렇게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느냐" "빨리 와서 데리고 가시오" 하는 말에 이 씨는 다시 치안본부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눈앞이 캄캄하여 무의식적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298] (이장형)

독재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안사건을 '만들어' 나가기만 하면, 공안검사들은 쾌속 승진을 보장받았다. 경찰의 고문 사실을 고발하는 피해자들을 윽박지르고 협박하며 기소율을 높여가면 그만이었다. 설령 잘못된 기소였음이 밝혀져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와 같은 토대 위에서 고문은 오히려 장려되었다.

---

295) 최낙교 탄원서, 김제 조작간첩단 사건 원심 수사기록 232쪽.
296) 정형근을 지칭.
297) 박성원,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정형근을 고발한다", 신동아, 1999.1.
29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민가협 편, 2003., 457쪽.

(2) 법원의 대응

피고인들에게 법원은 최후의 보루였다. 재판관의 역할은 적합한 증거를 채택해 허위진술을 가려내고 이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모두진술, 최후진술을 통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고문을 폭로했다.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에도 고문을 기록했다. 일부 변호인들도 신문과정에서 고문 사실을 확인하며 자백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피고인들이 고문에 따른 허위진술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판사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건과 관련 없는 발언이라며 제지하는 판사들도 있었다. 때로는 검찰이 고문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그 수사관의 허위에 찬 증언만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① 고문 수사관들의 법정 증언

1979년 남민전 재판 당시, 이재문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가 재판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수사를 폭로하며 진술을 부인했다.

저는 법정에서 검사작성의 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79년 10월 4일 경찰에 구속된 후 12월 6일 구치소로 송치되었는데 그동안의 구금일수는 2개월이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사이 저는 자해행위와 경찰에서의 고문으로 검찰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발표 중에 있었기 때문에 형식상 위법행위는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마당에 있어서 그 당시의 상황은 적어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비추어 볼 때 그런 행위는 위법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의 비정상적인 장기구속의 뒤에 검찰에서 행해진 진술은 본인이 그 성립과 임의성을 법정에서 부인하는 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299] (이재문)

그러자 검찰은 이근안을 비롯한 대공분실 수사관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수사관들은 "고문한 적이 없고, 오히려 연행과정에서 구타를 당했다"[300]고 허위 증언했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위증 여부를 확인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문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40일간의 불법 감금 수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피해자들의 고문 주장에 귀를 막은 판사들은 "사건의 특성상 일정한 강압적 신문은 필요했

299) 이재문, 최후진술서, 1980.4.14., 15쪽.
300) 이수일, 앞의 책, 77쪽.

을 것으로 인정되지만, 특별히 피고인들을 불법 고문한 증거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301]

함주명은 1983년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45일 동안 남영동 대공분실에 불법 감금되었고, 검찰에 송치된 4월 21일까지 63일에 걸쳐 대공분실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수사를 받았다[302]. 검찰 조사 중 함주명은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고백했으나, 검찰은 이를 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함주명은 1회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이었던 이근안을 검찰 측 증인으로 항소심 법정에 출석시켰다. 이근안은 법정에서 "냉온방시설이라든가, 욕조, 수세식 변소 등이 갖추어진 안락한 방에서 수사요원들과 함께 침식을 같이 한다[303]", "우리가 300원짜리 담배를 피울 때 500원 짜리 담배를 사주고,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때 설렁탕을 대접하고, 우리가 바닥이나 소파에서 잠을 잘 때 침대에다 재우고 합니다"라며 고문이 없었다고 허위 증언했다.

반면 함주명은 재판에서 남영동에서의 감금, 끔찍했던 가혹행위를 상세히 진술했다. 판사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았다. 허위자백으로 작성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만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함주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결국 함주명은 16년 넘게 감옥살이를 했다. 반면 이근안은 다시 남영동 대공분실로 돌아갔다.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가 1999년 자수했을 당시 서울지검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살펴보면 "함주명 사건에서 실황조사서를 잘 썼다며 어느 대법관님으로부터 격려금 100만 원을 받은 바 있"[304]다고 밝혔다. 또한 이장형 사건에서도 이근안은 "이재훈 부장판사로부터 격려금도 받았"다고도 했다.

예단과 편견을 금지해야 할 판사와 대법관이 대공수사관에게 '격려금'을 줬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재판과정에서 고문수사를 분명히 인지했을 판사가 자백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도 모자라 '격려금'을 줬다. 수사관들의 불법적인 고문수사를 철저히 비호하고, 더 나아가 독려했다는 증거다. 그것은 곧 고문에 대한 '격려'였다. 이에 힘입어 전기고문, 물고문 등 이근안의 고문행위는 더욱더 악랄하고 잔인해졌다.

---

301) 이수일, 위의 책, 같은 쪽.
302) 송소연, "함주명, 그 빼앗긴 세월", <민주가족>.
303) 함주명 공판기록, 577쪽.
304) 이근안, 진술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기록 30쪽, 1999.

②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문제

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도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다”며[305] 수사기관에서 자행된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이뤄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인정했다. 40여 일이 넘게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수사를 받았던 이들이 어떤 연유로 검찰에서, 수사과정에서 그 자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법정에서 아무리 주장하고 호소해도 법원은 너무 쉽게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달리 증거가 없다”며 무시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냈는데, 재심 재판에서는 위와 같은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검찰의 조사단계에서도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고, ‘그러한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제 조작간첩단 사건 재심판결문[306]

피고인들은 검찰의 조사단계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경찰에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러한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삼척 조작간첩단 사건 재심판결문[307]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으로 인해 경찰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까지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된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적극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고문 고소에 대한 관대한 처벌

고문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고문 수사관들은 자신들의 신원을 철저히 감추고 고문의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했다. 가족은 물론 변호인 접견마저 ‘수사상 이유’라며 차단당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고문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릴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했고, 알린다 해도 그 증거를 보존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설령 기적적으로 증거를 보존했어도 법원은 무시했다. 김근태의 경우, 23일 동안 본인이

305) 민가협, <“나는 간첩이 아니다”, 조작간첩사건자료집③>, 19쪽.
3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9. 선고 2014재고합13 판결, 13쪽.
307) 춘천지방법원 2014.12.12. 선고.

당했던 고문의 내용과 일시, 고문 수사관의 별명, 생김새, 나눴던 대화 등을 세세히 기억했다. 뿐만 아니라 '고문의 증거'는 그의 몸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김근태는 전기고문으로 생긴 발뒤꿈치 딱지를 이돈명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도관의 제지로 실패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근태의 상처에 대해 '신체 감정 증거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1985년 10월 안기부[308]가 "사전물의 야기 예방차원에서 법원(김오수 판사)을 강력 조정"한 덕분이었다.[309]

그사이 시간은 흘러갔고, 비록 고문 수사관의 신원이 파악됐어도 이번에는 '공소시효'에 가로막혔다. 간혹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지만 선고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았다. 재판을 늦추거나 느리게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고문행위를 적극적으로 조력하기도 했다. 김근태 고문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김근태가 1985년 민청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당시 기소(1985.10.25.)부터 대법원 판결 확정(1986.9.24.)까지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에 비해 김근태가 고문 수사관들을 고발한 시점(1987.2.23.)부터 판결 확정(1993.8.23.)까지는 6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또한 16명을 고발했으나 이 중 4명만 기소됐으며 이들에 대한 형량마저도 나이를 이유로 죄질에 비해 낮게 선고했다. 1심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왔음에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등 수사관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호해주기까지 했다. 절차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불기소 처분된 1심 재판 결정에 재정신청을 하는 전문적이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계기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고문 수사관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고문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미흡한 제도적 문제점이 상존하는 한 고문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2) 고문의 공범자들

검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대공분실의 고문은 근절되지 않았다. 고문 수사관들에 대한 철저한 비호,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수사 방식을 눈감아주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었다. 공안사건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이를 통해 쾌속승진을 한 검·경찰, 법관도 수두룩했다.

피해자의 엄중한 고발은 공소시효라는 방패에 가로막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공안사건은 고문해도 된다'는 관행과 인식, 그리고 불법수사를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

308) 안기부, <학원 및 노조 배후 조직 민청련 수사 진행상황 보고>, 1985.10.
309) 한홍구, "법정에 선 '밀실 고문'…재판부는 '증거 보전' 기각", 한겨레, 2009.12.21.

로 고문을 장려하는 악의 순환고리 속에서 고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구속기간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2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310].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0조(불고지)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단순 이적표현물 사건조차도 사법경찰 단계에서 최장 20일을 수사할 수 있었다. 장기구속은 고문과 강압수사의 여지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체포한 수사관에게 상금을 주고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국가보안법 제21조(상금), 제22조(보로금)도 고문수사를 부추기는 법적 기제로 작동했다. 끊임없이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구속한 뒤 자백을 통해 진술 또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강압적으로 자백을 얻어내는 가장 용이한 수단이 바로 고문이었다.

고문이 용인되는 사회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수십 년이 지나고, 수차례 정권이 바뀐 오늘도 수사기관의 불법수사를 견제할 틀은 미흡하기만 하다. 고문행위를 범죄행위로 명문화하고 이를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형사법에 명시하는 근본적인 예방조치를 포함, 반인권적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김근태, 함주명의 목숨을 건 고발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자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다.

310)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 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5장

고문 가해자 현황

5장 고문 가해자 현황

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가담자들

1) 사건개요

1987년 1월 14일 오전 11시경 남영동 대공분실 제9호실에서 수사를 받던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했다. 치안본부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족을 격리시킨 채 1월 16일 박종철의 시신을 화장해버렸다. 그리고 부검결과를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거짓 발표했다.[311] 그러나 부검의 황적준이 물고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수사는 계속됐고[312], 여론에 밀린 치안본부는 박종철 사망 관련 특별조사반[313]을 구성한다.

1월 19일, 치안본부는 1차 조사발표문[314]에서 "담당 수사관의 가혹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당시 조사 수사관 경위 조한경, 경사 강진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가혹행위에 의한 치사)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대공수사 2단장을 직위해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부 수사관들의 지나친 직무의욕"에 기인한 것이라는 치안본부의 발표는 진실규명을 원하는 언론, 학생, 야당,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혔다. 특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정의구현사제단')은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고문 수사관 3명의 신원을 추가로 고발한다[315].

이에 검찰은 5월 21일 수사결과[316]를 발표하고, 대공수사 2단 경위 황정웅, 경장 반금곤, 이정호 3인의 혐의를 추가 인정했다. 그 이상의 경찰관계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의구현사제단은 계속해서 범행 은폐·축소의 전모를 밝힐 것을 주장하고, 대한변협에 조사단 구성을 요청하는 등 진상규명을 더욱 강력히 요구했다. 검찰은 5월 23일 치안감 박처원, 경무관 전석린, 경정 유정방, 박원택,

311)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이 수사결과 발표 중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언하는 것이 이때다.
312)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수사.
313) 이강년 경무관을 반장으로 조사요원 16명 투입. 1월 17~18일 양일 동안 16명을 신문하고 1월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사체부검.
314) "서울대생 박종철군 사망관련 치안본부 조사발표문", 중앙일보, 1987.1.19.
315) 당시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부영이 같은 동에 구속 중인 조한경, 강진규를 통해 사건의 조작·은폐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교도소 밖으로 알렸다.
316) "검찰발표 전문", 동아일보, 1987.5.22.

경감 5명을 대상으로 은폐·축소 모의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5월 27일 치안본부장 강민창을 경질,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사건을 이관한다.

5월 28일 대검은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 3인을 범인도피죄 혐의로 추가 구속하고 박종철 죽음에 대한 은폐·축소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추가 발표[317]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집중되고 사회적 의미가 가중되면서, 수사관 조한경, 강진규의 심경에도 변화가 일었다. 이에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 등 치안본부 고위직은 조한경과 강진규를 찾아가 협박하고, 금전적 회유를 통해 사건 축소를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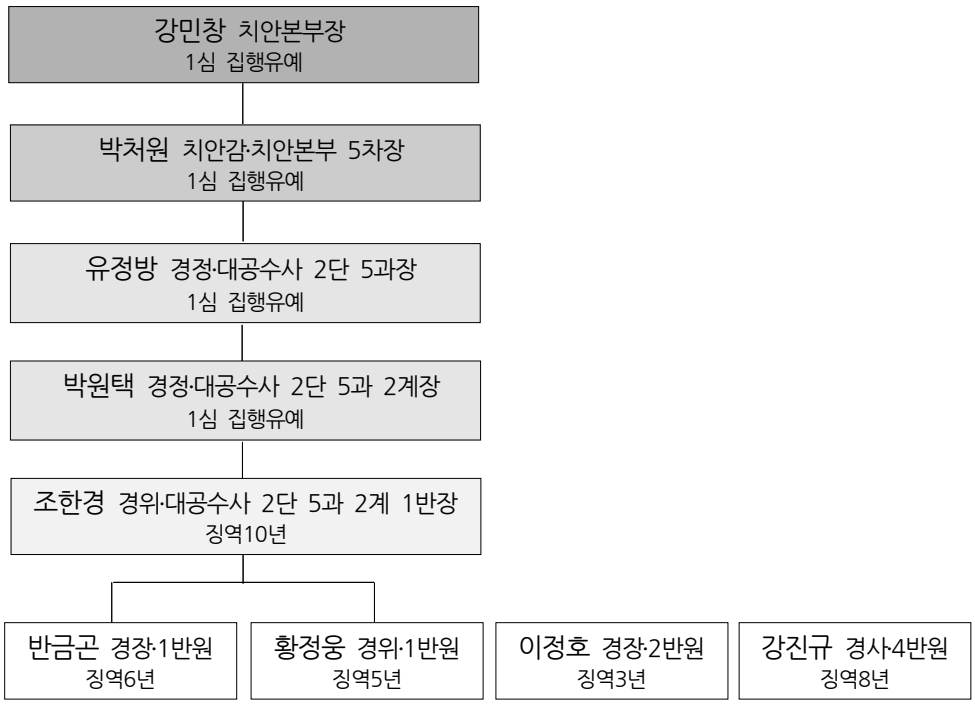
검찰은 2차 조사를 통해 박종철 물고문에 가담한 황정웅 등 고문 수사관 3명을 구속했고, 고문치사 은폐조작을 지시한 박처원 등 3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내무부, 안기부, 기관장 모임인 관계기관대책회의 등 윗선의 사건 은폐와 범인 축소 조작[318]은 2차 수사발표에서도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319]

1987년 6월 9일,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과 4·13호헌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민주화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6월항쟁이 시작된 것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수사는 1988년 1월 12일 부검의 황적준의 일기장 공개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황적준이 공개한 일기장에는 강민창 치안본부장, 박처원 5차장 등 치안본부 '윗선'이 박종철 사망원인을 부검서에 밝히지 말도록 회유, 협박한 언행이 기록돼 있었다.[320] 결국 1월 16일 강민창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른다.[321]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한 지 1년 후의 일이었다.

317) "박군치사범 조작 수사결과 발표 전문", 중앙일보, 1987.5.29.
318)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권, 371쪽.
319) 여기까지를 통칭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차수사라고 부른다.
320) "치안본부장 등 경찰 수뇌들 고문치사 처음부터 알았다", 동아일보, 1988.1.12.
32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3차수사.

2.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재판결과

1) 박종철 사건 가해자 조직도



2) 재판결과[322]

〈표〉 박종철 고문치사 경관 재판결과

구분	내용	피고	재판결과	구체적 범죄행위
1차 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가혹 행위 치사)	조한경	기소(1987.1.24.) 1심(1987.7.4.) 징역15년 2심(1987.10.19.) 징역10년 3심(1988.2.23.) 징역10년 최종 가석방(1994.4.)	이정호에게 욕조 물 채울 것 지시, 박종철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구타한 뒤 물고문 지시
		강진규	기소(1987.1.24.) 1심(1987.7.4.) 징역15년	박종철을 욕조에서 끌어당기면서 머리를 잡고 2회에 걸

322) 재판결과는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하였고, 구체적 범죄행위는 검경의 당시 수사발표문과 진실화해위원회의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5권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2심(1987.10.19.) 징역8년 3심(1988.2.23.) 징역8년 최종 가석방(1992.7.)	쳐 1~2분 정도 물속에 밀어 넣음
2차 수사		반금곤	기소(1987.5.29.) 1심(1987.7.4.) 징역8년 2심(1987.10.19.) 징역6년 3심(1988.2.23.) 징역6년 최종 가석방(1991.12.)	박종철의 우측 팔을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껴안아 잡고 물고문 협력
		황정웅	기소(1987.5.29.) 1심(1987.7.4.) 징역7년 2심(1987.10.19.) 징역5년 3심(1988.2.23.) 징역5년 최종 가석방(1990.12.)	박종철의 왼쪽 팔을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껴안아 물고문 협력
		이정호	기소(1987.5.29.) 1심(1987.7.4.) 징역5년 2심(1987.10.19.) 징역3년 3심(1988.2.23.) 징역3년 최종 만기출소(1990.5.)	욕조에 물 채우고 박종철을 욕조 앞으로 끌고 간 후 박종철을 뒤에서 밀어 물고문 협력
	범인도피	박처원	기소(1987.6.5.) 1심(1987.9.21.)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2심(1990.8.17.) 무죄 3심(1991.12.27.)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1993.2.26.) 징역1년 6월, 집행유예3년 대법원(1996.1.5.)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박종철이 물고문에 의해 사망한 사실 인지하고 조한경, 강진규에게 '대공요원 희생시키지 말고 책임'질 것 강요. 이후 둘이 고문경관들이 더 있음을 밝히자 끈질기게 회유, 둘에 5천만 원씩 개발신탁장기예금 가입해주고 회유
		유정방	기소(1987.6.5.) 1심(1987.9.21.) 징역1년, 집행유예2년 2심(1990.8.17.) 무죄 3심(1991.12.27.)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1993.2.26.)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대법원(1996.1.5.) 징역1년, 집	박종철이 물고문에 의해 사망한 사실 인지하고 박원택에게 사건보고서 작성 지시. 조한경, 강진규에게 수차례 '속죄양'이 될 것을 종용, 설득, 회유. 두 사람의 부인 면담, 남편 설득을 당부
		박원택		박종철이 물고문에 의해 사망한 사실 인지하고 유정방의

			행유예2년	지시로 박종철 사건 발생보고서 작성. 조한경 등 가혹행위자 5인이 미리 협의된 역할분담 사항을 숙지하도록 지시. 1.15. 구속 기소된 조한경, 강진규에게 일관된 자백 유지할 것 종용
3차 수사	직권남용 직무유기	강민창	기소(1988.2.1.) 1심(1988.3.12.)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2심(1990.8.17.) 무죄 3심(1991.12.27.)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1993.4.1.)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1993.7.27.)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박종철이 물고문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치안본부 제3차장 이강년에게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후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상을 은폐

3) 고문 수사관에게 관대한 법원

재판결과는 법원이 고문 수사관들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조작을 기획하고 지시한 고위직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직접 고문을 하여 박종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수사관들도 비록 실형을 받기는 했지만 3년형을 선고받은 이정호를 제외한 모두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행위가 몇몇 수사관의 돌발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은 이미 사건 조사 당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그리 높지 않은 형량을 선고했고, 법무부는 그나마 형량도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고문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고문범죄를 척결할 의지를 보였어야 마땅함에도 현실은 정반대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았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고문은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출소 후 경찰청 추천으로 유관단체에 취직했다는 것이다. 이정호와 강진규는 출소한 지 1~2개월도 안 돼 경찰공제회에 입사한 사실이 드러났다[323]. 형 집행종료 2년이 경과된 후 임용 가능하다는 경찰 인사관리규

정[324]까지 어겨가며 일반직 4급으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조한경은 만기일자 3년을 앞두고 가석방이 되자마자 경찰청 추천으로 경찰 산하기관인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에 취직, 일반직 3급 총포지도과장으로 근무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고문 수사관의 처우를 비호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325].

박처원은 2008년 노환으로 사망했으며, "턱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강민창은 2018년 7월 6일 노환으로 사망했다[326].

2. 김근태 고문 사건 재판결과

1) 가해자 처벌(재정신청)

1985년 12월, 김근태는 고문 및 불법구속 혐의로 수사관 8명(총경 윤재호, 경정 김수현·백남은, 경위 김영두, 경장 정현규·최상남·박병선, 신원미상의 고문기술자[327])을 고발했다. 부인 인재근 등[328]은 1986년 1월, 위 8명의 수사관에 더하여 김원치, 김재기, 안왕선, 신광옥 공안부 검사를 불법감금, 가혹행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은 1987년 1월 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1987년 2월 23일, 김근태 변호인단은 김근태를 고문한 경찰관과 검사 등 16명에 대한 독직폭행, 집권남용 등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1988년 여소야대 국회로 정치적 상황이 반전되자,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는 김근태 고문 사건이 의제로 올랐다. 재정신청 후 1년 10개월이 지난 12월 15일, 서울고법이 김수현 등 수사관 4인에 대한 재정 결정[329]을 내렸다. 그에 따라 재판이 시작되었는데[330] 법원은 고문, 고문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직무유기, 증거

323) 이심기, "박종철군 치사관련 경관 3명, 출소후 경찰단체 채용 '물의'", 한국경제신문, 1998.6.9.
324)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종료 또는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용을 제한하도록 돼 있음.
325) 김효엽, "박종철 고문치사 가담자 조한경 등 3명 경찰 산하기관 재직", MBC, 1998.6.8.
326) "'탁 치니 억 하고…' 2018년 그들은 어디에", YTN, 2018.7.9.
327) 후에 이근안으로 밝혀졌다.
328) 민청련 사건 피해자들의 가족인 인재근, 최정순(이을호 처), 이기연(연성수 처), 지동심(문용식 모).
329) "김근태씨 재정신청 결정문 <요지>", 한겨레, 1988.12.16.
330) "'이근안의 85년 남영동 고문사건', 그때를 아십니까", 신동아, 1999.12.

인멸의 혐의를 가진 11인(정석모, 박배근, 윤재호 등)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다.

〈표〉 김근태 재정신청 기각사유

이름	사건 당시 소속	혐의	기각사유
정석모	내무부장관	독직폭행[331]	고문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박배근	치안본부장		
윤재호	치안본부 대공수사단1과장[332]		
신주현	치안본부 대공과장		
김원치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직권남용	묵비권 행사 중이던 김근태로부터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차례 구치소로 불러낸 것이 고문사실 은폐를 위해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
안왕선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직무유기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신광옥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직무유기	
송선홍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증거인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4인에 대해서는 약 1년 2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고문 등 범행사실을 부인했고, 최후진술에서는 "김근태를 친형제처럼 대했는데 모략하다니 '좌익분자'들의 흑색선전에 치가 떨린다"고 김근태를 공격하기도 했다. 1심에서 법원은 "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헌법의 최고이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범죄행위"라며 김수현, 백남은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상처만 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 나가 고문당했다고 외쳐도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공언하면서 고문을 가한 수사관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고문수사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수사관들이 도피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333]. 김근태는 1990년 5월 9일 민자당 창당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었다.

고문 사건이 발생한 지 8년 4개월, 재판회부 5년 만인 1993년 8월 23일 김근태

331) 정석모, 박배근, 윤재호, 신주현 외 3인이 더 있다.
332) 재정신청 기각 당시에는 치안본부 형사1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333) "김근태씨 고문경관 실형", 한겨레, 1991.1.31.

의 고문 수사관 재판이 종결됐다. 대법원은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음이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의 범죄가 수사에 집착한 나머지 저질러진 행위이며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해온 점을 참작해” 피고들의 형량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표〉 김근태 고문 수사관 재판결과

피고(직위)	혐의	재판결과
김수현(경감)	독직폭행	기소(1988.12.15.) 1심(1991.1.30.) 징역5년, 자격정지5년 2심(1993.8.23.) 징역3년, 자격정지2년
백남은(경정)		기소(1988.12.15.) 1심(1991.1.30.) 징역3년6월 2심(1993.8.23.) 징역2년
김영두(경위)		기소(1988.12.15.) 1심(1991.1.30.) 징역2년6월 2심(1993.8.23.) 징역1년6월
최상남(경위)		기소(1988.12.15.) 1심(1991.1.30.) 징역2년 2심(1993.8.23.) 징역1년6월

김수현 등 4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유일하게 처벌받지 않은 ‘신원미상의 고문기술자’(이근안)의 공소시효는 1999년 8월 14일로 확정됐다. 그러나 그날까지도 이근안은 잡히지 않았다. 다행인 것은 1987년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납북어부 김성학 씨 사건에서 서울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시효가 2013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1999년 10월 28일 이근안은 돌연 제 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두, 자수한다. 그는 “최근 재판받은 동료들(납북어부 김성학을 고문한 경기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의 형량이 비교적 가벼웠고 오랜 도피생활에 지쳤다”[334]며 자수 동기를 진술했다. 잠적한 지 11년 만이었다.

334) 최재영, “환갑 넘긴 도피행각 심신한계 추정”, 경향신문, 1999.10.19., 5면

3. 이근안을 고발한 고문 피해자

1) 이근안 약력[335]

시기	이력
1970.7.~	순경 공채 합격. 서울경찰학교(무술요원) 입교 서부서 근무 중 서장에게 대공파트 지원
1972.8~1974.7	치안국 대공분실 근무
1973.2.	경장 특진(남파간첩 조동석 검거)
1974.7.~1980.3.25.	경기도 경찰국 대공분실 근무
1976.8.	경사 특진(성남비행장 정탐한 조총련 간첩 황룡근 검거)
1979.3.17.	경위 특진(가명 이석우로 청룡봉사상 충상 수상)
1979.10.11.	남민전 사건으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파견근무
~1985.3.30.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공작반 근무
1980.6.	기자협회 사건(경향신문 외신부장 이경일)
1981,	전민노련 사건, 전민학련 사건, 무림 사건
1982.	김제 조작간첩단 사건
1983.	함주명 사건
1983. 말경	대구 미 문화원 폭파사건으로 대구 파견근무(3~4개월)
1984.	이장형 사건
1984.1.30.	경감 특진(조총련 이장형 검거) 1년간 대공수사단 1반장 백남은 경감 밑에서 근무
~1988.12.	경기도경 대공과 공안분실장
1985.	김근태 사건(남영동 대공분실)
1985.	김성학 사건(경기도 대공분실)
1985.12.	김근태, 고문 수사관들 고발 이근안은 '신원미상의 고문 수사관'으로만 지칭됨
1986.	반제동맹 사건
1987.	김성학, 이근안 등 16명 고문혐의로 고발
1988.12.21.	한겨레신문 보도로 신원이 밝혀지고 도피 시작
1989.1.	반제동맹 사건 박충렬, 이민영 등이 이근안 등 12명을 고문혐의로 고발
1994.7.7.	양심수 등 66명, 고문 수사관 집단 고발

335) 1999년 함주명 고발사건 중 서울지방검찰청 이근안 진술서와 이근안 자서전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음.

1999.10.28	자수
1999.11.11.	함주명 사건으로 고발
1999.10.~2006.12.6	7년 복역(만기출소)
2000.5.23.	박처원, 이근안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 인정 1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으로 확정

2) 피해자들의 고발과 처벌

델시 상표의 사무용 가방을 들고 건장한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운동화를 꺼내 신고서 뭔가 삐딱하니 꼬나보더군요. 거리 어느 구석에 있을 깡패, 전형적인 어깨 타입의 풍모였습니다. 눈은 불안정하고 뻐기면서 걷는 인간 백정 같았습니다. 몸무게는 거의 90kg에 육박할 것 같고 키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전설에 나오는, 뒤뜰에서 식칼을 가는 그 누구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도 빛이 있었다면 눈동자에 어리는 장난기 같은 그림자, 그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금방 알겠더군요. 그런 곳에 반드시 있을 인간이지요. 말할 것도 없이 고문담당 기술자, 전담자인 것이지요. 자기 형님은 훨씬 더 무서운데 지금 안 계셔서 다행인 줄 알아라, 그동안 장의사가 한가했는데 일감이 풍족하게 생겨서 살맛 난다고도 하고 작업을 차근차근 해나갈 터이니 단단히 각오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전기고문, 그것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336] (김근태)

김근태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고문을 고발한 저서 「남영동」(1987년)에서 이근안을 이렇게 소개한다.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이근안을 특별한 고문기술자로 증언한다. 솥뚜껑만 한 큰 손으로 관절을 마음대로 뽑았다 끼웠다 하고, 물고문·전기고문의 기술자이고, 무자비한 저승사자였다는 것이다.
김근태가 설명한 '성명불상의 고문기술자'는 1988년 12월 21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성명이 '이근안'으로 밝혀진다. 1980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당한 경향신문 기자 이경일은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의 이름을 알아낸다. 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서에 기재된 이름을 확인한 것이다. 뿌리 근, 편안할 안. 이경일은 자신이 기억해둔 이름과 김근태를 고문한 이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 그의 신원을 알리게 된다.[337] 김근태의 고발장에 '신원 미상의 고문기술자'로 명기된 이가 마침내 그 이름과 얼굴을 찾은 것이다.

336) 김근태, 앞의 책, 65쪽.
337) "[이근안] 80년 당한 이경일씨 '요즘도 고문악몽'", 조선일보, 1999.11.2.

이근안을 고발한 피해자는 김근태 외에도 더 있었다. 그의 이름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에 납북어부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 김성학은 이근안을 비롯 경기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을 고발했다.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박충렬 등 반제동맹 사건 피해자들도 이근안을 고발했다. 1994년 7월에는 민가협 주도로 함주명을 비롯한 고문 피해자 66명이 이근안 등 고문 가해자들을 집단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근안은 김근태, 반제동맹[338], 함주명 사건 모두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김성학의 고발만이 유일하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계류한 김성학의 재정신청이 1998년 10월 21일 받아들여지면서, 이근안의 공소시효가 2013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근안이 도피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338) "이근안 등 시효만료/정신적고통 손배소/반제동맹복역 3명", 국민일보, 1994.7.13.

6장

고문 피해자가 기억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현황

6장 고문 피해자가 기억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현황

남영동 대공분실, 세칭 '악마들의 고향'인 5층 조사실. 조사실이라기보다 고문실이라는 말이 더 적당하다. 물을 마음대로 먹일 수 있는 목욕탕(욕조실), 대소변을 처리하는 변기, 책상 하나, 의자 둘, 단색의 벽과 천장, 전기고문을 할 수 있는 침대, 아무리 소리쳐도 밖에 새나가지 않는 방음벽, 높은 자들이 감시할 수 있는 TV장치….[339]

느닷없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붙들려 승용차에 태워진다. 검은 안대로 눈을 가리더니 어딘가로 데려간다. 탱크 소리를 연상케 하는 둔중한 철문 소리가 들리더니, 차는 이내 철문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어디선가 차가 멈추더니 내리게 했다. 양팔을 붙들려 결박당한 상태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건물로 들어선다. 바로 연결된 철제계단. 가파르고 서늘한 냉기가 감돌아 온몸이 얼어붙는다. 뱅글뱅글 끝없이 오른다. 층수를 알 수가 없다. 계단이 끝나는 곳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도착한 곳은 빛이 들지 않아 컴컴하고 음습한 복도. 양쪽으로 방이 빼곡한데 서로 마주 볼 수 없게 지그재그로 배치돼 있다. 어느 방에선가 알 수 없는 비명과 울음이 새어나온다. 공포에 사로잡힌 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린다. 그 비명이 들려오던 방을 지나 옆방으로 밀어 넣는다. 문이 굳게 닫히자 비명소리도 '묵음'이 된다. 그곳은 어떤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고, 내부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고, 누구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밀실이었다.

남영동 대공분실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그곳'의 풍경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육중한 철문, 층수를 알 수 없는 철제계단, 5층이지만 지하처럼 어둡고 긴 복도, 엇갈려 설계된 취조실 구조, 환기창 크기의 좁은 창문을 가진 5층 취조실,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설계된 문, 소리가 차단된 방음벽 등 건물 그 자체가 거대한 '고문실'이었다. 이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고문이 특정 시기, 인물에게만 한정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사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고문을 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 대부분은 여전히 남영동 대공분실을 떠올리면 "몸에 고문당한 자국 하나하나가 반응"[340]한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고문과 취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를 피해자 증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

339) 이재오,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거름, 1987, 3쪽.
340) 연성수,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1. 1층에서 5층으로 바로 연결된 '나선형 계단'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된 피해자들은 남영동 대공분실 정문을 지나 건물 뒤쪽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게 된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왔다는 극도의 불안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341] 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가면 작은 호송용 승강기와 어디로 올라가는지 알 수 없는 나선형 철제계단이 나온다.[342] 철제계단은 약 75~80도의 경사로 수직에 가깝다. 김수근이 건축한 '공간' 사옥의 철제계단과도 매우 유사해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감 잡지 못하도록 하면서 상당히 밀폐되고 억눌린 느낌을 준다.[343] 반경이 채 1미터도 되지 않는 철제계단은 1층에서 5층으로 곧바로 연결돼 있고 "위에서 서늘한 냉기가 쏟아져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위압감"을 준다.[344] 원형계단이다 보니 오를수록 방향감각이 상실됐으며, 발을 디딜 때마다 나는 쇳소리로 인해 공포감이 더욱 극대화됐다.

나선형 철제계단 외에 호송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것 역시 1층과 5층만 갈 수 있다. 성인 3명이 타면 꽉 차는 가로 1.6미터, 세로 1.8미터 크기로, 김근태는 "누군가 사방에서 나를 주시하는 환히 들여다보이는 엘리베이터"[345] 같았다고 한다. 김근태 외에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나선형 철제계단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문장치였다. 5층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이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을 때면 계단을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이다. 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자 "이 새끼 안 되겠어. 지하실로!"라고 말한 후 눈을 가리고 팔을 결박한 상태로 조사실을 나와 "공포 속에서 빙글빙글 계단을 내려갔다."[346] 그 외에도 "습한 곰팡이 냄새가 났으며 나선형 계단을 밟는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 같이 울려 퍼졌"[347]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 으스스하고 음침한 분위기의 지하 방에 도착"[348]했다는 진술도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관으로부터 '지하실로 데려가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도착한 장소를 지하실로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지하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선형 철제계단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긴 시간에 걸쳐 물고문과 자백이 반복된 상황에서 "회전계

341) 홍성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흔적, 남영동 대공분실", 미디어스. 2013.9.29.
342) 조한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남영동 대공분실 건축물 분석", 박종철기념사업회.
343) 정인하, 「김수근 건축론: 한국 건축의 새로운 이념형」, 도서출판 미건사, 1996., 152쪽.
344) 이선근 심층 인터뷰.
345) 김근태, 앞의 책, 53쪽.
346) 황인욱 심층 인터뷰.
347) 김철, 의견서, 8~10쪽.
348) 최연석 심층 인터뷰.

단을 내려가는 상황 자체가 살 떨렸”[349]으며 물고문을 넘어서는 극한의 고문이 이어진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사실 이동 후 전기고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2. 고문에 최적화된 조사실

고문 공간으로서의 남영동 대공분실을 분석한 김두식 교수는 “남영동 대공분실은 그 존재 자체로 불법적인 수사를 추정케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350]고 말한다. 1983년 증축도면에도 ‘대공분실’이라는 명칭이 분명하게 표기된 것으로 볼 때, 김수근 및 동료들은 이 공간이 ‘간첩’을 심문하기 위한 곳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351] 피해자들도 “애초부터 고문과 취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건물”[352]이라고 말한다. 고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문시설과 가구 등을 갖추었고, 이것들을 잘 배치했기 때문이다.[353]

우선 5층 복도를 살펴보자. 양쪽 끝에는 창살로 막힌 작은 창문이 있으나 복도에 빛은 거의 들지 않았고 늘 컴컴했다. 5층에는 총 16개의 조사실이 있는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해 마주한 조사실의 문이 동시에 열려도 맞은편 조사실의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모든 문을 똑같이 만들어서 혹시라도 피해자가 조사실을 빠져나와도 무엇이 나가는 문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354] 문 위쪽에는 ‘소화가스 방출중’이라는 표시등이 있는데, 불이 들어오면 해당 방에서 취조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문에 달린 투시경(도어 뷰어)은 복도에서 조사실 안을 감시하기 위해 일반 문과는 반대 방향으로 설치돼 있다.

다음은 조사실의 시각적 환경을 살펴보자. 상당수 피해자가 조사실을 ‘붉은색’으로 기억했다. 특히 백열등 불빛이 ‘핏빛’이라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355] 실제로 벽면은 흰색이며, 바닥재와 욕조 칸막이 타일은 주황색이다. 경찰서 조사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조차 붉은 공간이 주는 공포감이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실과는 확연히 달랐다고 증언한다.[356] 붉은색이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

349) 황인욱 심층 인터뷰.
350) 김두식, “고문 공간으로서의 남영동 대공분실과 그 이용자들: 1985년의 김근태 씨 고문사건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43호(2012.12.), 동성출판사, 417쪽.
351) 김두식, 위의 논문, 418쪽.
352) 이수일, 앞의 책, 31쪽.
353)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1」, 역사비평사, 2014., 58쪽.
354) 조한, 앞의 글.
355) 박동선,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다음은 청각적 환경이다. 모든 조사실에는 김근태의 표현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방음벽”[357]이 설치돼 있었다. 이것은 내부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반대로 다른 방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완벽히 고립시켰다.[358] 그런데 이상하게도 음악 녹음실에서 사용하는 완전한 흡음재가 아닌 ‘목재 타공판’이 사용됐다. 목재 타공판은 저음의 주파수는 효과적으로 흡음하지만, 고음의 주파수는 벽을 파고들어 반대편 벽면으로 전달되기도 한다.[359] 간혹 “흐느껴대는, 낮고 음산한”[360] 비명이 옆방으로 전달됐던 이유다.

다음은 조사실 내부 구조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던 9호실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철제책상과 의자 2개, 오른편에는 침대가 있다. 잠을 자다가도 불시에 언제든 취조당할 수 있다. 책상, 의자, 침대 모두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볼트로 단단히 고정돼 있다. 이는 도구를 이용해 자살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또한 남영동 대공분실 최초 설계도면에도 책상, 의자, 침대의 위치가 지정돼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책상과 의자는 바닥에 고정할 계획이었던 듯하다.[361] ‘고문을 위한 공간’으로 철저히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남쪽 벽에는 가로 폭이 굉장히 좁은 창문이 있다. 가로 30센티미터로 손 한 뼘도 되지 않아 창문이라기보다는 환기창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작고 좁다. 창문 아래에는 욕조, 세면대, 변기가 벽과 평행으로 나란히 놓여 있다. 변기, 욕조 등은 조사 공간과 분리돼 있지 않다. 허리 높이의 낮은 칸막이가 있지만, 반대쪽 벽 위에 있는 감시 카메라에 바로 노출된다. 배변, 샤워 등 기본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다.[362]

천장에는 3개짜리 백색 형광등과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원형 백열등이 설치돼 있는데 자살을 막기 위해 모두 철망으로 막아놓았다.[363] 이 조명을 조절하는 스위치는 조사실 내부가 아니라 복도에 있다. 모든 것을 외부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광기도 있어서 피의자의 시간감각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고도의 심리적 장치로 사용됐다.[364]

---

356) 김찬훈, 제2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3.10.
357) 김근태, 앞의 책, 48쪽.
358) 김두식, 앞의 논문, 417쪽.
359) 김명식,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뜨인돌, 2007., 57쪽.
360) 김근태, 앞의 책, 32쪽.
361) 김두식, 앞의 논문, 같은 쪽.
362) 조한, 앞의 글.
363) 김두식 앞의 논문, 같은 쪽.
364) 조한, 앞의 글.

3. '환기창'에 가까운 좁은 창문

창문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축형태다.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폭 한 뼘 정도의 좁고 긴 환기창 형태다. 벽의 두께만 40센티미터가 넘는다. 머리통이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좁아서 탈출 기도는 물론 비명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고안됐다.[365] 고문을 할 때는 커튼을 쳐서 외부의 빛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환풍구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줌 햇빛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366]

일상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고문으로 작용했다. 피해자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한 공포로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창문의 구조상 외부에서도 내부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대공분실 건너편 일반 회사 건물에서도 내부 상황을 보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해당 회사 직원들은 늘 커튼을 치고 생활하거나 대공분실 쪽으로 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4. 고문을 위해 존재하는 '책상과 침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물도 모두 고문의 도구가 됐다. 먼저 바닥에 고정된 철제책상과 의자를 살펴보자.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야 했다. 그런데 의자가 바닥과 고정돼 있어서 공간에 속박돼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책상 간격이 좁아 반대편에 앉아 있는 수사관이 팔만 뻗으면 피해자의 몸에 닿을 정도였다. 수사관은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을 때면 곧바로 주먹을 뻗어 가슴을 가격했다.[367] 의자 등받이에 기대거나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구타하기도 했다.[368]

다음은 침대에 관한 진술이다. 2~3일 이상 잠을 전혀 못 잔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침대를 보기만 해도 잠들고 싶고, 그러기 위해 허위진술을 해야 한다는 욕망이 생겼다고 한다.[369] 이처럼 침대는 쉬고 싶어 하는 피의자의 갈망을 극대화하는 일종의 정신적 고문장치였다.[370]

---

365) 이수일, 앞의 책, 32쪽.
366) 김주언 심층 인터뷰.
367) 이선근 심층 인터뷰.
368) 김주언 심층 인터뷰.
369) 연성수,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수사관들이 자리를 비워도 감시는 계속됐다. 출입문 상단의 검은색 창 안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 모든 조사실의 상황은 3층에 위치한 대형 TV모니터실로 연결됐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조사실에 수사관들이 없을 때도 늘 감시받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수사관들이 진술서를 책상에 두고 나갈 때마다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시용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꼼짝하지 못했다고 한다.[371]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고문도구"[372]라는 진술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5. 고문을 위해 존재하는 '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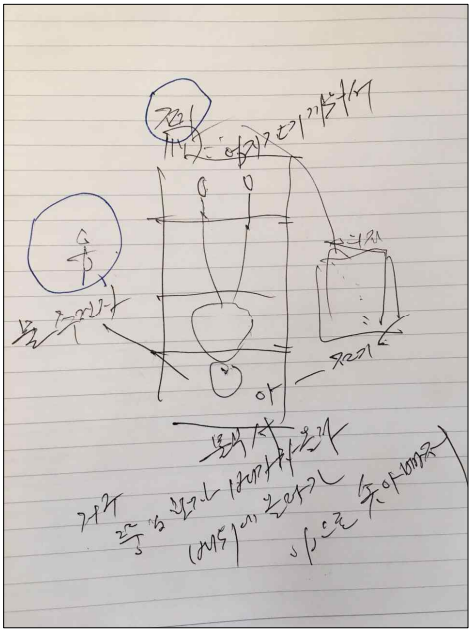
일상적이지만 가장 비일상적 용도로 사용된 구조물은 욕조다. 교도소, 법원, 검찰청 등 수용시설을 갖춘 다른 곳은 물론이고 보안사,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례다. 그러나 처음 조사실에 들어갔을 때 욕조를 고문도구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상당수가 욕조의 용도를 "목욕이라도 하라고 있는지 알았"[373]거나, "호텔 방처럼 욕조를 편하게 생각"[374]하기도 했다. 1980년대에는 욕조가 없는 일반 가정집도 많아 "욕조에서 목욕할 일이 있을까 싶었다"[375]는 진술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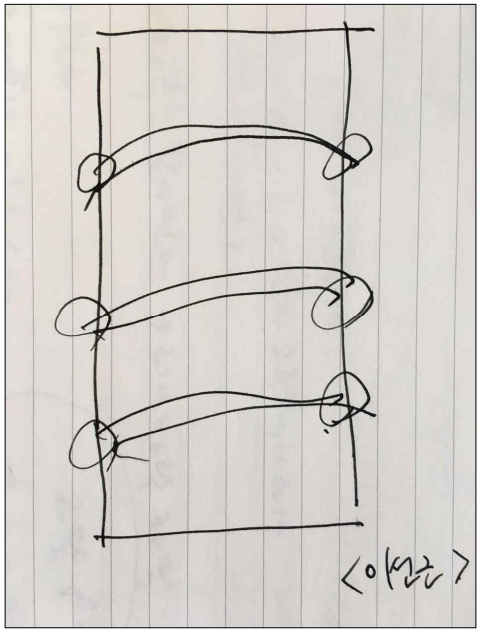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의 '예상'과 달리 욕조에서는 몸을 거꾸로 든 채 처박거나 수도꼭지를 코에 갖다 대고 트는 등 무자비한 물고문이 자행됐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목욕을 시키기 위해 욕조를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1988년 홍제동 대공분실에도 신축 당시 욕조가 수십 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고, 남영동에서 조사받은 사람 중 대다수가 물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한 바, 욕조는 물고문을 위한 시설로 설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76] 무엇보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남영동 조사실에는 욕조가 있었고, 나머지 공간에 칠성판을 가져다 놓고 샤워기의 물을 틀면 물고문이 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377] 이근안이 물고문의 일상성을 인정한 셈이다.

---

370) 송창석, "이근안 전 동료경관이 밝힌 당시 고문수법", 한겨레, 1999.11.25., 15면.
371) 황인욱 심층 인터뷰.
372) 연성수,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373) 최연석 심층 인터뷰.
374) 유숙열 심층 인터뷰.
375) 함주명 심층 인터뷰.
376) 유희락, "일상화된 반문명적 폭력 고문(2)", 한겨레, 1988.12.28., 5면.
377)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근안 진술조서.

6. 죽음을 상징하는 '칠성판'





피해자들이 직접 그린 칠성판. 최연석(좌), 이선근(우)

칠성대 위에 걸터앉자 바로 눕혀버리더군요. 여기서 저항은 앙탈로 전락하거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임을 이미 눈치챘습니다. … 칠성대는 세면대보다 약간 높고 남자 팔뚝 굵기의 각목 4개가 사람 키보다 약간 큰 길이로 펼쳐지고요. … 발목, 무릎 위, 허벅지, 배, 가슴까지 5군데를 묶습니다. 완전히 묶여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면 곧 상처가 날 테니까요. 고문의 증거로 남을 터이고요. 하지만 머리의 절반 내지 2/3 정도는 받쳐지지 않도록 해서 뒤로 젖혀지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고문할 때 효과적으로 고통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를 쓰고 움직이면 발목 아래 부분과 팔꿈치를 약간씩 비틀 수 있었습니다. 물론 눈을 가린 채이고요. 칠성대 위에 올려 눕혀진 나는 순식간에 완전히 결박되었습니다.[378] (김근태)

칠성판은 본래 시신을 눕히기 위해 관 바닥에 까는 얇은 널빤지로, '칠성판을 지다'라는 말은 곧 '죽음'을 상징한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죽음에 가까운' 물고문, 전기고문을 하는 고문대로 사용됐다. 대개 물고문 후에도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15호 고문실로 끌고 가 '칠성판'이라는 고문대에서 물고문, 전기고문을 했다.[379] 이곳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심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을

378) 김근태, 앞의 책, 57~59쪽.
379) 송창석, "이근안 전 동료경관이 밝힌 당시 고문수법", 한겨레, 1999.11.25., 15면.

받았고 인간적 모멸감을 갖게 하는 각종 고문을 경험했다고 증언한다.[380]

칠성판은 일반 성인 남성보다 약간 큰 크기로 4개의 널빤지로 이뤄져 있다. 머리 쪽 앞부분은 경사가 있어서 세면대와 밀착할 수 있다. 칠성판 위로는 담요가 깔려 있는데, 발가벗긴 상태로 눕혀 담요로 싼 후 좌우에 달린 7개의 가죽 끈으로 사지를 꼼짝 못 하게 묶는다. 담요로 싸는 이유는 몸에 고문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칠성판에 누우면 머리는 뒤로 젖힌 상태가 되고 세면대에서 물을 틀어 고문하기 용이하다.[381] 얼굴에는 수건이나 거즈를 덮는데, 물을 부으면 수건이 얼굴에 흡착되면서 호흡이 완전히 차단된다.

칠성판에서 열 차례의 전기고문을 당했던 김근태는 당시를 이렇게 증언한다. "시간은 정지해서 사라져 버리고, 허공에 날리는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오직 고문자들의 조소, 샤워기의 물소리, 온몸을 칭칭 묶인 상태에서 도무지 헛일인 비두발광, 그 셋뿐이었습니다. 물리적 시간, 감각적 시간,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고통의 철저한 관철이었습니다."[382]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협박해도 인정하지 않을 내용이었지만, 칠성판 위에서는 '죽음'과 맞닿은 위기로 다가왔다.

칠성판은 이근안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이근안은 1999년 서울지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부인했다.

검사: 칠성판의 유래는 어떠한가요?

이근안: 본인이 1974년에 경기도경으로 전근 갔다가 1979년 10월 11일에 남영동 대공분실에 파견을 와서 보니까 위 칠성판이라고 부르는 다이가 있었고, 당시 동료들에게 누가 만들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윗분들이 만들었겠지 할 정도였지 대놓고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383]

그러나 이근안과 함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근무했던 다수의 수사관들은 "이근안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380) "발가벗긴 채 물고문, 전기고문", 한겨레, 1988.10.25., 11면.
381) 김근태, 앞의 책, 57쪽.
382) 김근태, 위의 책, 61쪽.
383) 이근안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99.

7. 〈해양연구소〉 철문

남편이 종로5가에 볼일 있다면서 나갔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없어졌으니, 어디서 남편을 찾나 싶어서 울면서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4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놀라서 동네 파출소,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했죠. 저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어디가 잘못된지 알았어요. 그런데 5일 지났을 때 그제야 뭐가 잘못됐구나 싶었지. 치안본부라는 데서 조사받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384]

인욱이 집을 나간 지 40일이 되었으니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 가지고 남영동 대공분실로 찾아가서 아무리 밖에서 애원을 해도 그런 학생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싸우기를 네 시간, 그러자니 인욱이 담당이란 사람이 안내를 해주더니 6층 대공과 사무실로 갈 수가 있었다. 거기서 온갖 감언이설로 나를 안심시키는 홍승상 경감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다.[385]

연행된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공포 속에 떨어야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사라진 남편, 부인, 아들,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헤매야 했다. 출산 1주일 만에 남편이 끌려간 부인의 경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조차"[386] 모르는 상태가 되기도 했다. 같이 연행된 가족, 동료들이나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에서 비슷한 사정의 가족을 만난 후에야 그들은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 닿았다. 그러나 누구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면회를 하지 못했다.[387]

행인들의 시선을 피해 뒷골목 깊숙이 들어앉은 남영동 대공분실은 '국제해양연구소', '국제법률연구소'라는 위장 문패를 달고 있었다. 용도를 짐작하기 어려운 이 건물 앞에서 가족들은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에 가로막혔다. 보이는 건 층수도 세기 어려운 검은 건물의 일부(6, 7층)뿐이었다. 특히 170센티미터의 성인 남성 두 배 높이에 달하는 정문의 이중 철문은 "방망이 같은 걸로 쾅쾅 두드"[388]려야 할 정도로 육중했다.

긴 시간 버틴 끝에 가족들이 수사관들을 만나도 그들은 "그런 사람 없다"고 잡아

---

384) 함주명 심층 인터뷰.
385) 황인욱 어머니 전재순,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거름, 1987., 97~98쪽.
386) 한국기독교장로회 경인노회, "성명서(김현수 준목, 방병규 전도사 구속사건을 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6.12.18.
387) 고경심 외 6명, "보임사, 백산서당 관련 구속자 가족의 호소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6.3.30.
388) 함주명 심층 인터뷰.

떼거나 “조사 후 만나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을 일삼았다. 가족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영장을 발부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수사관으로부터 “이곳은 영장 없이 임의동행 수사하는 곳이다”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389] 한 어머니의 경우 대공분실에 찾아가 통곡을 하며 4시간을 싸운 끝에 수사관으로부터 “아들이 부모님께 죄송해서 면회를 거부했다”[390]는 답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면회거부는 수사관들의 일방적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 면회도 전혀 못하는 등 외부와 완벽히 고립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 고문에 못 이겨 수사관의 강요대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391]

가족들의 불안감 또한 컸다. 이미 남영동 대공분실을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흉흉한’ 소식이 퍼져나가던 시기에는 공포감이 더욱 커졌다. 특히 전두환 정권의 불안감으로 치안본부가 마구잡이로 수사를 확장해나가던 1986년이 대표적이다. “남영동 대공분실만 가면 무조건 중죄인이 되어 산송장이 되고 만다고들 한다”[392](1986년 3월 보임·다산 사건), “고문에 의해 혀가 잘리고, 동맥이 끊기는 학생들도 있어 도저히 거짓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393](1986년 12월 안산 노해투 사건)면서, 남은 가족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집단시위를 이어나갔다.

8. 도심 한복판의 ‘고문 밀실’

겨우 밖을 내다봤는데 그날 비가 내렸어요. 몇 층인지는 전혀 몰랐고, 우산 쓴 사람들이 종종걸음 치면서 걸어가더라고. 아,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 내가 빠져도 잘 돌아간다 했어요. 쓸쓸하고, 처연하고, 슬프고, 무섭고. 그 느낌이 낯설고 참 오래 남았어요. 싫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 정말 믿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394]

일주일 지났을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사관들이 창문을 살짝 열었는데 마침 “여기는 남영역입니다”라는 전철 방송이 들리더라고. 그때 이곳이 남영동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어디에 잡혀온지도 모르고 고문받고 있었죠.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미군 부대에서

389) 이광호 진술.
390) 황인욱 심층 인터뷰.
39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고문근절대책공청회 자료집 – 고문피해의 증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7.1.20., 35쪽.
392) 고경심 외 6명, “보임사, 백산서당 관련 구속자 가족의 호소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6.3.30.
393) 원곡감리교회, 반월교회, 안산노동교회 교우 일동, “저희 목회자님들을 돌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986.12.29.
394) 유숙열 심층 인터뷰.

폭죽을 터뜨리면서 난리 치는 게 들려요.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두들겨 맞는 사람들 바로 옆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참 서글픈 나라구나 싶었어요.[395]

아침마다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남영역 근처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창문에 커튼이 쳐 있지만 환풍구로는 햇빛이 새어 들어오니깐 시간이 가는 건 알죠. 가끔 까치도 울고 그러거든요. 그땐 '저들은 자유로운데 나는 왜 여기에 있나'라고 생각했어요.[396]

남영동 대공분실 조사실은 외부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다. 고문이 이뤄질 때를 제외하고는 수갑, 포승줄 등을 채워 신체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은 조사실에서 어떤 자의적 행동도 불가능했다. 이들을 외부세계와 잇는 것은 가로 30센티미터의 작은 창문이 전부였다.

어디로 끌려왔는지조차 몰랐던 피해자들은 살짝 열린 창에서 '남영역' 전철 소리를 들은 후에야 장소를 인지했다. 실제로 대공분실 복도에서 동쪽 창은 한강대로, 서쪽 창은 남영역을 바라보고 있다. 대공분실과 남영역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서 전철 소리,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는 승객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남영역의 열차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밖의 세계와 연결시키는 끈"[397]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일상과 괴리된 상황에 대한 박탈감을 가져왔다. 사람들이 오가는 시내 한복판에서 아무도 모르게 고문이 자행된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였다. "비 오던 날, 우산 쓴 사람들이 종종걸음으로 걸어가는데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생각에 쓸쓸하고, 처연하고, 슬프고, 무서웠다"[398], "미군 부대의 폭죽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옆에서 두들겨 맞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서글펐다"[399], "가끔 까치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저들은 자유로운데 나는 왜 여기에 있나'라고 생각했다"는 증언이 당시 피해자들의 심경을 생생히 대변해준다.

395) 이선근 심층 인터뷰.
396) 김주언 심층 인터뷰.
397) 김근태, 앞의 책, 48쪽.
398) 유숙열 심층 인터뷰.
399) 이선근 심층 인터뷰.

7장
고문 피해자 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 1

유숙열
1980년 기자협회 집행부 집단구속사건

2018.8.20. 12:00~14:30

1980년 붙잡혀갈 때 기자였지요?

예, 합동통신 2년 차 기자였어요. 1980년 7월 17일 제헌절이어서 날짜도 기억해요. 남영동 대공분실에 붙잡혀갔다가 나오니까 이미 해고된 상태였어요. 제작 거부자 열 명과 함께 해고됐어요. 남영동 간 게 실질적인 해고사유가 된 거죠.

그동안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기억을 자주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남영동 대공분실'에 관한 얘기를 들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지금은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들어가서 청원동의 댓글도 달았어요. '인권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나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은 사람으로서 영화 <남영동 1985>에도 출연했지만 아직 영화도 못 보고 있다. 인권기념관으로 되어서 당시의 상황을 잘 기록하고, 후대에 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썼어요.

1980년 7월, 그때로 가보실까요?

저는 <리더스다이제스트> 편집부였어요. 김태홍 선배는 외신부에 있다가 일종의 좌천을 당해서 저희 팀으로 왔어요. 선배가 기자협회장으로 출마하려는데 회사에서는 휴직을 강요했어요. 기자가 기자협회장 나가면서 휴직서를 써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죠. 기가 막히죠. 회사의 강요에 김태홍 선배는 휴직서를 썼고, 기자협회장으로 당선됐어요.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더라고요.

용납할 수 없었다… 특별한 정치의식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기자 생활 초반만 해도 그저 좋은 직장인이었죠. 그러다 10.26부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랄까요. 국민학교 때부터 대통령이라고 하면 박정희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에게 총을 맞아서 죽는 걸 보면서 놀랐거든. 그때 내가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자각이 들었어요. 이후 서울의 봄, 광주 5.18을 거치면서 나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생각하면… (멈칫하다가 눈물 흘림) 분신하는 학생들도 남 얘기 같지 않았어.

역사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 김태홍 씨 부탁을 받으신 거네요?

예. 나는 뭘 해야 할까 괴로웠는데, 김태홍 선배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침묵) 은신처를 제공해달라는 전화였어요. 5.18 계엄 확대가 된 걸 알고 도망간 거지. 자기가 피할 곳이 필요하다는 거야.

김태홍 씨는 왜 유숙열에게 전화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여자니까… (다른 사람들은) 국민학교 동창부터 직장 동료까지 샅샅이 찾아다니는데, 나는 여자니깐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지. 텔레비전에서 매일 김태홍 선배가 지명수배자로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지명수배자를 숨겨주는 일은 구속을 각오해야 할 일이었을 텐데요?

그 제의를 받자마자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생각했어요. 겁도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연락해준 게 고마웠어요. 이화여대 앞 다방에서 김태홍 선배를 만나서 한 친구 집은 거절당하고, 그다음에는 독립문에 있는 노현재 화실에 갔더니 좋다고 해서 거기에 은신한 거죠. 두 달 동안은 안 들켰어요. 정성원 선배, 최열, 조권영, 최민 등 사람들도 많이 들락날락했어요. 거기 오가던 사람들도 나중에 붙잡혀서 공범자라고 많이 당했어. 하도 당해서 자살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독립문 화실이 은신처로 발각된 건 7월 17일 새벽이었어요. 김태홍 선배는 화실에 있다가 경찰이 온 것을 알고 지붕을 뛰어넘어서 도망쳤대. 영화보다 더하지. 우리보다 두 달 뒤에 붙잡혔어. 김태홍 선배는 도망 참 많이 다녔지.

그날 어떻게 연행되었어요?

새벽에 우리 집으로 남자 셋이 나타났어. 검은 승용차에 태웠는데 안대를 씌운 다

음 실려 가서 어디 가는지도 몰랐고. 딱 보니깐 '그 사람들'인지 알고 티셔츠에 바지만 챙겨 입었지. 친동생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날은 회사 선배도 우리 집에 있어서 내가 잡혀간 사실은 회사에 금방 알려졌지.

남영동 대공분실, 그 건물 들어갈 때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는 안 탔어요. 안대를 풀었더니 취조실이었던 것 같아요. 의자, 책상, 욕조, 변기가 있고. 방은 좀 작아요. 여기가 어딘가 해서 취조실을 살펴보니 책상에 커다란 유엔 성냥갑이 있는 거야. 주소가 갈월동이라고 쓰여 있는 다방 성냥이라서 '갈월동 근처인가 보다' 생각했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처음 욕조를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냥 호텔 방 같았어. 침대도 있고. 한쪽 벽면에 검은 유리로 된 모니터용 화면이 있어서 얘네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건 알았지. 그건 딱 눈에 띄더라고. 나는 물고문이라는 거 자체를 상상도 못 했고 몰랐지. 욕조랑 침대 다 편하게 생각했어. 나는 남영동 대공분실 존재는 전혀 몰랐어요. 건물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 겁도 안 났죠. 이후에 김근태 씨나 많은 사람이 당한 거 듣고서야 '아, 그곳이 남영동이었구나' 한 거지 당시에는 순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사람 하나 숨긴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고.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렇게 무시무시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냉온 작전을 썼기 때문에, 처음에는 점잖게 기자 대접을 해주면서 정중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선 욕조에 머리를 쑤셔 박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평생 우리 엄마한테도 욕 한 번 안 듣고 자란 사람인데 남영동에서는 유관순보다 독한 년, 더한 년이라는 둥 온갖 년자 소리를 들었어.

그저 걔네가 불러주는 대로 썼어요. 김태홍 선배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소개받고, 만나서 무슨 얘길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숨겨준 노영재도 옆에서 조사받고 있었지. 도착한 이후로 계속 "김태홍 어디 있냐"고 묻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 내가 불어봤자 독립문 그 집밖에 모른다"고 했지.

그런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만으로도 위축이 되죠?

아주 불쾌하게 몰아가요. 김태홍 선배에 대해 사실관계가 아닌 얘기로 모욕하는 얘

기를 하도 해대기에 내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죠. 도덕적으로 타락을 시키려는 거야, 김태홍 선배를. 도덕적으로 매장하려는 시도를 몇 번 했어요. 또 나한테는 남자랑 자봤냐, 담배를 피우느냐 그런 소리나 하고. 나는 "원래 피지만, 여기서는 피기 싫다"고 말했지.

그런 성희롱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나한테는 걔네가 의도한 게 크게 안 먹혔어. 외려 (수사관한테) 직업 바꾸라는 소릴 해댔으니까. 나와서 들은 건데 유숙열이가 안에서 방방 뜨고, 직업 바꾸라고 호통을 치고, 유관순처럼 난리 쳤다고 합동통신에 소문이 났더라고. 나중에 회사에 인사 가니까 편집 상무가 "너 고생 안 했냐. 너 (남영동 대공분실) 가서 호통쳤다는 소문 다 났다"라고 했어.

물고문을 당하셨던 거죠?

가장 두려웠던 건 물고문 한 번 당하고 나서, 옆을 보니 유리잔에 고춧가루가 한 4분의 3 정도 담겨 있더라고. 저걸로 내가 당했구나 싶었지. 그때가 7월 한여름인데도 담요를 몇 겹이나 뒤집어쓰고서 온몸을 막 떨었어. 그 방에 들어온 딴 놈들이 날 보고선 "얘 왜 이래? 얘 전기 했어?" 이러더라고. 그때 알았지. 아, 전기도 하는구나. 참 기가 막혀서, 앞으로 어떤 일을 더 당할지 알 수 없구나. 그때 처음으로 겁이 났어.

현직 기자 신분이었는데, 물고문부터 한 거네요?

김태홍 선배 잡으려고 그런 거지. 첫날 새벽에 도착해서 "김태홍 어디 갔는지 아느냐"고 협박하다가 "남민전 이재문 죽어 나간 방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 이재문에 대해선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 하지만 약간 무섭긴 했지. 뭔가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했어. 그 방으로 가니깐 삼사십대 남자들 여러 명이 다 몽둥이 들고서 있고, 그 가운데 칠성판이 있는 거야. 침대 같은 건 없고.

칠성판을 본 순간 어땠어요?

처음엔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칠성판이라고 해서 그때야 알았지. 나무로 된 판때기가 있고 버클이 죽 달린 거야. 나보고 그 위로 올라가래. 본능적으로 엎드렸더니 돌아누우래. 그리고 버클을 쫙 채우더니, 육중한 남자가 올라타더라고. 그 남자가 이근안. 굉장히 육중했어. 그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 각오했던 일이고, 이미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더 놀라진 않았지. 그때는 이젠 할 수

없다, 이제 당하는 거다 싶었지.

그렇게 마음먹었다 해도 고문은 죽음을 경험하는 건데. 어떠셨어요?
'이제 난 죽었다' 이거지. 아는 게 있다면 다 불겠더만 뭐. 몰라도 불어야겠더만. 물이 얼굴로 쏟아지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 몇 분이나 당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기절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 공포스럽지. 앞으로 또 뭐가 올지 모르니깐. 물고문 후에 어쩌다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해골처럼 보이더라고. 하루 딱 지났을 뿐인데, 사람 얼굴처럼 안 보였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싶었지.

물고문을 당하고 어떠셨나요?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랑 게브랄티 같은 초콜릿색의 당의정을 입힌 영양제를 강제로 먹이는 거야. 그러고 점심때 돼지 순댓국 같은 걸 줬어. 억지로 막 먹으라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비위에 안 맞아서 국물만 조금 먹었는데 갑자기 토를 한 거야. 한참 토하다 보니 검붉은 게 나오더라. 나도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깐 아까 먹은 영양제가 위에서 녹아서 다시 올라온 것 같았어.
얘네들이 깜짝 놀라서 "너 죽으면 우리가 큰일 난다"고 하면서 내 눈앞에서 전화로 의사를 부르더라고. 의사가 없어서 여러 곳에 수배했다가 결국 육군수도통합병원에서 의사가 왔는데, 내 앞에서 '여기서 있었던 일은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더라. 진찰하고서는 '쇼크, 탈진'이라고 처방하더라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링거 맞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생리가 시작된 건가요?
예. 취조실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갑자기 생리가 나오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방법이 없잖아. 할 수 없어서 수사관 불렀지. "아저씨, 저 생리가 터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반응은 생각 안 나고, 그 수사관이 이근안인데, 팬티와 생리대를 사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자 속옷을 사봤어야지. 내가 창피해서 혼났다"라고 떠벌렸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에 여자 수사관이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화장실도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곳에서 생리현상 같은 건 큰일은 아니었어요. 이근안에게 팬티, 생리대 사달라고 했던 것도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말할 수 있었죠.

여성이 특히 대공분실처럼 폐쇄된 곳에서 수사를 받을 때, 여자 수사관이 동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죠. 지금 그때를 떠올려보면 어떤가요?

그때는 인권이고 뭐고 없고, 물고문까지 당했고, 또 상황이 급하니까 그가 남자든 여자든, 고문을 했든 안 했든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근안한테 진심으로 직업 바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내 앞에서 지들 간첩 잡는 얘길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 같은 애들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은 죽는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근안한테 그랬어. "아저씨, 아무리 간첩 잡는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고문하는 직업을 갖고 있냐. 아저씨 직업 바꿔요." 물고문 한 번 이후에 더 당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직업을 잘못 택해서 나를 고문했지, 특별히 나쁜 인간일까?' 생각한 거야.

이근안이 목사가 된 뒤, 글을 쓰셨죠?

이근안이 직업 때문에 나를 고문했다고 생각했고, 그건 나쁜 직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목사 됐다는 소리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이 새끼가… 어우… (눈물 흘림) 직업을 바꿨네? 그런데 목사가 됐네? (울분, 말을 잇지 못함) 가슴이 막 떨리고 못 견디겠더라고. 그냥 못 견디겠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근안에 대한 글('내게 팬티를 사준 남자 이근안', <이프>)을 쓰게 된 거야.

어떤 점이 그렇게 분노스러웠어요?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지가 감히 구원을 말해? 안 되죠. 내가 직업 바꾸라고 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얘가 진짜 직업을 바꿨네. 그런데 반공 목사를 해? 지 좋을 대로 해석해서? 지가 기독교 신자가 될 수는 있어. 개인이 구원받을 순 있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더군다나 반공 목사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걔는 지가 고문한 사람들에게 사죄를 해야지. 목사 안수한 쪽에서 취소한 건 당연한 귀결이었어. 속이 후련했어요.

대공분실 이후 언제 이근안을 처음 보셨나요?

김근태 사건으로 티브이에 나올 때 딱 보니까 나를 물고문했던 그 사람이던데? 보자마자 기절하는 줄 알았지. 어머, 세상에 저놈이네, 저놈이 이근안이네. 끔찍하고, 기막히더라고요. 너 벌 받는구나, 그건 인과응보다, 너 다락방 같은 데 숨어서 그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사건 이후에 김태홍 선배를 숨겨준 친구와 당시 얘기를 한 적 있나요?

자세히 한 적은 없어요. 노 화백과의 기억이라면, 서대문구치소에 있을 때 노 화백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보내주지 않아서 상도 못 치르게 했죠.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구치소 첫 면회 때도 엄마한테 의연하게 "여기 재미있어. 배우는 것도 많고 괜찮아"라고 말했는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길 듣고 울었어요. (울먹거림)

어머니가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엄마는 많이 우시지. 내 생부도 6.25 때 북한군에게 고문을 받아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생부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민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고.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고, 아버지는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는데, 학부모들이 진정서 써내서 겨우 나왔어요. 그때 엄마가 잠도 못 주무시고, 아버지 찾으러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고문후유증으로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으니 엄마는 나보고 자꾸 울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깐 엄마에게는 특별한 딸일 수밖에.

다시 남영동 대공분실 얘기를 해볼까요. 취조실 창 너머에서 본 것이 있나요?

창은 자살을 방지하려고 아주 작게 만들었고 이중 유리창이에요. 겨우 밖을 내다봤는데 그날 비가 내렸어요. 몇 층인지는 전혀 몰랐고, 우산 쓴 사람들이 종종걸음 치면서 걸어가더라고. 아,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구나, 내가 빠져도 잘 돌아간다 했어요.

나 없이 일상이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죠?

쓸쓸하고, 처연하고, 슬프고, 무섭고. 그 느낌이 낯설고 참 오래 남았어요. 싫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 정말 믿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선생님은 남영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기차 타고 지나가면 얼핏 보이잖아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지우고 살았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예요. 내 인생에서 별거 아니었고, 큰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죠.

실제로도 별거 아니고, 큰일이 아니었나요?

그렇진 않죠. 김근태 씨 글을 읽었을 때 이근안을 알았고, 그가 저 아닌 다른 사람

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실상을 알고 나서 '내가 나이브했구나, 적게 당했다고 그 문제를 간단하게 치부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이근안에 대한 글을 쓸 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고민 없이 일사천리로 써 내려갔어요.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글 나가고 나서 E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근안과 만나서 화해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근안이 나온 영상을 보는데 내 몸이 막 떨리고 그러더라고. 내게는 참 큰일이었구나 싶더라고. 이것이 트라우마인가?

고통의 경험이 다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문제겠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내가 당한 트라우마보다는 이 사회, 집단이 당했을 분노? 그걸 느꼈어요. 내가 가볍고 나이브하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럴 일이 아니었구나. 제가 당한 고문은 견딜 만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 발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당한 상처와 고통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의 입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런 와중에 내가 이근안 영혼의 고통을 생각해서 직업 바꾸라고 같잖게 조언하고, 그가 목사가 됐으니 경악을 금치 못한 거야. 치가 떨리지. 이건 아니지.

1980년 남영동 이후 삶은 어떠셨나요?
일단 해고가 됐죠. 백수 시절에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봤는데 그때 페미니즘을 '발견'했어요. 창작과비평사에서 나온 「여성해방의 이론과 실재」,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의 「여성성의 신화(The Feminine Mystique)」를 읽고 여성해방에 대해 배운 거예요. 특히 베티 프리단의 여성 정체성에 관한 글을 보고 너무 와 닿았어. 베티 프리단이 스미스칼리지를 우등 졸업하고 장학금 받는 조건으로 버클리대 심리대학원 진학이 결정됐는데, '남자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대학원을 포기한 거야. 우리 때는 남자보다 더 배우면 안 되는 풍토가 있었잖아.

해고당한 것에 대한 분노는 없으셨나요?
너무도 엄혹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해고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김태홍 선배를 숨겨줄 때만 해도 이런 일까지는 예측 못 했죠.
김태홍 선배 때문에 해고됐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 없어요. 물론 본인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죠. 마음도 여리시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했지. 그렇게

역사에 참여하는 인생이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었잖아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조금 거창한 얘기지만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유는 '페미니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계기죠.

남영동 대공분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피해자로 살기 싫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란 수동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피해자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성운동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을 안 좋아해요. 여성도 주체적인 욕망의 존재로 봐야 해요. 피해자는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피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싫어요. 차라리 가해자가 되고 싶을 정도로요. 피해자로 남는 건 싫어요. 남영동도 제게 있어서는 피해의 경험이니까 자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국가폭력 피해자에게도 '피해자다움'을 내세우는 게 있어요. 언론은 주체적인 피해자를 원치 않고, 망가진 삶으로만 기록하려 하고요.

피해자에게도 삶은 계속됩니다. 피해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에요. 피해는 당했지만 그걸 극복하기도 하고, 매일이 새롭지 않아도 삶은 계속되잖아요. 저는 망가진 모습이고 싶지 않아요. 피해에 함몰되고 싶지도 않고.

유숙열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하나요?

이근안에게 고문받은 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영동 이후에도 삶이 있었고, 오히려 남영동이 나의 투지를 불타오르게 했지. 이근안 같은 놈을 목사직에서 끌어내리자는 투지도 생겼고, 고문을 없애기 위해 내가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줬어요. 남영동 피해자이기에 더 큰 책임감을 안고요.

남영동이 어떻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길 바라나요?

남영동 대공분실은 국가의 돈으로, 국가적으로 떠받드는 일류 건축기술자 김수근이 지은 건물이에요. 거기에서 이근안 같은 고문기술자가 수많은 민주투사, 인권운동가들을 데려다 고문을 해서 간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공간이라는 걸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남영동과 관련해서 쓴 시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던 2012년 11월 22일에 황동규 시인의 시집 「몰운대行」을 읽고 쓴 시예요. 김수근이 지은 문예회

관 대극장을 가면 뭐가 있다는 내용으로 김수근을 칭찬하는 시예요. 나는 거꾸로 '김수근이 지은 남영동에 가면 뭐가 있다'고 썼어요.

〈남영동 대공분실을 기억하며 - 나도 한때는 김수근을 좋아했다〉

신(神)이 되느냐
신발짝이 되느냐
시인(詩人)이 되느냐
인연(姻緣)이 되느냐!

네 갈래 길에서
난 시인을 '선택'했다.
어차피 무녀리와 숭여리는 적이다.
아무리 불쌍하게 보여도 적은 적이다.

시인을 선택한 나는
황동규 시인의 시집 '몰운대行'을 읽는다.
그 시집에는 시인은 어렵게 살아야 연작시,
관악일기 연작시, 비린 사랑노래 시리즈 ,
풍장시 시리즈, 뉴욕일기 시리즈 등
70여 편의 시가 실려 있다.

그런데 그만
'열(熱)받고 살다'에서
'턱' 걸리고 만다.

"내 시대 사람들은 어디 살건
열받고 살았다.
김수근이 지은 감옥 문예회관 문에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이 기쁨!"

난 '이 기쁨'에서
또다시 '턱' 하고 걸리고 만다.
나에게 김수근은
'턱'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박종철이 물고문 받고 죽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지은 사람이다.

또한 지금은 상기하기도 아스라한 80년 여름
내가 그 유명한 고문기술자 이근안한테
물고문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김수근은 성당이나 교회, 극장 건물만
감옥처럼 지은 것이 아니다.
모든 집을 감옥처럼 지은 그는
진정한 감옥 짓는 기술자였던 것이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벽돌집은
붉은 벽돌집보다 검은 벽돌집이 더 폼난다.

문예회관은 붉은 벽돌이지만
경동교회와 남영동 대공분실은 검은 벽돌집이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지나가며 보는
그 집은 세련되고 폼나 보인다.

그곳에는 천장 모서리 사방에
검은 모니터링 화면이 둘러쳐 있어
수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영화처럼 움직였을 것이다.

또 자살 방지를 위해 주먹도 빠져나갈 수 없게
길죽하니 좁은 창문이 3겹으로 겹겹이 닫겨 있었다.
또 남민전의 이재문이 죽어나갔다는 칠성판과 함께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건장한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도 있었다.

칠성판에는 안전벨트 같은 버클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춧가루가 3/4가량 담긴
물컵도 있었다.

황동규 시인은
“내 시대 사람들은 어디 살든”
즉 미국서 살건 한국서 살건
“열받고 살았다”고 말한다.

시인은 친구들의 삶에서
가난을 느낄지 모르나
내 눈에 그들의 가난은
어째 낭만적으로 들린다.

권력, 금력, 학력에 기술력까지 갖춘
그의 시대 엘리뜨들이 느끼는
‘열받음’의 토로에
나는 어째 실실 허탈한 웃음이
비어져 나오는 것일까?

차라리 난 최백호가 부르는
‘낭만에 대하여’를 들으며
도라지 위스키나 한잔
스트레이트로 마시고 싶다.

근데 그의 시대가 지나간 지금도
도라지 위스키가 있을까?

차라리 한영애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까?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나한테 도라지 위스키 한잔 사줄 사람?

영화 <남영동 1985>에 출연하셨다고 했는데, 왜 못 보셨어요?
무섭고 끔찍하지.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이근안 때문인지 언젠가 꿈도 막 꾸고 그랬어. 악몽 같았지. 누군가에게 쫓겨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때 그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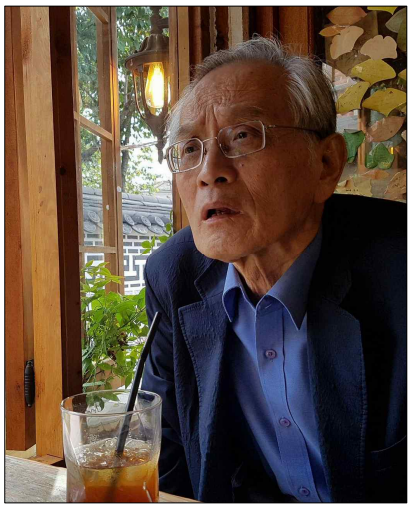
오늘 얘기한 건 괜찮으세요?
자기고백적인 글을 쓰거나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나는 기자였으니 시대의 요구에 답하고, 동참하는 게 내 몫이라고 생각해요. 80년에는 선배 언론인을 숨겨주는 게

요구였다면, 이후에는 언론노조 결성, 파업, 그리고 여성주의 페미니스트 저널을 만들고, 출판사업으로 넓혀가는 모든 것들이 내게는 역사에 부응하고 사는 거예요. 녹록하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80년대는 같이 쫓겨났던 기자 선후배들이었고, 페미니즘 운동 시작하고 나서는「이프(IF)」 사람들이 있고요.

심층 인터뷰 2

이경일
1980년 경향신문 사건

2018.9.18. 13:00~15:00



강제 연행되던 1980년 6월 9일의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그때 내가 경향신문 외신부장이었어. 1980년 5월 18일 이후 AP통신으로 광주에서 계엄군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해 시민 100여 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신문에는 싣지 못하지만 여학생의 가슴을 찔러 죽였다는 등의 참혹한 내용의 유인물도 오고. 그런데 우리는 언론검열 때문에 지면에 광주 상황을 전혀 못 쓰잖아. 참다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제작 거부를 실행에 옮긴 거지.

제작 거부를 끝내고 6월 9일 아침이었어. 집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요란하게 누르는 거야. 나갔더니 군복 차림의 세 사람이 이 부장 맞느냐고 물어. 합동수사본부라고 씌어 있는 신분증을 내보이면서 조사할 게 있어서 연행한다는 거야. 올 것이 왔다 싶었지.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면서 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안대도 씌워. 속으로는 서빙고 보안사 분실에서 나왔나 했어. 당시만 해도 서빙고실에서는 사람을 두드려 패서 죽인다고 악명 높았거든.

어디로 가는지 아셨어요?

어디 가는지 전혀 몰랐지만 서빙고 쪽으로 안 가는 것 같더라고. 보안사는 아니고 경찰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안심됐어. 건물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지. 복도를 걷고, 방에 쑥 들어간 후에야 안대를 풀어주더라고. 방이 온통 노란색인데, 나보고 거기 있는 붙박이 의자에 앉으라면서 이렇게 말해. “이게 간첩 이수근이 앉았던 의자야.” 나도 가만히 안 있었지. “이수근 급으로 대해준다니 영광이

다"라고 비아냥거렸어. 그 순간 그놈들 눈깔이 확 돌아가더라고. 겁은 났지만 이미 신문 제작 거부할 때부터 잡혀갈 거라고 예상했어. 그러니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심정이었지.

경찰이라서 안심되셨다고요?

그렇지. 그때만 해도 남산이나 서빙고라 해야 죽어 나간다고 생각했거든. 남영동은 내가 모를 때였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라 여긴 거지.

무엇을 집중적으로 묻던가요? 신문 제작 거부 관련 내용인가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데가 있나. 이근안이 나를 조사하는데, 제작 거부는 얘기 안 하고 자꾸 김대중 씨한테 돈 받았냐는 거야. 당시 동교동은 정치부 기자가 출입했고, 나는 외신부장이라서 김대중 씨를 만날 일도 전혀 없어.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한테 주겠냔 말이야. 첫날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만 하고, 협박하면서 지나갔어.

고문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둘째 날 점심 지나서였나, 이근안이 책상 밑에서 쪽지를 힐끔힐끔 보면서 "고려연방제를 지지하고, 기자들을 선동해서 월남은 망했어도 베트남은 통일됐다는 주장을 했느냐"고 묻는 거야. 나는 고려연방제에 대해 잘 모를뿐더러 남북관계는 정치부에서 소관한다, 정체도 모르는 체제를 왜 찬성하겠냐고 했지. 그런데도 자꾸 같은 질문을 하고 진술서를 쓰라는 거야. 화가 나서 못 쓴다면서 확 던졌어. 김근태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기도 했고, 이놈들은 경찰이니까 두들겨 패긴 해도 나를 죽이진 않겠다 싶었어.

협박으로 안 먹히니깐 이번에는 회유를 하네? "이 부장"이라고 부르면서 당신한테 손대기 싫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겠던지 드디어 "물고문 당해봐야 하겠냐"는 말이 나왔어. 그리고 나를 고문실로 끌고 갔어.

물고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들어가니깐 칠성판이 보였어. 진짜 끔찍해. 높이가 한 칠팔십 센티미터 정도였던가. 나무로 된 널빤지를 깔고, 나를 똑바로 눕히고 나서 버클로 일곱 번 정도 칭칭 동여매. 칠성판 위에서는 꼼짝도 못 하지. 그러고는 자백하려거든 발을 까딱까딱하라는 거야. 내 얼굴에 수건을 덮더니, 한 새끼가 커다란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어. 다른 한 놈은 배를 눌러서 물을 도로 나오게 해. 그 와중에 또 한 놈은 "야, 너 이러

다 너 죽어. 여기서 문 열면 바로 한강이고 서해로 떠내려가서 넌 끝난다"면서 협박해. 입으로 코로 물이 마구 들어오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절망적이지. 그걸 말해서 뭣 해.
숨이 턱턱 막히는 와중에 갑자기 딸아이가 보이는 거야. '아빠, 그냥 그렇다고 말하고 나와. 아빠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해. 환각 증상이었어. 그 사이 물을 두 주전자를 다 먹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깐 의식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전기고문실로 가자"는 거야. 도저히 참지 못해서 발을 까딱까딱했어. 칠성판에서 겨우 풀려나서 바닥을 보니 물이 흥건해. 강제로 허위조서에 날인한 게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났어. 소변을 보는데 피가 섞여 나오더라고.

강제로 날인한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요?
6월 12일이던가. 이근안이 서울대 철학과 나온 새끼는 다 빨갱이라면서 책 한 권만 대라는 거야. 안 대면 전기고문 하러 간대. 우리 집에서 책 수십 권을 압수했는데 걔들이 원하는 용공서적은 하나도 없었어. 문제 될 만한 건 미리 버렸거나, 변호사인 처남 집에 뒀거든. 그때 밀로반 질라스(Milovan Djilas)의 「새로운 계급」이 생각났어. 고3 때 영어 공부한다고 미국에 있는 친척이 영문판을 보내줘서 완독했거든. 유고슬라비아 정치인이 쓴 책인 데다가 제목에 계급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전히 빨갱이 책이지. 사실 그 사람, 이상주의자잖아. 잘 아는 놈이 있으면 걸리겠다 싶었는데, 남영동에는 대공 전문가가 없었는지 3, 4일 지나도록 문제 삼지 않았어. 이제 살았다 싶었지.

수사관들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는데 '이근안'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6월 13일쯤인가, 이미 조사는 끝났어. 이근안이 조사실에서 잠깐 나간 사이에 이름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조서를 싹 살핀 거야. 마지막 장까지 넘기니깐 '사법경찰관 이근안 경위'라고 나와. 뿌리 근(根), 편안할 안(安). 잠시 후 이근안이 들어와서는 뭘 보냐고 하는데 내가 맞받아쳤지. "나 기자인 거 알면서, 이거 보라고 둔 거 아냐? 너 이근안 경위라며? 군인 아니잖아." 너무 우습잖아. 경찰이라는 놈이 생사람 두드려 패고, 물고문하고, 만날 개새끼, 개새끼 해대고, 내 돈도 가져다가 매일 술이나 처먹고, 자기 이름을 알아서 그런가. 이후로는 다소 유화적으로 나오더라고. 이게 끝은 아니었어. 이름을 안 이후 어느 날, 이근안이 또 수사실을 비운 거야. 알고 보니 그날이 17일이 경찰 월급날이더라고. 눈앞에 월급봉투가 있으니깐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17만 원 정도 들어 있는 거야. 당시 신문사 부장 월급이 오륙십만

원이니까 내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잖아. 이근안한테 “너 이 월급 받으면서 사람을 괴롭히냐. 겨우 이거 받으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하니, 지도 울컥했나 봐. 펄쩍 뛰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너 같은 빨갱이 새끼들 잡는다”고 그래. 이어서 자기 월급만으론 부족해서 부인이 용두동에서 미장원 한다는 거야. 그 순간, 이근안이 말을 멈추더라고. 내 앞에서 말 잘못한 거지.

왜 이름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기자로서 취재하신 거네요?

그렇지. 내가 기자잖아. 이근안한테 물고문이랑 구타를 당하면서 내가 네 이름은 꼭 알아야겠다, 나중에 너를, 너의 행위를 꼭 문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후에 김근태에게 이근안의 이름을 알려준 것도 선생님이신가요?

1988년 내가 한겨레에 있을 때 김근태가 찾아왔는데 고문기술자 이름이 ‘이근안’인지는 확실히 모르더라고. 그때 이름을 말해줬어. 한겨레에서 최초 보도한 것도 내가 준 정보야. 후배인 시경 캡 문학진한테 특종 하라면서 이근안 정보를 말해줬어. 문학진이 어떻게 알아냈냐고 묻기에 나도 남영동 다녀왔다고 했지. 결국 용두동을 싹 뒤져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통통한 얼굴의 이근안 사진을 찾아낸 거야. 세상에 이근안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어.

이근안과의 대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놈이 참 끔찍하지만, 지가 하고 싶어서 고문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윗선에서 이경일 빨갱이 만들라고 지시한 놈이 분명 있었잖아. 이근안 본인 입으로도 그래. 지도 먹고살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불면 다 된다. 허위자백 하면 된다”고 말해. 자기가 ‘허위자백’이라고 다 인정한 거야.

또 한번은 이근안이 내가 <조선일보> 기자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청룡봉사상 받았다고 자랑을 해. 그게 조선일보사에서 주는 거잖아. 간첩 하나를 고문치사해서 충청도로 좌천됐는데, 거기서 뒷발질 치다가 엉겁결에 간첩을 하나 잡았나 봐. 그 덕분에 청룡봉사상 받고서 경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박처원을 만난 적은 없으신가요?

그놈은 실장인가, 경무관인가 하여튼 좀 높은 놈이야. 어느 날, 내가 있는 조사실에 오더니 이 부장 고생 좀 하시네 그러고는 나가면서는 이근안한테 “잘 대해드려”라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더라고. 고문을 실컷 다 해놓고 뭘 잘 해드려? 내가 무슨 빨갱이야? 신문사 부장 데려다가 고문해놓고는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대공분실 이후 상황은 어떠셨나요?

한 보름 지났을 때, 갑자기 면도하라기에 석방인지 알았는데 서대문구치소로 간다는 거야. 서울구치소로 이감하면서 이근안이 보안과장에게 "신문사 부장인데 참 좋은 사람이니 잘 대해달라"고 그래. 정말 웃기지. 재판 가서는 2심에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 지들이 원하는 내용을 안 써줘서 그런지 징역 3년 나왔어. 1981년 5월에 석탄절 특사로 나왔지만 이미 교도소에서 12개월을 보낸 상태였고.

부인이 이근안을 만난 적 있으시죠? 이근안 검찰수사 기록을 보면 부인이 압수된 책을 찾으러 와서 "남편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말을 했대? 난 몰랐어. 부인이 압수된 책 찾으러 가서 이근안 만난 건 사실이야. 교도소에서 나온 이후에 들었는데, 어느 날 전화 와서 책 챙겨 가라고 했대. 책 압수한 것 중에 지들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깐 이삼십 권 낑낑대며 가져왔어.

이후에도 이근안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셨나요?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 이근안 개인보다 더 나쁜 건 독재정권이잖아. 이근안을 그렇게 만든 게 누구겠어. 전두환이겠지.

이후에 남영동 대공분실을 가보셨나요?

거길 왜 가? 지긋지긋해. 한 번도 안 가봤어. 심지어 남영동 지하철역에서 시커먼 건물만 슬쩍 보여도 끔찍하고 몸서리쳐져. 김근태 같은 사람이 전기고문 다섯 번 당했다는데 그게 얼마나 기막혀.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을 고문할까. 개돼지도 안 그러는데.

이후에 악몽도 꾸셨다면서요?

요즘은 안 꾸지만, 한 10년 동안은 고문당하고 협박받는 꿈을 몇 번 꿨어. 그게 다 트라우마지.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졌지만 말이야.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잘한 결정이야. 이제라도 기념관을 만든다니까 다행이지. 거기는 박종철 한 사람이 아니라 김근태는 말할 것도 없고, 나 같은 신문기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곳이잖아. 그렇게 고초를 겪었지만 이 사회의 민주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

는 자부심이 있지. 무엇보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주구(走狗)가 되었잖아. 그 뼈아픈 역사를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공간에서 영원히 기억하길 바랄 뿐이야.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이경일'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하나요?

이근안 이름 세 글자를 알아낸 사람. 어떻게 기자를 떡하니 두고 방을 비웠는지 모르겠어. 이름을 확인하는 건 습관이잖아. 나를 고문하고, 허위자백 시킨 놈의 이름은 알아야 할 거 아냐. 그것조차 모르면 나중에 고발이라도 하겠어?

심층 인터뷰 3

이선근
1980년 학림 사건

2018.8.28. 14:30~16:00

학생조직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혐의로 기소한 건 '학림 사건'이 최초죠?

네. 당시 전두환 정권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전민학련을 조직한 이후 3월부터 열린 전국적인 시위는 모두 우리가 관여했거든요. 우리와 다른 노선(무림)에서는 '당장 싸우지 말자'는 입장이다 보니 거기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연락했어요. 싸워야 하는 논리나 비밀조직화 방법을 알려줬죠.

1981년에 치안본부에 대공과가 신설됐고, 이른바 '박처원 사단'이 만들어지던 때와 일치하는데요. 그래서 전민학련을 북한과 동급인 반국가단체로 몰았던 건가요?

예. 우리가 잡혀 들어가기 전, 야당 쪽에서 전두환 일당은 통치능력이 없다는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치안본부장은 국회에서 "곧 배후를 찾아내겠다"고 직접 발표했어요. 그리고 1주일 후, 전민학련 체포가 시작된 겁니다.

체포되기 전,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남민전 수사를 치안본부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남민전 당시에 전국 학생운동, 사회운동 계보가 치안본부 쪽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당시에 남민전과 내가 활동하던 '흥사단'이 사상투쟁을 했거든요. 남민전에서 흥사단 쪽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한 거지. 반면 흥사단 내부에서는 북한과 연계되면 추풍낙엽처럼 조직이 무너진다고 반대했어. 이런 내용까지 모두 담긴 보고서가 치안본부에 들어간 거죠.
아마 치안본부는 순서를 기다렸을 겁니다. 사건을 언제, 어떻게 터트려서 누구를

잡을지 말이죠. 운동권 계보를 손에 쥐었으니 치안본부가 자동으로 격상됐겠죠? 한창 보안사와 나란히 충성경쟁 하고 있었잖아요. 1979년 10.26 전까지는 안기부 똘마니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선생님은 1981년 6월 16일에 체포되셨죠?

네. 양천구 신정동에 살고 있는데 집 앞 골목에서 누가 "미스터 리"라고 부르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팔을 양쪽에서 잡고 목에 차가운 걸 갖다 대요. 총이지. 정신이 확 나갔어. 고개를 들기만 하면 쏴버린다고 하면서 네 명이 붙어 승용차에 억지로 타게 했죠.

끌려간 곳이 남영동인지 아셨나요?

몰랐죠. 고개를 숙이고 총을 허리에 댄 채 철제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서늘한 냉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얼어붙게 했어요. 5층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방에 들어가니 여덟 명이 빙 둘러서 있더라고. 나를 방 한가운데 놓고 주먹질, 발길질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맞았던지 몸이 붕 뜨더라고요. 사람 몸이 영화에서나 붕 뜨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1976년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서빙고 분실에 끌려가신 적 있으시죠? 그땐 어떠셨어요?

그때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입문」 책을 쓴 사람이 무정부주의자였는데, 그를 공산주의자 계열로 본 거예요. 그 책을 소지했다면서 반공법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건 거지. 그때는 아… (멈칫함) 정말 무서웠어요. 측량할 때 쓰는 것 같은 삼각형 모양의 자가 있어요. 무릎을 꿇게 하고 정강이 아래에 자를 놓는 거야. 그리고 허벅지 위에 두 놈이 올라타서 무지막지하게 밟아대요.

사흘 만에 고문을 멈췄는데, 내 다리가 부러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뼈가 움푹 들어가 있어요. 다리 상처가 곪아서 터졌는데 치료도 안 해주고 구석에 처박아놓기만 했어요. 한참 그랬는데 더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의사를 한 번 불렀어. 의사가 날 보더니만 "쟤 치료 안 해주면 죽는다"고 했나 봐. 사람 죽는다고 하니 그제야 청와대 옆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데리고 갔어. 고름을 뽑아내는데 한 바가지 나왔다 하더라고. 수술만 하고 바로 나왔어. 거기 가도 내 기록은 없어요. 부사관 이름으로 수술했거든. 걷질 못하니 수사관들이 날 업고 다녀야 했어요. 걔들한테 욕 한 바가지 들었지. 그래도 빨리 다리가 고장 나는 바람에 이후에는 고문 안 당했어. 서빙고에서 한 30일 있다가 남산 안기부로 넘어갔어.

왜 또 안기부로 데리고 간 건가요?

학생이니까 그랬나. 다리를 심장보다 아래에 두면 피가 쏠려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수사받았어요. 걔네는 그거 보고 있자니 죽을 맛이었겠죠. 조사는 기무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였고, 다리는 낫긴 했는데 이후에 황달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뒤늦게 영등포구치소 가서야 발견했어요. 구치소에서는 치료는커녕 두 달간 자비 들여서 링거만 맞을 수 있었는데, 그나마 급성 상태는 가라앉았어요.

다시 남영동으로 와볼까요. 보안사에서의 경험 때문에 고문에 대한 공포가 더 크진 않았나요?

워낙 정신이 없어요. 머리로 생각을 못 하게 해요. 하도 때리니깐 얻어맞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여덟 명 중 누구의 발길질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한 명이 내 머리채를 잡고 물이 받아져 있는 욕조로 데려가요.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뒤 욕조에 머리를 밀어 넣어요. 물고문 시작이지. 그것을 몇 번 반복하다가 이제는 칠성판으로 데려가요.

칠성판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우리 때는 칠성판을 개구리 해부용 실험판이라고 배웠어요. 또 전통사상에서는 죽음을 상징하죠. 사람이 태어났다 북극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요. 수사관들이 "칠성판이 뭔지 아느냐? 빨리 시인하라"고 하면서 딱딱한 나무판에 발가벗긴 채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판에 달린 세 개의 가죽 끈으로 몸을 고정합니다. 벨트도 묶고요. 그다음에 손수건을 얼굴에 덮고 거기에다 물을 부어요. 가죽 끈이 물에 젖으면 몸을 꽉 조여오는데, 꼼짝할 수가 없어요.

한참 하다가 "항복할래?"라고 물으면서 고개만 까딱하라고 해요. 고개를 흔들면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진술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안 되면 "이 새끼 또 맞아야겠네" 하면서 다시 칠성판 있는 방으로 데려가요. 언제 그 방으로 끌려갈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칠성판에 묶인 상태로 전기고문도 당하셨지요?

칠성판에서 물고문하다가 중간중간 전기고문도 해요. 발가락에 전선을 꽂아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 몸이 뜨게 돼요. 허리가 부러지거나 잘리는 듯한 고통이에요. 그걸 얼마나 반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속의 온갖 오물을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도 안 분다고 지독한 놈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다 까무러치면 다시 깨

워서 반복해요. 이렇게 3~4일 당했어요.

허리가 꺾이면서 몸이 붕 뜬다, 어떤 느낌일까요?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무엇인가를 돌리는 소리가 나면 곧바로 충격이 왔어요. 충격이 오면 허리가 꺾이면서 하늘로 붕 뜨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손가락도 똑같이 당했고요. 물고문, 전기고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세트예요. 욕조에 거꾸로 집어넣다가, 고춧가루 탄 물을 붓고, 그러다가 전기 넣고. 때리는 건 안 멈추죠. 주먹으로 계속 가슴을 난타하고 머리를 벽과 책상에 찧어대고 구둣발로 발가락을 짓이기는 등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남민전 이재문'을 언급하며 협박한 적은 없나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했죠. 이재문이 여기서 죽어 나갔다고 협박하는데 공포스러웠어요. 이재문이 옥사했잖아요.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어요. 우리도 반국가 수괴 혐의라고 하니 '나도 죽겠구나. 우리가 이제 넥타이공장(사형)으로 가는구나' 싶었어요. 1976년 반공법 전과도 있었으니깐. 나중에 1심 구형에서 무기징역 나온 거 보고 살았다 싶었지만.

그곳이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사실은 언제 아셨나요?
고문받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 좁은 창문조차 열지 않으니까요. 일주일 지났을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사관들이 창문을 살짝 열었는데 마침 "여기는 남영역입니다"라는 전철 방송이 들리더라고. 그때 이곳이 남영동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어디에 잡혀온지도 모르고 고문받고 있었죠.

그걸 알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미군 부대에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난리 치는 게 들려요.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두들겨 맞는 사람들 바로 옆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참 서글픈 나라구나 싶었어요.

자신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 있는 느낌은 어땠나요?
의자가 붙박이처럼 고정돼 있으니 완전히 속박된 느낌이에요. 수사관이 항상 마주 앉아 있는데, 그가 팔만 뻗으면 내 몸에 닿을 정도로 책상이 좁아요. "이 새끼 틀렸네" 하면서 바로 커다란 주먹으로 제 가슴을 가격하곤 했어요. 언제 주먹이 날아올지 몰랐어요. 40일 동안 거의 그 의자에 앉아 있었죠. 밤에 잘 때만 침대로 가고.
며칠간은 밥도 전혀 안 줬어요. 밥을 주는 척하다가도 수사관 새끼들이 "이런 빨갱

이는 밥 먹이지 마” 하면서 내 눈앞에서 밥그릇을 차버려요. 한 5일 굶었을 거예요. 사실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배고픈 것도 못 느끼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었어요.

기억나는 수사관이 있나요?
유정방과 박원택. 유정방은 내 눈앞에서 집에서 가져온 보약 먹으면서 이래요. “아, 힘들어 죽겠다. 늙어서 힘들어서 집에서 보약 싸 왔다.” 맛있게 먹더라고 이 개새끼들이.

40일 넘게 있으셨는데, 세수나 목욕은 할 수 있었나요?
했어요. 물은 흔한 곳이니까요. 안에 있는 욕조에서 했어요. 씻을 때는 지들이 피해줬고, CCTV가 있지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내 몸은 걔네가 소유하고 있는데 뭐. 대변보는 것도 다 쳐다봤지만 기분 나쁠 새도 없었어요. 전기고문 할 때 칠성판 위에서 오물을 다 쏟아내는 고통도 겪었는데 뭐.

심리적인 고통도 크셨죠?
하… (한숨을 길게 쉼) 그저 덜 불고, 더 숨기려고 했던 노력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조직을 남겨서 재건해야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감추려는 노력만 한 거지.

전민학련으로 20여 명 넘게 연행됐는데, 다른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문을 닫아버리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일부러 녹음해서 틀어주지 않는 한 못 듣죠.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지. 내가 계속 소리 내고 있는데 뭐. 고문받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에 녹음한 걸 들려주는데, 나는 계속 고문 가동 중이니깐 걔들이 들려줄 이유가 없지요.

방 자체가 완벽히 고문을 위한 공간이군요.
완전히 고문을 위해 설계된 방이에요. 그 설계를 김수근이가 했으니깐 그 사람이 사고가 어떤지 안 봐도 알겠어.

조사 패턴은 어떠했나요?
20명가량의 학생들이 같이 조사를 받으니깐 서로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진술하다가 애들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냥 쥐어패는 거야. 그러면서 “너 인마 감추는 거 있지?”라고 협박해요. 그러면서 누가 이런 내용 불었다, 걔가 이걸 얘기했

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간질하니깐,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죠.

그렇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3년 가까이 감옥을 사셨는데 어떠셨나요.
허리가 뻐근한 건 늘 있었어요. 1976년에 보안사에서 고문받았을 때 다리가 부러졌고, 간염이 온 이후로 간은 계속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무릎이 무너진 거예요. 가볍게 뛰기만 해도 무릎이 푹 꺼져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노인네처럼 방에 드러누웠어요. 다행히 거기 보안과장이 고등학교 선배였는데, 내가 불쌍했던지 수형인 중에 안마 잘하는 놈을 붙여줬어요. 얘가 내 척추를 만져보더니 "아이고, 장가 못 가실 뻔했습니다"라면서 척추이상이라고 하더라고. 그 친구한테 2주간 하루에 서너 시간씩 안마를 받았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안마하는데 겨드랑이를 타고 다리 밑까지 죽은피가 와서 다리가 시꺼메지더라고. 바늘로 따고 피가 나오니까 허리가 시원해지고. 그게 다 고문으로 골병든 거죠.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은 채 갇혀 있었으니 그 후유증이 크셨겠어요.
거기서 발생한 황달이 만성간염, 간암으로 발전했죠. 간암 때문에 89년, 90년, 97년 세 번 수술 받았어요. 보안사 수사받기 전에는 멀쩡했어요.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했을 때 몸에 한기가 엄청나게 돌더니, 한 달 후에 황달이 온 거야. 영등포구치소 갔을 때 온몸이 노란 단무지 같았어. 거기 사람들이 다들 날 보고 큰일 났다는 거야. 병동에 있긴 했지만 치료는 안 해주고 영양분만 보충해줬어요. 그걸로 망가진 간이 낫겠어요?

고문은 사회적 고통인데도 그 고통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로 봤지요.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셨나요?
몸으로 받은 충격은 근육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때때로 근육통이 찾아오거나, 밤에는 악몽을 많이 꾸고 그랬어요. 그건 아마도 평생 따라다닐지도 몰라요. 수사관들이 쫓아오거나,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서 집단구타 당하는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나와요. 그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파김치 된 상태로 깨는 거죠. 오랫동안 그랬어요. 지금은 운동요법 하면서 몸의 고통이 사라졌지만, 가끔은 제가 엄청나게 신경질을 부려서 가족들이 무서워하고 그랬어요.

고문은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주고, 인간과 사회의 유대를 끊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끌려간 친구들과 관계는 어떠했나요?
처음 나와서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했어요. 이태복 씨 빼고는 학

생 중에서는 제가 가장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그때 받은 조사가 긴 시간 영향을 줬어요. 모임도 못 가지겠더라고. 저도 그 상태로는 운동은 당분간 어렵겠다는 생각에 운수업 쪽으로 진로를 돌렸어요. 복합적이긴 한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들었고요. 지금이야 다들 모여서 거리낌 없이 그때를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이후에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때도 공포스러웠어요. 남영역 근처에서는 약속도 안 잡아요. 그 건물을 김수근이 건축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꼼꼼히 설계했나 싶더라고요. 건축도 하나의 예술인데 말이죠.

'남영동'을 증언하실 일이 많았는데, 많이 힘들기도 하셨죠?
처음 고문 상황을 진술했을 때는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운동요법 받은 이후로는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다시 그때의 기억을 건드리니깐 악몽을 꾸더라고요. 그 장면이 선명해지니까 다시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다행히 운동요법을 통해 다시 안정화됐어요.

남영동 대공분실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권기념관보다는 고문기록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건물 전체가 고문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잖아요.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원형을 보존해서 문화재급으로 관리해야 해요. 근현대사에서 국가의 만행을 시민들이 배우고, 그것을 교훈 삼아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나가야죠. 담대한 시민들을 키워내는 교육하는 장이 되어야 하고요.

운동요법을 통해 후유증을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고문후유증은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근육이 하나의 기억장치라서, 몸을 풀어줘야 정신적 고통이 사라져요. 근육의 기억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고통은 절대 잊히지 않아요.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고.

고문의 맥락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치유에 도움이 되겠지요?
예. 저는 운 좋게도 제 상황과 처지를 아는 분한테 운동요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건강하게요. 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분들이 치유 프로그램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남영동 대공분실을 기념관으로 만들었을 때, 이선근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나요?
저 자신을 독재정권이 사회를 억압할 때, 맞서 싸웠던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고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기억은 정말 고통이었죠. 하지만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고통이 있었기에 민주화가 좀 더 앞당겨졌다고 자부해요.

심층 인터뷰 4

최연석
1982년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2018.8.29. 12:00~14:00

최낙교, 최낙전 선생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저는 최낙교, 최낙전과는 오촌 관계에 있는 삼촌이고, 최을호 형님은 사촌입니다. 고향 김제 고사에 살면서 진봉농협을 다녔는데, 아이들 교육이니 뭐니 해서 그만두고 전주로 나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전주에서는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아내와 네 명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1982년 8월이지요? 낙교, 낙전 조카가 먼저 잡혀갔던 건가요?

그해 여름, 어느 날 고향 고사에 내려갔습니다. 낙전이가 낙교 동생이기는 하지만, 고향 집을 지키고 있었고,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낙전이네가 실질적인 장손 집이었어요. 고향에서 경조사가 있으면 그 집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 역시 그 집을 자주 다녔고.

그런데 을호 형님이 경찰한테 잡혀갔다는 거예요. 을호 형님뿐 아니라 낙교, 낙전 조카와 낙교 어머니(서순녀)까지 모두 붙잡혀갔다는 겁니다. 낙교 조카는 전주에서 선생님을 하면서 저랑 가끔 술을 마셨거든요.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 싶었죠. 특히 낙전 조카는 도로를 놓는다든지 등등 젊었을 때부터 고향 발전을 위해 온갖 봉사활동을 마다하지 않은 건실한 유지였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모두 낙전 조카를 어른 대접할 정도로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잡혀갔나 궁금해하면서 전주로 돌아왔어요.

강제로 끌려갔던 그날을 기억하세요?

어느 날 아침,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낯선 남자 두 명이 찾아온 겁니다. "최연석 씨 맞느냐"고 묻더니 대뜸 같이 가자는 거예요. "누구냐,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가느냐"고 물으니 "가보면 안다"고 해요. 어디로 가는지 더 묻지도 못했고, 특별히 무섭거나 이상한 느낌도 없었어요. 꺼림칙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누군가와 싸운다거나 돈 문제가 있었거나 죄지은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 길로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에 실려서 네 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전주에서 남영동 대공분실까지 어떻게 끌려왔나요?

남영동인지 어딘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차를 타고 4, 5시간쯤 달린 것 같은데, 한강이 보였고 다리를 건넜어요. 아, 서울이구나 알았습니다. 한강 다리를 넘는가 싶더니 어느 지점에서부터 눈을 수건으로 묶었어요. 어느 건물에 도착하더니 꾸불꾸불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던 것도 같고. 도착하니까 복도가 있고 방문이 지그재그로 있었어요. 눈 가린 거 풀어주더니 "여기가 어딘지 아냐? 여기 이북이야!"라는 겁니다.

취조실은 기억하세요?

예. 방은 두어 평 정도 됐는데 벽 쪽에 정말 작은 창이 있어요. 사람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크기예요. 침상, 책상도 있었어요. 평상 높이의 침상 위에 밥상만 한 작은 크기의 책상이 올려져 있었어요. 또 욕조, 세면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고문하면서 거기다 고개를 처박을 때가 되어서야 그게 욕조라는 걸 알았지, 처음엔 별생각 없었어요. 목욕이라도 하라고 있는지 알았어요. 물고문이라는 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취조실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시켰나요?

다짜고짜 책상 앞에 앉으라더니 종이를 던져주면서 자술서를 쓰라고 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쓰래요. 아마 밤새도록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부인하고 연애한 얘기며 다 썼죠. 수사관들이 읽어보더니 "다른 거 써, 이 새끼야. 최낙교하고 있었던 얘기를 써라" 이러는 거예요. "무전기는 안 봤냐, 어디 있냐"고도 묻고. 내가 무전기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뭘 자꾸 쓰라고만 하는 거죠. 사실대로 말하면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거짓말만 한다고 때렸어요. 등이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옆구리를 마구 때리고 발로 차는 일은 다반사였어요. 바닥에 넘어져 있으면 발로 차고, 밟고….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예.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나무 널빤지를 넣고 막 밟아대는 거예요. 지금 생각만 해도 무릎이 저려요. 또 볼펜으로도 고문하더라니까요. (볼펜고문 하는 방법을 직접 설명함)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볼펜을 하나 껴놓은 상태로 손을 꽈악 조이는 거예요. 그럼 아주 손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요. 진짜 곧 끊어질 것 같죠.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때렸는데, 그런다고 제가 뭐 아는 것이 있어야죠. 그렇게 수사관들은 원하는 것이 안 나온다 싶으면 욕조로 데려가요.

물고문을 하려고요? 어떻게 하던가요?

보통 집에 있는 욕조 반 정도 크기인데, 거기에 가득 물을 받더니 두 사람이 내 머리를 잡아서 물속으로 푹 집어넣어요. 입속으로 콧속으로 눈속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물속에 눈이나 코가 떠다니는 것 같고,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죽기 직전이 되면 다시 꺼내놓고,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고… 서너 번을 반복했어요. 그거 정말 진저리나는 고통이에요. 아주 치가 떨립니다.

물고문을 가한 다음에 다시 나를 책상에 앉히더니 이야기해보라고 합디다. 낙교가 간첩으로 포섭하지 않았느냐, 무전기 어떻게 생겼냐, 무전기 어디에 뒀냐, 북한에 가자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죠. 낙교 조카랑 둘이 술이나 마시지, 이북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를 해본 일 자체가 없다고, 정말 말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사실 그 시절에 '이북 좋다'고 말할 사람이 어딨겠어요? 이북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말도 꺼낼 수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완전히 금기어죠. 그랬더니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어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 더 심각한 고문을 가했나요?

그렇죠.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우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4, 5일 지난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이제는 "이 자식, 사상이 완전히 투철한 놈이로구나" 하더니 맛 좀 더 봐야 한다면서 눈을 가린 채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요. 계단을 타고 내려갔어요. 방이 완전히 컴컴하니깐 지하라고 생각했죠. 아주 으스스, 음침한 분위기. 나는 이미 넋이 나가 있었고. 거기 뚱뚱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방에는 무슨 철제침대 같은 게 있는데 한 사람이 누울 만한 크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눕히는 겁니다.

그 자체로도 공포스러웠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아, 그 침대 같은 것에 혁대 같은 게 세 개가 달려 있어요. 그걸로 제 다리, 팔, 배를 묶어요. 내 양쪽 손가락, 발가락에 전선을 꽂은 후에 한 놈이 전선을 콘센트에 꽂아요. 뭔가 장치를 누르면 온몸에 전류가 통하고 그럼 아아아아악!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니깐 입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놈이 커다란 주전자로 입안으로 물을 쏟아부어요. 하도 물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남산처럼 차오르면 아까 뚱뚱한 놈이 내 몸에 올라타서는 배를 눌러대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물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배가 홀쭉해져요. 서너 번 당했더니 안 되겠더라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그만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수사관이 "나가서 딴말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배에 올라탔던 거구의 남자가 누군지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셨죠?

그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서울대 학생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사받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에 똑같은 곳에서 조사받다가 죽었구나 했죠. 그리고 김근태 씨를 고문했던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었어. 사진 보니깐 딱 이근안이더라고. 나에게 전기고문을 가하고, 배 위로 올라타서 몸을 꽉 눌러 물을 뺐던 그 사람.

결국은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쓸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원래 조사받던 방으로 돌아와서 자술서를 쓰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뭐라도 쓸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쓸 게 없으니 제발 "낙교가 쓴 것을 보여달라, 그럼 그대로 쓰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낙교가 쓴 걸 주더라고. 우리 집 근처 야산에서, 어디서 몇 번 만나서 이북을 가자고 했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대로 베껴 썼어요. 그렇게 거짓으로 허위자백을 하니까 고문을 안 하더라고요.

최낙교 진술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낙교 조카가 얼마나 당했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썼을까, 그런 생각부터 들죠. 낙교는 나한테 북한 가자고 했다고 썼으니,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한 낙교가 얼마나 당했으면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진술서 작성이 끝난 뒤 녹음도 시켰다고요?

진술서를 다 쓰니깐 그걸 읽으면서 녹음을 하자고 해요. 수사관이 하나씩 물어볼 테니까, 자연스럽게 대답하래. 그리고 녹음기를 가져왔는데, 수사관이 질문을 하나 하면 나는 쓴 것을 그대로 읽었어요. 수사관이 자연스럽게 하라면서 몇 번 연습을 시켜요. 그 순간, 제가 꾀를 냈는데, 진술서를 그대로 읽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종이를 넘길 때마다 탁탁 소리를 냈어요. 내가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읽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어요. 억울하니까.

고문당한 상처가 있었을 텐데요.

하도 두들겨 맞아놔서 등짝이고 어디고 사방이 멍투성이였어요. 수사관들이 등에 안티푸라민 같은 연고도 발라주고. 몽둥이로 맞은 어깨, 나무판을 껴놓고 짓밟았던 무릎과 오금, 발로 차인 옆구리, 작대기 같은 것으로 수없이 두들겨 맞았던 등짝에 다가 한 1주일 정도 연고를 바르는 거예요. 그때는 수사관들이 더 고문을 하지 않았고, 약 발라주니까 고마운 마음마저 들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고문의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었을 텐데요. 하여튼 멍 자국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흉터가 조금씩 가시니까 이제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다른 소리 하면 알아서 해라. 곧 검사가 부를 것인데, 그때 딴소리하면 여기로 다시 올 것이고, 너는 죽을 줄 알아라"고 합디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일단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화장실과 책상과 잠자는 곳이 한곳에 붙어 있고, 화장실은 아래만 차림막이 있었고, 입고 온 속옷을 2주 동안 입고 고문을 당했는데도,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불편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징그러운 시간이었어요.

영장도 없이 그렇게 2주가량 붙잡혀 있었던 건가요?

영장이 뭡니까, 살아나온 것이 기적이죠. 그렇게 2주 있었어요. 1주일 동안은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1주일은 멍 자국 지우는 시간이었어요. 잡혀올 때 입었던 옷 그대로 버스를 타고 전주로 내려왔어요.

검찰 조사 중에 최낙전, 최낙교를 만났죠?

집사람 친척 중에 군산에서 경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검사가 부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으니 내복 두껍게 입고 가라는 거야. 나는 또 맞을 각오

하고 내복 두툼히 껴입고 갔어. 무슨 정신으로 서울 검찰청을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정형근 검사실은 또렷이 기억나.
검사실에 들어갔더니 낙전 조카가 와 있더라고. 낙전이 울면서 "왜 숙부님(최을호)은 나한테 그런대요.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했대요. 숙부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울면서 말해요. 정형근 검사는 "이 자식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염병질한다"고 소리 질러요. 꼭 죽일 기세로요. 낙전이가 계속 부인을 하니까 정형근 검사는 윽박지르면서 기록을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낙교 조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낙교 조카는 반절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 같더라고. 정형근 검사가 "너 최연석이한테 이북 가자고 했어?"라고 물으니깐 "그런 일 없습니다" 해요. 낙교가 계속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정형근 검사가 옆에 있던 우산을 들어서 낙교 눈을 곧 찌를 듯이 막 들이댔어요. 진짜 눈을 찌를 것처럼요.

"부인하면 다시 올 것이다"라고 했던 수사관들이 진짜 검사실로 왔나요?
예. 나도 부인했을 거 아니에요? 하도 두들겨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정형근 검사가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다룰까" 하면서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나를 고문했던 두 놈이었어요. 그놈들이 검사실로 들어오더니 "이 자식 다시 데리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때 검사실에 같이 있던 서기가 "아저씨가 했다고 하나, 안 했다고 하나 (낙전, 낙교 조카는) 형무소 사니까 아저씨 신상 생각해서 그냥 사인만 하고 가라" 그러더라고. 고문한 두 놈이 내 앞에서 다시 끌고 간다고 하니깐 퍼뜩 정신이 차려졌어요. 결국 검사 앞에서 사인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검사실에서 만났던 최낙교의 상태를 더 말씀해주세요.
정말 멍하게, 넋 나간 사람이었어요. 눈동자가 아예 죽어 있었어요. 고문을 많이 당했구나 싶었지. 걔는 초등학교 선생이고 얼마나 똘똘했는데. 근데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병신 같더라고. 그게 내가 본 낙교 마지막 모습이야.

최낙교가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자살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당연히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감옥에 목 매달 게 없잖아. 걔가 혀 물고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넋이 나갔더라니까. 낙교는 나보다 더 약해요. 나는 바깥에서 일이라도 하는데, 걔는 펜대 잡은 선생이었고. 내가 열 대 맞았을 때

고통을 느끼면, 걔는 두 대면 충분할 정도로 많이 약해요. 그만큼 성격도 순하고. 자살했다고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고문으로 죽인 거예요.

지금 낙교 생각하면 어떠세요.

마음 아프죠. (눈물) 걔는 자살할 리가 없어요. 어떤 놈이 죄도 없는데 죽겠어요. 빽이 없으니 포섭책이니, 연락책이니 엮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을호 형님은 폐병 환자라 빼싹 말라서, 아무 일도 못 해요. 농사일은커녕 사회활동도 못 해. 그런 사람이 무슨 간첩 노릇을 하겠어요. 친구도 한 명 없었던 사람이. 얼마나 원통하면 죽을 때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고 죽고. (계속 눈물)

어떤 점이 가장 아프신가요?

언젠가 이 형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낙교 내보내주는 대신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논 한 마지기를 줄 수 있냐"고요. 내가 "간첩죄 진 사람이 논 한 마지기로 되겠습니까" 하니깐 그놈이 "알기는 잘 아네"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면서 땅을 넘겨줬으면 낙교가 살았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그때 논 한 마지기 넘겨줬으면 낙교가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너무 아프죠. 내가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 아프고. (눈물)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썼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부인: 그때 낙교 안식구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가서 말을 잘해주면 자기 서방님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인데, 뭐라 말할 수 있었겠어요. 누구라도요.

최낙전은 1990년 출소한 후 만나셨죠? 어땠나요?

낙전이는 출소해서 전주에 오면 우리 집에서 자고, 교회도 함께 다녔어요. 내가 그랬지. "낙전아, 거기 살지 말고 전주 와서 나랑 같이 살자. 거기 동네 사람들도 간첩으로 몰고 그러는데 아예 모르는 데 와서 사는 게 낫지 않냐"고 했어요. 그런데 전주로 이사 와도 형사들이 다 따라온다고 불안해하더라고. 김제경찰서에서 자주 불러대고, 집으로도 찾아왔다고 했어요. 처음 붙잡혀가서 심한 고문을 당했으니 또 잡혀갈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같이 살자고 계속 그랬는데 이놈 새끼가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지나고 죽었어. (눈물이 맺힘)

최낙전의 죽음을 접하고 어떠셨어요.

기가 막히죠. 망연자실. 몇 년간 형을 산 놈이 집으로 왔으면 악착같이 살아야지.

감옥 사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감옥은 몸이 고생이지만, 나오고 나서는 다들 자기를 간첩으로 보는 시선이 두려웠을 거 아냐. 낙교, 낙전이 둘 다 참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남영동 대공분실이 기념관으로 된다는데, 그 기념관이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했으면 하시나요?

시골 사람들이라서 뭘 알겠어요. 그냥 거기서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고, 또 죽였다는 사실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그런 생죽음 당하지 않고, 죽은 영혼이라도 편하게 해줬으면 해.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있겠어. (눈물 맺힘) 그거라도 보면 마음 편할 수 있지.

민주인권기념관 건물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이름이라도 남겨야지. '최을호, 최낙교, 최낙전이 죄 없이 고문을 당해 누명 쓴 장소'라고. 아직도 고향에서는 낙교, 낙전이를 간첩이라고 수군거리는데 어떻게든 죽은 사람들 억울함이 풀려서 넋이라도 명예회복 되기를 바라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국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과했으면 하고요. 정의롭게.

심층 인터뷰 5

함주명
1983년 간첩조작 사건

2018.8.28. 10:00~12:00

1983년 2월, 당시 상황을 떠올려보실까요?

저는 개성 사람으로 전쟁 중에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남공작원을 자원하여 남파된 1954년 4월 14일 즉시 자수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 그 후 30년간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결혼해서 첫째는 입대했고, 둘째는 홍익대 미술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막내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던 중 1983년 2월 18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느닷없이 연행된 겁니다.

날짜까지 기억하시는데, 체포되던 그날 어땠나요?

잊을 수 없죠. 1983년 2월 18일 오전 아홉시경 기독교 방송국 내 시청각실에 용무를 마치고 나와 길을 건너는데 누군가 억지로 차에 태우곤 윗옷을 벗으라고 하더니 제 머리에 뒤집어씌웠습니다. 어디로, 어떤 이유로 끌려가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날 연행한 자가 고문기술자 이근안이더군요.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고문당한 곳인데 왜 기억을 못 하겠어요. 눈을 가린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탄 것 같은데, 몇 층으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당시 그놈들에게는 사람 한 명 죽이는 거 간단한 일이었으니까요.

처음 끌려간 방 구조가 어땠나요?

욕조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내가 욕조에서 목욕할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시키던가요?

사복을 다 갈아입혀요. 군복은 아니었고 수감복 같은 옷으로 갈아입힌 후 조사를 시작해요. 살아온 이야기를 다 적으라고 해서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고, 누구를 만났는지 말하니까 느닷없이 제가 북한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담판요원으로 있었고 우순학이가 재북 처(在北妻)라는 겁니다. 저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 같은 어린 사람을 요직에 채용할 일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우순학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따지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우순학은 제가 개성에 있을 때 하숙집 딸이었고, 사춘기 시절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하니 그때부터 고문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하던가요?

마구 구타를 하는데 꼭 가슴을 계속 때려서 숨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빨랫방망이로 손바닥을 때려서 손바닥이 퉁퉁 부었는데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말 못 할 통증이 찾아와요. 그렇게 15일쯤 잠을 전혀 못 잤어요. 계속 의자에 앉혀놓은 상태에서 책상 모서리에 강력한 백열등을 켜놓고 그 백열등을 들여다보게 해요. 그러다 졸면 빨랫방망이로 손바닥을 내려쳐요. 일주일 이상 잠을 못 잤으니 자연히 눈이 감길 수밖에요.

칠성판 잘 아시지요?

그건 다른 고문실에 있었는데요, 딱 한 사람만 누울 수 있는 판이에요. 그 위로 눕힌 후 온몸을 꼼짝 못 하게 묶어요. 다음에 얼굴에 수건을 대고 샤워 꼭지를 틉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렵고 죽을 것만 같아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싶어요.

물고문을 받은 후 다시 진술하는데, 이번엔 북괴 노동당에 가입했다느니, 신문광고를 통해 간첩들끼리 알아보는 암호를 냈을 거라면서 바른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저는 광고를 낸 적도 없고 모른다고 하니까 또 고문이 시작되는데 이번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수갑을 뒤로 채우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그대로 기절해버렸죠. 그러니까 욕조에서 끄집어내서 이근안이 배에 올라타서 물을 빼요. 깨어나서 물을 한 양동이 이상 토하고 실신 상태에 있으면 더운 소금물을 가져다 강제로 먹여요.

다시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퉁퉁 부은 손가락을 뾰족한 볼펜심으로 콕콕 찔러대요. 말로 표현키 어려운 고통이어서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김영일아 보아라 어머니 위독하니 속히 돌아오라 028"이라는 광고를 신문에 냈다고 허위진술 했습

니다. 무엇인가 했다고 해야만 고문을 그치니 터무니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기고문도 받으셨나요?

물고문도 참기 어려운데 이제는 양쪽 새끼발가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넣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묻는데 여기에 시인하면 손끝을 움직이라고 해요. 진술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다 꾸며내는 거예요. 내용을 불러주면 저는 "네네"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하면 죽는데? 시키는 대로, 무조건 "네네" 해서 엉터리 조서가 만들어진 거죠. 그 엉터리 조서를 꾸미려고 저를 45일이나 불법 감금했어요.

검찰조사 과정에서 고문 수사관들은 만난 적 있으신가요?

4월 21일 아침에 수사관들이 말하길 검사한테 심사받는다고 해요.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사실을 말할 수 있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근안, 이봉구, 이동구가 검사실에 따라 들어와서 제가 답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물론 심사받으러 가기 전부터 이근안은 "가서 잘 얘기하면 공소보류를 시켜 집에 보내주지만, 쓸데없는 얘기 하거나 부인하면 장사 치르는 날인 줄 알라"고 협박을 해서 저는 검사가 묻는 말에 시인도 부인도 못 했습니다. 검사는 경찰조서의 1번부터 17번까지의 내용을 읽었고 옆에 있는 여직원이 타이프를 치기만 했어요. 그렇게 한 시간 반 동안 조서를 작성하고 읽어보라는 말도 없이 지문 날인시키고는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마무리됐구나 싶었는데, 수사관들은 곧장 서울구치소로 수감시켰어요.

남영동을 나온 이후에도 매일같이 악몽을 꾸셨다고 하셨죠?

말도 못 하죠. 서울구치소로 간 뒤, 1년여 동안은 고문후유증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잠깐 잠들었다가도 이근안 고문 장면이 떠오르면 놀라서 벌떡 일어나요. 하루 두세 시간 이상 잠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칠성판에 묶여 몽둥이로 얻어맞은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는데 그 통증을 견딜 수 없었어요. 외부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가 정맥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증상은 출소 이후에도 2년 정도 더 계속됐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살아 있는 건 기적이에요.

선생님께서 재심을 준비하던 1999년 10월 이근안이 자수했어요. 그때 이근안과 대질심문 했던 기억 나시죠?

그럼요. 이근안이 "함 선생님" 하면서 들어오는데 정말이지 죽이고 싶었습니다. 대질심문 하는 장면을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말하는 속도 매우 느려짐) 겁도 났어요. 잘못되면 어쩔까 싶고, 공포에 싸인 상태였어요. 피가 거꾸로 치솟는 감

정을 누르고 고문한 당사자 앞에서 제가 당한 고문을 다 말했어요. 칠성판에서 누워서 고문받던 장면도 재현했어요. 그제야 이근안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더군요.

고문 가해자와 만나는 것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걸 밝혀내서 그자들을 처벌해야 하잖아요. (손짓하며 강하게 말함) 내가 가야 증언도 하고 그래야 처벌하지. 나 아니면 누가 가요?

선생님께서는 당시 고문했던 수사관 이름을 모두 기억했던 것이죠?
이근안, 이봉구, 이동구, 최평선이었어요. 당시에 수사관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진술서 맨 아래 수사관들이 이름 사인하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 나가서, 고문받은 사실을 세상에 밝히려면 수사관들 이름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름조차 모르면 무엇으로 내가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겠어요.

(함주명 부인 이춘자 선생께)
남영동으로 끌려갔을 때 이춘자 선생님은 남편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셨죠?
이춘자: 83년 2월 18일에 아홉시에 남편이 종로5가에 볼일 있다면서 나갔는데 그 후로 소식이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없어졌으니, 어디서 남편을 찾나 싶어서 울면서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나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놀라서 동네 파출소,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했죠. 저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어디가 잘못된지 알았어요. 그런데 5일 지났을 때, 오전 여섯시 반쯤 이근안하고 세 명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요. 시누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시누이만 데려가고 나는 안 데려가더라고요. 들어보니 동서, 시숙, 대구 사는 형부까지 조사받았대요. 그제야 뭐가 잘못됐구나 싶었지. 치안본부라는 데서 조사받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지금은 편한 듯 말씀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춘자: 무섭고 떨리죠. 시골에서 올라와서 길음동에서만 살았지, 치안본부가 뭐 하는 데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시누이가 돌아와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데에서 조사받았다 그래요. 시누이가 별일 아닐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남영동을 찾아가셨죠? 어떠셨나요?

이춘자: 결국 남영동에 혼자 찾아갔어요. 앞에 있는 철문이 엄청나게 커서 안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도 안 보여요. 문이 얼마나 튼튼한지 손으로 두드려서는 소리도 안 나겠더라고. 그래서 방망이 같은 거로 쾅쾅 두드리니깐 문이 옆으로 열렸어요. 남자 한 명이 나와서는 "아줌마 여기 어딘지 알고 오셨냐"고 해요. 내가 "남편이 안에 있으니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깐 잠깐 기다리라고 해요. 한참 후에 형사가 나왔어요. "남편 좀 만나게 해달라. 뭐 땜에 그러는지 알아야겠다"고 하니 아주머니가 알 수 없으니, 집에 가라는 거야. 한 번 더 찾아갔지만 못 만났어요. 그땐 아주머니도 같이 조사받고 싶으냐고 협박해.

언제 함주명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첫 면회를 기억하시나요?

이춘자: 두 달 지난 후 남편이 서울구치소 가고 나서야 면회를 했어. 이 양반이 가슴을 움켜쥐고 나오는 거예요. 말은 없고 얼굴은 영 푸석푸석해. 고문받았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지. 그때는 고문이라는 단어조차 몰랐어요. 이 양반이 날 보더니 그저 울기만 해요. "뭘 잘못해서 여기 끌려왔냐"고 물으니 "난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고만 해요. 그때는 간첩이 됐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저 "나는 억울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하면 무죄로 나갈 수 있다"고만 말해요. 그랬던 사람이 글쎄, 16년 후에 나왔어요.

이후에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본 적 있으세요?

이춘자: 남영역이나 숙대 지나갈 때면 고개를 돌려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고 믿기지 않아요. 지금 남편이 몸 아픈 것도 고문후유증 아닌가 싶어요. 특별한 증상 없이 그냥 온몸이 아프대요. 의사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어딘지를 콕 집어서 말을 못 하고, 힘들어하기만 해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가지가 특별히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거기 다녀온 이후로 당뇨도 생겼어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니까요. 물론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바짝 뼈만 남기 어디 쉽나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이에요. (옆에서 듣고 있던 함주명 선생님 한숨을 쉼) 누워 있으면 영 못 볼 상태예요. 그래도 오늘은 인터뷰한다고 아침부터 머리 감고, 옷 챙겨 입고 앉아 있어서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거지.

16년 감옥살이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고통이 크셨어요?

이춘자: 이 양반은 애들 크는 모습도 전혀 보지 못하고, 애들이나 나는 간첩 자식, 마누라로 살았어요. 동네에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않고 쉬쉬했어요.

그 경계의 눈초리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울먹) 지금은 신당동을 떠났지만, 그때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안경을 벗고 눈물 훔침) 그때 생각하면 말을 못 해요.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애타던 가족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기억됐으면 하는가요?

이춘자: 죄도 없이 멀쩡한 사람들 잡아다가 간첩을 만들어놓고 16년간 감옥에 살게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알아야 해요. 물론 무죄를 받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애타는 심정으로 16년 기다렸더니 이런 기회도 오네요. 예전에 남편한테 "당신이 참 억울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다들 기억해준다니 천만다행이다"라고 하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남영동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고문실을 그대로 보존한다면 거기서 살아남은 제 역할이 필요하겠네요. 나 아니면 누가 그때의 끔찍했던 기억을 증언하나요. 욕심대로라면 함주명이라는 인간이 그곳에서 이근안에게 모질게 고문당했다는 사실을 모두 드러내는 장소가 되길 바라죠. 이제는 남영동에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해요. 내가 직접 그곳에서 증언해주는 것이 뭐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기운을 내서라도 갈게요.

'함주명'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하나요?

진실을 밝힌 산증인요.

심층 인터뷰 6

고경미
1986년 보임·다산 사건

2018.9.6. 11:30~13:00

보임기획은 어떤 곳이었나요?

보임은 서적 표지 디자인 회사였어요. 서울대 미대 81학번의 김미영과 고경대가 주축으로 만든 회사예요. 주로 사회과학도서 표지를 디자인했어요. 당시만 해도 사회과학책 표지가 정말 볼품없었잖아요. 보임기획은 제대로 된 디자이너가 하는 새로운 디자인이라서 나름 수요가 많았어요. 돈은 디자인으로 벌고 그 자금으로 김미영이 속했던 서울대 영화 동아리 '얄라성'이 노동관련 영상도 촬영하고, 노동계의 문화운동 전반에 대한 준비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했죠. 한마디로 노동문화센터로 구상한 거예요.

저는 연세대 건축학과 81학번으로, 기독교청년회 문화팀에서 만든 '탈춤반' 소그룹 원이었어요. 당시 대학별 탈춤반이 운동권의 중심이었죠. 당시 우리 집은 부모님이 지방에 계셨고, 언니 고경미, 오빠 고경대랑 함께 살던 신촌 아파트가 연세대 탈춤반의 아지트였고요. 저는 대학 졸업 후 노래패 '울림터'를 만드는 등 문화운동을 계속하다가, 오빠 고경대가 주축이 된 '보임' 업무를 잠시 돕던 중이었어요.

보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당시 보임은 마포구 신수동에 다 쓰러져 가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어찌나 오래된 목조건물인지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교정작업을 돕고, 컴퓨터로 가계부 작성하는 정도의 일만 거들었어요. 컴퓨터가 흔하지 않던 시대인데, 저는 공대 출신이니깐 남들보다 쉽게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다뤘죠.

86년 3월 25일 아침 일곱시인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왔는데 입구에 낯선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별생각 없이 지나쳤죠. 저희가 뭐 불순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2층에 올라가니 이미 분위기가 험악해요. 아까 마주쳤던 낯선 사람들이 "너 잘 왔다" 하면서 절 붙들더니 차에 태우는 거예요. 얼굴에 뭔가를 뒤집어썼으니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죠. 쇠문 소리가 났고, 뱅글뱅글 도는 계단을 오르니 어리둥절하기만 하죠. 여기가 어디일까, 누구일까 싶으면서도 되게 무서웠어요. 남자 두 명이 나를 양쪽에서 꽉 붙들고 올라가니까요.

보임에서 제대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끌려간 거네요. 어떠셨어요?
금방 나간다고 생각했죠. 제가 보임에서 직접 관여한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관련된 선배들이 다 잡혔다고 하니, 저는 당연히 풀려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잡고 싶은 사람이 있던 와중에 때마침 제가 나타나니까 뭐라도 더 있나 싶어서 데려갔나 봐요. 저는 '왜 나 같은 잔챙이를 잡아다 취조하나' 싶었어요.

조사실 내부가 기억나시나요?
조사실 기억나죠. 복도로 방이 쫙 있는데 굉장히 음침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사람 신음 같은 거요. 방에 들어가니까 주황색 타일이 붙어 있는 욕조와 취조 책상, 의자, 침대가 있었어요. 모두 붙박이였죠. 창은 굉장히 작은 게 하나인가 두 개 있었던 거 같아요. 창문은 굉장히 작아요. 열어봤자 머리도 나갈 수 없는 크기였어요. 내가 뭘 들고 깰 수도 없고요.

그런 조사실 분위기가 주는 느낌은 어땠어요?
무섭죠. 내가 끌려간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으니까. 그것이 주는 공포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았나요?
처음 의자에 앉자마자 50대로 보이는 몸집 큰 형사가 자기는 청와대 경호원 출신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한 명과 같이 취조를 하는데 계속 거기서 무엇을 했냐, 불라고 캐묻는데 제가 뭐 한 게 있어야죠. 나중에는 수사관도 딱히 더 나올 게 없으니 힘 빠진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극본을 하나 만드는데, 사무실에서 열었던 세미나를 문제 삼았어요. 금서라고 딱지 붙여놓은 돌베개 책을 문제 삼고 나서, 거기에다 '누군가 적화통일을 하자고 얘기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같은 내용을 꾸며냈어요. 그리고 저보고 똑같이 받아쓰래요.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아

쓰고 지장 찍었는데 너는 못 쓸 게 뭐 있냐는 거죠. 듣지도,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말이에요.

수사방식은 어땠나요? 아주 많은 사람이 함께 붙잡힌 상황이잖아요?
수사관도 내가 깃털인 걸 알아서인지 특별히 강압수사를 하진 않았어요. 다만 계속 밤을 새우다 보니 너무너무 졸렸죠. 처음 이틀은 한숨도 못 잤거든요. 제발 잠 좀 자게 해달라고 하니 옆에 침대에서 자라고 해요.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라는 몸집 큰 수사관도 나를 지키다가 그 좁은 침대에서 등을 맞대고 잔 거예요. 깨어나서야 알았죠. 이후 제가 구치소 갔을 시기에 부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들 저를 걱정했지만, 다행히 별일 없었어요.

쉽게 석방될 거라고 믿었는데, 못 나가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대공분실로 간 지 이틀째 되던 날이던가요, 훈방이라는 얘기를 듣고 대공분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대학동기 허○도 입구에 앉아 있더라고요. 서로 너는 왜 여기 왔냐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를 취조하던 수사관이 와서는 저만 다시 데리고 올라가요. 허○은 그 길로 훈방됐고, 저는 나가지 못했죠. 나중에서야 이유를 알았는데, 나 말고 다른 친구를 먼저 빼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구속자 머릿수 맞추려고 그랬던 거죠. 깃털인 줄 알면서도 안 내보내준 거죠.

수사해도 더 나올 것이 없는데 왜 계속 붙들어뒀을까요?
오빠 때문이겠죠. 오빠는 저 때문에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고문도 당하고 '북한을 찬양하자'는 등 그들이 써놓은 각본대로 쓰도록 강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걔들이 일부러 저를 붙잡아둔 채로 볼모 삼은 거죠. 저는 대공분실에서 20여 일간 의미 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히 조사도 안 받았고요. 열흘쯤 지났을 때는 밤에 용산경찰서 유치장으로 보내주긴 했어요.

남매가 붙잡혀간 상황에서 부모님은 어떠셨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구치소로 매일 면회 오셨거든요.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자식이 둘이나 잡혀갔는데, 딸이라도 빼내고 싶으셨겠죠.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니까 큰 종이(당시 달력 뒷장으로 기억)에다가 잡혀간 사람들의 기소 내용을 깨알같이 썼대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용이 적은데도 나오질 못하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사건의 경중을 따지면 분명 제가 훈방되어서 먼저 나간다고 생각했고, 그것도 아니

면 기소유예라고 믿었는데 결국 못 나갔잖아요. 선고도 6개월을 다 채우고 추석 즈음에 선고유예로 나왔어요.

보임기획과 다산은 서로 다른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치본은 '보임·다산 사건'으로 엄청나게 부풀려서 발표했어요.

그렇죠, 다른 회사들이죠. 제가 유치장에서 다산기획 대표인 고성국 씨를 처음 봤어요. 시기가 같으니 혹시 같은 사건으로 연루되었나 싶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고성국 씨도 '보임·다산 사건'으로 묶여서 공범이 되어 있더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도요. 아마도 백산서당 이범 대표와 오빠 고경대가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임과 다산을 엮은 것 같아요. 별개의 출판사인데 말이죠.

당시 가족대책위에서 간첩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하셨거든요?

간첩사건으로 키우려고 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어요. 걔들이 보임 사무실을 뒤지면서 쾌재를 부른 게 방에서 8밀리 무비카메라, 환등기, 컴퓨터가 나오니 엄청난 기기들이다 싶었나 봐요. 당시에는 희귀한 것들이니까요. 그걸 다 북한에서 돈 받아서 샀다고 몰아가려 했던 거죠. 김상복 형은 환등기, 무비카메라 구입 자금의 출처를 물으면서 엄청나게 고문했대요. 저한테는 컴퓨터에 뭐가 있는지 물었어요. 그땐 하드나 플로피디스크 대신 카세트테이프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자기장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인데, 걔네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을 거예요. 사실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가계부로만 사용했으니까요.

대공분실 20여 일 동안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나요?

밤마다 들려오던 신음이 떠올라요. 방음이 되어 있어도 다 들려요. 유치장 오가면서 복도에서도 소리를 듣고요. 당시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라서, 어딘지 모를 곳에 갇혀 있다는 공포가 컸어요. 훈방을 기대했지만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다려야 했고요. 내일 나간다면 무엇을 할지 매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판은 계속 연기됐고, 결국 6개월을 꼬박 채웠어요. 바로 내일 풀려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죠. 그게 가장 괴로웠어요.

언니 고경심이 면회했을 때 고경대가 몸을 가누지 못해서 눈물을 쏟았다는 진술을 봤습니다.

저는 언니와 면회하지 못했고, 오빠만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언니는 서울대 의대 다니면서 연극반 활동도 한 의식 있는 레지던트였지요. 이미 결혼도 했고요. 저희

가 잡혀갔을 때는 언니가 다니고 있던 향린교회 사람들과 고문피해 증언도 많이 했고요. 그때 네 살 된 첫애도 있고, 레지던트 하느라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었을 때인데 언니가 참 대단했죠. 그렇게 다니느라 애는 잘 돌보지 못했을 거예요.

남매를 동시에 잡아놓고 자백을 강요했을 거 아니에요? 오빠인 고경대와 사건에 대해 얘기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눈물이 글썽함) 기억에 남는 건, 서대문구치소에서 멀리서 오빠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보자마자 막 "오빠!"라고 불렀어요. (눈물을 닦음) 나야 크게 고생을 안 했고 그저 억울하기만 했지만, 오빠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동생인 내가 그저 안쓰러웠을 거고.

출소 후 오빠가 사회생활이 잘 안 풀릴 때가 가끔 있던 거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의 상처와 온전히 대면하거나, 치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오빠는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도 안 했어요. 그때를 반추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는 게 다 상처처럼 느껴져요. 물론 저도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하지 않았죠. 오빠는 20대 후반의 젊은 날을 교도소에서 보낸 거잖아요. 지금 제주에 귀촌해서 사진작업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상처를 온전히 대면하고 치유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덮어뒀죠.

건축학도로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건물이든 설계할 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건물을 어떤 용도로, 어느 크기로 사용할지 계획하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당시 잘나가는 건축가 김수근이라는 명성으로 설계를 수주했을 뿐이고, 건축사무소 직원들이 전반적인 실무를 맡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 공간이 사람들 데려다 취조를 하고 고문을 할 수도 있는 장소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김수근 씨의 건축사무소 '공간'을 맡았던 승효상 건축가도 "김수근이 대공분실의 용도를 알고서 건축할 리 없다. 내가 아는 김수근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서 5층까지 이어지는 철제계단을 보세요. 그 자체가 무시무시하잖아요. 몇 층인지를 알 수 없고, 위치감이나 공간감도 느낄 수 없도록 고안된 장치잖아요.

나중에 김수근의 건축사무소 '공간'이 종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해서 우리나라 예술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했어요. 김덕수 사물패, 공옥진 춤 등이 모두 여기에서 탄생했고요. 이런 게 모두 과거 경직된 시절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대공분실 피해자를 어떻게 보여줬으면 하나요?

서대문형무소에는 고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뒀던데 전 그런 방식이 싫어요. 고문당한 오빠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일 거예요. 그런 게 후대에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질지 좀 비관적이에요.

지난봄, 광화문 세종로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제주 4.3 70주년 특별전시를 봤어요. 인상적인 전시물은 한밤중에 난데없이 날아온 총탄에 아래턱을 맞아 평생 무명천으로 턱을 감싸고 산 진아영 할머니가 쓴 편지와 그림이었어요.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감나무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감 한 덩어리가 부모가 다 죽고 홀로 살아남은 자신 같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얼굴에 두르고 다닌 무명천을 보는데, 그것이야말로 죽음과 닿아 있던 끔찍한 4.3의 기억에 가까웠어요. 이렇게 고문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그 슬픔과 절망을 전달하고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남영동의 시간은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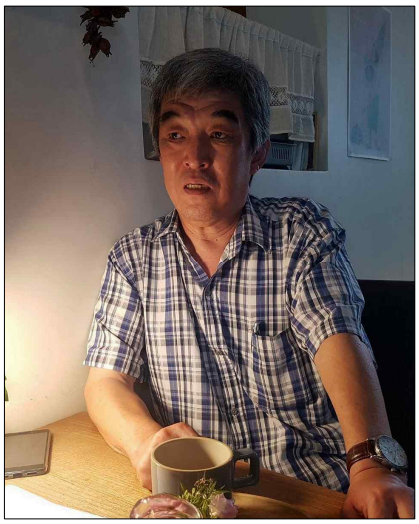
내 인생의 중심이 '나'여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제가 당시 보임 조직의 핵심인물이었다면 무자비한 고문을 더 당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건에 휩쓸리게 한 것 또한 고통이에요. 남영동 대공분실을 포함한 6개월의 시간은 절대 짧지 않았어요. 또 같은 사건으로 오랜 시간 고문받은 오빠에게는 분명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고경대, 고경미 둘 뿐만 아니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희생된 사람들 모두에게요.

남영동에서 서대문구치소로 옮겨갔는데, 사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부대끼며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어떤 것이 삶의 올바름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잡혀온 잔챙이가 6개월 동안 단단하게 단련된 거죠. 나는 나로서 살아야 한다, 내 인생의 중심을 내게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 고통의 시간이 내게 알려준 것이에요.

심층 인터뷰 7

김주언
1986년 보도지침 사건

2018.8.14. 12:00~15:00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이곳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건물을 만드는 것만으론 의미가 없다, 어떤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넣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요. 박종철 고문치사 한 공간만 있는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당했고, 어떻게 고문했는지 등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였어요. 실제로 거쳐 간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고문받다가 죽거나, 고문을 통해 조작된 간첩사건도 많잖아요.

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에 10개월 치 보도지침을 전달하셨고, 1986년 9월 월간「말」 이 이 내용을 특집으로 발행했죠? 그래서 민언협 사무국장인 김태홍 해직기자께서 먼저 붙잡혀가신 거고요?

저는 김태홍, 신홍범 선배와 달리 수배되지 않았고, 잡혀가던 전날까지 신문사에서 평소처럼 근무했어요. 제 이름은 안 나왔거든요. (「말」지에서 배포하기 전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에게 고백성사를 했는데, 신부는 고백성사를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두 선배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붙잡혀갔던 그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김태홍 선배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일단 집에 있던 책들을 다른 데 옮겨놨어요. 그리고 집 바로 앞에서 잡혀갔어요. 출근하는데 지프를 타고 온 사복경찰이 갑

자기 튀어나와서 양손을 붙들고 고개를 숙이게 하고선 무작정 차로 밀어 넣었죠.

자신들이 누구라고 밝혔나요?
아뇨. 그냥 형사임을 직감했어요. 이동하는 데는 한 이삼십 분 걸렸을까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 무학여고 근처에 있는 처가에 살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신분도 밝히지 않았으니,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으셨겠어요.
남산(안기부) 아니면 남영동에 끌려간다고 생각했어요.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김태홍 선배가 잡혀갔을 때 '경찰에 구속됐다'고 언론에 나왔으니깐, 보안사보다는 안기부나 경찰 쪽이라 생각한 거죠. 물론 끌려갈 때는 고개를 숙인 상태라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고요.

끌려갔던 건물은 기억나시나요?
차에서 내릴 때도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앞을 전혀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엘리베이터를 탔던 것 같은데, 호송하는 애들이 양쪽에서 꽉 붙들고 있었고. 그렇게 취조실로 끌려가면 가장 먼저 혁대부터 풀게 해요. 자살을 막으려고. 그리고 이름 대라고 해요. 김 기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름 부르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취조실 막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머리가 하얗죠. 신문기사를 통해 선배들이 잡혀간 사실은 알았으니까요. 제가 알기론 김태홍 선배는 저보다 한 5일 전, 신홍범 선배는 2, 3일 전에 들어갔어요.

취조실 내부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방은 작아요. 벽은 완전히 하얗고. 목제책상을 두고, 양쪽에 목제의자 두 개가 있어요. 책상 한가운데에는 백열등 하나 켜져 있어요. 의자와 책상은 단단히 고정돼 있었어요. 의자 앉는 부분이 스펀지인데, 비닐로 덮여 있었어요. 담뱃불로 지졌는지 중간중간 뜯긴 채였고, 좀 지저분했어요.

의자와 책상이 고정된 상태라면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인데, 그것이 주는 중압감은 없었나요?
고문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조사를 받을 때 의자에 기대거나 그런 거 못 해요. 부동자세로 얘기해야지, 기대거나 그러면 바로 때려요. 졸지도 못하고, 마구 구타하니까. 뭐 쓰라고 하면 바로 써야 하고. 칸막이가 쳐져 있고 그 옆엔 욕조가 있어요.

취조실 들어가자마자 처음 했던 일이 뭐였어요?
혁대를 풀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에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선 채로 앞, 옆, 뒷모습 사진을 찍어요. 어디에 상처가 있고, 점이 있는지 표시하고요. 지문 찍는 건 뻔하고. 그리고 때리기 시작하죠. 한 2, 3일간은 밤샘 조사를 하면서 한숨도 안 재우고요. 수사관들은 교대하면서 쉬고.

계속 의자에 앉아서 조사받으신 건가요?
취조받을 때는 취조 의자에 앉고, 잠시 쉴 때는 다른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해요. 곁에는 전경이 늘 붙어 있고. 다른 사람과 진술이 맞지 않으면 진술서를 계속 다시 쓰라고 하는 게 고역이었죠. 수사관들이 아주 자잘한 상황들까지도 이빨을 맞추려는 거였어요. 그렇게 쓰고 또 썼어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중정(안기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수사하게 해달라, 신병을 넘겨달라"고 했대요. 남영동 쪽에서는 "우리가 잡아왔으니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맞서서, 싸움이 난 거죠.

보도지침 사건을 '대공분실'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보도지침을 폭로한 것이 '대공'으로 여길 일인가 하는 점이죠. 수사관들이 뭘 얻어내려 한 건가요?
이전에는 기자들이 보도지침 안 지키면 중정이나 안기부에서 데려갔는데,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사상범으로 다스리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남영동에서는 처음에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로 설정했어요. 검찰 수사단계에서 법리가 안 맞는다며 형법상 외교상기밀로 변경했지만요. 보도지침을 폭로하게 된 배경에 대한 자술서를 수도 없이 쓰게 했어요. 배후나 공모자는 없느냐고 묻는 거죠. 나중에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견해, 전두환 정권에 대한 입장,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묻는 거예요. 사상범으로 몰고 가려고 한 거죠.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인데, 루카치의 「우리시대의 리얼리즘」, 「역사와 계급의식」 등을 문제 삼았어요. 당시에는 마르크스나 소셜리즘이라고 하면 다 잡혀 들어갔으니깐.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던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안 쓰면 제대로 안 한다고 때리는 게 다반사죠. 주먹으로

때리고, 혁대 풀어 때리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대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물고문은 안 받았지만 이상한 자세를 취하게 했어요. 다리를 W자 모양으로 앉게 하는 건데, 신체구조상 여자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어려워요. 이 자세로 몇 시간 동안 앉으면 다리가 무지 아파요.
그리고 걔네가 레퍼토리처럼 겁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남민전 이재문이가 여기서 수사받고, 사형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재문 선생님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재문도 여기서 죽어 나갔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자칫하면 나도 끝나겠다'라고 생각했죠. 말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길 기억하는 것만 봐도요. 다른 상황은 흐릿한데 그 말은 또렷이 기억하거든요. 남민전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죠. 이재문 선생님이 옥사한 사실도요. 이 얘기는 대공분실에 끌려온 모두에게 한 얘기일 거예요.

먼저 붙잡힌 김태홍 선생님은 더 많이 당했겠어요.
김태홍 선배는 보도지침을 건네준 기자 이름을 밝히라고 수사관들이 고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한테 볼펜고문 같은 얘기는 자세히 안 하셨지만요. 저는 두 선배가 먼저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판이 짜여졌고 내용이 충분하니깐 더 물을 게 없었어요. 물론 신문사 다른 기자들과 공모한 거 아니냐고 묻긴 했지만 거기까진 수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자기들한테도 편하죠. 괜히 신문사 들쑤셔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모멸감을 많이 주잖아요. 가장 모욕적인 행위라고 느꼈던 일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얘기하든 '맞습니다'라고 답해야 했어요, 반항을 전혀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공포스럽고 모욕적이죠. 일상이 고문이었어요.
수사 끝 무렵에 나온 이야긴데, 수사관들이 복사기에서 인쇄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네 아기가 좋냐?"고 말해요.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가 월요일쯤 잡혀갔는데, 직전 주말에 집 2층 베란다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수사관들이 가족을 감시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을 주던가요?
내 정보를 입수한 후에 신문사나 집 주변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건데, 아주 치 떨리죠.

담당 수사관은 몇 명이었어요?
두세 명이었나? 김태홍, 신홍범 선배를 다 같이 조사한 팀이었을 거예요. 제 전담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여럿이 오가면서 물었어요. 제게 주로 윽박지르고 고통을 가한 건 전담한 그 수사관이죠.

기자로 일할 때 기관원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원들과 남영동 수사관들이 다른 것이 느껴졌나요?
다르죠. 기관원들은 아무래도 신문사에 떳떳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머쓱해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쪽에서 뭐라고 해도 아무 말 못 했어요. 그런데 남영동 애들은 완전 강압적이에요. 수준이 다르죠.
언론사에 오는 기관원들도 각자 소속기관이 달라요. 경찰, 군인, 국정원도 있고 언론인 출신으로 구성된 문공 홍보조정실 직원도 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보도지침 내리고, 지켰는지 감시하고, 기자들 사찰하면서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요. 한국일보는 MBC 기자 출신 문공 홍조실이 담당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여기 왜 왔냐"고 면박을 줬더니, 양심은 있었는지 밖에 나가서 술 잔뜩 먹고 다시 편집국으로 들어와서 편집부 국장에게 하소연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영동은? 그런 거 전혀 없죠.

수사관 중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박처원이요. 당시엔 몰랐지만, 나중에 박종철 사건 때 신문에 난 얼굴을 보고 알았죠. 그때는 '전무님'으로 불리더라고요. 포스가 있고 얼굴이 좀 컸어요. 다른 수사관들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박처원이 대공분실에 오는 날이면 방마다 다 돌아다녔어요.
박처원이 저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가끔 신문사의 젊은 기자들과 기자협회 성명을 발표했어요. 자유언론선언이라고 해서 '기관원과 개는 출입금지'라는 팻말 붙여놓고 기관원들의 편집국 출입을 막았죠. 그때는 보안사를 포함해서 총 일곱 명의 기관원이 편집국에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기관원들이 편집국에 올 때마다 제가 "여기 왜 오냐"고 뭐라 하곤 했거든요. 박처원이 그걸 다 알고서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우리 요원들 괴롭히는 놈들이다"는 식으로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지하철 소리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남영역 근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창

문에 커튼이 쳐 있지만 환풍구로는 햇빛이 새어 들어오니깐 시간이 가는 건 알죠. 가끔 까치도 울고 그랬어요. 그땐 '저들은 자유로운데 나는 왜 여기에 있나'라고 생각했죠.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바로 근처에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을 줬나요?
공포감 비슷한 거죠. 남영동 대공분실은 겉으로 보면 무슨 멋있는 호텔 같잖아요. 거기가 무시무시한 공간일 거라는 생각은 못 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그 시내 한복판에서 고문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공포죠.

취조실에서 생리현상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취조실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갔어요. 이동할 때는 전경이 딱 따라붙죠. 문도 그쪽에서 열고 닫아요. 화장실 창문은 철창으로 다 막혀 있어요.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을 마주쳤던 기억도 없고요. 세수는 물수건 같은 거 주면 얼굴을 문질렀던 기억밖에 안 나네요. 그저 의자에 앉아서 눈치 보면서 조금 졸기도 하고, 조금 진술서 쓰고. 화장실 가겠다고 하면 나갔다 오고. 걔네가 곰탕이나 밥 시켜주면 그거 먹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간 걸 알았죠.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는 언제 넘어가셨나요?
3, 4일 지나서 갔는데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잠만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남영동 대공분실로 와서 조사받았어요. 그때도 차는 까맣게 선팅돼 있고, 고개를 숙이게 하니 밖은 잘 안 보였어요. 여기에다 계호까지 해서 이동하니까요. 그렇게 다시 대공분실 취조실 가면 주먹으로 맞고, 발길질 당하고 그랬죠. 각목을 쓰진 않았는데, 이유를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상처를 내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언론탄압 상황에 관심이 큰 시기였어요. 우리가 잡혀 있을 때만 해도 세계기자협회나 엠네스티에서 기자들 석방하라고 성명서 발표하고 시위하니깐 그나마 함부로 못 한 거 같아요.

유치장으로 옮겼을 땐 어떠셨어요?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선 그래도 잠은 잘 수 있으니깐 낫죠. 변호인 접견도 가능했어요. 국정원장 지냈던 고영구 변호사님이 왔는데,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이 됐죠. 또 우리 신문사 경찰 출입기자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일주일 만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아내를 만나니 뭉클했죠. 보도지침을 폭로한다는 사실을 미리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수사관으로부터 검찰로 송치된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나요?
영장 발부됐다고 말하더군요.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니 '살았다' 싶었어요. 구치소로 가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장받으니까. 구치소 가기 전에 드디어 두 선배도 만났어요. 서울지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각 경찰이 모이는 구치감이 있어요. 먼발치에서 대화는 못 나누고, 얼굴만 본 거지만 정말 반가웠죠. '멀쩡하게 살아 있구나!' 안도했죠.

기자라서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수사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기자를 대공분실로 끌고 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돌아가신 분들에 비하면 다행이죠. 그나마 기자들에게 함부로 못 했던 건 미국 뉴스페이퍼길드 등에서 항의 시위도 하고, 전두환 정권에 항의 편지도 엄청나게 보냈어요. 국제적인 운동으로 번져가니깐, 치안본부에서도 함부로 다루진 못했던 거죠.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한국일보에서 해고당하진 않으셨죠?
중정에서는 한국일보 김창영 사장에게 계속 해고하라고 압박했는데, 김창영 사장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잖아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가 남아 있으니 아직 유죄가 아니'라고 맞섰나 봐요. 하지만 실제로는 해고 아닌 해고 상태가 긴 시간 이어졌고, 1987년 6월항쟁 이후에 복귀했어요.

보도지침 재판결과 결국 무죄가 나왔지요?
보도지침 사건은 1998년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됐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판사들이 서로 재판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사이 재판부도 네다섯 번은 바뀌고, 이렇게 2심을 오래 끈 재판은 없을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는 데 9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항소심에서는 세 명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로 걸린 루카치 책도 모두 무죄.

'남영동 대공분실'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요?
과거 인권탄압의 상징, 고문 조작을 했던 기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국민 민주교육의 장으로 바뀌어야 해요. 그냥 건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고, 어떻게 진실이 조작되었는지를 얘기해야죠.

출소 이후에 대공분실을 가보셨어요?
싫어요. (고개를 계속 저음) 안 가봤어요. 거기 가면 또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려야 되고 자연스레 떠오르니까요.

어떤 기억이 싫으신가요?
처음에 꼼짝 못 하고 끌려간 것, 걔들이 때리고 겁주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불쾌하죠. (멈칫하다가 말을 이음) 남영동은 떠올리기가 싫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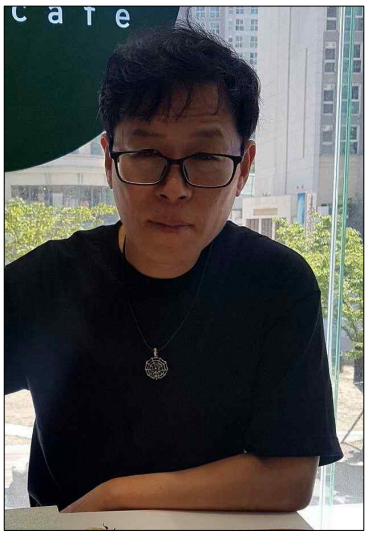
이후에 다른 분들에게 남영동이나 고문 이야기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청문회를 포함해서 몇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태홍 선배 살아 계실 때는 셋이서 자주 만났거든요. 김태홍 선배가 잡혀갈 때 재밌는 상황이 있었다고 했는데 자세히 듣진 못했네요.

지금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어떠세요?
가끔 꿈에 나타나요. 깜짝깜짝 놀라죠. 조사받고, 맞는 장면이 떠올라서요. 자주 나타나는 건 아니고 가끔 자다가 깨곤 했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 마음이 어떠세요?
꿈속인데도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얼굴이 커다란 괴물이 나오는데 그게 남영동인 거죠. 얼마 전까지도 꿈에 계속 나왔는데 최근엔 조금 괜찮아졌어요.
한편 다른 해직기자들은 경제적 상황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해직된 게 아니라서 그나마 괜찮지만, 보통 강제 해직된 후에 버젓한 직장을 잡기 어려웠어요. 공안당국이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다른 데 취업 못 하게 막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들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김주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민주언론운동가'죠. 이후에도 언론개혁운동을 계속했으니까요. 전 후회가 없어요.

심층 인터뷰 8



황인욱
1986년 서울대 대자보 사건

2018.8.22. 14:00~17:00

오랜만에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는데 마음이 어떠셨나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사건 당시 고문 수사기관을 세 군데나 거쳤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이후 다른 사건으로 안기부에서도 조사를 받아서 남영동 대공분실의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삶을 옥죄지는 않아요. 다만 종철이가 죽기 불과 두 달 전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았어요. 결국 저는 살아남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운명이 달라졌다는 게 참 그래요. 현장에 다시 가면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 싶고.

남영동 대공분실로 강제연행 된 날짜가 1986년 10월 28일이신가요?

아마 29일 밤쯤일 거예요. 그때가 건국대학교에서 애국학생투쟁연합 발족식을 경찰이 이틀째 봉쇄해서 점거농성이 이어지던 시기였어요. 저는 그때 '서울대학교 대자보 사건'으로 수배돼 있었는데 나중에는 '구국학생연맹' 조직사건으로 묶였어요.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후배의 작은 자취방을 거처 삼아 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방에 들어가니 형사들이 잠복해 있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몸이 왜소하고 얼굴도 고등학생처럼 어려 보여서 경찰 앞을 지나가도 못 알아보고 그냥 놓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취방으로 온다는 확실한 정보를 얻은 후, 잡으러 온 거죠.

'서울대 대자보 사건'을 설명해주세요.

당시 제 기억으로 평양방송에서 <민주조선>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북한이) 서해에 대규모 갑문 건설을 하기 위해서 휴전선 부근의 군 병력 약 10만 명을 후방으로 철수했다"고 보도했어요. 저는 보도된 원문 그대로 대자보에 실었고요. 당시 정부

는 북한이 계속 휴전선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이와 반대로 북한의 휴전선 병력이 대거 후방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평양방송을 원문 그대로 올리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북한의 보도 내용을 전재했다고 그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겁도 없이 한 차례 더 대자보를 붙였어요. 당시 반공 분위기에서 제가 좀 순진했던 거죠. 사건이 더 커져서 필적 감정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탐문수사를 하다가 사회대에서 대자보를 붙인 친구들이 먼저 체포됐죠. 여기서 제가 내용을 전달한 사실도 밝혀졌고, 결국 마지막으로 붙잡혔어요. 당시 언론 발표 내용에는 제가 '구학련' 조직부장으로 나오는데, 저는 사실 단과대 책임자였어요. 조직부장은 중앙위원급에 해당하는데, 저는 중앙위원회에 간 적도 없고 재판과정에서도 거듭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안 받아들여졌어요.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온 건가요?
세 명의 남자가 저를 붙잡아 '시경 안가'로 데려갔어요. 누가 말해준 건 아닌데 시경이 관리하는 조사공간이라는 건 확실했어요. 수사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밀실 같은 곳인데, 여관방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 욕조가 하나 딸려 있어요. 가자마자 고문을 시작했죠. 상당히 공포스러웠어요. 초동 수사과정에서 제압하려는지 엄청 겁을 줬거든요.
먼저 수갑을 손과 발을 엇갈리게 해서 채워요. 왼쪽 손과 오른쪽 발에 채우는 식이죠. 그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머리를 잡고 욕조에 처박아요. 그런데도 제가 말을 안 하니깐 "이 새끼, 그래도 안 불어?" 하면서 욕조 물에 고춧가루를 풀더라고요. 다음에는 갑자기 휘발유 냄새가 확 올라와요. 이번엔 욕조에 기름을 푼 거예요. 기름 물에 다시 얼굴을 처박게 하는데, 기름을 얼굴에 뒤집어쓰니깐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옆에 있던 때밀이 수건하고 양말을 내 입에 물리고요. 학대당한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냥 물고문도 모자라서, 거기에다 고춧가루와 기름을 푼다는 게 참. 자기네들이 원하던 게 안 나오니까 별짓 다 한다, 너무한다 싶었어요. 그때 나이가 열아홉 살, 참 어렸는데. 정말 겁났죠.

여관방 같은 데서는 얼마 동안 붙잡혀 있었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하루 이상은 됐어요. 그다음에는 보안사로 간 것 같아요. 눈을 가린 상태라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도착하니 군복 입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보안사인가 했죠. 들어가자마자 군복으로 갈아입게 하고, 하얀 고무신을 신게 했어요.

거기 취조실은 아주 빨개요. 녹음실처럼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흡음판이 벽에 붙어 있고.
"노동당원증 내놔!" 황당하게도 첫 질문이 그래요. 참 어이가 없었죠. 저한테 그런 게 있겠어요? 이후에는 '빨갱이 새끼' 그러면서 의자 던지고, 재떨이 던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군인들이라서 그런지 무조건 패고 두드려 잡아요. 물고문은 없었지만, 잠은 한숨도 못 자게 했어요. 자술서 쓰다 졸면서 꿈에서 본 프로야구 이야기를 적었다가 무지하게 맞은 기억이 나요. 그때 밥 갖다 주던 어린 군인이 있었는데 저를 되게 측은한 눈으로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보안사에서는 사흘 정도 조사받고 남영동으로 보낸 것 같아요.

대공분실 도착한 이후 상황을 기억해보실까요?
여기도 눈을 가린 상태로 올라갔어요. 철제계단인지 엘리베이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는데, 지들이 먼저 "여기 치안본부다", "여기 남영동이다"라고 밝히면서 겁주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옷부터 벗겼어요. 나중에 옷을 주긴 했는데, 고문을 쉽게 하려는지 잘 벗겨지는 얇은 옷이었어요. 보안사와 비슷한 군복 계열이었고 커다란 고무신을 신겨요. 혹시라도 도망쳐서 거리에 나가면 조사받다 온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고요.

취조실 내부는 어땠나요?
남영동은 벽이 오렌지색이었어요. 박종철이 고문받았던 방의 욕조 타일처럼 오렌지빛. 보안사의 붉은 방과는 확연히 다른 색이었어요. 보안사처럼 흡음판이 붙어 있고요. (직접 그림 그리면서 설명) 문이랑 욕조는 이렇게 있고, 창문은 아주 좁고. 철제책상이 있었어요. 침대는 일인용 매트리스가 하나 올라갈 크기고요.
문 위쪽에 까만 플라스틱 판이 비스듬하게 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 CCTV가 있을 것 같았어요. 까만 플라스틱 같은 게 거기 달려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 감시 장치라고 생각했죠. 수사관들이 제 진술서를 일부러 책상에 두고 나가고 그래요. '진술서를 왜 두고 나가지? 이놈들이 나를 시험하나?' 생각하면서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CCTV 같은 게 저쪽에서 나를 지켜본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더라고요.

무엇을 추궁했나요?
'서울대 대자보' 수사보다는 구학련 관련자가 더 있는지, 다른 대학과의 연계를 찾는 데 집중했어요. 우리 집안에 대한 자세한 자료도 가지고 있고.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제 외삼촌이 6.25전쟁 통에 행방불명 됐는데 그거 가지고 부역자, 빨갱이 집안 취급하더라고. 우리 형(황인오) 얘기도 하고. 어떤 수사관이 "니 형, 내가 잘 알지. 형 대단한 놈이더라"고 말하는데, 대단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당시 분위기에서는 형한테 고문을 엄청나게 했는데 잘 버티더라는 이야기로 들렸어요.

고문 수사관이 형(황인오) 얘기를 할 때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형이 고문받은 얘기를 지하운동권 팸플릿에서 읽은 적 있어요. 되게 충격받았죠. 그런 이야기를 인오 형한테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감췄거든요. 이미 형의 고문에 대해서는 팸플릿 읽으면서 충격을 받을 만큼 받은 상태였으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리 놀랍진 않았어요.

끌려가기 전 남영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남영동에 대공분실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죠. 거기 가면 어떤 수사를 받는지는 몰랐어요. 팸플릿에서 인오 형 고문기록을 봤을 때는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장소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장소보다도 형을 비롯한 우리 가족이 이런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죠. 그런데 수사관들이 "너희 형도 여기 다녀갔어"라고 말해서 확실히 안 거예요. 우리 형도 남영동 대공분실에 있었구나, 이 사람이 우리 형을 고문 수사한 사람이겠구나 했고.

수사관들이 '나'를 많이 알고 있어서 더 공포스럽진 않았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게 첫 고문이라면 몰라도, 두 개의 수사기관을 거쳐 남영동으로 왔잖아요. 이미 한바탕하고 나서일 수도 있고. 집안 이야기하고 형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오히려 버티는 힘이 됐던 거 같아요. 수사관들도 형을 인정한다고 생각했죠. 형이 대단한 고문을 겪었고, 형도 나처럼 잘 견뎌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린 마음에 동지애 같은 걸 느꼈죠.

수사 자체가 곧 고문 상태였겠어요.

예. 고문은 상시적으로 이뤄졌어요. 수사와 고문이 분리돼 있지 않거든요. 수사하다가 안 되겠으면 "너 일어서!" 하면서 옷 벗기고 욕조로 들어가게 해요. 고문을 알아챌 전조 같은 건 없어요. 느닷없이 닥치고, 느닷없이 사라지니깐. 처음에는 샤워기로 물만 뿌리는데, 그것만으로도 온몸이 벌벌 떨려요. 그러다가도 말 안 하면 "이 새끼 안 되겠어. 지하실로"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취조실에서 데리고 나가요. 안대를 했으니 앞은 안 보이고, 양쪽에서 팔짱을 껴서 결박했고, 몸은 완벽히 젖었

고. 그렇게 공포 속에서 빙글빙글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간 건가요?
실제로 지하실에 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에서 오는 공포가 너무 컸어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너무 끔찍하니깐 무슨 대답이라도 해서 넘기려고 "다 말하겠다"고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고, 그럴듯하게 진술하면 그냥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물고문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일단 옷을 벗기고 샤워기로 물을 뿌려서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게 만들어요. 실제로도 매우 춥고, 공포스러워요. 이게 물고문 가기 전 단계예요. 그리고 등 뒤로 손을 넘겨서 수갑을 채운 채로 머리를 욕조에 박아요. 세 번 이상은 받았던 것 같아요.
박종철의 경우, 욕조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고 욕조 밖에서 몸을 눌렀어요. 물고문이 시작되면 내 의지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걔들이 꺼내줘야 하잖아요. 강한 힘으로 눌러대는데 꼼짝 못 하고 그냥 물 먹는 거죠. 몸은 묶여 있고 손을 쓸 수 없으니 머리를 흔들면서 죽겠다고 표현해요. 그럼 자기들이 계산해놓은 적당한 시간에 빼는 것 같아요. 어쩌다 계산을 잘못하거나, 순간의 감정을 주체 못 하거나, 당하는 사람이 호흡을 까딱 잘못해서 기도로 물이 넘어가면 사고가 나는 거죠. 종철이 경우도 그랬죠. 그들에게는 사고였을 거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운 좋게 그런 사고를 안 당한 것에 불과하죠. 종철이가 고문으로 살해당한 다음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죽음의 기회는 상존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느꼈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고문이죠.
사람에 따라 충격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공포영화를 보고 자지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덤덤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고문은 그런 차이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모르니깐 지들이 알아서 강도를 조절하죠. 심리적인 위협만 해도 진술이 나오는 애들은 그 정도만 하고, 계속 진술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 진술과 비교해서 맞지 않으면 "이 자식 안 되겠다"며 물고문하는 거죠.

전기고문도 당하셨나요?

전기고문까지 실제로 가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전기고문 위협을 받았어요. 욕조가 달린 취조실을 두고 "이 자식 안 되겠어. 지하실로 데려가!"라고 말할 때 남은 건 전기고문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도 그런 암시를 여러 번 했죠. 그러니 거기까지 안 가려고 애쓴 거죠. 눈 가리고 벌벌 떨면서 전기고문이 예정된 지하실400)을 향해 계단을 빙빙 돌아 내려가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계단을 끝까지 내려간 적은 없고, 내려가다가 진짜로 겁나서 도망친 거예요.

달래고, 회유하는 수사관도 있었죠?

회유하는 수사관들은 늘 있어요. 상담해주는 것처럼 저를 편안하게 대해줘요. 굉장히 따뜻해서 울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죠. 성격이 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작전인 것 같더라고. 다정하게 동생처럼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봐야 너만 힘들어"라는 식으로 달래줘요. 수사받는 팁이라면서 "니가 아는 것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몇 개 꺼내놓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유도신문이죠.

각자 역할을 나눠서 고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네요?

웃긴 건 다음에 들어오는 수사관은 항상 강압적으로 대해요. 때리고, 달래주고, 때리고, 달래주고. 이런 수사를 반복하는 거죠.

잠은 좀 잘 수 있었나요?

잠은 거의 못 자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고문이 있으니깐 그 당시에 잠 안 자는 건 고문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일상 같아요. 잠자는 시간을 따로 줘놓고는 수시로 와서 막 깨워요. 수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요. 지들은 교대하면서 잠도 자는데, 우리는 들어오는 수사관마다 취조해대니까 못 자죠.

평소에는 담당 수사관이 몇 명 있었나요?

세 명 정도 있었는데, 특별한 기억은 없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다 보니 수사관 이름도 알 수가 없죠. 걔네가 명찰 달고 오는 건 아니니까. 진술서 마지막에 경감, 경사들이 사인하는데 그걸 눈여겨볼 생각도 못 했고. 고문 사실을 폭로해서 수사관들을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죠. 운동을 했지만 인권의식이 약했고 솔직히 개념도 없었어요. 독재정권에 맞서다가 고문받는 건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고, 그냥 견뎌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400) 실제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지하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관에 대해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세요?

남영동에 '백대가리'라고 있었어요. 머리가 새하얘서 수사받는 학생들 사이에서 백대가리로 통했거든요. 일선 수사관이 아니라 경감 정도 되는 지휘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취조실에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사관들이 정자세로 서 있고, 백대가리는 "이 새끼는 누구야" 하면서 몇 마디 묻고 그래요. 백대가리가 내려온다는 건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자는 걸 깨워서 갑자기 질문을 하고 다그치는데,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워요. 지금까지 나를 고문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자세로 정렬해 있는 상황 자체가 두려웠어요.

또 하나, 취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에 사상전향 면담 같은 걸 해요. 교수 같은 전문가인데, 유리창이 넓은 상담실 같은 데 따로 불러다가 저하고 사상논쟁을 하기도 하고 내 사상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그랬어요.

시경, 보안사와 비교해서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어떻게 다르던가요?

초동수사를 했던 시경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집약적으로 물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이 가장 컸어요. 보안사에서는 무식하게 패기만 했을 뿐 질문도 노동당원 운운하면서 황당하기도 했고, 물고문이 없어서 조금 나았고요. 의자로 찍고, 재떨이 던지고, 두드려 패고 그렇게 무식하게 다뤄요. 저는 사북 탄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폭력에 굉장히 익숙해요. 성장과정에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을 자주 봐왔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런데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왔을 때는 '야, 얘네들은 진짜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통을 아프게 겪는 것보다는 잔인한 게 심리적으로 더 힘들거든요.

어떤 점을 '잔인하다'고 느끼셨나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놀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달래고, 어르는 수사관의 방식이 상당히 정교했어요. 어떤 때는 겁을 막 주다가, 어떤 때는 달래고 위로하다가도 갑자기 뒤집어엎는 수사를 베테랑처럼 했어요. 긴 시간 계속해서 자백 받아내려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도 잔인했어요.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회전계단을 내려가던 상황 자체가 살 떨렸던 거죠.

어떤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나요?

모든 것이요. 사건의 사실관계일 수도 있고, 학생운동 전반의 분위기도 알아내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인문대를 하나의 타깃으로 정해놓고, 나와 관계없는 사

실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가 아는 인문대 운동권 애들 아는 대로 대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뭐라도 적어야 하니까 실제로 관계없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했어요. 일단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니까요. 진짜로 말했다가는 재깍 수사에 들어갈 테니까. 별일 없겠지 하고 말했다가 잘못돼서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는 운동가들도 당시에 많았어요. 배신을 강요하던 시절이었죠. 고문을 수단으로 동지를 배신하도록 강요하면서 선한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던 야만의 시대.

사람 심리를 가지고 고문하는 것이 더 괴로우셨나요?

그렇죠. 그게 수사기법이에요. 자백을 유도한 후 퍼즐처럼 사실관계를 맞춰가는 방식이요. 다른 사람의 진술서를 토대로 더 많은 사실을 캐내려 할 때는 정말… 관련자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한 명을 막 고문하다 보면 새로운 정보가 하나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진술서를 다른 사람한테 가져가요. "얘는 그렇다고 하는데 왜 너는 부인하냐" 하면서 고문하죠. 고문받다 보면 누구 하나는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맞추는 거죠.

내가 안 불었던 사실이 다른 방에서 나오고, 반대로 그쪽은 안 불었던 사실을 저는 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이 붙어요. 여러 방에서 나온 정보는 중앙에서 하나로 모으고, 빈틈도 찾아내죠. 중앙에서는 누구를 더 수사할지, 고문할지 방향을 정한 후 조사관들이 다시 취조실로 내려와요. 그럼 또 진술시키고 또 고문하고.

'시도 때도 없이 조사한다'는 의미가 그것이군요.

네. 다만 제가 그때 심리적인 충격이 덜했던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내용은 제가 진술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술을 추인하는 정도였어요. 제가 진술해야 할 결정적인 것들이 적었죠. 나는 안 불고 버텨내는데 자꾸 다른 사람 진술을 들이대고, 말 맞추다가 안 되면 지하 내려간다고 협박하고, 제가 "맞습니다" 하면 다시 올라오고. 하지만 먼저 끌려온 후배들은 나보다는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거듭 강조하는 "나는 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돌아보면 약간의 자만심일 수도 있어요. 제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요. 그때 구류 며칠 살고 나와서 운동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불법연행 되어서 유치장에 며칠 갇혀 있는 자체가 공포스러웠던 거죠.

그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견뎌내다 보니, 자신감을 넘어 일종의 자만심이 생겼던 것도 같아요. 주변에 보면 운동을 그만두기도 하고, 흔들리거나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저는 견뎌냈다고 생각하고 더 심각한 저항운동을 계획하는 거죠. 그때는 '나는

원래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나 봐요.

혹시 검찰 조사과정이나 재판 중에 수사관들이 찾아온 적은 없었나요?
검찰에 온 적 있어요. 보자마자 그 사람인지 알아봤죠. 제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왔던가, 겁주려고 왔던가 그랬어요. 저도 다시 남영동으로 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걔들이 경고한 건 지키려고 했죠. 구치소 가기 직전에도 고문 수사관들이 협박했죠. 검찰 가서 말했던 내용 부인하면 "너, 그럼 다시 수사받아야 한다"고 겁줬죠.

박종철 열사 치사 사건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줬나요?
건대에서 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잡혀와 구속된 살벌한 분위기에서 당시 서대문구치소 독방에서 죄인처럼 고개 푹 처박고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재판을 20여 일 앞두고 박종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늘 보던 친구가 남영동에서 물고문을 받다가 죽었다는데, 저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고문을 겪었잖아요. 게다가 저는 다른 곳에서 기름과 고춧가루를 푼 물에 처박히기까지 했는데, 전 살았고 그 친구는 죽었어요. 그때였어요. 나의 고문 사실도 폭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게요.
바로 단식을 시작했고 법정에 가서 고문을 폭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수십 일 동안 단식을 멈추지 않으니 교도소 내에서도 완전 독한 놈으로 통했죠. 자해도 많이 했어요. 죽을 정도가 되면 그냥 내보내줄 것 같다는 생각도 순진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첫 모두진술에서 고문 사실을 전부 밝혔어요. 그런데 말이죠. 재판장, 검찰,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같은?

아무도 반응이 없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의아했죠. 이 정도 얘기했는데 왜 별 반응이 없지? 단식도 오래 했고, 고문을 폭로했으면 뭔가 반응이 와야 하는데?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이라고 하는데도 기존 진술을 재확인하거나, 추가로 질문하지 않았어요. 고문에 의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훼손된다는 말도 없고요. 저의 모두진술은 그렇게 흘려보내고 검찰 측의 공소사실만 확인하더라고요.
민주주의 의식이란 시대와 함께 가잖아요. 당시 독재정권과 맞서던 민주화운동가들에게도 지금과 같은 인권개념은 없었어요. 그땐 전쟁터에 선 느낌이었어요. 전쟁 중에 총알이 귀를 살짝 스쳐 피가 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봐요. 겨우 이거 가지고

다쳤다고 하소연하기 어렵잖아요. 관통상이나 다리 골절 정도여야 아프다고, 죽겠다고 말하죠. 그러니 그때는 원래 이렇게 재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법부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 파악을 못 하나 싶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불과 한 달 전에 내가 물고문 받은 같은 장소에서 죽었으니, 결국 그게 제 문제였던 거죠. 서울대 인문대를 종철이와 같이 다녔어요. 그 친구는 CA 계열이고 나는 NL 계열이라서 아주 친하진 않았지만, 늘 운동현장에서 얼굴을 봤죠. 노선 나뉘기 전인 1, 2학년 때는 더 자주 봤으니까요. 내가 아는 친구가, 내가 거쳐 온 공간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후 그 친구는 죽고 나는 살아남았다는 감정이 남달랐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더 싸워야겠다고 생각했고.

종철이가 고문으로 살해당했을 때 가해자로 밝혀진 수사관들이 혹시 나를 고문했던 자들인가 궁금했지만, 이름을 모르니깐 확인하기 어렵더라고요. 당시에 교도소에는 신문조차 반입이 안 됐고, 그때 그자들 얼굴도 제대로 공개 안 됐잖아요. 시간이 흐른 후에는 얼굴을 잊었고. 지금 만나도 기억이 어렴풋해서 못 알아볼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수사관들을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증오는 없어요. 저는 정지영 감독의 영화 <남영동 1985>도 덤덤하게 봤어요. 감정이라는 게 이상하죠. 내가 당한 것 같은 장면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 그냥 보겠더라고요. 분명 제가 겪은 일인데도 치 떨리는 감정은 없었어요. 반면에 제 아내 같은 사람은 그런 영화 절대로 못 봐요.

제가 두 번째 사건으로 감옥 다녀온 이후에는 가끔 경기를 일으키곤 했어요. 당시 길거리에서 체포될 때의 장면이 꿈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으면서 "인욱아" 하고 나지막이 이름을 부르던 안기부 수사관의 음성이 딱 들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위가 눌리고, '으으으' 하고 신음소리를 내거나 스스로 느낄 만큼 비명을 지르게 돼요. 이런 모습을 아내가 보고 나를 깨운 게 수십 번은 되죠. 10년 보안관찰을 받는 기간에는 종종 그 꿈을 꿨어요. 보안관찰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안 좋거나, 공안사건 터지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시국이 좋지 않으면 꼭 꿈에서 안 좋은 장면들이 나와요. 다행히 요즘은 안 그렇고.

서울대 대자보 사건 이후에는 단식 후유증으로 위궤양이 생겨서 속이 완전히 나갔어요. 아마 그때도 종종 악몽을 꿨을 거예요. 그땐 내가 자는 모습을 옆에서 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악몽을 꾸는지 증언해줄 사람이 없지만요.

악몽이 곧 고문 후유증이죠.

그렇죠. 고문받는 상황을 포함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잡히거나, 내 마음대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심리적 상황이 모두 해당해요. 가끔 어딘가를 자꾸 맴도는 꿈을 꾸곤 해요. 제가 두 번째 사건으로 교도소에 있을 때, 아내는 혼자 뱃속 아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저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계속 바깥에서 맴돌기만 하고, 가족들을 만날 수 없죠. 그 상황이 반복되다가 허무하게 깨어나요.

꿈에서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를 잃는 게 가장 두려워요. 가장 공포스러워요. 제가 교도소에 보낸 세월이 다 합해서 8년이에요. 감옥에 있는 자체보다는, 내 모든 관계가 박탈되는 것이 무서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것이요. 더 이상 그 두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민주인권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남영동 대공분실 피해자는 어떻게 기록됐으면 하나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우리 가족에 관한 이야기도 없고요. 오로지 언론에 발표된 내용만 사람들의 인상에 남아요. 저는 '서울대에 북한방송을 대자보로 써 붙인 학생'으로만 기억되겠죠?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법정에서도 제가 털어놓는 고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 증언은 다 무시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몇 년에 처한다'는 형만 내렸고요.

그리고 왜 사회는 고문 피해자, 아니 고문 생존자들을 불쌍하게만 보는 걸까요. 정작 '당신들은 잘못한 것 없다. 당당해져라'고 말하는 이는 없어요.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나 부당한 권력이 선량한 시민을 억압하는 것을 알아도, 누가 또 다른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도 난 절대 안 한다고만 하지. 대부분이 과거의 일은 나와 무관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건 이중적인 부정효과죠.

독립운동가의 삶과도 비슷해요. 모진 일제의 탄압에도 독립운동가들은 멋지게 살았고, 고문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파괴되지 않았다고 말해야죠. 삶이 파괴됐다고 한들, 그것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 하고요. 민주화운동가들도 불의에 저항한 사람일 뿐인데, 불쌍한 사람 취급하거나 그저 '비극'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해요. 박종철조차도. 왜냐고요? 박종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변화는 저예요. 고개

푹 처박고 있다가 그 죽음 이후, 재판에서 당당하게 고문을 증언했잖아요. 종철이가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꿨어요. 세월호 이후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박종철 이후 우리 모두는 고문을 피해 안전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8장

문헌 자료를 통한
고문 등 인권 피해자 증언 요약

〈일러두기〉

이 장에서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사받은 이들 가운데 관련자료가 있는 54인의 고문피해 사례를 정리했다.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증언, 발언, 진술을 기초자료로 삼았다. 나이, 직업, 날짜 등 모든 내용은 원 자료 그대로 실었으며, 인용출처는 하단에 표기하였다. 오기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일부 개정 전 표기법(예: -읍니다)은 현행 맞춤법 규정에 준하여 바로잡았다. 그 외에는 원문 그대로 실었으며, 특히 녹취자료의 경우 해당 진술자의 발언을 그대로 두었다.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리영희(1929년생)</td><td>직업</td><td colspan="3">한양대 해직교수</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리영희 필화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77.11.23.</td><td>구속일</td><td colspan="2">-</td><td>기소일</td><td>1977.12.28.</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반공법 제4조 2항</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78.5.18.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대법원 징역 2년 확정</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2010.12.5. 사망</td></tr>
<tr><td>사건
개요</td><td colspan="6">리영희 교수는 조선일보와 합동통신 외신부장을 거쳐 한양대 문리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환시대의 논리」 등을 펴냈다. 이 책으로 당국의 주시를 받았고, 1976년 교수재임용에서 탈락당했다. 「전환시대의 논리」는 유신체제 하에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는데, 박정희 정권은 리영희 저작들을 대학생 '의식화'의 바이블로 간주했다.
1977년 9월에는 「8억인과의 대화」(창작과비평사), 「우상과 이성」(한길사)가 출판됐는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8억인과의 대화」이다. 공안당국은 "중국대륙에서의 공산혁명의 필연성 내지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중공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잘못 평가된 것이라는 번역자의 의견을 삽입하지 않고 중공의 경제 활동을 찬양하는 등 중공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리영희 교수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서울지방검찰청 77형 제65795호 반공법 위반 사건 공소장;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민가협 편, 2003., 119쪽.)
그러나 두 책에 실린 글들은 저명한 외국인 학자들의 중국에 관한 글로 대부분 과거 10여 년간 '세대', '대화', '창작과비평' 등에 게재된 것으로 당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자 리영희 교수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 1970년대 사건 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694쪽.)
리영희 교수는 1977년 11월 23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20일간 조사를 받았고, 12월 28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기소되던 날, 그의 모친은 세상을 떴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지 못했다. 2년형을 선고받은 리영희 교수는 만기를 다 살고 나서야 1980년 1월 9일 출소했다. 리영희 교수는 1964년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 시절 '남북한유엔동시가입안' 관련기사로 남산 중앙정보부에 체포, 구속된 사례를 포함, 총 5차례에 걸쳐 구속되었다. 2차례는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다.</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나를 연행해놓고 그 뒤에 나의 서재를 샅샅이 뒤져서 한 가마니의 책과 서류들을 훔쳐 갔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갔지요. 용산구 남영동, 전철 1호선의 남영역 한편을 높은 광고 간판 같은 것으로 길게 가린, 그 아래 너비가 10센티미터 정도인 좁은 창문들이 뚫려 있는 5층짜리 누런 벽돌 건물이에요. 나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남영역을 지날 때마다 소름이 끼쳐서 눈을 감아요. …
남산의 중앙정보부나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나, 인간 취급 안 하는 것은 똑같지요. 밤을 새워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신문조서를 꾸며야 하니까, 식사니 뭐니 그런 것은 아예 이</td></tr>
</table>

	야깃거리가 되지 않지요. … 당시의 정보부나 군 수사대에 끌려간 사람들의 취조과정은 다 비슷했겠지요. 모든 것이 다 고문이지. 사흘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4명의 대공반 수사요원이 번갈아가면서 심문을 하지요. 자기들이 미리 짜놓고 요구하는 답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같은 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몇백 번이고 반복합니다. 결국 누구나 지쳐버리게 되지. 무지막지한 고문이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대적 좌절감과 공포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버틸 장사가 없어. 나흘 닷새 지나면 결국은 요구하는 대로 대충 쓰게 되지요. 끝내는 대충 그자들이 각본을 짰던 대로 무인을 찍어주게 돼요. 우선 살고 보자는 생각에서. … 나는 당시 대학생들이 남영동의 대공반 그 조사실에서 당했던 물고문, 전기고문 같은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고문은 별로 안 당했어요. 김근태(金槿泰, 현 보건복지부 장관) 학생이 당한 그런 고문은 안 당했어. 수없이 위협은 당했지만 내 몸에 물리적으로 손을 대진 않더군. (리영희·대담 임헌영, 「대화」, 한길사, 2005년, 472~475쪽.)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개요

구자춘 내무부장관은 1979년 10월 9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위대로서 폭력에 의해 적화통일을 기도해 온 대규모 반국가조직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을 적발, 일당 74명 중 총책 이재문 등 20명을 검거하고 54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남조선해방전선 25명 추가 검거 한 명 자수”, 동아일보, 1979.10.16., 1면.) 이어 1979년 11월 13일 치안본부는 모두 7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하면서 “북괴와 연결된 간첩단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남민전 조직 일망타진”, 매일경제, 1979.11.13., 7면.)

검찰은 남민전이 표방한 연합정권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적 체계”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의 “민주연합정권”을 북한이 제시한 “인민민주주의 정권”과 동일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재문 등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약 2개월간 가혹한 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했다. 당시 사건 변론을 맡았던 조준희 변호사는 “남민전의 강령은 이들의 조직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통일지향의 집단이었을 뿐 사회주의적 혁명집단이 아니었음을 잘 드러내주는 구체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실제 공소장을 살펴봐도 남민전이 실제로 벌였던 활동은 약 10회에 걸쳐 대학가, 시내 요소 등에 박정희 유신독재를 타도하자는 유인물 약 5만 부를 살포한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주로 ‘유신철폐’와 ‘긴급조치 해제’, ‘통일’과 ‘민중생존권 확보’ 등으로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남민전에 연루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최석진은 “70년대 말의 암울한 상황에서 사회주의를 거론하거나 친북한적 언행을 자주 사용했다면 그렇게 많은 수의 동료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을 수 없었을 것 … 당시 남민전이 다른 재야운동과 달랐던 게 있다면 유신체제를 뿌리째 뒤엎으려는 생각을 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들이 폭력혁명론자들로 비난받게 되는 구체적 근거였던 이른바 ‘땅벌작전’(동아건설 최원석 사장 집 강도사건) 등도 검찰 쪽이 주장했던 ‘자력갱생을 통한 투쟁자금 조달’의 성격보다는 ‘재벌들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강했다는 게 관련자 대부분의 증언이다. (윤석인, “통일로 가는 전환시대 문제의 공안사건을 점검한다 (2)70년대 말 ‘남민전 사건’”, 한겨레, 1988.12.08., 5면.)

법원은 남민전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인정, 이재문·신향식에게 사형을, 안재구·최석호 등에게 무기형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의 구속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기준)

이름	이재문(1934년생)	직업	남민전 중앙위원
사건명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체포일	1979.10.4	구속일	-	송치일	1979.12.7.
적용 법조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재판 결과	1980.5.2. 1심 사형 1980.9.5. 2심 상동 1980.12.23. 3심 상동
재심 여부	-	상황	1981.11.22. 옥사

고문 피해 진술

조직 총책으로 발표된 이재문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달여간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그 후유증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1981년 11월 22일 운명했다.

이근안은 이재문이 검거 당시 자해를 해서 몸이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재문이 직접 이야기한 점, 구치소에서 이재문을 면회했을 때에도 입회 교도관 몰래 이재문이 고문을 당했다는 동작을 취했다는 이재문의 조카 이남진의 진술, 이근안이 자기를 고문하면서 “너 이 새끼야, 너희 수괴 이재문이도 나한테 죽다 살았어, 인마. 골병 많이 들었을 거야”라고 말하고, 자신을 패대기친 이후에 나중에 깨어나니까 또 “이재문이도 개구락지 여러 번 됐어”라고 말했다고 하는 금종삼의 진술, 남영동 대공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들이 모여서 “5층에서 무술 경찰관들이 이재문을 마치 개구리를 집어 던지는 것처럼 집어 던지면서 고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김영옥의 진술, ‘칠성판’이 있는 남영동 조사실에서 이근안이 자신에게 “얼마 전까지 너희들 수괴 이재문이 여기서 당했는데, 너도 당해 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는 고문이 전문이어서 여기서 모셔왔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민학련’ 관련자 박*옥의 진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담당경찰관이 이재문이 그 정도 당했으면 골병이 들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나강수의 진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유*방이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재문이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2000.10~2002.10) 제3부: 개별 사건 보고, 650~651쪽.)

남민전 관련자들 대부분은 불법 연행된 이후부터 가족들에게 전혀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황하에서 40여 일 동안 불법구금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끌려 다녀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숱한 고문과 살해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은 정식 구속 송치된 이후에도 가족 면회가 불허된 상태에서 변호사의 접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법 연행된 지 넉 달 만에, 정식 구속된 지 석 달 만인 80년 2월 3일 첫 공판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첫 공판이 시작되어도 가족의 접견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재판부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가족들과 민주인사들의 항의농성과 탄원에 의해 접견 금지가 해제되었다. …

옥중에서 병사한 이재문 씨(당시 45세)의 죽음 또한 고문에 의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의문

	의 여지가 없다. 45세의 건장한 남성이 구속된 지 2년밖에 안 되어 죽은 시체로 나왔다는 일은, 고문이든 갑작스런 병으로 인한 죽음이든 사회적인 살인임에는 분명하다. 이재문 씨는 재판정에서도 고문 사실을 어느 정도나마 증언했는데 그에 따르면 "내가 연행되자 유도 8단이라는 건장한 남자 대여섯 명이 나를 이리 메치고 저리 메치고 집어 던졌다. 심지어는 접골사를 불러 관절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고문했다"고 고발했다. 81년 11월 22일 서울구치소에서 병사한 그가 발병한 것은 겨우 2개월 전. 당시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상선 박사(내과)의 구치소 내 검진결과는 위궤양, 다시 병이 악화되어 국립경찰병원에 이송되어 검진했을 때 담당 내과의는 "이 병은 수술이 용이한 '유문부 협착'으로서 수술로도 금방 완치가 된다"고 가족에게 증언했다. 쉽게 치유가 가능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로 다시 이송된 이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두 달 만에 결국 병사하게 되었다.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거름, 1987년, 225~228쪽.)

이름	최석진(1944년생)			직업	한국경제발전위원회 연구원 고려대 경영학과	
사건명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체포일	1979.10월 말	구속일	-	송치일	-	
적용 법조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재판 결과	1980.5.2. 1심 사형 1980.9.5. 2심 무기징역 1984. 형집행정지		
재심 여부	-		현재 상황	푸른누리 공동체		
고문 피해 진술	재판정에서나마 5개월여 만에 구속자들을 보게 된 가족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통하여 구속자들에게 자행된 고문의 실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건장하던 청년이(최석진 씨의 경우) 그 몇 달 사이에 온몸에 기브스를 한 채 오줌통을 매달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가 하면, … 조사과정 중 고문으로 불구가 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최석진 씨(당시 29세)다. 그는 체포 직후 북부경찰서에서 전신을 꽁꽁 묶인 상태에서 무려 3시간이나 집단구타를 당하면서 나머지 관련자를 대라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본부로 가서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하기 전에 여기서 부는 게 좋다. 누구누구도 거꾸로 매달고 두들기니 다 불더라”는 등 협박도 하고 “어차피 남영동에 가서 똥물을 올리며 부느니 여기서 얘기하면 덜 당하게 해 주겠다”는 등 회유를 하면서 몽둥이로 등을 쳐서 척추에 격렬한 통증을 느끼면서 남영동으로 끌려갔다. (그의 척추골절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 그는 이왕에 죽을 바엔 고문당해 죽는 것보다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남영동에 도착한 얼마 후 3층에서 뛰어내려 기절했다. 경찰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양쪽 다리가 부러지고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몸으로 추운 겨울에 불도 없는 감방에서 생활하는 중에 신장염이 발병하고 피고름이 쏟아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으나, 서울구치소에선 골절후유증이라 하여 제대로 치료를 해 주지 않아 결국 만성신장염으로 이행, 평생을 고생하는 신세가 되었다.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들것에 실려 다니며 재판을 받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으며, 목발을 짚고 수형생활을 하며 만성신장염과 싸우는 그의 모습은 구속자뿐만 아니라 교도관들로부터도 많은 동정을 샀다. 다행히 뒤늦게 당국도 도저히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긴 했으나 현재도 척추골절과 다리골절 후유증으로 하지마비가 잦고, 보행에 불편을 느끼며, 만성신장염으로 인하여 언제나 안정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거름, 1987년, 226~227쪽.)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김재술(1950년생)</td><td>직업</td><td colspan="2">남민전 가입
도서출판 일월서각 영업부장</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79.10.8.(1일)
1979.10.9.(옥인동 시경분실 이감)</td><td>구속일</td><td colspan="2">-</td><td>송치일</td><td>약 40여 일 후</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반공법 및 국가보안법</td><td>재판 결과</td><td colspan="2">1980.5.2. 1심 징역 3년
1980.9.5. 2심 상동
1980.12.23. 3심 상동</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2">-</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나는 종로구 내자동 구 일월서각 사무실에서 강제연행 당했다. 1979년 10월 8일 12시경 문제의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5층 밀실에 감금당했다. 책상을 가운데 놓고 조사관을 마주하여 시멘트 바닥에 고정된 의자에 앉았다. … 조사관은 자신의 신분, 계급을 말하지 않았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나의 소지품 일체와 넥타이, 허리띠까지 풀어 압수했다. 심문이 시작되었다. “너 김재술이 틀림없지!” “예” “국민학교 졸업했어?” “예” 이렇게 세 번의 “예”가 끝나자마자 그는 “이 새끼야 써!”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살쾡이처럼 달려들어 나의 뺨을 좌우로 갈겨 댔다. 주먹으로 안면과 가슴팍 등을 구타했다. 나의 코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얼굴은 부어올랐다. 그는 말했다. “야, 이 새끼야! 여기에서 살아서 성한 몸으로 나가려면 다 불어!”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 … 이렇게 나를 개 잡듯이 고문을 하고는 “이 새끼 안 되겠구만” 한마디 뱉고 밖으로 나갔다. 나의 코에서 붉은 선지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다시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들어왔다. 체격은 항우같이 컸다. 그들은 전경에게 명령했다. “이 새끼 코피 닦고 수건을 아구리에 물려!” 하는 것이었다. 그 후 그들은 비틀거리는 나를 욕조로 데리고 가 더러운 물을 거푸 마셨다. 숨이 막히자 마지막 힘을 다해 용솟음쳤다.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힘은 그들도 제압하지 못했다. 그들은 바닥에다 나를 내동댕이쳤다. 나는 큰 숨을 쉬고는 쓰러졌다. … 내가 비틀거리며 신음하고 있을 때, 처음과는 또 다른 거구의 두 사나이가 손에 주전자와 전깃줄이 달린 것을 들고 들어왔다. 그들도 말했다. “야! 김재술 죽고 싶어? 불지 않으면 살아 나가지 못해!” 하면서 전경에게 명령한다. 전경이 수건을 내 입에 물게 하자 다시 욕조로 데리고 가서 처음과 반대로 누이고는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후 주전자에 담긴 그 물을 코에 부어 댔다. 나는 다시 몸부림을 쳤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자 의자에 앉게 하고는 나의 가슴팍을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물수건을 접어서 깔았다. 그 무쇠 같은 주먹이 연거푸 내 가슴을 때렸다.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전기고문을 해 댔다.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거름, 1987년, 76~78쪽.)</td></tr>
</table>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이재오(1945년생)</td><td>직업</td><td colspan="3">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서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부의장</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79.10.4.</td><td>구속일</td><td colspan="2">-</td><td>송치일</td><td>1979.10.14.</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반공법 및 국가보안법</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80.5.2. 1심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1980.9.5. 2심 상동
1980.12.23. 3심 상동
1983.8.15. 형 집행정지</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자유한국당 상임고문</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남영동 대공분실, 세칭 '악마들의 고향'인 5층 조사실. 조사실이라기보다 고문실이라는 말이 더 적당하다. 물을 마음대로 먹일 수 있는 목욕탕(욕조실), 대소변을 처리하는 변기, 책상 하나, 의자 둘, 단색의 벽과 천장, 전기고문을 할 수 있는 침대, 아무리 소리쳐도 밖에 새나가지 않는 방음벽, 높은 자들이 감시할 수 있는 TV장치,…
나는 무엇 때문에 끌려왔는지도 모르는 채 우선 30분 가량 5~6명의 건장한 사내들로부터 무차별로 얻어맞기 시작했다. 얼굴이 붓고, 코피가 쏟아지고, 눈에 멍이 들고, 다리, 무릎, 팔, 가슴할 것 없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얻어맞았다. 그리고 나서 "너 남민전에 가입했지?" "남민전이라니요?" 다시 고문, "너 이재문이 알지?" "모릅니다" 다시 고문. 그렇게 시작된 고문은 3층에서 3층 소위 사장실이라는 넓은 방으로 옮겨 넓은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들 고문자들은 내가 아는 얼굴들이었고 고문팀의 책임자는 나를 두 번이나 투옥시킨 장본인이었다. 넓은 목욕탕에 들어갔다. 희미한 전깃불이 들어왔다. 문이라고는 출입구밖에 없고 출입구는 2중문으로 사장(?)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알몸이 되었다. 죽음의 공포에 내 생식기는 대추씨만해졌다. 두 발목을 밧줄로 묶고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역시 밧줄로 묶어서 무릎을 두 팔 사이로 넣고 굽힌 무릎 사이로 침대봉을 넣어 거꾸로 매달았다.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었다. 이제부터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이 시작되는구나. 수건으로 덮은 얼굴 위로 고춧가루를 탄 주전자 물을 붓기 시작했다. 눈, 코, 입으로 들어가는 맵고 따갑고 화끈거리는 고통에 혼신의 힘으로 버둥거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침대봉이 부러지고 다시 막대기가 끼워졌다. 그들은 숙련공처럼 침착했고 나는 짐승처럼 버둥거리다 지쳐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고문이 시작되었다.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거름, 1987년, 226쪽.)</td></tr>
</table>

이름	이수일(1952년생)		직업	정신여자중학교 교사	
사건명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체포일	1979.10.4.	구속일	-	송치일	-
적용 법조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재판 결과	1980.5.2. 1심 징역 15년 1980.12.24. 2심 징역 15년	
재심 여부	-		현재 상황	고척고등학교 역사교사 저서「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	

고문 피해 진술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은 애초부터 고문과 취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건물이다. '국제법률연구소'라는 위장문패를 달고 행인들의 시선을 피해 뒷골목 깊숙이 들어앉아 있었다. 창문은 폭 한 뼘 정도의 좁고 긴 환기창 형태로 탈출기도는 물론 비명소리도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고안되었다. 사방의 벽은 붉은색과 오렌지색 계통의 페인트로 도색해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고, 방 안에는 변기와 욕조 그리고 취조용 붙박이 책걸상 하나씩만을 둔 비정하고 삭막한 풍경이었다. 24시간 현역군인을 경비로 세워 감시토록 하였다. 나는 이곳 취조실에서 1주일씩 두 차례 그리고 나중에 3일간의 보완 취조를 받았다.

대공분실에서의 첫 인사는 역시 집단구타였다. 커다란 취조실로 들어서자마자 명찰도 계급장도 없는 군복차림의 경관 5~6명이 따라 들어오더니 나를 바닥에 꿇어앉히고 욕지거리를 하며 군홧발로 집단구타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빨갱이 새끼는 그냥 밟아 죽여 버려야 돼!"

집단구타로 인해 미처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도꼭지를 틀어 욕조에 물을 채우더니 나를 끌어다 물을 먹였다. 먼저 저항을 할 수 없도록 등 뒤로 팔을 돌려서 뒷수갑을 채우고 나서 머리채를 잡고 자맥질을 시키듯이 물을 채운 욕조에 넣었다 꺼냈다를 반복하였다. 수돗물 쏟아지는 소리는 공포감을 더욱 키웠다. 이러한 이유 없는 폭행들도 사실은 계산된 고문의 한 과정이었다. 처음부터 혼을 빼놓고 저항의지를 꺾어놓으려는 것이다.

처음 4일간은 의자에 앉혀두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전투복 차림의 경관 2~3명을 교대로 배치하여 욕설과 협박을 해대고 수시로 머리를 쥐어박는 식으로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렇게 졸지도 못하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몽롱한 상태에서 머릿속에 들어 있는 기억과 생각들을 모두 토해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3일 정도 지나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써주고 오로지 빨리 써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비몽사몽 중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쓴 내용을 다시 쓰고 또 썼다. 깜박깜박하는 순간에 볼펜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곤 하였다. 이게 차라리 긴 악몽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는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 조직과 운동이 너무나 참담하여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때에는 초동수사 단계여서 주로 조직원을 찾는 데 치중하였고,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써주는 대로 넘어갔다. 내 입장에서도 활동 내용을 축소하여 개인적인 형량을 줄여보려는 생각은 아예 없었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체포를 면하게 할 것인지

	가 유일한 관심사였다. 다행히 우리 민학련 소속의 대학생들은 이재문 동지의 조직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추궁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 바로 그날 저녁에 이근안이 트레이닝 복장 차림에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키가 크고 배가 나온 중량급 레슬링 선수의 인상이었다. 물론 그의 이름이 이근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이근안이 취조실에 들어오자 조사관은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고 취조실을 나갔다. 이근안은 원래 경기도경 소속인데 우리 사건 때문에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한시적으로 파견된 인물이다. 그는 1년 전에 소위 '삼척 가족간첩단 사건' 때에 고문 실력을 발휘한 공로로 이번 일을 하게 되었다며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진짜 간첩들도 나한테는 두 손 다 들고 나갔어." 그의 말투로 미루어보면 그는 그래도 우리를 '진짜 간첩'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가 간첩이냐 아니냐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듯했다. 이근안은 자신의 고문경력에 대한 자랑만 늘어놓았고, 우리의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를 않았다. 이근안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중에도 두 손으로 계속 어루만지는 물건이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가 하는 말보다도 거기에 신경이 가 있었다. 그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작년에 설악산에 놀러 가서 기념품으로 사 온 박달나무 방망인데, 이게 아주 보물이야!" 묻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손잡이가 짧고 배 부분이 크고 둥글어서 마치 복어 모양으로 생겼는데 괴상하고 기분 나쁜 느낌을 주었다. 본래의 용도가 무엇이었건, 예감대로 그 물건은 그가 오늘 나를 위해 선택한 무기였다. "몸 좀 풀고 시작하자"며 나의 두 손바닥을 그의 보물로 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그저 따끔따끔하더니 횟수가 늘수록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며 통증도 커져갔다. 나는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각오로 순순히 손을 내밀어주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과 함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점점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되었다. 아무리 다그쳐도 내가 응하지 않자 그는 잠시 그 동작을 멈추었다. 그리고 내 팔을 허리 뒤로 돌려 뒷수갑을 채우더니 자신의 의자를 나에게 바짝 붙이고 다가앉는다. "볼펜심문이라고 들어봤어? 내가 하룻밤 고생해주면 조사관이 편하지. 작년에 삼척사건도 내가 고를 풀어주어서 깨끗이 해결했잖아!" 본격적인 고문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그의 보물로 내 허벅지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손바닥을 칠 때와는 달리 방망이를 세워서 절구질하듯이 아래로 내리찍었다. 두 다리의 허벅지를 번갈아 가며 아주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짓이기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고통이 커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현상은 손바닥을 칠 때와 원리가 비슷하였다. 손바닥을 칠 때는 어느 한도에서 내가 손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통증의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강렬하였다. 칠 때마다 나의 다리와 몸이 반사적으로 튕기듯이 반응하였다. 그러나 나의 비명과 몸부림 따위는 무시되었다. 그의 동작은 거의 기계적이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자신의 작업에만 열중하는 듯했다. 그의 지치지 않는 동물적 체력과 고통에 대한 무관심함이 이 고문 행위가 그에게는 얼마나 익숙한 일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었다.

도대체 그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체가 지금 그의 목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건 고문이 아니라 단순한 폭행이다.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고문과 폭행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폭행이 폭력행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고문은 또 다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동대문 경찰서에서의 집단구타와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 행위 따위는 명백한 폭행이다. 이러한 폭행은 감정적 보복행위이며 비인간적인 학대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이근안이 나에게 가하고 있는 폭력행위도 마치 그 자체가 목적인 양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사건에 관련해서는 아직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의 폭력행위에서 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을 뿐이며, 그는 고문기술자로서 초청되었다고 스스로 밝히지 않았던가. 도대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야 자신의 목적을 말할 것인가.

그는 자신이 "하룻밤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의 입장에서 그는 직업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특별 야근을. 아예 이렇게 밤을 새울 작정인 듯하였다. 그는 짐승 같은 체력에도 불구하고 작업 도중에 두세 번을 쉬었다. 맞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고, 때리는 것도 힘이 드는 모양이었다. 그때마다 그는 작업 상태를 점검하는 듯 나의 허벅지를 만져보고 살폈다. "이제 고가 풀려가나?" 혼잣소리지만 그는 분명히 어떤 목표지점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고가 풀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가 그것을 무슨 뜻으로 말했건 나로서는 오직 '괴로울 고(苦)'자로 이해될 뿐이었다.

건강한 사람은 평상시에 자신의 몸이 있는지 없는지를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다가 어떤 이물질에 찔리거나 부딪치게 되면 그 잠재된 고통이 비로소 통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누구나 다치거나 병을 앓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그 속에 고통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 우리의 몸뚱이는 고통덩어리구나! 나는 그때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근안은 나의 허벅지 속에 깃들어 있던 커다란 고통덩어리를 불러내고 있었다. 마치 무당이 귀신을 불러내듯 그는 내 몸에서 고라는 귀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악마적 굿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이제 비명을 지를 힘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내 손에 녹아나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그도 지쳤는지 나를 그대로 한참을 내버려두더니 드디어 내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민다. "지금까지 불지 않은 걸로 세 가지만 써!" …

"어디 고가 잘 풀렸나 볼까?"라며 그는 조사관에게 보라는 듯이 내 허벅지를 볼펜 끝으로 쿡쿡 찔러 보였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지경이었다. 볼펜 끝으로 건드리는데도 어젯밤에 그가 그의 보물인 박달나무 방망이로 찍었을 때의 바로 그 고통이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비로소 그가 자랑하는 '볼펜심문'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볼펜 끝으로만 찔러주어도 아주 효과만점일 것이다. 그는 그것을 나

	의 조사관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내 허벅지는 성이 날 대로 성이 나서 바지가 팽팽하도록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나는 앉은뱅이가 되어 3~4일간은 걷지를 못하였다. 한동안 변기에도 경비병이 업어서 앉혀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수고하고 공을 들인 만큼 실제로 볼펜심문으로 성과를 낼 만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근거 없이 너무 컸으며, 그사이에 수사의 흐름도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부기가 내리고 멍 자국도 가시고 나니 나의 허벅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깨끗해졌다. 나는 그 후 그를 두 번씩이나 고소하였지만, 내 머리 속의 몸서리치는 고통의 기억뿐 그 범죄의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역시 고문기술자였고, 이른바 '기술고문'을 하였던 것이다. 기술고문이란 고통의 크기는 극대화시키되 나중에 물증이 될 수 있는 고문의 상처를 절대 남기지 않는 것이다. 만약 고문의 흔적을 남겼다면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초보자가 감정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결과일 것이다. 그는 우리 사건을 계기로 확실한 지위를 확보하였다. 그때부터 대공분실의 전속 고문기술자로 아예 눌러앉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80년대 내내 민주화운동으로 대공분실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명을 떨치게 된다. (이수일,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 한겨레출판, 2010년, 31~43쪽.)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김태룡(1946년생)</td><td>직업</td><td colspan="3">미륭건설 현장직원</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삼척 가족간첩단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79.6.15.</td><td>구속일</td><td>1979.7.21.</td><td>송치일</td><td colspan="2">-</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군사기밀
탐지·누설</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79.12.20. 1심 무기징역
1980.5.1. 2심 기각
1980.9.9. 3심 기각, 형 확정</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2014.12.12. 재심 무죄
2016.9.23. 대법원 무죄</td><td>비고</td><td colspan="3">1983.7.9. 진항식, 김상회 사형집행
1998.8.15. 김태룡, 진창식 출소(19년 2개월)</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조사받는 과정은, 제가 억지로 간첩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진현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원죄’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약점을 이용하여, 없는 사실까지 허위로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기까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과 구타, 가혹행위, 모욕, 조롱이 가해졌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그들이 때리면 맞고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식으로 수도 없이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남영동 수사관들은 처음 1주일 동안 잠을 전혀 재우지 않고 각종 고문을 하였습니다. 뺨을 주먹으로 쳐대는데 얼굴에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몽둥이로 허벅지를 살갗이 찢어져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양 어깨를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팔을 움직일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욕조에 머리를 젖히게 한 후 샤워꼭지를 코에 대고 물을 트는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무릎 사이로 손을 넣게 해서 수갑을 채우고, 발목에도 끈을 묶어 다리 사이로는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발목에 묶은 끈을 허리로 연결을 해서 꼼짝을 못 하게 하더니 두 명의 수사관이 나를 들어서 욕조에 집어넣었습니다. 욕조에 옴싹달싹 못 한 채로 있는데 얼굴에 손수건을 덮고 샤워꼭지를 얼굴에 틀어댔습니다. 순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문을 두어 번 정도 당했습니다. …
어느 날인가, 저에게 짬뽕을 시켜주며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국물은 먹지 말고 다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욕조 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얼굴에 수건을 덮어 물을 부었습니다. 입으로 코로 들어오는 것이 짬뽕 국물이었습니다. 그 매운 국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오니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소리 지를 힘조차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참 모욕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도 짬뽕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은 아내를 들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발가벗겨 놓고 무릎을 꿇려 앉힌 채 성적 희롱을 하던 그들이 하는 말이 “자백하지 않으면 네 마누라를 데려와서 이 꼴을 구경시키겠다”고도 하고, “네 마누라도 이 꼴로 만들어야 하겠느냐”며 끔찍한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태세로 보면 정말 그러고도 남음이 있을 법했습니다.
(김태룡 진술서, 2009.7.)</td></tr>
</table>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노향기(1941년생)</td><td>직업</td><td colspan="3">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한국일보 기자</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기자협회 집행부 집단구속사건</td></tr>
<tr><td>체포일</td><td>-</td><td>구속일</td><td colspan="2">-</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계엄포고령 위반</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심 징역 1년
1981.5.9. 석탄절 특사</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1998.5.21. 무죄</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전 한국기자협회 회장</td></tr>
<tr><td>사건
개요</td><td colspan="6">1980년 처음으로 일어난 대형 언론인 구속사태다.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기자협회 집행부 기자들이 다수 연행됐다. 기자협회의 활동으로 자유언론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가는 것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었다.
1980년 3월 31일 출범한 한국기자협회(이하 ‘기협’)의 자유언론운동이 촉발된 것은 1980년 5월 6일 사북사태 취재 중이던 중앙일보 탁경명 기자가 계엄사 합수부 수사요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 이후다. 중앙일보가 이 사건을 사회면 3단 크기로 보도하자 언론검열단은 삭제를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이를 거부하고 공백 상태로 신문을 발행했다. 기자협회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항의문을 발송해 공식 사과를 받아냈고, 진상조사를 위해 기협 위원들을 급파했다. 이어 기협은 5월 20일 0시를 기해 당국의 보도 관련 검열을 거부하고, 만약 당국이 강압적으로 나올 경우 제작 거부로 맞서겠다고 결의했다.
5월 17일, 당국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기자협회 소속의 다수의 언론인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기협 부회장 이홍기(KBS), 정교용(중앙일보), 고영재(경향신문), 이수언(부산일보), 기협 감사 박정삼(서울경제신문), 기협 편집실장 김동선, 편집실 안양노 등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법연행 당했으며, 이후 기협 회장 김태홍과 부회장 노향기도 연행됐다.
당국은 해당 기자들이 광주항쟁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를 찬양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대중과 관련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연결시키기 위해 고문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이후 5월 18일, 광주의 참극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언론인들이 대규모 제작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응징성격의 언론인 구속 사건이 이어져 6월 9일에는 경향신문 기자 8명을 연행했다.
(“80년 기자 대학살 그 진행과정을 파헤친다”, 한겨레, 1988.10.29., 7면; “언론대학살 전말”, 한겨레, 1988.11.6., 7면; “언론공작 (3) “증인만들기 협박과 강압”, 경향신문, 1988.10.28., 3면; ““제도언론’ 겨냥한 싹쓸이”, 한겨레, 1988.11.6., 6면.)</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80년 5월 기협간부들이 모여 계엄사의 검열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것이 문제돼 계속 수사를 받아오다 6월 말 남영동 분실로 잡혀갔다. 1주일 정도 있는 동안 욕조에 머리를 처박는 물고문과 고춧가루 고문 등을 골고루 겪었다. 특히 그들은 흥분 상태에서 쉴 사이 없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구타했는데 그때 척추가 비껴나가면서 그대로 굳어버려 지금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고문 수사관으로 유명한 이근환(안) 경위는 고문수사의 공으로 ‘청룡봉사상’까지 받은 것으로 들었다.</td></tr>
</table>

	(“발가벗긴 채 물고문, 전기고문”, 한겨레, 1988.10.25., 11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사관과 고문기술자들은 벌거벗긴 채 수갑을 채우고 몸둥이찜질을 해댔다. 척추가 심하게 상할 정도였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지금도 몸이 시리다. 끌려온 지 며칠이 지나자 칠성판에 올려졌다. 수건 대신 신고 있던 수십 일 된 양말 안에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물을 부어 코에 강제로 들이부었다. 몇 번이나 혼절했다. 물고문을 할 때는 반드시 이근안 경위가 참여했다. 죽지 않을 만큼 기술적으로 고문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루는 묶인 채 축 늘어진 나에게 이근안이 다가오며 손가락으로 배를 쿡 찔렀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거 장파열은 아니구만! 더 부어도 돼.”라고. (이창섭, “80년 기협·경향 사건 전말”, 신문과 방송, 332호, 1998.)

••경향신문 기자 구속 사건 개요

1980년 5.18광주항쟁 이후, 광주 관련 보도와 관련한 각 언론사의 제작거부 움직임이 번져가자 공안당국은 이에 대한 응징으로 언론인들을 구속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향신문 사건이다.

5월 2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는 서울지역 주요 언론사 사장들을 불러 "선동하는 사람들을 파악해 체포할 것이니 그러한 사태가 없도록 사장들이 수습하고 책임지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5월 21일 경향신문 평기자 전원은 '광주항쟁' 왜곡보도와 관련, 제작거부에 돌입했고 서동구 조사국장, 이경일 외신부장 등 일부 간부진도 참여했다.

이에 당국은 6월 9일 경향신문 기자들을 불법 연행한다.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국론통일과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고 있는 혐의가 농후하여 부득이 8명의 현직 언론인을 연행,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서동구(전 편집국장, 현 조사국장), 이경일(외신부장), 홍수원(외신부), 박우정(외신부), 표완수(경제부), 박성득(편집부), 노성대(MBC 부국장), 오효진(MBC 사회부), 심송무(동아일보 사회부) 등을 구속했다.

계엄사 합수부가 현직 언론인들을 연행해 간 6월 9일 당일자 석간신문에는 언론인 연행에 대한 계엄사 발표문이 일제히 실렸다. 발표문은 "확고한 시국관을 가지고 국민을 올바로 계도해야 할 언론인이 자신들의 신성한 사명과 책무를 망각하고 도리어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시켜 사회민심을 자극, 현혹시키는 행태를 계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이들의 혐의 사실을 열거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계엄사가 기자들을 연행, 조사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혐의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각 신문, 방송 및 통신사에 보내 그것을 보도케 했다는 점이다. 결국 그날 상오 6~10시 사이에 연행돼 간 기자들의 혐의 내용은 10시 반에 기사가 마감되는 그 날짜 석간신문에 그들의 연행 사실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것은 곧 기자들을 연행해 가기 이전에 그들의 혐의 사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남영동에서의 조사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사전에 만들어진 혐의 사실은 15일간의 남영동 조사 끝에 그대로 범죄 사실로 바뀌었다.

"철저히 각본에 따라 진행된 일이었다. 소위 조사라는 것은 미리 만들어진 혐의 사실을 기자 각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박우정 기자(현 한겨레신문 민족국제부)의 표현이다. 다른 기자들도 모두 같은 의견이다. 당시 경향사태의 주범으로 몰렸었던 서동구 국장(현 BBC영어연구원 대표)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사건은 사전에 쓰인 각본에 의해 진행됐다. 각본의 가닥은 크게 세 갈래로 생각된다. 첫째, 국가반란죄로 몬 김대중 사건에 연루시켜 언론에 대한 전면 공격의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기자들이 남영동에 도착한 시간에 이미 각 언론사에는 나를 포함한 구속기자들이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동조하고 월남의 공산화를 환영했다는 등의 용공적 발언을 한 것으로 기사자료를 돌려 보도케 했다. 그러나 실제 내가 그 부분에 관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틀이 지난 11일부터였다. 말하자면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범죄 사실을 세상에 공표한 뒤 거기에 맞춰 진술을 짜 맞춰 나갔다. 조사는 때때로 수사관이 신문 스크랩과 다른 자료들을 책상 밑에 감추어놓고 읽어가면서 작성되기도 했다.

각본의 두 번째 가닥은 범죄 구성원의 모양을 갖춰 회사를 전체로서 접수할 수 있는 명분을 처음부터 계산하고 일을 벌였다는 것이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모두 편집국 소속으로 부장 1명에 기자 5명이었다. 그들은 주모자를 부장으로 끝내기에는 의도한 사건의 규모로 보아 약하다고 판단되

어 국장 1명을 찾은 것 같고 외신부장을 거쳐 편집국장을 지내고 물러난 지 얼마 안 되는 내가 지목된 것 같다. 특히 기자들 가운데 외신부 소속이 3명이나 들어 있어 외신출신 국장이 가장 적격이라고 그들은 판단한 것 같다. 구성원의 범위를 아래위로 짜 맞추려는 의도는 조사 중 국장선 이상의 임원에까지 2차 연결을 위해 수사관이 다그친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각본의 세 번째 가닥은 외부기관의 구속 작전에 내부의 협조와 지혜가 다분히 작용한 흔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영동 5층에 들어가 가린 눈을 풀어주면서 수사관이 내뱉은 첫 마디가 '당신을 여기 데려온 것은 수사기관의 인지가 아니고 내부의 첩보에서 비롯된 것이니 오해 없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의 상투적인 어법으로 돌리기에는 짚이는 데가 너무나 많았다. 그 뒤 여러 차례 수사관들의 입에서 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면서 '신문기자 사회의 수준이 그 정도냐'고 비웃을 때마다 나는 가장 가슴이 아팠다."

결국 15일간의 남영동 조사 끝에 서 국장은 김대중 사건의 연루자로서 그가 정권을 잡은 뒤 신문사를 인수한다는 약속을 받고 동조한 것으로 발표되었고 이경일, 홍수원, 표완수, 박우정, 고영재, 박성득 기자 등은 고려연방제를 찬양하고 월남식 통일론을 지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80년 언론공작 (1) 통폐합의 신호탄 경향탄압", 경향신문, 1988.10.26., 3면.)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노성대(1940년생)</td><td>직업</td><td colspan="3">MBC 보도부국장</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경향신문 기자 구속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0.6.9.</td><td>구속일</td><td colspan="2">-</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계엄포고령 위반(유언비어 유포)</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공소취하</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1998.6.10. 무죄</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전 MBC 사장</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남영동 수사팀의 참고인 조사는 말이 참고인 조사였지 사실은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이었다. 경향사건 자체가 물증 없이 무리하게 짜 맞춰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해줄 증인이 수사관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서 남영동 수사팀에게 찍힌 사람이 김충용 차장과 윤덕한 기자였다. 김 차장은 기협 경향분회 분회장이었으며 윤 기자는 자유언론운동에 적극성을 보여 이른바 강경발언을 많이 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김 차장과 윤 기자는 남영동 수사관들로부터 극심한 협박을 당했다. “당신들은 구속된 사람들과 똑같은 혐의사실을 갖고 있다. 증언에 협조하면 구속은 안 시키겠다”고 협박, 결국 두 사람은 검찰 측 증인으로 설 것을 약속했다. … 다시 약 한 달 뒤 수경사 계엄보통군법회의 법정. 서동구 국장을 비롯한 7명의 경향신문 피고들은 광주사태 관련 유언비어, 불법집회, 직장무단이탈 등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증인으로 나선 김충용 차장과 윤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언론공작 (3) ‘증인만들기’ 협박과 강압”, 경향신문, 1988.10.28., 3면.)

광주일고 후배인 기협회장 김태홍 씨와 대질신문할 게 있다며 연행했습니다. 눈가리개를 벗기는데 보니까 남영동 분실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니 칠성판·가죽밴드 등 각종 고문기구가 널려 있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더 혼나니 여기서 불라”며 최근 움직임을 죄다 진술하라고 하더군요. 닷새 동안 잠을 안 재우고…. 김대중 씨와 동향인 내가 경향팀과 무슨 일을 꾸몄느냐는 거였지요.
내가 연행된 것은 5월 23일 밤 9시 뉴스 때 이득렬 앵커가 “폭도에 의해 불타고 있는…”이라고 한 데 대해 “말조심하자”고 울분을 토했던 게 계엄포고령 10호 위반이라는 거였습니다. 10호는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를 금하고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사용을 규제하고 있었는데 그때 북괴는 광주사태를 ‘의거’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씨에 ‘포섭’돼 언론계에 침투한 주모자로 서동구 씨와 나를 찍었던 모양인데 김 씨와 대면한 사실조차 없음이 확인되자 8월 3일 풀어줬습니다. 언론인으로 유일하게 공소취하된 케이스지요. 그 후 3년간 정부의 압력으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떠돌았습니다.
(“(57) 언론숙청·통폐합|하루아침에 ‘쑥밭’된 기협”, 중앙일보, 1988.11.17.)</td></tr>
</table>

이름	서동구(1937년생)		직업	경향신문 전 편집국장, 현 조사국장	
사건명	경향신문 기자 구속 사건				
체포일	1980.6.9.	구속일	15일	송치일	-
적용 법조	계엄포고령 위반 (유언비어 유포)		재판 결과	1980.9. 1심 징역 6년 1981.2.10.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반공법 무죄)	
재심 여부	1998.6.10. 무죄		현재 상황	전 KT스카이라이프 사장	
고문 피해 진술	수사는 철저한 각본수사, 목적수사였다. 사전에 치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줄거리에 내용을 짜맞추어갔다. … 수사의 가닥은 두 갈래였다. 첫째는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에 연계시켜 그를 지지하는 사내세력이 편집국 기자들의 검열거부와 언론자유화 운동을 선동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고려연방제 주장에 동조하고 월맹식 베트남 통일을 지지하며 광주학살의 규모를 과장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였다. (서동구, “나는 이렇게 언론계서 쫓겨났다”, 신동아, 1988.12.) 경향신문 해직기자 서동구는 “1980. 6.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받아 유언비어를 날조했다는 조서에 서명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군사법원에서 포고령 위반 부분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반공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아 출소하고, 그 후 포고령법 위반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 1998. 6. 10.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조사보고서, 2008. 11. 28., 면담조사.)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표완수(1946년생)</td><td>직업</td><td colspan="3">경향신문 경제부</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경향신문 기자 구속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0.6.9.</td><td>구속일</td><td colspan="2">15일</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계엄포고령 위반(유언비어 유포)</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80.9. 1심 징역 2년
1981.2.10. 2심 징역 2년(반공법 무죄)
1981.5.11. 석탄절 특사</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1998.6.10. 무죄</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시사인 대표</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표완수 경향신문 해직기자는 “조선일보가 한국 농촌이 무너진다는 기획기사를 쓸 때 경향신문은 이튿날 ‘장밋빛 농촌’을 다뤘다”며 “보고서를 옮기는 것에 그치는 보도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향신문 기자들이 1차 농성을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표 기자는 “좋은 신문을 만들자는 취지 아래 ‘좋은 신문 만들기 모임’을 했지만 정부는 국보법을 뒤집어씌워 (해직 기자를) 고통받게 했다”고 말했다.
(김수정, “해직 언론인, 그대의 자리는 언론현장입니다”, 미디어스, 2012.12.4.)

표완수 사장은 “80년대 933명이 해직이 됐고, 정권에 충성했던 언론인들은 민정당 후보로 입후보해 정치권에 나갔다”고 지적한 뒤 “언론사 내부에 적이 있었고, 국가보안법으로 엮기 위한 정보들 역시 내부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해직언론인, 그대의 자리는 언론현장’, 리영희재단 ‘해직언론인 복직 촉구 콘서트’ 개최”, 언론노보, 2012.12.4.)

6월 9일 아침의 경향신문 편집국에도 무거운 기운이 내리누르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와 함께 마감시간을 앞둔 신문사 특유의 어수선함이 묘하게 뒤섞인 편집국 안으로 이질적인 사람 네 명이 들어온 것은 별로 기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들 네 명이 편집국 맨 안쪽에 있는 외신부로 다가가 홍수원, 박우정 두 기자에게 악수를 청했을 때도 편집국의 다른 기자들은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 편집국 회의실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소속을 밝혔다. 계엄사 합동수사부. 잠깐 조사할 일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했다. 잠깐이면 된다고 했다. 편집국의 몇몇 기자들이 항의했으나 잠깐이면 조사가 끝난다며 두 명의 기자를 각각 따로 데리고 나갔다. 이보다 약 3시간 앞선 이날 새벽 6시경 경향신문 경제부 표완수 기자의 집에서는 초인종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잠에서 깬 표 기자의 뇌리를 어떤 생각이 반사적으로 스치고 지나갔고 순간적으로 집안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집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두 명이었다. 그들은 표 기자에세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다. 계엄사 합수부였다. 집안사람들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와 바깥출입을 금지시킨 그들은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사할 일이 있으니 함께 가야겠다며 현관에서 표 기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검은 천으로 그의 눈을 가렸다. 한 명은 집안에 남고 한 명이 표 기자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데리고 갔다. 이날 그런 과정을 거쳐 연행돼 간 경향신문 기자들은 모두 6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이른바 남영동으로 끌려갔다.
(“80년대 언론공작 (1)통폐합의 신호탄 경향탄압”, 경향신문, 1988.10.26., 3면.)</td></tr>
</table>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개요

1980년 7월 4일 계엄사령부는 계엄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김대중을 비롯한 박형규, 백낙청, 송건호, 이효재, 장을병, 유인호, 임재경, 문익환, 안병무, 한완상, 이문영, 송기원, 고은, 한승헌 등 37명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김대중 등 24명 내란음모 등 사건 공소사실", 동아일보, 1980.8.14., 3면.)

이 사건은 12·12쿠데타와 5·18 광주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집권 초기 정통성 시비를 잠재우고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상징이자, 광주항쟁의 정신적 구심점인 김대중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동시에 김대중과 국민연합이 중심이 된 민주화추진 국민운동 계획을 '내란음모사건'으로 조작한 사건이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시국수습 명분으로 1980년 5월 초부터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함께 국회해산, 예비검속 대상자, 정치활동 금지 대상자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민주진영의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민주화 추진 국민운동을 전개했다. 1980년 5월 15일 계엄해제와 민주화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신군부는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계엄확대 조치 직전, 계엄사는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김종필 등 9명을 권력을 통한 부정축재 혐의로 체포하고, 무장 병력으로 국회를 점거해 사실상의 헌정중단 사태인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신군부는 김대중 측근 외에도 재야 및 학생운동 핵심 인사들을 연루시킴으로써 민주화운동 진영 전체의 와해를 기도하고자 무자비한 고문을 통해 사건을 철저하게 조작했다. 신군부의 통제 하에 있던 1심 군사재판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1980년 9월 17일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소위 국민연합을 전위세력으로 하여 대학의 복학생들을 행동대원으로 포섭, 학원소요사태를 폭력화하고 민중봉기를 꾀함으로써 유혈혁명사태를 유발, 현 정부를 타도한 후,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권을 수립하려 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신군부는 구체적인 사례로 복직 교수와 복학생을 조종해 학원사태의 과열과 악화를 꾀했으며,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에게 500만 원을 주어 계엄해제와 정치일정 단축 등을 주장케 하여 사실상 광주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했으며, 또 광주사태 당시 무기 반납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제2의 광주사태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광주항쟁 이전에 김대중은 이미 검거된 상태였으므로, 광주항쟁을 배후조종 하고 '제2의 광주사태'를 준비했다는 것은 억지였지만, 신군부는 개의치 않았다.

이외에도 김대중이 "재일 반국가단체인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을 발기, 조직, 구성하여 북괴노선을 지지, 동조하는 등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일본에서의 활동을 범죄시한 공소내용으로 일본정부와 외교마찰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일본·독일·미국 등지의 해외동포들이 김대중 구출운동 등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다각적으로 연대하는 계기를 이루기도 했다. 김대중 체포 직후 미국 행정부에서도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내외의 반발이 거세졌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1년 1월 23일 대법원에서 김대중의 사형을 확정했으나, 같은 날 전두환은 국무회의를 통해 무기로 감형시켰다. 1982년 3월 2일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된 김대중은 같은 해 12월 16일 복역 중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12월 23일 2년 7개월의 옥고 끝에 형 집행정지로 미국으로 강제망명 당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광주항쟁을 배후조종 했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

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면소 판결함으로써 25년 만에 사건은 완전 종료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서중석 저, 「한국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2007년.; 김정남, 「진실, 광장에 서다」, 창비, 2005년.; 한홍구, 「대한민국사」, 한겨레출판, 2006년.;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역사비평사, 1995년.)

이름	송건호(1927년생)		직업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사건명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체포일	1980.7.14.	구속일	1980.7.27. (19일)	송치일	-	
적용 법조	계엄법 위반(계엄법 제15조 및 제13조, 계엄포고 제1호 제1항,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재판 결과	1980.9.11. 육군본부 대법정 1심 4년 1980.11.3. 육군본부 대법정 2심 감형 '계엄법 위반' 그룹은 상고하지 않음. 1981.3.3. 제12대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		
재심 여부	2003.1.21. 무죄		현재 상황	2001.12.21. 사망		

고문 피해 진술

고문은 잠 안 재우기, 지식인으로서 감수하기 힘든 욕설 등 모멸감 주기, 야전침대용 각목에 의한 심한 구타, 가족에 대한 협박, 거꾸로 매달기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행해진 알몸에 대한 구타는 온몸에 시퍼런 자국을 남겼고 속으로 골병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때 당하신 구타로 허리와 팔 등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출감 후 원자력병원에서 종합진찰을 받았으나 고문기술자들에 의해 받은 고문이라 그런지 당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은 1993년 파킨슨증후군이라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하시기까지 심한 불면증과 가끔씩 찾아오는 허리와 다리, 팔 등에 엄청난 고통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당시 고문은 두 명의 수사관에 의해 진행되었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회유와 협박, 그리고 고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후에 아버님께서는 두 명의 수사관 중 한 명을 우연히 국내선 항공기 내에서 만나셨는데 이 수사관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빨갱이는 모두 잡아야 한다"며 궤변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송건호 선생의 장남 송준용 탄원서, 1998.5.5.)

당시 기협과 빈번한 접촉을 가지며 신문사 밖에서 자유언론운동을 펴왔던 동아투위의 이병주 위원장과 조선투위의 정태기 위원장도 간신히 피신해 장기 잠적생활로 들어갔다. 송건호 씨는 이날 밤 옆집으로 피신했으나 이틀 뒤 검거돼 '남영동'에서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다. 17일 밤 1차로 잡혀간 사람들은 남영동에 끌려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각본을 짜맞추고 피신한 사람들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한 신문에 시달리며 고문을 당하는 등 특히 고통을 당했다. 심하게 당한 사람은 발가벗기고 수갑을 찬 채 몽둥이찜질을 당하고 고춧가루 고문, 물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이때의 고문후유증 때문에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다.

("'제도언론' 겨냥한 싹쓸이", 한겨레, 1988.11.6., 6면.)

- (80년 5·17 직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강제로 연루돼) 저 이름난 남영동에서 고문당하실 때 무엇이 머리에 떠올랐습니까?

"매일처럼 두들겨 패는데, 이러다간 내가 여기서 죽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나 억울한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는 독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선 살기 위해 저들이 하라는 대로 허위 자백했습니다. 나는 고문을 당하면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은 못 할지 몰라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양실조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반인간적인 짓을 자행하는가를 그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송건호, 「민주언론 민족언론」, 두레, 1987년.) "맞은 데가 새카맣게 멍이 들었는데도 그때는 아픈 줄을 몰랐어요. 김대중 씨한테 돈 받은 것으로 조작하려고 마구 때렸지요. 막 두들기다가 자기네들도 걱정되는지 '벗어' 하더니 팬티까지 까내리더라구요. 보니까 새까맣게 멍이 들었어요. 내가 그걸 보고 그냥 기절했지요." (참 언론인 송건호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름	홍종민(1944년생)		직업	동아일보 해직기자 동아투위 총무	
사건명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체포일	1980.5.18.	구속일	1980.6.16.	송치일	-
적용 법조	계엄법 위반(계엄법 제15조 및 제13조, 계엄포고 제1호 제1항,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재판 결과	-	
재심 여부	2004.1.29. 재심 무죄판결		현재 상황	1988.4.20. 사망	
고문 피해 진술	1980년 5월 18일, 집에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23일 동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잠 안 재우기, 물고문(실내에 욕조가 있음), 구타 등을 당한 끝에 심장병을 얻었으며 체중은 10kg이나 빠졌다. 그는 석방된 후 심장박동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고인은 '보도되지 않는 민주인권일자 사건'으로 투옥된 바 있다. (이태호, "꺾이지 않은 대의로 살아온 26년", 신문과 방송, 364호, 2001.4., 48쪽.)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권력을 장악하고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민주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아침 집을 나서면서 "오늘부터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1박 2일로 동아투위 세미나를 여니 집에 못 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일찍 잠들었던 저는 계엄이 확대 실시된 줄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니 무장한 군인들이 곳곳을 경비하고 김대중 씨를 비롯한 민주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 5월 18일 오후 사복형사인 듯한 사람 3명이 구두를 신은 채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권총을 찼는지 옆구리에 경찰봉을 맸는지 하여튼 무서운 차림으로 방을 뒤지며 "홍종민이 연락 왔어요?"라고 다그치며 책 몇 권을 뽑아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당신 전화라면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팔을 낚아채는 바람에 옷 단추가 떨어져 나가고 통화도 못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날 밤 집으로 들어오려다가 골목에 잠복하고 있던 수사기관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남영동으로 갔다"고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남영동이라면 용산구에 있는 동네라고만 알았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어요. 23일째 되던 날 어떤 사람이 당신은 석방될 것이라고 귀띔해주었지요. 아, 집으로 돌아온 당신은 정말 유령 같았어요! 넋이 나간 듯 말을 못 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기운이 탈진돼 쓰러지듯 풀썩 주저앉는 당신을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껴안았습니다.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고요. 체중이 13kg이나 빠진 당신…. 하지만 당신은 눈물만 흘릴 뿐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응, 거긴 무서운 곳이야." 그리고는 말을 끊었습니다.				

	“좀 더 설명해주세요.” “눈을 가린 채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가보니 때리는 도구들도 있고, 물고문하는 욕조도 있고…. 소름이 쫙 끼쳤어. 하지만 난 별로 심한 고문은 안 당했어.” “그렇다면 20여 일 만에 몸무게가 13kg이나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불거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신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잠을 안 재워 미칠 것만 같았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전부 쓰라 해서 쓰면 핵심이 빠졌다고 더 쓰라 하고 쓴 내용을 가지고 심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비몽사몽이 되어 수시로 졸면서 쓰러졌나봐. 수사관들은 그때마다 마구 때리거나 물을 끼얹어 깨어나곤 했지. 그들의 관심은 동아투위와 김대중 씨의 관계였어. 어떤 각본을 만들어 놓고 캐묻고 캐묻고는 했지. 그렇지만 없는 사실을 말할 수 없으니 나를 족친 것 같아. 석방돼서 알고 보니 그건 ‘김대중 내란음모’란 어마어마한 각본이었어. 옆방에 송건호 선생이 잡혀왔는데 수시로 소름 끼치는 비명이 들려왔어. 수사관들은 나에게 ‘송건호 저 새끼 머리에 총을 대고 쏴 죽여버릴까 말까 한다’고 겁을 주었어. 그땐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당신은 석방된 후 한 달쯤 지나서 집에서 갑자기 발작 비슷한 동작을 하면서 쓰러졌지요. 저는 당신을 흔들면서 “여보 왜 이래, 응 왜 이래”라고 놀라서 물었지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했지만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동네 병원에 이틀 동안 입원했지만 이상이 없다 해서 퇴원했습니다. (“곁에 계시지 않지만 자랑스러운 당신”, 조연수(홍종민 부인), 미디어오늘, 2012.12.6.)

이름	김명인(1958년생)			직업	학생(서울대 국문과)	
사건명	서울대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 사건(무림 사건)					
체포일	1980.12.11.	구속일	1981.1.17.	송치일	-	
적용 법조	반공법 및 계엄법 위반		재판 결과	1981.6.3. 1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1981.11.5. 2심 상동		
재심 여부	1999.7.30. 무죄		현재 상황	인하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사건 개요	‘서울의 봄’ 이후 80년도에 발생한 대표적인 학생운동 사건이다. 12.12 군사쿠데타 1주년을 하루 앞둔 12월 11일, 서울대생들은 학생식당과 도서관 앞에서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교내시위를 벌였다. (“학처장 간담회 서울대캠퍼스에 불온유인물”, 동아일보, 1980.12.13., 7면.) 공안당국은 전두환 등을 ‘파쇼 지배집단’이라 규정하고, 5.18 광주항쟁과 12.12 군사쿠데타 등을 옹호한 미국을 ‘동지가 아니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학생운동 전체를 좌경 용공집단으로 매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유시춘 외 9명, “[실록민주화운동] (45)서울대 무림사건”, 경향신문, 2004.2.22.) 치안본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군 보안사령부가 합동수사에 착수, 시위 주동자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면서 70년대 후반 이후의 서울대 학생운동의 실체와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졸업생부터 재학생, 군 복무자에 이르기까지 100여 명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보안사 분실 등으로 연행했다. 이근안이 고문기술자로 참여한 첫 학생운동 사건으로, 수사의 공을 인정받아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무림’이라는 조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안당국이 붙인 명칭이다. ‘림(林)’이란 조직사건을 뜻하는 경찰 내부의 용어였고 ‘무(霧)’는 안개로, 안개 속에 있던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이라는 뜻이었다. 당시 수사당국은 민청학련 사건의 71학번 김병곤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도를 그려놓고 79학번까지 엮어서 대규모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 (유시춘 외 9명, “[실록민주화운동] (45)서울대 무림사건”, 경향신문, 2004.2.22.) 그러나 조직사건으로 만드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는지 애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김명인 등 11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사를 받은 90여 명은 재학생은 모두 강제 휴학시키고, 군대로 징집했다. 그리고 보안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녹화사업’을 실행해, 휴가 중 학생운동 동료, 선후배를 만나게 한 후 그들의 동향이나 정보를 수집했다. (손우정, “‘이제부터 내가 널 맡겠다’ 이근안의 관절꺾기에 그만”, 오마이뉴스, 2015.8.18.) 유흥수 치안본부장이 찾아오고 나서 박처원이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네 진술을 들으면 유신 때 운동권부터 다 잡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크다. 줄이자’고 하더군요. 수사받을 때는 사형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박처원이 ‘조직사건으로 다루면 너무 커지고 부담되니까 몇 사람이 주동한 학생시위 사건으로 하자’라고 해서 사건이 축소됐지요. 제가 지니고 있던 서적들 때문에 반공법으로 걸렸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축소시켰던 것 같습니다. (손우정, “‘이제부터 내가 널 맡겠다’ 이근안의 관절꺾기에 그만”, 오마이뉴스,. 2015.8.18.)					

고문 피해 진술	- 남영동에서 선생님 수사는 고문수사로 악명 높은 이근안이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영동으로 가니까 얼굴이 큰 수박만 하고 덩치가 하마 같은 사람이 악수를 청하더니 '내가 이근안이다. 이제부터 내가 널 맡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시에 이근안은 다른 수사관에 비해서 굉장히 점잖았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꽤나 동안으로 보였던 때문인지 '너처럼 애기 같고 예쁘장한 놈이 올지 몰랐다'면서 '정말 네가 썼냐? 다시 외워 봐라'고 하더군요. 내가 썼다는 걸 믿는 눈치였어요. 다 외우니까 이번에는 왜 이걸 썼는지 쓰라고 해서 몇 번을 썼죠. 평생의 일대기를 다 썼어요. 물론 숨길 건 숨겼지만." - 그럼 남영동에서는 고문이 없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다만 칠성판(물고문과 전기고문을 위해 고안된 고문 도구. 이근안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 기자 말)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세 가지 고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요. 이게 피는 안 나면서 굉장히 아픕니다. 두 번째는 손톱 누르기. 세 번째가 '관절꺾기'였어요. 손목만 꺾어도 뼈가 탈구되는데 너무 고통스럽더군요. 남민전 관련자인 이재문 씨에게도 고문하면서 무릎 꺾고 팔 꺾고 나서 '5미터만 제 발로 걸어가면 널 석방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손우정, "'이제부터 내가 널 맡겠다' 이근안의 관절꺾기에 그만", 오마이뉴스, 2015.8.18.) - (이근안이) 배를 손아귀에 쥐고서 배즙을 짜는 걸 보여줘요. - 이재문은, 그분은 옥사하셨거든요. 이근안 씨 말이, 이재문은 내가 죽였다.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3개월 뒤에 죽일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죽일 수도 있고,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1년 뒤에 죽게 할 수도 있고. 이재문은 딱 6개월쯤 살다가 죽게끔 만들어 놨다. 그놈은 살아도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다. - 자기들끼리 가정사 얘기도 하고요. 별 얘기 다 합니다. 옆에서 한 사람은 정말 단식을 하고 있다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워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고 서로. 비인간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상황에서 죄의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죄의식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론 자기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애국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업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무리한 수사를 한다거나 못 할 짓을 한다거나 하는 식의 자의식, 주저함은 별로 없습니다. (KBS 인물현대사, "국가에 충성한 죄? - 고문기술자 이근안", 2004.4.2.)

••미스 유니버스 대회장 점거미수 사건 개요

1980년 6월 28일, 사북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인오는 정선경찰서에 연행돼 영월서 이덕수 순경 살인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순경은 실제로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경찰은 '황인오가 경찰봉으로 머리를 수없이 가격해 고의로 죽였다'는 혐의를 씌워 물고문, 통닭구이 등을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했다. 경찰은 이 수사과정에서 80년 6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장을 점거하자는 계획이 담긴 수첩을 발견한다. 이 계획은 80년 5월 광주항쟁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황인오를 주축으로 권오창, 권운상, 정구원 통일사회당 당원들이 인명피해가 없는 진공탄을 사용해 서울에서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장을 점거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자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황인오의 체포로 점거는 미수로 그쳤다. (황인오, 舍北으로 돌아가다!!! 14. 사북항쟁 기록.)

당시 사용하려고 했던 폭탄은 사제폭탄으로 사북 탄광의 폭약을 개조한 것이었고 폭파용이 아니라 진공탄 성격의 위협용이었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그것도 유명 첼리스트인 로스트로포비치가 항의의 뜻에서 서울 내한공연을 취소한 마당에 세계적인 미인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 대회를 미국 CBS가 실황중계를 하는 점을 이용해 단상을 점거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과 김대중 씨 석방, 국회해산의 부당성 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도로 계획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태백·정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05년, 13쪽.)

그러나 공안당국은 권오창이 과거 통혁당 사건으로 재판받은 전력을 빌미로 해당 사건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연루한 용공 사건으로 몰기 위해 구타, 물고문 등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구원은 무릎 연골이 깨지는 중상을 입었고, 고문을 견디다 못한 권오창은 자살 기도를 위해 라디에이터에 머리를 들이받아 머리뼈가 깨지기도 했다. 결국 공안당국은 계엄법위반죄와 폭발물사용 음모죄를 뒤집어씌웠고 그 결과 황인오 징역 20년, 정구원 징역 10년, 권운상, 권오창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시국 사범 고문피해 성난 폭로 잇따라", 한겨레, 1988.12.25., 11면.)

한편 권운상은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96년 사망했고, 어머니 조연행이 대신 재심을 청구해 1999년 계엄법위반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폭발물사용 음모죄는 재심개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남게 됐다. (이본영, "아들 무덤에 바친 '무죄판결'", 한겨레, 1999.8.9., 15면.)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황인오(1956년생)</td><td>직업</td><td colspan="3">통일사회당 당원
동원탄좌 소속 광부</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미스 유니버스 대회장 점거미수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0.6.27.
(정선서 체포)</td><td>구속일</td><td colspan="2">1980.7.8.
(남영동 대공분실 이첩)</td><td>송치일</td><td>1980.7.29.</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폭발물 사용음모 및 계엄령 위반</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80.9.6. 수도경비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
1심 징역 20년
1981.2.17. 육군고등군법회의 2심 징역 10년
1982.12.24. 형집행정지 석방</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전 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전 가톨릭 광산노동상담소 소장</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그들이 의도한 대로 대공 혐의점을 쉽게 덮어씌울 수 없게 되자 약 보름 만에 우리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이첩하였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보름가량 집단 폭행과 전기와 물고문 등 온갖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남영동에서는 우리 네 사람이 모두 철저히 격리되어 있어서 각자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나중에 서대문 구치소에서 만나 들어보니 모두들 생사를 넘는 온갖 고문을 당하였다. …
나중에 김근태 씨 사건으로 유명해진 고문 경관 이근안도 나를 담당한 고문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당시 그는 비교적 하위직인 경위였는데, 그때도 그는 특유의 우람한 체구와 각종 무술 실력을 자랑하며 나를 위협했다. 그가 배운 무술이 고작해야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무저항 상태의 상대에게 물을 먹이거나 전기고문을 가하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사술(邪術)이었겠지만, 무술의 기본도 모르는 사이비 무술인에 지나지 않는 자에게 온갖 조롱과 모멸을 당한 것이다. 사이비 무술인인 고문경관 이근안이라는 자는 그 뒤 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시 용의자로 붙잡혀가서 꼬박 열흘 동안 고문을 당하는 등 두 차례의 악연을 맺었다. … 나는 이 사건으로 정선 경찰서를 필두로 특수수사대와 대공분실 등 세 곳의 수사기관을 돌아다니며 인두로 지지는 불고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고문을 당하였다. 나중에 수도경비사령부 검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까지 합치면 네 곳을 전전하며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우리 사건 관련자들은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혹독한 고문에 끝내 굴하지 않고 수사당국의 사건 확대 조작음모에 맞섰다. 결국 수사당국이 뒤집어씌우려 한 용공조작은 끝내 실패하고 약 한 달 만인 8월 초 서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황인오, 舍北으로 돌아가다!!! 14. 사북항쟁기록)

황인오 씨는 또 서울로 이첩돼 6월 28일 계엄사 합수본부 산하 치안본부 특수대에서 당시 특수대장 안희상 총경(87년 사망) 지휘 아래 윤충훈·오 아무개·유 아무개 씨 등 경찰관들과 헌병 7~8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뒤 7월 8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경위에게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황 씨는 또 7월 2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군검찰 취조과정에서 8월 1일 수경사 검찰부장 신건수 대위의 지시를 받은 헌병 3명으</td></tr>
</table>

	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황 씨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신의 여동생(당시 25살)이 6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하실에 있던 치안본부 특수대장실로 불려와 안희상 총경의 지시를 받은 특수대 3반장 권 아무개 경감의 지휘 하에 윤충훈 씨 등 3명의 경찰관이 황 씨 및 함께 조사를 받던 권운상(35) 씨 등이 보는 앞에서 동생을 발가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워 코에 물을 붓는 고문을 두 차례나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국 사범 고문피해 성난 폭로 잇따라”, 한겨레, 1988.12.25., 11면.)

이름	권운상(1945년생)		**직업**	통일사회당 노동국장 소설가	
사건명	미스 유니버스 대회장 점거미수 사건				
체포일	1980.6.29.	**구속일**		**송치일**	1980.7.29.
적용 법조	폭발물 사용음모 및 계엄법 위반		**재판 결과**	1980.9.6. 수도경비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 1심 징역 10년 1981.2.17. 육군고등군법회의 2심·3심 상동 1982.12.24. 형집행정지 석방	
재심 여부	1999. 서울고등법원, 계엄법위반 무죄, 폭발물사용 선동 및 음모죄는 제외		**현재 상황**	노동법률상담소장, 소설「녹슬은 해방구」,「월악산」 작가 1996.12.26. 사망	

고문 피해 진술

밖에서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장 폭파음모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작년도 여름 광주사건이 나고 저의 아들 권운상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국가의 어려움과 경제불황 속에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와 같은 사치행사를 정부가 개최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 이를 고발, 시정하고자 유인물을 만들기로 한 것이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그와 같이 조작되어 군사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조연행, 호소문[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애자 권운상의 모 조연행 씨가 작성한 호소문], 81.10.29.)

1980년 6월 25일 친구들을 통일사회당에서 만나 대화 중에서 정국은 총칼 때문에 너무나 인권이 탄압되고 광주사태가 너무나 비참하고 비인도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황인오가 폭발물을 가지고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하여 미인을 인질로 하여 전 세계에 호소하겠다고 하였다. 우발적인 이 이야기에 저의 아들인 권운상은 불가능하다고 만류하였고, 정구원은 부산에서 처음 서울 구경을 온 아이기 때문에 황인오를 따라 서울구경을 다녔고, 권오창은 이 대화에 끼어 또한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그쳤다. 이외의 사람들은 김정길, 김진안, 박점용이가 합동수사본부에 나가서 밀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권운상, 황인오, 정구원, 권오창 등이 계엄사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으로 저의 아들인 권운상은 9차례 까무라쳐서 사경을 헤매었고 황인오는 매를 너무 맞아서 지금도 병든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고문으로 죄를 씌워 미스 유니버스 음모사건이라고 조작하였으며 1980년 9월 3일 서울지구 계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재판에서 본인들 진술은 모두 우발적인 대화로 그쳤다, 권운상, 권오창은 만류하였다, 정구원은 나는 서울 구경한 것뿐이다 등의 진술요지였으나 황인오는 25년 구형에 20년을, 권운상, 정구원은 20년 구형에 10년을, 권오창은 15년 구형에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때부터 조연행인 저는 저의 아들 구명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태윤기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를 맡게 하며 10회에 걸쳐 계엄사령관, 수사본부장, NCC 총무 고등군법회의재판장에게 탄원서를 올리며 세계장애자를 맞이하여 저의 아들인 권운상은 지체장애자라고 진정서도 올렸으며 권운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만류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김정길과 김진안 두 사람이 증인을 섰으나 계엄이 해제된 1981년 2월에 고등군법회의의 엉터리 판결은 증인은

	무효이며 이유 없다고 기각하여 1심 형량 그대로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렸으나 모두 눈이 멀고 귀먹은 집합인지 회신 한 장 없으며 장애자를 위한다는 말뿐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조연행, 호소문[구속된 아들 권운상에 대한 석방을 촉구], 1981.5.19.) 고문을 당한 권운상 씨는 82년 석방 후 3년여 동안 하반신 마비를 일으켜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등 고문후유증에 크게 시달려야 했다. (“시국 사범 고문피해 성난 폭로 잇따라”, 한겨레, 1988.12.25., 11면.)

이름	정구원(1959년생)		직업	노동자(부산의 조선소)	
사건명	미스 유니버스 대회장 점거미수 사건				
체포일	1980.6.29.	구속일		송치일	1980.7.29.
적용 법조	폭발물 사용음모 및 계엄법 위반		재판 결과	1980.9.6. 수도경비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 1심 징역 10년 1982.12.24. 형집행정지 석방	
재심 여부	2001.2.15. 계엄법위반 무죄, 폭발물사용 음모죄 제외		현재 상황	'다음' 카페에 마지막 글 게재 (http://cafe.daum.net/80518)	

고문 피해 진술

나는 80년 당시 죄명 세계 유니버스 대회 폭파 사건으로 황인오 씨와 같은 공범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황인오 씨를 잘 알지는 못하였고 다만 사북사태로 인하여 80년 당시 서울소재 통일 사회당에서 피신하고 있는 황인오 씨를 처음으로 만났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황인오 씨와 나는 80년 신군부가 저지른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광주 항쟁을 유발시키고 언론을 말살하였으며 많은 정치인과 민주인사를 구속시키고 사북사태 등의 죄상을 낱낱이 세계에 알릴 목적으로 1980년 6월 내가 세계 미스 유니버스대회 전야제인 대회장을 답사하고 대회장 내부의 약도와 폭발물을 준비하고(폭발물은 인명피해가 거의 없는 사북탄광에서 쓰는 진공탄으로 황인오 씨가 준비하기로 함) 프랭카드와 성명서, 유인물, 화염병(작은 병들)을 제작하여 미국 CBS TV에 의해 전 세계에 생방송되는 대회장을 점거하려다 본 대회 바로 직전 무수히 많은 총을 든 계엄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물론 권운상 씨와 내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은 모두 압수되었다.
(정구원 본인 글,
http://www.demopark.or.kr/Announcement/announcement_05.asp?board_cd=read&board_num=79&table_nm=board_free&div_code=&usr_id=&ad=&page=230&str1=&str2=&str3=&str4=&str5=&str6=&str7=&str8=&str9=.)

그때 나는 고문을 받으면서 수도 없이 기절을 하였고 오른쪽 다리 무릎에 연골이 깨어져 튀어나오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뼈가 비틀어지고 쪽팔리게도 쇠파이프로 너무 맞으니 빤스에다 피똥을 싸 냄새를 풍긴 적도 있으며 머리뼈가 깨어져 그때 당시 수도육군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한 적도 있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잠시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군 소속 담당 의사가 하던 말이 지금도 생생히 생각난다. 정구원 씨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살아날 가능성이 50% 정도였는데 살아서 천만다행이라면서 목숨이 우선이니까 일단 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나는 지금도 그 의사를 찾고 싶다.
머리에는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다시 고문실로 끌려와서는 또다시 수많은 고문을 가하였다. 그때 같은 공범인 권오창 씨는 고문이 너무 괴로워 수사관이 순간 한눈을 파는 사이 고문실 라지에타에 몸을 날려 자살을 기도하다 머리가 깨어져 수도 육군 통합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뒤에 들어온 어떤 공범은 그 모습만 보고 바지에다 오줌을 싸는 것도 본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쇠파이프로 몇 대 맞자 대굴대굴 구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서, 어떤 사람은 무슨 사연인지 훈방된 사람도 있다. 입으로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원망하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동지들이여 귀신을 보았는가. 나는 귀신을 보았다. 그것도 살아 있는 귀신을 보았다. 수사관이 나를 끊임없이 심문한 말 중에 황인오 씨에 대한 사북사태의 진상을 말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사북사태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 (정구원 본인 글, http://www.demopark.or.kr/Announcement/announcement_05.asp?board_cd=read&board_num=79&table_nm=board_free&div_code=&usr_id=&ad=&page=230&str1=&str2=&str3=&str4=&str5=&str6=&str7=&str8=&str9=.) 수도통합병원에서 갓 수술을 받고 머리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한동안 세수도 하지 않고 말을 할 힘도 없는 상태인지라 그들도 나를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들것에 실어서 지하실 감방에다 이불을 덮어씌운 채로 나가 버렸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문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정신이 든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내가 본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저들이 알아 보았자 또 피 흘리고 전기로 지질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수사관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정구원이 아직 자고 있어?” 하였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죽은 척했다. “정구원이” 하고 한 번 더 나를 부른다. 그래도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죽은 척했다. 그랬더니 수사관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머리 쪽에 덮어쓰고 있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는 것을 느꼈다. 수사관 얼굴이 내 얼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느껴졌다. 순간 나는 생각했다. 내가 아직 정상이 아니라고 만들고 싶었다. 그래야 덜 당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눈을 번쩍 뜨고 “우워억” 하고 단말마에 비명같이 짧게 숨넘어가는 소리를 순간적으로 질렀다. 지금도 생각난다. 그때의 수사관의 표정이 수술을 받은 적이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그것도 시체같이 꼼짝도 하지 않던 놈이 그의 얼굴 바로 앞에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순간 숨넘어가는 소리로 비명을 질렀으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순간 수사관이 “엄마야!” 하면서 뒤로 벌렁 엉덩방아를 찍었다. 그때 나는 남자도 “엄마야!”라는 비명도 지르는 것인 줄 처음 알았다. 엉덩방아를 찍은 상태에서 왼손은 땅을 짚고 오른손으로 나를 보며 허공에다 두어 번 휘저으며 “누워 자”, “누워 자” 하였다. 순간 나는 너무도 우스웠다. 하지만 내가 웃음을 보이는 순간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무표정하게 실신한 사람 실눈같이 무표정하게 지었다. 수사관이 일어나 엉덩이를 털고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을 열고 나가는 폼은 어찌 그리도 의젓한지…. (이상원, “80년 4월 사북항쟁과 80년 6월 세계미스 유니버스대회 폭파 미수사건”, 오마이뉴스, 2003.7.9.)

●●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일명 '학림 사건') 개요

1980년 '서울의 봄'이 실패한 직후 군부독재에 철저히 저항할 새로운 학생운동 조직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이선근은 새 학생운동 조직 건설을 위해 선배인 이태복과 함께 '학생운동은 즉각적인 투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운동이 그 성과를 받아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다. 80년 5월 이태복의 주도로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81년 2월 이선근을 주도로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이 탄생했다. 전민학련은 결성과 동시에 81년 봄의 학원 시위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3월 서울대 첫 시위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성균관대, 동국대, 부산대 등 전국의 30여 차례 학생 시위가 전민학련 지도 아래 일어났다.

공안당국은 학원운동 세력들에 대한 내사를 시작하면서 1981년 6월 10일 이태복, 6월 16일 이선근을 시작으로 26명의 전민학련, 전민노련 당사자들을 불법 연행했다. 이들은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까지 최소 19일에서 78일까지 불법구금 상태에서 온갖 잔혹한 고문을 당했다. 공안당국은 전민학련을 따로 떼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선근 등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사실과 전민학련은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반독재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 조직이고, 전민노련과는 아무런 조직적 연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민학력을 반국가단체로 인정, 1심에서 무기징역에서 1년까지 대부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사건 당사자들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009년 6월 진화위는 수사와 재판의 불법성을 공식 인정하고, 재심 권고 결정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 12월 30일 사건발생 3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동녘 편집부 엮음, 「빼앗긴 봄의 들판에서」, 동녘, 2016년, 16~35, 612쪽; 유시춘 외 9명, "[실록 민주화운동] 46. 학림사건", 경향신문, 2004.2.29.)

이름	이태복(1952년생)			직업	전민노련 도서출판 광민사 대표	
사건명	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학림 사건)					
체포일	1981.6.10.	구속일	1981.7.23.		송치일	1981.8.10.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계엄령, 계엄포고령			재판 결과	1982.1.22. 1심 무기징역 1982.5.22. 2심	
재심 여부	2010.12.30. 고법 무죄 2012.6.14. 대법 무죄			현재 상황	전 청와대 노동복지수석비서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문 피해 진술

6월 10일 혜화동 로타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4명한테 검은 차에 실려 연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딘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곳이 남영동 대공분실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 맨 처음 꿇어앉히고 구타당했는데, "네가 수괴지? 꼬뮤니스트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공산주의자이고 수괴가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꼼은 아니고 수괴가 아니다"라고 하니 다짜고짜 발가벗긴 채 고문판에 사지를 묶고 물고문을 하며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괴이고 꼼이라는 걸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물고문을 하니까 토하고 위에서 심한 경련이 일어나 비명을 지르니까 수건을 입에 물려 물고문, 전기고문, 발바닥 고문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때렸습니다.

(1982년 4월 26일 열린 항소심 공판 진술)

최근에 태복이한테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일 전(2월 10일)에 면회 갔을 때에는 양말을 벗고 왼쪽 발바닥을 보여 주는데, 뒤꿈치가 움푹 파여 있어서 왜 그러냐고 놀라 물어보았더니, 7년 전에 남영동에서 고문받을 때 자칭 '타작팀'이라고 하는 경감 2인, 경사 2인, 그 밖의 2인, 모두 6명에게 발바닥을 하도 많이 맞아서, 피멍이 든 것이 회복되지 않자 그놈들이 경찰병원에 데리고 가 발바닥을 패고 피멍을 긁어내고 꿰매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칠성판에 묶인 채 물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 급성폐렴에 걸린 일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 사지를 묶은 채 양 허벅지를 무수하게 찔러 구타하고 시꺼멓게 되면 약을 발라 본래 색이 돌아오도록 한 뒤, 다시 같은 수법으로 때리기를 수없이 반복했답니다.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거름, 1987년, 89~91쪽.)

"일단 전 조사기간 동안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었고, 거의 모든 시간을 칠성판에 묶여 있었다. 칠성판의 모양은 직사각형의 나무판에 벨트가 4개 달려 있었는데, 이 벨트로 발목, 허벅지, 배, 가슴을 묶었습니다. 초기단계는 주로 구타와 폭행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구타는 주먹으로 몸 전체를 가격하였고, 침대 각목을 이용하기도 하고, 빨랫방망이 등으로 얼굴, 앞가슴, 발바닥, 허벅지 등의 전신을 가격하였다."

"물고문을 시작하였는데 칠성판의 발쪽을 들어서 그대로 욕탕에 밀어 넣었다. 그렇게 하자 입과 코로 물이 들어왔고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때 수사관들은 항복할 의사가 있으면 발가락을 움직이라고 하였다. 항복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입을 벌려서

	주전자로 물을 붓기 시작했고 한참 물을 마시고 까무라쳤다. 이 과정을 몇 번에 걸쳐 반복했다.”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자 이제는 젖은 수건을 얼굴 위에 덮고 그 위에다 물을 붓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는 숨을 쉴 수가 없어 무척 괴로웠다. 그래도 버티자 다음 단계로 수건을 입에 넣고 코를 막은 상태에서 물을 부었다. 이때도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고, 입으로 똥물까지 다 토해내야 했다. 물고문은 욕탕에 집어넣는 것은 6~7회, 얼굴에 수건을 덮고 하는 것은 3~4회가량 당하였다.” “물고문 이후에는 전기고문이 이어졌는데, 전기고문은 당시 타작반장으로 유명했던 이**의 발명품으로 알고 있다. 전기고문 도구는 밧데리 몸체가 있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전선 끝부분에 코일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코일을 발가락 등에 감는 방법을 사용했다. 밧데리 몸체에 있는 손잡이를 통해 전기의 강도를 조절하였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돌리다가 점차 빨리 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기고문 부위도 처음에는 발가락으로 시작해서 손가락, 성기로 이어졌다. 이때는 신체적 고통보다는 심리적 공포가 대단했고, 전기고문은 10여 차례 당하였다.” “재판에 회부하기로 하고 나서 온몸에 멍을 빼는 작업을 하는데 발바닥은 너무 많이 맞아서 멍이 빠지지 않자 경찰병원으로 데려가 발바닥을 째서 고름을 빼고 봉합수술을 하였다. 지금도 그때의 봉합수술 흉터가 남아 있다. 당시 수사관들이 얘기하기로는 ‘증거를 남기게 되었다. 이것까지 완벽하게 없애야 했는데’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 2009.3.24.)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박문식(1959년생)</td><td>직업</td><td colspan="2">전민련
서울대 경제과 제적</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학림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1.6.20.</td><td>구속일</td><td>1981.7.23.</td><td>송치일</td><td>1981.8.10.</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 반공법</td><td>재판
결과</td><td colspan="2">1982.1.22. 1심 징역 7년
1982.5.22. 2심 징역 5년
1983.12.23. 성탄절특사 석방</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2010.12.30. 서울고법 무죄
2012.6.14. 대법원 무죄</td><td>현재
상황</td><td colspan="2">공인회계사, 제원회계법인 대표</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5">“남영동에서 20여 일간 고문을 당하는 동안 ‘그’는 항상 핏발 선 눈빛이었고, 90kg이 넘어 보이는 거구로 칠성판 위에 묶고는 깔고 앉아 목을 조르고 물고문, 전기고문, 발바닥 구타 등을 쉼 없이 했다.”
(문학진, “일상화된 반문명적 폭력고문(1), 한겨레, 1988.12.27., 5면.)

“1981년 6월 23일께 남영동 분실에 연행돼 5층 15호 큰방에서 20여 일 동안 호된 고문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처음 도착하자마자 4~5명이 달려들어 발가벗기고 마구 구타한 뒤 ‘칠성판’에서 고춧가루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했다. 당시 고문을 담당했던 사람은 ‘반달곰’이라고 불린 이근환(안) 경위와 젊은 형사 2~3명이었는데 그의 주특기는 관절을 뽑았다 끼웠다 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문 때 ‘남민전도 내가 고문해서 만들었고 무림도 내가 다 해결했다’고 자랑스레 말했는데 지금은 경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희락, “일상화된 반문명적 폭력고문(2), 한겨레, 1988.12.28., 5면.)

- 이근안 전 경감이 인터뷰에서 “나는 고문기술자가 아니고 굳이 기술자라는 호칭을 붙여야 한다면 ‘신문(訊問) 기술자’가 맞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도 하나의 예술이다”라고 했는데.
“예술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의 자기주장일 뿐이다. 또 고문을 안 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내가 1981년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1달 가까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이근안과 같이 살았는데, 이근안이 고문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중에 김근태 선배가 이근안한테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내가 당한 것과 많이 일치하더라.”
- 김 고문이 고문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앓았는데, 박 대표에게 후유증은 없었나.
“나도 교도소에 수감된 뒤 고문후유증인 중증 천식과 호흡장애를 앓아 반년 이상 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내가 앓은 질환이나, 김근태 선배가 앓은 파킨슨병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상황에서는 그런 병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문이 그런 병을 촉발시킨 것이다.”
(양영권, “이근안, 고문장소에 아들 근무시키기도…가책 못 느껴”, 머니투데이, 2011.12.30.)</td></tr>
</table>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이덕희(1960년생)</td><td>직업</td><td colspan="3">전민학련
서울대 미생물학과 대학원</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학림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1.6.20.</td><td>구속일</td><td>1981.7.23.</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 반공법</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82.1.22. 1심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1982.5.22. 2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1983.8.15. 광복절특사 석방</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2010.12.30. 서울고법 무죄
2012.6.14. 대법원 무죄</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환경운동연합 21세기위원회 위원</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5">맨 처음 연행되어 들어가자마자 “사회주의자 아니냐”며 구타를 당했습니다. … 담당수사관이 “수출주도형 경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니 너는 사회주의자이다”라면서 그 내용 하나, 하나를 강요당하면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책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니 “딴 사람이 다 말했다”면서 무릎을 꿇게 하고 따귀를 때리며 “남영동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고 싶냐”고 위협했습니다.
불법구금으로 70일간 지내보니 고문을 당할 때의 고통도 크지만 그 당시 고문을 당할 때보다 다시 고문을 당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노릇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검사가 “반국가 단체 구성까지는 하지 않겠다. 불법 집회로만 하겠다”라는 검사의 말에 체념 상태에서 인정했습니다. (1982년 4월 26일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진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학림·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피고인들의 고문에 대한 법정진술), 1982.5.)</td></tr>
</table>

이름	송병춘(1955년생)		**직업**	전민노련 서울사대 교육과 제적	
사건명	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학림 사건)				
체포일	1981.8.13.	**구속일**	1981.9.1.	**송치일**	-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계엄포고령		**재판 결과**	1982.1.22. 1심 징역 3년 1982.5.22. 2심 징역 2년 1983.8.12. 형집행면제 석방	
재심 여부	2010.12.30. 서울고법 무죄 2012.6.14. 대법원 무죄		**현재 상황**	변호사	
고문 피해 진술	(가는 곳을) 몰랐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전철역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남영동 대공분실인 줄 알았습니다. … 문래동 파출소에서부터 맞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의 주소와 방을 얻어 놓았던 데를 수색당하고 남영동에 가니까 고의적으로 물을 것도 없이 뒤로 묶어 놓고 물에 넣었다가 고문실에 데려가서 얼굴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 처음에 가서 한 번만 고문대에서 당했고 그 뒤 폭행은 계속 당했습니다. 진술서를 쓰게 하는 양식이 준비되었는데 흥사단에서 있었던 일, 노동운동에 관한 것은 그대로 썼지만 사상성향에서 이태복 씨와의 관계와 이태복 씨로부터 어떤 고양을 받았고 현장에 침투해 노동자를 어떻게 선동했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 목표 방법에 대해 쓰라고 했습니다. …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위해 현장에 침투한 것이”라고 쓰라고 해서 쓸 수 없다고 하자 다시 고문대에 올려 보내겠다고 해서 제 생각으로 쓰니까 이태복이가 사회주의 고양시키기 위하여 책을 주고 했다면서 이태복 진술서 가운데 저와 관계된 부분을 뽑아 와서 그대로 베껴 쓰게 했습니다. (1982년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진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학림·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피고인들의 고문에 대한 법정진술), 1982.5.)				

이름	신철영(1951년생)		직업	전민노련 영등포산업선교회 실무자	
사건명	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학림 사건)				
체포일	1981.8.3.	구속일	1981.9.1.	송치일	-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계엄포고령		재판 결과	1982.1.22. 1심 징역 2년 1982.5.22. 2심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	
재심 여부	2010.12.30. 서울고법 무죄 2012.6.14. 대법원 무죄		현재 상황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고문 피해 진술	주로 당한 가혹행위는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이었는데, 구타는 주먹과 몽둥이를 사용해서 온몸을 가격하였고, 물고문은 일단 칠성판에 고정한 후에 얼굴에 수건을 덮고 그 위에 물을 부었고, 바로 전기고문이 이어졌는데 칠성판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에 전선을 걸어 전기충격을 가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009.5.27., 전화 진술청취)) 8월 3일 오전 9시경 집에서 연행당했는데 처음엔 “잠깐 참고로 조사할 일이 있으니 같이 가자”면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차에 실려 가다가 한강 다리를 넘으면서 “고개를 숙이라” 하며 눈을 가리우고 끌려갔습니다. … 8월 4일 오후 담당수사관보다 높은 사람이 들어와 안 되겠다 하며 4명이 더 들어와 5~6명 정도가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새끼는 한 달만 있으면 겉으로 표시 안 내고 죽일 수 있다”면서 “새끼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면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말대답을 안 했습니다. 밤늦게 다른 방(고문실)으로 데려가서 옷을 모두 벗겨 팬티만 입히고 결박된 상태로 얼굴에 수건을 덮어씌우고 물을 붓고 “박형규 목사한테 노동자 연맹조직에 대해 보고했다”고 자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견디다 못해 “박형규 목사한테 보고했다”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불을 붓고 전기선을 연결해서 전기고문을 하고 발바닥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고 사회주의 했다는 진술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공소장 모두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쓰라는 것이어서 사실대로 쓰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저녁 먹이지 말라고 하고선 나중에 고문대에 올라가서 다시 쓰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문장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공소장의 모든 부분은 세 가지가 종합된 것인데 앞에는 본인이 쓰고, 중간은 수사관이 수사보고서를 옮겨 쓴 것이고, 뒤쪽은 이태복 군의 자술서를 옮겨 쓰고 맞추었습니다. (1982년 5월 3일 대법정 항소심 진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학림·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 1987.5., 14~15쪽.)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양승조(1952년생)</td><td>직업</td><td colspan="3">전민노련
전 청계노조 지부장</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학림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1.8.1.</td><td>구속일</td><td colspan="2">1981.9.1.</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3">국가보안법, 계엄법, 계엄포고령</td><td>재판
결과</td><td colspan="2">1982.1.22. 1심 징역 3년
1982.5.22. 2심 징역 3년
1983.8.15. 광복절특사 석방</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3">2010.12.30. 서울고법 무죄
2012.6.14. 대법원 무죄</td><td>현재
상황</td><td colspan="2">인천 한겨레 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검찰에 와서 “내가 치안본부에 와서 조사받은 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니 다시 하자”고 했더니 “너 혼자만 부인하면 되냐”면서 4~5시간 또 맞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태복이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노동운동하면서 생각한 게 많아 노동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 권익 운동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툭하면 빨갱이로 몰아붙이니 억울합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학림·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피고인들의 고문에 대한 법정진술, 14~15쪽.)

수사관들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냐’ 하면서 각목으로 마구 때리고, 고문실로 데려가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신문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항복하라고 강요하였다. 우선 칠성판에 몸을 고정시킨 이후에 수사관 한 명이 코를 막고 머리를 못 흔들게 고정시킨 후에 입으로 물을 부었다. 그렇게 몇 차례 한 이후에 양 발가락에 전선을 감아 전기고문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10여 일간 매일 되풀이하면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5번 정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공판조서,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청취, 2009.5.25.)

8월 1일 집 앞에서 연행되었는데 보자마자 수갑을 채웠습니다. 다짜고짜 때려요. 3사람이 때렸는데 차에 타자마자 고개를 수그리게 하였습니다. 남영동에 가자마자 “너는 빨갱이다” 하면서 … 꼬박 밥도 안 먹이고 잠도 안 재우고서 각목으로 이틀 동안 때렸습니다. 멍이 안 풀려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다시 고문실로 가서 빨가벗겨 갖고 “항복을 할래” 하면서 묶어 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선 물 호스를 입에 대고 1시간씩이나 힘을 못 쓸 때까지 계속해댔습니다. 눈하고 코하고 다 막아 놨으니 항복하면 발만 까딱였습니다. “쓸 수가 없다. 뭘 알아야 쓰지 않겠느냐” 하며 사람이 기진맥진하니까 멍이 안 든 데만 골라서 때렸습니다. 8월 1일부터 10 며칠까지 고문을 말할 수 없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맞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술서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나를 담당한 수사관 이근환(안) 씨가 쓰라 해서 두 번 베꼈습니다. (1982년 5월 3일 대법정 진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학림·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 14~15쪽.)</td></tr>
</table>

이름	송영인(1955년생)		직업	전민노련 서울대 역사학과 제적	
사건명	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학림 사건)				
체포일	1981.8.12.	구속일	1981.9.1.	송치일	-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계엄포고령		재판 결과	1982.5.22. 2심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 1983.8.12. 형집행면제 석방	
재심 여부	2010.12.30. 서울고법 무죄 2012.6.14. 대법원 무죄		현재 상황		

고문 피해 진술

그 근처의 파출소로 갔다가 대공분실로 연행되었습니다. … 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었고 예비군복을 뒤집어씌워 갔습니다. … 이유를 잘 몰랐는데 방범들이 쓰는 방에서 폭행을 당해 턱뼈가 나갔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수사관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나를 잡기 위해 돈을 많이 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면서 때린 것 같습니다. … "네 죄를 네가 알렷다" 하면서 손을 뒤로 묶어서 목욕탕에 넣어 물 먹이는 물고문을 시키고 하다가 안 되자 고문실로 데려가 자백을 하라면서 잠을 안 재우고, 집중적으로 얻어맞고 3일 동안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자술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학림·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피고인들의 고문에 대한 법정진술), 1982.5.)

사회주의 부분에 대한 진술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때렸고 사회주의 성향을 쓰게 하려고 강요되었습니다. … 일부는 보고 썼고, 심문관이 나를 심문할 때 쓰는 용어를 쓰도록 했고, 사회주의 경향을 못 쓰고 있으니까 김진철 군의 자수서와 이태복 씨의 것을 보고 쓰라고 갖다주었습니다. 수사관이 나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하는 데 필요할 텐데 북으로부터 자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 "네가 자술서를 작성할 때는 사회주의 혁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자술서를 쓸 필요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태복 형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이태복으로부터 사회주의 교육을 받지 않았느냐"며 그 내용을 쓰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인하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고문받은 대목이었습니다. … 부인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면 미리 검사님이 말을 막았으며… 이미 자술서 작성과정에서 제 자신과 이태복 씨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공산주의자끼리 만나서 그런 얘기 안 했을 리가 없다"며 공산주의자로서 고양에 대해 강요당했습니다. (1982년 5월 3일 대법정 항소심 진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학림·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피고인들의 고문에 대한 법정진술), 1982.5.)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유해우(당시 유동우, 1949년생)</td><td>직업</td><td colspan="3">전민노련
전 삼원섬유 분회장</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학림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1.8.2.</td><td>구속일</td><td>1981.9.7.</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계엄법, 계엄포고령</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82.1.22.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1982.5.22.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2010.12.30. 서울고법 무죄
2012.6.14. 대법원 무죄</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198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5">1981년 8월, 유동우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자신이 공산주의자이고, 노동자와 학생 세력이 연대하여 현 정부(당시 5공정권)를 무너뜨린 뒤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다 검거되었다”는 혐의로 한 달간 경찰병원에 3차례 실려가야 했을 만큼 극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집단구타와 물고문 등으로 인해 갈비뼈 3대가 금이 가고, 앞니 2개와 어금니 2개가 심하게 흔들리고, 밥을 먹지 못하는 등 상태가 심각했다.
구속에서 풀려났으나, 가난한 노동자의 형편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 갔다. 흔들리던 이빨 4개는 이내 빠져버렸고, 갈비뼈에 금이 간 것도 석방 뒤 X-ray를 찍어보고 나서야 알았다. 극도의 공포감과 악몽에 시달렸고, 불면증이 심해갔다. 90년도에는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아파트 4층에서 뒤쪽 베란다를 타고 도망치다 떨어져 발가락 3개가 골절상을 입었다.
방에 혼자 있으면 누가 꼭 잡으러 오는 것 같아 수시로 집을 나갔고, 몇 달이고 노숙자 생활과 구걸을 하는 일이 잦았다. 아내와 딸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오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극도의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렸다. 운동권에도 잊혀진 사람이 되어갔다. 보다 못한 아내와 딸이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였다. 그때마다 “왜 나를 미친놈 취급하느냐”, “내가 미쳤으면 헤어지면 될 거 아니냐?”면서 불같이 화를 내었고, 시비를 걸었다. 짜증과 분노가 쌓여갔고, 공격성향이 심화되면서 가족들과의 갈등도 깊어갔다.
(인권의학연구소, 고문 방지 및 고문 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2012.11.19.)

당시 결핵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 시작부터 건강이 매우 안 좋았으나,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상태에서 짓밟고, 손가락에 볼펜을 꽂아 위에서 누르는 등 수많은 구타를 당하였고, 그래도 안 되자 이번엔 몸을 번쩍 들어 물이 가득 받아져 있는 욕조에 그대로 처박는 물고문을 하였다. 그 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경찰병원도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009.6.2., 전화 진술청취)

하지만 정작 필자 유 씨는 책의 유명세를 모른 채 30년 가까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했</td></tr>
</table>

	다. “책을 낸 뒤 전국의 노동현장을 다니며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연을 하러 다녔는데 81년 여름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어요.” 5공화국 정권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 했다’는 혐의로 노동자·학생 24명을 구속시킨 이른바 ‘학림사건’에 연루된 것이었다. 한 달간 경찰병원에 3차례 실려 가야 할 만큼 극심한 고문을 당한 그는 내내 서대문구치소 병사에 수감될 정도로 건강이 망가져 1심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출소 이후 그의 삶은 고문후유증 때문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87년 대선 때 구로구청 부정 투표함 투쟁 때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로 또다시 옥살이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심해졌어요. 혼자 있으면 잡혀갈 것 같아 집을 나가 몇 달씩 노숙자 생활을 되풀이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죠. 극도의 대인기피증으로 스스로 잊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2012년 11월 국회 ‘고문방지 및 고문 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고문 피해 경험을 공개 증언한 것이다. “2011년 11월 김근태 의장이 고문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갔다가 고문당한 그 자리에서 처음 얘기를 했지요.” (“38년 만에 일본서 날아온 ‘돌멩이의 노래’…삶 되찾은 듯”, 한겨레, 2016.7.22.)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노숙영(1956년생)</td><td>직업</td><td colspan="3">전민노련
서울여대 가정과 제적</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학림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1.8.14.</td><td>구속일</td><td>1981.9.1.</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계엄포고령</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82.1.22. 1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1982.5.22. 2심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2010.12.30. 서울고법 무죄
2012.6.14. 대법원 무죄</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5">그런 것(남영동 대공분실인 것) 알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중에 오리온 공장과 기차소리를 듣고 알게 되었고 수사관들이 왔다 갔다 하며 대공분실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 안양서 저를 보자마자 한 대 때리고선 “너 공산주의자 맞지” 하였습니다. 제가 며칠간 도피를 하고 있었는데 1차 조사가 끝나고 일부 학생들이 훈방되어 나오면서 “구속된 몇 사람이 공산주의자로 몰리고 있다”고 해서 자신도 이태복 씨와 관련이 있으니 잡히면 분명히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 여겨져서 도피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가용으로 4명의 수사관이 연행했는데 가자마자 이태복 씨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였더니 고문대에 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자의 몸으로 고문대에 올라가서 고문을 받고 병신 된다면, 자신이 정말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대에 사지를 벨트로 묶고 얼굴에 수건을 덮고 딴 사람이 말한 것과 같은 고문을 했습니다. …
종합반이라는 반이 돌아다니면서 자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지도를 했습니다. 제 방에 신상초의 「레닌과 러시아혁명」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읽고 베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쓰면 담당수사관이 가져가서 보고 삭제를 해 버리고 하면, 다시 깨끗한 종이에 다시 베껴 썼습니다. 사회주의자라는 말이 너무 필요 없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요해서 따지니까 머리를 많이 때려서 너무 아파서 그 당시 제 자신이 “저 사람을 죽여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1982년 5월 3일 대법정 항소심 공판 진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학림·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피고인들의 고문에 대한 법정진술), 1982.5.)</td></tr>
</table>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김철수(1957년생)</td><td>직업</td><td colspan="3">전민노련
대학생(서울대 사회계열 중퇴)</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학림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1.8.7.</td><td>구속일</td><td>1981.9.1.</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계엄포고령</td><td>재판
결과</td><td colspan="2">1982.1.22. 1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1982.5.22. 2심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2010.12.30. 서울고법 무죄
2012.6.14. 대법원 무죄</td><td>현재
상황</td><td colspan="2">강원도 귀농</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5">저는 영장이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수갑을 채우고 허리와 허벅지에 구타를 당해 쩔뚝거리면서 연행당했습니다. 첫날은 임의로 자술서를 썼더니 주먹이 날아들고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명심해, 노동조합주의자로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로서의 자술서를 써야 몸에 이로울 것이다”라고 수사관이 얘기하며 현명하게 쓰라고 충고했고 연행된 날 집에서 책을 40권을 싣고 왔습니다. 첫날 그다음 날은 맞기만 했습니다. “일어서, 앉아, 엎드려” 하며 논산훈련소에서 받았던 것보다 4배 이상의 기합을 받았습니다. 몸으로 버티고 제가 도저히 쓰질 못하자 “네가 자술서를 못 쓰니까 편리를 위해”라면서 이태복 선배 자술서와 최규엽 자술서를 갖다주어 베껴 썼습니다. (1982년 5월 3일 대법정 진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학림·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피고인들의 고문에 대한 법정진술), 1982.5., 13쪽.)

수사관들이 저의 집에 가서 40여 권의 책을 갖고 와서 저를 고문하였고, 나중에는 ‘네가 자술서를 못 쓰겠으면 이것을 보고 해라’라고 하며 이태복, 최규엽의 자술서를 주면서 쓰라고 강요하였다.
(서울고등법원 공판조서)</td></tr>
</table>

이름	이순희(1949년생)		직업	일본 도쿄 한식요정 금용각 가수	
사건명	이순희 일본취업 간첩조작 사건				
체포일	1982.6.7.	구속일	1982.6.17.	송치일	-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간첩죄)		재판 결과	징역 12년	
재심 여부	2010.2.5. 재심 무죄		현재 상황	-	
사건 개요	1976년 일본 도쿄에 있는 한식 요정인 금용각의 가수 이순희는 고객으로 만나 알게 된 조총련 고위간부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고문수사를 당했다. 이순희와 가족들은 이 사건은 고문으로 인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한식 요정의 손님이었던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전재덕이라는 인물이 이순희에게 조총련 고위간부인 전연식을 전향시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일이 실패하자, 오히려 이순희에게 전연식을 만났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씌웠다는 것이다. 이순희가 접대부로 있으면서 △조총련 간부를 만난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죄로 △그로부터 접대비를 받은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귀국한 뒤 그와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 연락한 것으로 각각 조서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여기다가 귀국한 뒤 몇 차례 일본을 왕래한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기 위한 잠입, 탈출로 각색됐고, 남동생이 군에 있을 때 면회를 다녀온 것도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해 누설했다는 간첩죄가 씌워져 결국 12년을 선고받았다. (“문제의 공안사건을 점검한다 (4)납북 어부, 조총련 관련 사건”, 한겨레, 1988.12.10., 5면.; “아내 진술 강요 간첩증거 삼아” 장기수가족 주장 ‘조작·불법’사례”, 한겨레, 1989.12.7., 5면.;「조작간첩사례 전국순회보고, 간첩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1989.12., 26쪽.)				
고문 피해 진술	- 어머니 임수진: (딸 순희가) 1982년 2월달에 일본을 가느라고 가다가 공항에서 치안본부로 연행이 됐어요. 나는 나대로 순희가 일본에 가더니 전화 연락도 없고 해서,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한 일주일 후에 그저 어떤 사람들이 한 세 명이서 찾아왔어요. 와 가지고 순희 집이냐, 그렇다고 했더니 순희가 지금 무슨 조사를 좀 받고 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누구냐고 하니까 경찰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더니 이제 아무것도 나오는 것은 없고 그러니깐 그냥 가려면서, 가서 순희 좀 보겠냐고 하기에 당연히 가야죠. 따라갔더니 남영동에 있는 치안본부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치안본부가 뭔지, 안기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를 적이죠. 그때 8년 전인데요. 그냥 따라 들어갔더니, 어떤 방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아주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흔히 경찰서, 파출소 같은데 드나들어 보지도 못하고 70 평생을 살았는데 아 이제 가슴 덜컹 떨리기만 하고 순희 보여준다고 데리고 가더니 엉뚱한 데 어떤 방에 데리고 가서 그냥 조사를 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걸, 이것저것 물으니까 모른다고 할 밖에요. 그러는 동안에 열두 시간이나 돼요. 그렇게 묻는 소리 또 묻고, 한 소리 또 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면				

	서 날 열두 시간 붙들어 놓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어떤 사람이 “야, 안 되겠다. 가서 써가지고 와” 하대요. 이제 한 사람이 나가고 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머나, 뭘 써오라는 건가, 허고 있으니까는 한참 만에 한 여나믄장 되는 걸 써가지고 오래요. 오더니 그대로 날 보고 베끼래요. 그런 후에 나를 어떤 으리으리하게 꾸며놓은 방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방에서 순희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모두 지가 원하는 거 먹고 싶다는 거, 다 사다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있으면서 조사를 하는 중이니까 조사만 며칠만 끝나면 곧 집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런 줄만 알았는데, 순희가 날 보더니 정말, 그 얼굴 표정이며… 그래서 저를 껴안으면서 “엄마가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는 거예요. 나는 또 듣다 그게 무슨 소린지도, 뭣 땜에 순희가 들어가서 뭔 조사를 받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러냐구, 모녀가 끌어안고 그냥 한참 그러니까, 가라고 나가라고 밀어대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한마디도 못 하고 그냥 집으로 데려다 주데요. - 순희 씨가 고문받았다는 얘기를 합니까? - 어머니 임수진: 네, 고문을, 전기고문, 물고문을 받으니까, 너무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할 말은 없고 이런데 자꾸 고문을 하고, 못살게 하니까 난, 당신들 허는 말에 대답할 말이 없고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뿌리시오. 이렇게 해버렸어요. 순희가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이 자기네가 다 써가지고 이만큼 되는 거, 써가지고 와서 베끼라 그러드래. 순희는 하나도 지가 고백이고, 자백이고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이 써가지고 온 거 그대로 다 베낀 거예요. 다 쓰고 지장 찍고. 그게 전부 다 순희가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래요. 수사관들이 써가지고. -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받았습니까? - 어머니 임수진: 수사기관에서요? 고문받은 건 누구한테 받았냐면 나도 안 물어봤다가, 이근안이라는 그, 고문기술자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가 나길래 나도 생각이 나서 누구한테 고문당했냐고, 너도 고문당했다는 사람이 이근안이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그러데요. (『조작간첩사례 전국순회보고, 간첩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1989.12., 26쪽.)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 개요

전두환 신군부가 주요 학생시위 등 민주화운동의 배후로 김근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상임위원장을 지목해 탄압한 일로, 전두환 정권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고문 조작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던 고문 문제가 공론화됐다.

민청련은 1983년 9월 30일 70년대 학생운동 출신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운동세력 간의 연계와 연대를 위해 만든 공개 운동단체다. 80년 5월 대탄압의 기억이 생생한 와중에, 운동권에서는 반독재투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창립된 민청련은 운동세력에 새로운 투쟁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꺼내지 못하던 금기사항과 같던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 목소리를 냈다. 1984년 5월 19일 광주항쟁희생자 추도식을 열고, 이후 강연회, 가두행진, 집단농성 등 새로운 집회방식을 시도했다. 또한 권력과 유착한 제도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화의 길', '민중신문' 등의 간행물을 발간했다. 특히 기관지 '민주화의 길'은 운동방향 제시, 상황분석 등을 담아 운동가들의 체계적인 활동에 큰 도움을 줬다.

한편 2.12총선에서 패배한 신군부 정권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 와중에 1985년 5월 9일 민청련이 여타 청년단체, 전학련과 공식 연대해 '광주학살책임자퇴진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7월 초 '민중민주화운동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등 학생운동권과 함께 공개 운동을 이어나가자 민청련을 각종 운동권의 배후로 지목하며 주시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탄압은 서울대 학생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 관련자들에게 고문을 가해 민청련을 그 배후로 조작한 것이다.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은 1985년 9월 김근태, 이을호 등 민청련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했고, 민청련 전 의장 김근태를 공산주의자로 조작하기 위해 살인적인 물고문, 전기고문을 가했다. 1985년 10월 29일 검찰은 "민추위는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그동안 발생했던 주요 학생시위, 근로자소요가 순수한 학생, 노동운동이 아닌 좌경의식화된 몇몇 배후인물의 조종이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운동권 뒤의 숨은 얼굴 김근태, 그의 사상, 성장배경을 알아본다", "노학연계투쟁 동조세력 규합", "세 형 등 월북… 몸에 밴 좌경의식" 등의 여론재판이 이어졌다.

여론이 반전된 것은 김근태 전 의장의 고문 폭로였다. 1차 공판에 출석한 김근태 전 의장은 "전기고문을 당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22일간 당한 전기고문, 물고문, 구타를 폭로하며 핵심 공소사실은 모두 고문으로 조작됐음을 밝혔다. 고문행위는 김근태 전 의장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구속된 민청련 간부들에게는 모두 고문이 가해졌는데, 상임위 부위원장이었던 이을호의 경우 고문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고, 연성수 전상임위 부위원장, 김희상 대변인, 윤여연 전 사무국장 등이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년., 74~91쪽.)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김근태(1947년생)</td><td>직업</td><td colspan="2">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전 상임위원장</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5.9.4.</td><td>구속일</td><td colspan="2">23일</td><td>송치일</td><td>1985.9.26.</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 집시법</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86.3.6. 1심 징역 7년, 자격정지 6년
1986.7.4. 2심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2004.5.29. 무죄(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는 법령 개폐 이유로 면소)</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전 보건복지부 장관
2011.12.30. 사망</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9월 한 달 동안 가해졌던 고문의 후유증이 현재 본인에게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이 불편하고 머리가 대단히 아프고 등이 아픕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한 달 동안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가해졌던 정신적인 상처입니다. 본인의 인간적인 자존심과 주체성은 산산이 부서졌고 찢어졌습니다. 동시에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은 짓밟혀졌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지금도 남아 있고 이것이 당 재판부에 조사를 요청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57쪽.)

본인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남영동에 있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참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검사 제지) 본인의 이 사건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남영동에서 있었던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고문에 의해 그리고 동물적인 능욕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생명에 대한 위협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가해졌던 참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고문이 조사되고 색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당 재판부에 본인에게 가해졌던 고문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9월 한 달 동안 남영동에서 본인에게 가해졌던 고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검사가 제지하고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방청석에서 “놔둬”, “도둑놈들”이라는 아우성이 터짐) 본인은 이 기억을 되살리며 치 떨리는 분노와 굴욕감을 느낍니다. 우선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본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항복’입니다. 항복을 받기 위해서 깨부수겠다고 이야기했고 또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더 많이 깨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안보 사건과 관련된 본인의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게 하여 좀 더 일찍 체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에게 자신을 포기할 계기를 주기 위해서 고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심문이 시작될 때는 언제나 고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본인을 고문대 위에 올려놓고 고문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암기시키고 학습시키고 복습을 시켰습니다. 본인에게 가해졌던 고문은 준비되고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 분명합니다. …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5시간 정도</td></tr>
</table>

당했습니다.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부터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고문을 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비명 때문에 목이 부어서 말을 못 하게 되면 즉각 약을 투여하여 목을 트이게 했습니다. (어지러운 듯 말을 중단하고 난간을 붙들면서 잠깐 쉬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9월 4일날 각 5시간씩 두 차례 물고문을 당했고, 9월 5일, 9월 6일 각 한 차례씩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골고루 당했습니다. 8일에는 두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고, 10일 한 차례, 13일 금요일입니다. 9월 13일 고문자들은 본인에게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네 장례날이다", 이러한 협박을 가하면서 두 차례의 전기고문을 가했습니다. (검사가 이의제기 하자 방청석에서 "조용히 해", "계속해"라고 외침) 그다음에 20일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일날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밥을 굶긴 것도 대략 절반쯤 됩니다. 고문 때문에 13일 이후에는 밥을 먹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고문을 할 때는 밥을 주지 않는데, 고문을 하지 않을 때도 밥을 주지 않아 심리적인 압박과 고문이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몇 가지 증언을 하면, 이 고문자들은 고문을 가하면서 예컨대 8일날에는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사장이란 자가 오전 10시에 5층 15호실, 본인이 고문을 받았던 그곳 실내로 들어와서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폐기종으로 해서 죽게 만들어버려라, 내가 직접 이것을 지휘하겠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또 전무라는 자는 "정치가 법보다" 다시 말하면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는 것을 본인에게 납득시키고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델시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그 가방에 고문 도구를 들고 다니는 건장한 사내는 본인에게 "장의사 사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다. 이재문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를 했다.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가 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줄 테니까 그때 너가 복수를 해라" 이러한 참혹한 이야기를 하며 본인에 대한 동물적인 능욕을 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알몸이 되고 알몸 상태로 고문대 위에 묶여졌습니다. 추위와 신체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에 대해 성적인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제 생식기를 가리키면서 "이것도 좆이라고 달고 다녀? 민주화운동을 하는 놈들은 다 이 따위야!" 이렇게, 말하자면 깔아뭉개고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다섯 군데를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르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깝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고문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와 (이때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 본인도 울먹이며 진술함) 이때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 (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고 심지어 교도관들조차 숙연해짐)는 노래를 뇌까리면서 과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절망에 몸서리쳤습니다. (방청석 통곡) 그러고는 인간적인 고문이 자행되는 것을 보니 '새로운 광주사태가 발생하거나 준비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본인은 여기에서 죽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고문담당자에게 말하자 "그것은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굴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고문은 진술거부 때문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문을 하면서도 분노와 흥분의 빛이 없이 냉담하게 미소까지 띠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이 한 인간의 고뇌와 죽음의 몸부림 앞에서 저렇게 냉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하면서 "시집간 딸이 잘 사는지 모르겠다", "아들놈이 체력장을 잘 치렀는지 모르겠다"는 등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말들을 주고받았으며, 본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고문과 폭력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개인의 가족들에게는 인간적인 사랑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양면성이 공존할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인간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고문을 전담하던 자 중의 한 사람은 -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 나중에 혼자서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기를 "고문을 하는 것을 보고 구역질이 났다. 여기서 빨리 나가라. 허위로라도 다 인정해라. 여기 있으면 당신은 죽는다"고 울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구치로소 이송된 이후 현재까지도 협박적인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실제적 진실, 사법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요구가 보장되고, 현재 양심수나 재소자의 인간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위의 사실이 충분히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36~39쪽.)

국민여러분! 저는 민청련 전 의장 김근태의 아내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 남편에게 가해진 살인적 고문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4일날 2번, 5일날 1번, 6일날 1번… 20일날 1번, 도합 10번이나 고문을 당했는데, 온몸을 꽁꽁 묶어 놓고 물고문, 고춧가루 먹이기, 소금물 먹이기를 하루 5~7시간씩 당했다. 20일 마지막 고문을 받은 뒤 오늘(26일)까지 치료를 받았는데도 발뒷꿈치, 팔꿈치는 짓이겨졌고 온몸이 상처투성이다. 20여 일간 거의 잠을 재우지 않았고 특히 고문을 하는 날은 밥도 주지 않았다"라고 탈진한 목소리로 띄엄띄엄 얘기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9월 4일 새벽 남영동 치안본부로 끌려간 후 20여 일 넘어서야 검찰청 계단에서 간신히 만난 제 남편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에 힘을 줄 수 없는 듯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옆에서 형사들이 부축을 해서야 간신히 한 발씩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았느냐?"는 제 첫마디에 남편은 한참 동안 "굉장히 당했어! 굉장히 당했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양말을 벗어서 저에게 넘겨줄 때 드러난 남편의 발뒷꿈치는 완전히 짓이겨져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40쪽.)

칠성대 위에 걸터앉자 바로 눕혀 버리더군요. 여기서 저항은 앙탈로 전락하거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임을 이미 눈치챘습니다. … 칠성대는 세면대보다 약간 높고 남자 팔뚝 굵기의 각목 4개가 사람 키보다 약간 큰 길이로 펼쳐지고요. 앞부분은 경사 져서 세면대에 착 밀착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담요가 깔려 있고요. 사람이 눕혀지면 담요로 싼 다음에 그 바깥을 줄로 꽁꽁 묶어 버리는 것입니다. 담요로 몸을 감싸는 것은 몸에 상처가 날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상처가 남겨진다면 그것은 곤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고문당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님은 두말 할 나위 없습니다. 담요 바깥을 묶는 줄은 군대 허리띠 같은 것으로, 그것도 상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선택된 것이 분명합니다. 발목, 무릎 위, 허벅지, 배, 가슴까지 5군데를 묶습니다. 완전히 묶여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면 곧 상처가 날 테니까요. 고문의 증거로 남을 터이고요. 하지만 머리의 절반 내지 2/3 정도는 받쳐지지 않도록 해서 뒤로 젖혀지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고문할 때 효과적으로 고통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를 쓰고 움직이면 발목 아래 부분과 팔꿈치를 약간씩 비틀 수 있었습니다. 물론 눈을 가린 채이고요. 칠성대 위에 올려 눕혀진 나는 순식간에 완전히 결박되었습니다. … 협박자들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물고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백남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따라 눈이 가려져 있는 내 얼굴에 수건이, 노란 세수수건이 덮어 씌워지고 세상은 희뿌옇게, 누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현규와 최상남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 양쪽을 힘을 주어 고정시키고 그 위에 수도꼭지를 틀어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했습니다. 육척 거구인 김영두가 그 샤워 꼭지를 잡고 사정없이 얼굴에 물을 들이댔습니다. 그러는 한편 주전자에도 물을 담아 동시에 붓고 또 쏟아 부었습니다.
(김근태, 「남영동」, 중원문화, 1987년, 57~59쪽.)

전기고문, 그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8시 반부터 9월 6일 새벽 1시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전기고문이라고 하니까 고문담당자는 이것은 전기고문이 아니라 '배터리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 칠성대 위에 또다시 꽁꽁 묶여진 다음에 고문자들은 발바닥과 발등에 붕대 같은 것을 여러 겹 감았습니다. 새끼발가락과 그다음 발가락 사이에 전기 접촉면을 끼우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았고, 이 붕대도 전기담요처럼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발에, 사타구니에, 배에, 가슴에, 목에, 그리고 머리에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 고문기술자는 뭔가 쉴 새 없이 떠들고 겁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제 전기가 통하면 회음부가 터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팬티를 벗겼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물고문이 진행되어 몸에 땀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전기고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그러다가 점점 길고 강하게, 강력하게 전류의 세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약해지고, 가끔씩은 발등에 전기를 순간적으로 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희미한 자국으로 남아 있지만, 그래서 발등의 살가죽이 꺼멓게 타 버리게 되었습니다. …

전기고문, 그것은 한마디로 불고문이었습니다. 외상을 남기지 않으면서 치명적으로 내상을 입히고 극도의 고통과 공포를 수반하는 고문입니다. 물고문과 불고문의 조화라고나 할까요.

그 상승효과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문이 밑바닥에 닿지 않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질식해 가는 것이라면 전기고문, 즉 불고문은 단근질해서 뜨거워진 불 인두로 지져서, 바싹 말라 바스러뜨리고, 돌돌 말려서 불에 튀기는 그런 것입니다. 전기고문, 그것은 핏줄을 뒤틀어 놓고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 당겨 마침내 마디마디를 끊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빠개질 듯한 통증이 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파고드는 것처럼 아른거리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온몸이 저리고 칙칙해져서 끈적끈적한 외마디를 계속 질러 대게 되더군요. 전기가 발을 통해서 머리끝까지 쑤셔 댈 때마다 어두운 비명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의 각 부분은 해체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 미친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온통 휘감고 그 희번덕거리는 눈동자가 내 눈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환상이 공포와 광란의 소용돌이로 닥쳐왔습니다. 이것은 슬픔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파괴, 그 자체였습니다.
(김근태, 「남영동」, 중원문화, 1987년, 65~70쪽.)

8일에 있었던 물고문, 그것은 4, 5, 6일에 자행한 것보다 지독했습니다. 그것은 세수수건 대신 코와 입 위에 거즈를 덮고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세수수건을 덮고 고문할 때에도 호흡이 완전차단, 그것인 것입니다. 공기가 끼어들 여지를 배제해 버리지요. 그래서 그런지 이날 물고문의 중간에 한 번 입을 벌려서 고춧가루를 처넣었습니다. 곧 뱉어 버리긴 했지만 입 속이 얼얼하고, 고문대 위 담요에 고여 있는 땀과 물속에 떨어진 고춧가루 때문에, 등 전체가 따갑기도 했습니다. 무슨 화학약품이라고 겁주면서 거즈 위에 한 움큼을 집어다 놓고 물로 녹여서 입·귀·콧속으로 녹아들도록 했습니다. … 이는 심리적 압박으로 고문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기고문의 전류가 더 잘 통하도록 핏속의 전리도를 높이려는 이중적 계산이 내포된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날의 고문은 잔인무도의 정점이었습니다. 목이 완전히 붓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연거푸 비명을 질러 댔기 때문에 목이 쉬게 된 것이지요. 팔꿈치와 발뒤꿈치는 이미 헤어져 상처가 어느 정도 깊어지기도 하고요.
(김근태, 「남영동」, 중원문화, 1987년, 85쪽.)

9월 10일 밤 7시경부터 10시경까지 고문을 당했는데, 처음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기봉고문인데, 양쪽 발등에 무슨 장치를 하고 진동을 일으켜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 전기봉고문은 이렇습니다. 대단히 빠른 진동 때문에 발등에는 심한 통증이 옵니다. 상처가 생기고 깊이 파이는 것 같은 느낌조차 옵니다. 피가 흐르는 기분도 듭니다. … 10일 저녁 식사는 주지 않았습니다. 9일 아침부터 쭉 주던 것을 안 주니 이상할 수밖에요. 고문을 가할 경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가혹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문시에는 거의 틀림없이 속이 뒤집혀 토할 것이고, 토하는 경우 고문자들을 난처하게 만들 것이며 고문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 그런데 고문자들은 9월 13일 이후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데, 밥을 안 주는 것과 고문을 가하는 것을 연관시켜 매우 잘 사용했습니다. 즉 고문자들이 뭔가 불만이 있으면 밥을 안 주고, 그러면 본인은 고문이 박두했음을,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파랗게 질리곤 했습니다. 이때 고문자들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나는 덜덜 떨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요. 고문, 그것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리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근태, 「남영동」, 중원문화, 1987년, 86~89쪽.)

김수현은 본인을 고문대 위에 묶어놓고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13일이다. 무슨 날인지 알겠느냐? 악마의 날이다. 서양에서는 오늘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한다. 너에게도 최후 만찬의 날이다. 각오하라!" 고문기술자는 8일 이후 본인의 사건에 이렇게 깊이 개입해 오지는 않았는데 13일, 이날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반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계속하여 가했습니다. 마음은 물론 몸도 도무지 견뎌 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 고문기술자가 피로하여 주춤하니 김수현이 직접 나서서 장치를 들고 전기고문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김수현이 전기고문을 하는 동안 고문대 옆의 욕조에서, 고문대 위에서 샤워를 하고 몸을 닦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키득거리고, 왜 그런지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슬픔과 상처를 안겨 주더군요. 나는 아주 초라한 존재로서 미물처럼 짓밟히고 있는데, 그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남영동 고문에서 본인은 한 번도 의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3일, 이날은 이미 기력이 다해 선지 전기고문, 물고문을 가해도 발버둥 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고문은 중지되고 찬물을 머리에 붓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쳐댔습니다. 점차 아슴푸레해지는 의식 속에서 이제 내가 정신을 잃겠구나라는 순간이 되면 고문이 중지되었습니다. … 13일 동안의 고문 이후, 남영동에서는 물론 구치소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나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밥을 먹고 소화해 낼 수 없었으며,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김근태, 「남영동」, 중원문화, 1987년, 96~98쪽.)

결국 내가 (인재근에게) 전한 것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5시간씩 열 번 당했다. 4일, 8일, 13일은 각각 두 번씩, 그리고 5일, 6일, 10일, 20일은 각각 한 번씩 당했다고 말한 것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숨넘어가듯이 빠르게 해댔다. 이 말을 두어 번 반복한 다음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내 처에게 주었다. … 간신히 양말을 쭈그려 앉아서 벗었다. 그리고 발뒤꿈치 양쪽과 발등(새끼발가락과 둘째발가락 윗부분), 양 팔꿈치를 보여 주었다. 온몸 다섯 군데를 꼼짝 못 하도록 묶이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못 견뎌 비두발광하다가 닳아서 찢어진 것이다. 그리고 양쪽 발뒤꿈치, 팔뒤꿈치가 똑같은 모양으로 상처가 났고, 발등 양쪽에 까맣게 탄 점들이 한 무더기씩 있는 것은 전기고문시 전류가 타서 생긴 것이다. … 남영동 5층 구석방에서의 23일, 이것은 지옥이었다. 독가스 대신 전기고문과 물고문이 설치는 나치 수용소였다. 시간이 종국적으로 멈춰버린 영원한 저주의 세계였다.
(김근태, 「남영동」, 중원문화, 1987년, 155~156쪽)

이름	김종복(1955년생)			직업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청년부장	
사건명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					
체포일	1985.10.1.	구속일	-		송치일	-
적용 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재판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재심 여부	-			현재 상황	-	
고문 피해 진술	변호인: 5월 20일경 김 의장(김근태)을 처음 만났는데 그 이전에 작은자리 모임에 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결국 작은자리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경찰에서 강요당했습니까? 김종복: 네. 변호인: 어떻게 강요당했습니까? 김종복: 고문의 효과로써 폭력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젖 먹을 때의 똥물까지 다 게워내도록 하겠다”고 하며 위협하고는 뺨을 때리고 10월 1~2일까지는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변호인: 언제 연행되었지요? 김종복: 10월 1일 집 앞에서 남부경찰서 대공과 소속 포니차에 8명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부경찰서에서 눈을 가리고 승용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 두 평 남짓한 방에 욕조, 세면기가 있고 사방은 방음처리가 된 방에 갇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 여기에서 3회의 집회에 관한 것 외에 조사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김종복: 기왕의 서류, 즉 김 의장(김근태)의 진술서를 제시하면서 작은자리, 기자회견, 민청련수련회 참석 등에 관한 시인을 강요했습니다. 변호인: 증인은 김근태 의장의 치본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김종복: 네. 변호인: “너도 자술하지 않으면 당한다”고 했습니까? 김종복: 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42~43쪽.)					

이름	연성수(1954년생)		직업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상임위 부위원장	
사건명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				
체포일	1985.10.8.	구속일	-	송치일	1985.10.28.
적용 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재판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재심 여부	-		현재 상황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추진위 공동위원장	

고문 피해 진술

"10월 8일 연행되던 즉시 옷을 벗긴 채 5시간 정도 집단구타를 당했다. 그 후 계속 수사관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2일씩 수차례 굶겼으며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14쪽.)

10일 동안 버텼는데, 어떻게 버텼냐.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할 수 없이 방에 들어가면 침대가 하나 있고, 철제책상이 하나 있고, 저쪽에 변기통이 하나 있어요. 변기통 물을 10일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 여러분들은 고문 하면 전기고문, 물고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겪은 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게 고문도구예요. 모든 게. 저쪽에 침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고문당하고 피곤하면 자고 싶잖아요. 그 침대에서 딱 한 번 자봤나? 그 침대가 있는 게, 저기에 자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부추겨요. 그럼 불고 싶고, 그걸 견뎌야 하고. 침대 존재 자체가 날 엄청 고문하는 거예요. 철제책상이 있죠. 20여 일 동안을 책상에 앉아서 계속 밤을 샜어요. 낮에는 계속 때리고, 고문하고 그러고 인제 밤 되면 거기에 앉혀 놓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그 앞에 앉은 놈이 철제책상을 발로 뻥 차요. 그럼 이제 폭탄소리 같은 거예요 완전히. 뻥 차면 기겁을 하고 벌떡 일어나. 그럼 그 앞에서 히죽히죽 웃고 있어요. 또 졸면 뻥 차. 밤새도록 철제책상 차는 소리를 듣고, 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먼동이 트고 깨면, 혼비백산하는 거죠. 혼이 나간 거지. 그럼 그때 뭘 갖고 오냐. 종이를 갖고 와요, 진술서 쓰라고. 그리고 탁 던져.

… 하루는 이만큼 진술서를 던지는 거예요. "봐라, 너희 대장이 불었어" 하고 던진 거예요. 보니까 정말 김근태 선배 글씨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막 썼어. 그리고 그걸 보고 절망했어요. '대장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아무리 고문을 받아도 그렇지.' 이 마음이 한 10년 동안 갔어요. 근데 최근에 김근태 선배가 고문후유증으로 죽고 나서, 내가 여기(남영동)에 다시 와보니, 고문이 얼마나 심한지를 느끼고, 반성하게 됐어요. … 아까 악마라고 했잖아요. 여기 오니 두 종류의 악마가 딱 있더라고요. 한 놈은 얼굴이 완전히 불독이에요. 난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살이 이렇게 늘어져서, 그냥 얼굴이 불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놈은 주로 무엇을 하냐면 패고, 고문하는 역할을 맡아서 해요. 또 한 놈은 삐쩍 말랐어. 머리가 하얘. 근데 눈에서 사악한 빛이 흘러. 딱 보면서 사탄이 있다면 저렇겠구나. 근데

	이놈은 주로 달래는 역할을 해요. 막 패고 고문당하고 나면 들어와서 “힘들었지, 나도 옛날에 학생운동 해봤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넘어가서 내 개인사를 조금씩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놈이 그걸 다 취합을 해요, 나가서. 그다음에 또 새로운 방법으로 고문을 하는 거예요. …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고문후유증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가 남영동 들어가서 저놈들한테 고문을 당했고, 그 고문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됐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군복 안 입었고, 10일 동안 단식투쟁 했고, 또 잘 싸워서 국가보안법 안 걸리고 잘 나왔다. 떳떳하게 싸워서 무사히 나와서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몇 년 전인가 민주시민 교육한다고, 후배들이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증언해 달라고. 왔는데, 철제문을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마비가 오더라고요. 마비가 되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권영택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친구 얼굴을 봤어요. 봤는데 그 친구도 얼굴이 사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문은 마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해요. 몸에 고문당한 자국 하나하나가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다가 그 고문과 비슷한 조건이 발견되면, 그 즉시 몸이 반응을 해요. 여기도 이곳을 몇 번 더 왔는데, 올 때마다 남영동 근방 오기 시작하면 막 피가 솟아요. 남영동 철문 있고, 좁은 문 있죠? 그거 딱 보이는 순간, 심장박동이 100, 150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기 들어오면 목이, 입이 마르기 시작해요 벌써. (연성수, 제1차 고문 피해자 증언 대회, 2018.2.10.)

이름	윤여연(1955년생)		직업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무국장	
사건명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				
체포일	1985.11.4.	구속일	-	송치일	1985.11.14.
적용 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재판 결과	1987.2.1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재심 여부	-		현재 상황	-	
고문 피해 진술	윤여연 사무국장은 이미 1월 29일 구형 공판을 전후하여 정신적인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였고 항상 명랑하였던 윤여연 사무국장이 이러한 증세를 보이게 된 직접적 원인은 바로 구치소에서 당한 잔혹한 폭력이다. 이미 윤여연 씨의 부인 최경자 씨가 고발한 바와 같이 윤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면서부터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려 왔다. 학생 재소자들에게 폭언, 폭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 한마디만 하여도 보안과 주임 황용하 등 교도관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마구 짓밟으며 구타하였고 이에 항의하여 소장 유병렬을 면담하고자 신청을 하여도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마침 상부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 전국 각 교도소에서 일제히 강압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윤여연 사무국장은 아무 이유도 없이 수갑이 채워지고 온몸이 포승에 묶인 채 쥐가 드나드는 캄캄한 먹방에서 17일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규탄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7.2.23.) “그 분노의 감정은 죽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고문을 받았던 기억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일을 받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고문 받을 때 정말 이 땅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전쟁이 나든지 지진이라도 나든지.” (“‘고문, 끝나지 않은 전쟁”,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0.10.22.)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이을호(1954년생)</td><td>직업</td><td colspan="3">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상임위 부위원장</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5.9.2.</td><td>구속일</td><td colspan="2">-</td><td>송치일</td><td>1985.9.24.</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85.6.5. 구속집행정지 석방</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고문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 투병 중</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민청련 상임부위원장 이을호는 1985년 9월 2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44일 동안 가혹한 고문 수사를 당했다. 9월 24일, 검찰로 송치된 때부터 “밤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몸을 지탱할 수 없다”고 하며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10월 초부터 부분적으로 이상증세를 보인 이을호는 10월 11일 저녁부터 본격적인 정신이상증세가 나타났다. 감방 안에서 발을 구르고 창을 흔들며 옷을 찢어버리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 고래고래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 이을호 씨는 85년 10월 15일, 서울시립정신병원에 감정유치되었다. 연행되어 간 지 44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년. 86쪽.)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물에 처박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몇 번인지도 기억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변이 안 나왔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변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39쪽.)

발병일지
<table><tr><td>일자</td><td>발병(내용, 상태)</td></tr><tr><td>85.9.2.</td><td>안전기획부로 연행, 무차별 구타를 당한 후 자신이 ‘올빼미’로 생각되고 밤새 옥돌을 갈고 있는 환상 속을 헤매었다. (본인 진술)</td></tr><tr><td>85.9.3.</td><td>치안본부 대공수사단(남영동 소재)으로 옮겨 물고문과 폭행 등의 물리적 고문과 정신적 고문에 시달림. 지렁이도 되고 뱀도 되며 닭이 2마리, 돼지 3마리 등의 계속적인 동물 환각 속에 있었다. (본인 진술)</td></tr><tr><td>85.9.26.</td><td>검찰 송치.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이 의식도 다른 데 있었고, 항상 무수한 형상을 보았다. 예수도, 부처도, 백두산 신도…. (본인 진술)</td></tr><tr><td>85.9.28.</td><td>검사실에서 부인 첫 면회. “온몸에 기가 안 통한다. 잠을 못 잔다” 등의 이상증세 호소. (부인 증언)</td></tr><tr><td>85.9.29.</td><td>구치소 내에서 옷을 홀랑 벗는 등의 이상한 행동. (목격자 증언)</td></tr><tr><td>85.10.3.</td><td>종전에는 현실과 환각이 교차되면서도 환각은 환각으로 인식되었는데, 그때부터 환각이 현실인 양, 현실이 환각인 양 거꾸로 되었다. 이후로 전혀 기억이 없다. (본인 진술)</td></tr><tr><td>85.10.7.</td><td>“죽은 아버지가 나를 징역 살린다. 형이 죽은 것이 내 책임인 것 같다. 김대중의 하수인이 치안본부에 있는데 그가 나를 징역 살린다” 등 횡설수설. (부</td></tr></table></td></tr>
</table>

	인 증언)
85. 10.11.	검찰 취조 중 갑자기 목구멍을 딱 막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며 쉬게 해달라고 청한 후 구치소로 돌아옴. (본인 진술) 몸에서 진땀이 나고 조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의사를 불러 달라고 검사에게 요청함. (검사 증언) 저녁부터 본격적 정신이상증세가 나타남.
85. 10.12.	발작증세가 나타났는데 발을 구르고 창을 흔들며 옷을 찢어버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름.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함. (목격자 증언)
85. 10.15.	서울시립정신병원에 8주간 감정(관찰) 유치됨.
85. 10.16.	시립병원 정신과장이 “증세가 심각하다. 감정이 끝나면 병원에 입원하여 3~4개월 치료하고 2~3년 동안 통원치료 해야 완치가 가능하다. 잘못하면 폐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
85. 10.21.	“죽어버리겠다”는 등 횡설수설한다. (병원 간호사 증언)
85. 10.22.	20여 분간 부인 면회. “춥고 배고프다.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구치소는 천국이다. 씨,엔,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법정에 가서 씨,엔,피의 내용을 떳떳이 밝혀내야 한다”는 등 횡설수설. (부인 증언)
85. 11.20.	국립정신병원으로 옮김. 12월 23일까지 2주간 감정기간 연장.
85. 12.23.	감정유치기간 2차 연장(2개월). 담당의사가 “감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치료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검찰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두로 감정유치기간을 2개월 연정한다고 병원 측에 통고.
85. 12.30.	심한 조울증 현상 보임. 부인 면회.
86.2.23.	감정유치기간 3차 연장(2개월).
86.2.25.	김근태 전 의장 증인으로 병원에서 임상신문 받음.
86.4.1.	국립정신병원에 감정유치 중(통산 24주째).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46~47쪽.)

●●민추위(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일명 '깃발 사건') 개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민청련 김근태 의장의 고문수사 폭로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이자, 전두환 정권에서 벌어졌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

1980년대 초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시위, 집회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는 유화국면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83년 12월 21일에는 대학 내에 주둔하던 공권력 철수, 해직교수 복직, 제적생 복교 등을 골자로 하는 학원자율화 조치를 발표했다. 학원자율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학생운동은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여의 폭을 넓혀가기 시작했고, 1984년 10월 7일에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의 비공개 지도조직으로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가 만들어졌다, 산하에 노동문제투쟁위원회(노투), 민주화투쟁위원회(민투), 홍보위원회, 대학 간 연락책 등 4개 기구를 두었고, 85년 3월에는 삼민투쟁위원회(삼민투)가 결성되었다. 민추위는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 대우어패럴 동조시위 등을 주도하는 한편, 활동에 대한 평가, 올바른 운동방법과 주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신문 '깃발'을 두 차례 발행했다.

1985년 2.12총선에서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1985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삼민투의 주도하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학생 73명이 서울 미국문화원을 기습 점거하고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라'는 농성을 벌였다. 이에 큰 위기를 느낀 전두환 정권은 삼민투를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깃발'이라는 신문과 민추위를 주목하게 된다. 이미 1984년 11월 민정당사 점거를 주도했던 민추위를 미문화원 점거시위를 이끈 삼민투의 배후로 지목한 것이다. 정권은 국가안전기획부, 치안본부, 검찰청 3개 기관에 '깃발 전담반'을 설치하였고, 1985년 10월 29일 검찰은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뒤 관련자 26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17명은 지명수배 하였다.

민추위는 설립 당시, 기존의 학생운동을 개량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대중추수주의)이라고 비판하면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각기 따로 활동하기보다는 한 주체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그들이 제시한 이념은 민족민주혁명(NDR)이었다. 민추위 의장인 문용식을 고문수사 할 때, 정권이 집요하게 추궁했던 점은 그들에게 NDR이념을 설파한 배후자가 누군지를 밝히라는 것이었다. 삼민투의 배후를 민추위로 지목한 정권이 이제는 민추위의 배후에 민청련 의장이자 당시 운동권 전체의 핵심인물이었던 김근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의 고문·조작 사건을 일으킨 것은 민청련이 내세운 노(동)-학(생)연대로 운동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정권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운동 자체를 억압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김근태는 남영동에서 23일 동안 모진 고문을 받았고, 민추위 간부인 박종운의 행적을 찾아내기 위해 박종철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민추위 홍보위 소속으로 수배 중이던 우종원은 85년 10월 경부선 철로변에서 의문의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문용식(1959년생)</td><td>직업</td><td colspan="3">서울대 민추위 위원장</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민추위(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td></tr>
<tr><td>체포일</td><td>-</td><td>구속일</td><td colspan="2">24일</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징역 7년, 자격정지 5년</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아프리카 TV 창립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본인은 85년 8월 28일 체포되어 9월 20일 송치될 때까지 24일 동안 치안본부 대공실에서 수사를 받았다. 수사는 고문에서 시작하여 고문으로 끝날 만큼 잔인했다. 온몸을 발가벗긴 채 고문대 위에 꽁꽁 묶여 몇십 분이고 계속해서 물을 먹어야 했다(고문대를 그곳에서는 칠성판이라고 부른다. 나중에야 이게 관 속의 바닥에 까는 널조각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았다. 이와 같은 사전적인 원래의 의미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칠성판 위에 묶인 사람은 산송장과 진배없게 된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손가락과 발가락뿐. 물을 먹기 시작한 지 한참 지나면 위 속에 있는 걸 전부 토해낸다. 그러고도 계속 물을 먹으면 방귀를 뀌게 되고, 똥을 누게 된다. 그리고는 실신이다. 이러한 고문이 처음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되었고, 9월 1, 2일경에도 또 한 차례 행해졌다.
고문을 당하게 되면 수사관들에 대한 공포심은 극에 달한다. 또다시 고문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은, 수사관이 큰소리만 질러도 심장을 떨게 만든다. 고문으로 인한 위축된 심리상태와 불안한 정신 상태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교도소로 송치된 후에도 한참 동안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고, 덜커덩 문을 여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야 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심리상태는 어떠했던가? 치안본부 고문실을 벗어났다는 일종의 안도감과 함께 더 이상의 고문과 사건왜곡이나 없으면 좋겠다는 자포자기의 심정, 바로 그것이었다. 조사를 받는 장소가 치안본부에서 검찰청으로 바뀌었을 뿐, 폭력에 대한 공포로 위축될 대로 위축된 심리 상태나, 방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신 상태는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검찰 자술서는 경찰 자술서를 이것저것 뒤져서 그대로 베끼다시피 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검사 조사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검찰조서와 자술서의 임의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가 자기기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수사지휘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고문행위에 대해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양심을 속이는 짓이리라. 검찰은 고문수사를 직접 지시했거나 방조, 묵인했을 것이다. 고문수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검찰로서 어떻게 '순순히 자백' 운운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고문은 가장 더러운 폭력행위이며, 인간성에 대한 철저한 파괴행위이다. 최소한의 기본인권마저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법의 심판'은 형식논리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인가?
(문용식, 항소이유서 중 '고문수사의 책임', 10~11쪽, 1986년 4월 4일.)

군사정권은 당시 국민저항이 본격화되자 이를 되돌리기 위한 희생물이 필요했을 것이다.</td></tr>
</table>

	공안기관은 민추위를 자생적 사회주의 조직으로 보고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했고 나도 집중적인 고문을 받았다. … 수사관들이 물고문 도구인 '칠성판' 위에 나를 꼼짝 못하게 묶은 뒤 얇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물을 부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수건이 코. 입에 달라붙어 숨을 쉬지 못하게 된다. … 수사관 질문에 사실이라면 정말 말하고 싶을 정도로 고문을 받았다. '다시 고문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심리적 파탄과 공황,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건 공포다. … 허위자백으로 겪는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오래간다. 수사가 끝난 뒤 집에서는 잠을 못 잤는데 숨을 쉬면 목에서 비릿한 물냄새가 났다. 고문은 인간성 파괴행위다. 수사관들은 자식 진학 걱정과 교회 생활 등을 은근히 자랑했다. 야만과 이성을 동시에 가졌던 가해자들도 고문으로 인해 인성파탄에 이르렀을 것이다. (정윤섭, "'민추위'사건 문용식 씨 고문피해 증언", 연합뉴스, 2004.4.13.) "1985년 8월 29일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인 '민추위(민주화추진위원회)'의 투쟁문건 '깃발' 사건으로 여기 끌려왔죠. 김근태 형에 앞서 제가 여기(515호)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10여 명의 고문 수사관들이 다짜고짜 문 위원장을 때린 뒤 초주검이 된 상태에서 발가벗겨졌다고 한다. 그 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흘을 밤낮없이 이어지던 물고문이었다. "칠성판이 들어오더군요. 그 위에 눕히곤 가슴, 허리, 무릎, 발목 등을 혁대로 묶어 손가락, 발가락 빼고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건을 얼굴에 덮더니 그들 표현대로라면 '이제 공사 좀 해보자'고 하더군요." 주전자에서 수건이 덮인 코 위로 물이 쏟아졌다. 옴짝달싹할 수 없이 코로 들어오는 물을 그대로 들이켰다. 물고문은 탈진하면 멈췄다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관절뽑기', '볼펜심문'도 비할 바가 못 되지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를 주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되지도 않은 질문을 해요. '북한 언제 다녀왔어?', '노동당 가입했지?' 따위죠. 차라리 아는 질문을 하면 답이라도 하고 헤어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본 질문을 하더군요. '김근태 알지?' 얼굴 몇 번 본 것뿐이지만 알긴 아니까 안다고 했죠. 저에게 그 대답을 얻어내자 바로 잡아들인 겁니다." (권오성, "아직도 김근태형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 한겨레, 2012.1.3.)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황인상(1961년생)</td><td>직업</td><td colspan="3">서울대 무역과 졸업
노동문제투쟁위원회 위원장</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민추위(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td></tr>
<tr><td>체포일</td><td>-</td><td>구속일</td><td colspan="2">-</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징역 5년, 자격정지 4년</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변호사</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본인은 지난 85년 3월 5일 10시에 영등포에 있는 양도다방에서 10여 명의 형사들에게 붙잡히어 영등포경찰서, 검찰남부지청, 서림장 여관으로 얼굴을 가리운 채 끌려 다녔다. ‘깃발을 썼다’는 자백을 근거 없이 강요당했으며 쉴 새 없는 고문을 받았다. 본인은 24시간만에 탈출하는 바람에, 고문을 하면 견디지 못해 무언가라도 얘기하는 꼬락서니를 즐기고, 고통에 발버둥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피고문자의 행동거지에 쾌감을 느끼는 그들의 새디즘적 유희를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못해 그들은 몹시 유감이었으리라.
머리채를 잡히어 질질 끌려다닐 때의 굴욕감, 목젖을 수도로 내려칠 때의 고통, 등 뒤에서 갈비뼈만 잡고 들어 올리려 했을 때 그것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기억(이것을 당하면 평생 불구가 된다 함), 수갑을 채운 채 손가락 사이사이에 볼펜을 끼워놓고 비틀고 흔들고 하여 손목에 피가 흐르고 손목 관절이 퉁퉁 부어오르던 것, 7, 8명의 형사들이 집단으로 구타하던 것, 특히 손발을 교차시켜 수갑을 채우고 거꾸로 매달고(소위 바비큐라고 함) 코와 입에 계속 물을 부어넣던 것(이것을 그들은 ‘수도공사’라고 낄낄대며 불렀다), ‘내가 썼고 기자재는 XX에서 구입했고…’라고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서라도 그 고통을 벗고만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고문했던 것, 그들의 모습이 모두 한 덩어리의 입맛을 쩍쩍 다시는 살찐 괴물로만 느껴졌던 기억, 고문이 중단되고 서로 기상천외한 욕설과 농담을 지꺼릴 때 이 농담이라도 좀 더 길어서 몇 초라도 좀 더 쉬고 싶어 기대를 해보곤 하면서도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서 그만 눈물이 날 뻔했던 기억들….
고문이 일단 끝난 뒤 형사들은 김원치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시나리오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그 뒤에 남부지청장과 김원치 검사는 축배를 들고 부하들과 승진을 자축하기 위해 아지트 서림장 여관으로 왔다. 그 뒤 형사들이 주고받은 얘기는 ‘이제 지청장님 승진은 확실하다’, ‘관악서 자식들이 몇 개월 동안 헛수고만 할 때 우리는 다 해결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남부지청은 문제없다’, ‘오늘 같은 날 수사비 좀 듬뿍 지급 안 하나?’ 등등이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년., 111~112쪽.)</td></tr>
</table>

●●보도지침 사건 개요

언론탄압 실상이 담긴 '보도지침'이 세상이 공개됐다. 1986년 9월 6일, 동아투위, 조선투위, 해직언론인협의회가 창립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언협)는 기관지인 월간 '말'지 특집호에서 보도지침을 폭로했다.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이 편집국에서 발견한 10개월간(1985.10.19.~1986.8.8.)의 비밀지침이었다. 9월 9일 명동성당에서도 천주교정의평화사제단 김승훈, 함세웅 신부, 언협 송건호 의장 등 10명이 모여 보도지침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5공화국은 1980년 11월 언론통폐합조치로 언론통제의 고삐를 바짝 거머쥔 상태였다. 정권안보를 위해 문화공보부 내 홍보조정실을 신설해 언론통제의 실무를 담당하게 했다. 매일 아침 전화로 언론사 편집국으로 은밀하게 보내는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이었다. 홍보조정실에서는 수시로 국가안전기획부와 협의해 '가(可), 불가(不可), 절대(일체) 불가'라는 보도 여부를 비롯해 보도할 기사 내용, 배치, 크기, 사진 게재 여부까지 빈틈없이 통제했다.

실제 예로 검찰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7월 17일 보도지침에는 기사를 사회면에 싣되, 기자들의 독자적인 취재내용은 싣지 말고, 검찰 발표 내용만 보도하고, 사건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표현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신문 제목에 '호헌'이나 '개헌'이라는 용어를 일체 사용하지 말 것", "전국 대학 학생회 사무실을 수색했더니 화염병과 총기 등이 나왔다'는 것을 꼭 제목으로 뽑을 것" "신민당(야당) 질문은 내용 빼고 '그저 했다'고 보도할 것" 등등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말 특집호-보도지침 권력과 언론의 음모, 1986.9.6.; 한겨레, [길을 찾아서] 언론인 쫓아내고 보도지침 내리고…27년 전과 달라진 게 있는가, 2014.5.26.)

1986년 12월 9일부터 언협 사무국장 김태홍, 실행위원 신홍범, 한국일보 기자 김주언 등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돼 물리적 폭력을 받으며 보도지침 폭로 배경에 대한 자술서를 써야만 했다. 1987년 1월 27일 검찰은 이들을 외교상의 기밀 누설, 국가모독죄,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목으로 기소했다.

보도지침 폭로와는 상관없는 군사, 외교관계를 보도했다며 국가기밀 누설죄를, 집에서 압수한 사회과학 책 몇 권이 공산주의 계열이라고 국가보안법을, 외신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관을 비방했다고 국가모독죄로, 7개월 전 문익환 민통련 의장의 석방 촉구 집회를 가졌다고 집시법 위반죄로 각각 엮은 것이다. ("말지 세 피고인 구형", 경향신문, 1987.05.28., 7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말지(보도지침)사건;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83~84쪽.; "다큐멘터리 5공의 언론수난 〈14〉 보도지침-제목 크기까지 간섭", 동아일보, 1988.11.17., 5면.)

저는 현재 언론사에 근무한 지 7년째 되는 기자입니다. 지난 80년 4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나름대로의 웅대한 꿈을 품고 기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누가 뭐래도 '무관의 제왕'이며 '사회의 목탁'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신문을 제작하는 일선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문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의 이러한 소박한 소망은 산산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언론파동으로 수많은 선배들이 타의로 언론현장에서 떠나는 아픔을 맛보았고,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언론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의 언론사와 협조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홍보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저버리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기본법에도 명시돼 있으나 법을 무시한 행위가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일부 뜻있는 동료들끼리 이에 대해 밤늦도록 토론도 해보았지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동료기자들과 함께 정부의 홍보조정, 또는 홍보지침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위 정부의 홍보지침은 가끔씩 평기자들도 찾아볼 수 있었고 정부 홍보요원의 전화를 받아 편집국 간부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실상을 알아보기에는 힘겨웠습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일보 기협분회 총회 때 뜻있는 기자들이 모여 '우리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때 총회에서는 기관원 출입과 홍보지침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기관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달라'고 말하고 전화가 오면 받지 않으며 홍보지침은 눈에 띄는 대로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부의 홍보지침을 모아둔 철을 찾아냈습니다. 적어도 거의 1년 치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보지침 철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것이 바로 현대 언론사의 증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 자료가 만천하에 공개되어 정부의 언론통제정책이 폭로되고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호도되어 가고 있는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시대에 신문을 제작하는 현직언론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고 국민들이 한국의 실상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특히 이 자료가 어떤 순간에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퍼뜩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 8월 4일 천주교정의평화사제단 주최로 홍제동 성당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 폭로대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이라면 이 자료를 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 핍박받는 언론인을 위해 공개하고 일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사제단에 이 자료를 맡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보았습니다. 특히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하듯 남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고 양심적으로 언론의 일을 대변해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8월 10일 천주교사제단의 대표인 김승훈 신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8월 10일 하오 3시 홍제동 성당 김승훈 신부님을 찾아뵙고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홍보지침 필사본을 전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홍보지침이 입수되는 대로 나름대로 모아두었습니다. 또한 신문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외부의 압력을 나름대로 기억해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내용도 공개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에 몸담고 있는 현직기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언론탄압의 실상을 그대로 국민 여러분 앞에 폭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만 국민 여러분 앞에 현시대를 살아가는 언론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이 시간에도 정부의 끈질긴 탄압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신문, 좀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현직 선배 언론인과 후배 언론인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언론, 민주언론, 자유언론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써 나갈 것을 감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한국일보 편집부 김주언, 언론탄압 관련 성명서, 1986.8.10.)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김태홍(1942년생)</td><td>직업</td><td colspan="3">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보도지침 사건(‘말’지 기자 기소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6.12.9</td><td>구속일</td><td colspan="2">-</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모독, 집시법</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87.6.3.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94.7.5. 무죄
1995.12.5. 대법원 무죄</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전 국회의원
2011.10.18. 사망</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 ‘기자의 날’ 제정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보도지침’ 파문에 관여했는데 당시 상황을 떠올리신다면.
“84년 12월 19일 동아투위, 조선투위, 80년 해직기자 협의회, 출판사협의회, 4개 단체가 연대해서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85년 5월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기관지인 월간 ‘말’이 창간됐다. ‘말’지 발행인을 역임하면서 취재도 숨어서 하고 제작도, 판매도 숨어서 하는 순간을 맞았다. 모든 원고를 2벌 이상 만들어서 당시 1벌은 딴 곳에 숨겨놓고 1벌은 제작하는데 내놓는 등 항상 ‘일촉즉발’의 순간에 대비했다.
당시 한국일보 김주언(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기자는 당시 ‘말’지에 각 언론사에 독재정권으로부터 ‘보도지침’이 지시됐다는 제보를 하게 됐고 86년 이러한 ‘보도지침’ 원고를 편집해 86년 9월 9일 명동성당에서 송건호 선생과 함께 외신기자를 모두 불러 책자로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86년 ‘말’지 9월호에는 당시 한국일보의 김주언 기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85년 10월부터 86년 8월까지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사에 시달한 보도지침 5백84건을 폭로했고, 이 사건으로 발행인이었던 나뿐만 아니라 신홍범 실행위원, 김주언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모독죄로 구속됐다.”
(한국기자협회 “모든 기자들의 생일로 승화시켜야…” 기자의 날 제정기념 릴레이 인터뷰-김태홍 제20대 한국기자협회장, 2006.3.29.)

1980년 8월 28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돼 10월 2일까지 조사를 받은 김태홍(46, 당시 기자협회회장) 씨는 “이 경감이 ‘내가 남민전 사건 주모자들인 이재문, 신향식 등을 바로 이 자리에서 고문했다’, ‘칠성판을 내가 발명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김 씨는 “시멘트 바닥에 3시간 동안 무릎을 꿇려 놓았다가 이경감이 자기 무릎으로 허벅지를 찍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면서 “그는 완벽한 ‘살아 있는 고문기구’였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또 “당시 이 경감은 중앙정보부 등 타 기관에까지 초빙돼 고문을 담당했다고 이 경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나도 이근안에게 당했다” 폭로 잇따라, 한겨레, 1988.12.22., 11면.)</td></tr>
</table>

●●보임·다산기획 사건 개요

제5공화국의 대표적인 출판 탄압 사건. 1986년 들어 출판인을 반국가사범으로 간주, 제재하는 강도가 높아졌다. 당국은 "국내외의 좌경이념서적을 들여와 번역, 출판하거나 출판을 기획하여 대학가에 이념화서적을 보급하고,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여 일종의 '이념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혐의"로 보임기획(서적표지 디자인회사), 다산기획(외국서적 번역회사), 백산서당(출판사) 관계자 14명을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해 수사, 고문했다. ("용공서적출판 14명 구속", 경향신문, 1986.4.14., 11면.)

압수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산기획의 경우, 「반듀링론」(엥겔스 저), 「국가와 혁명」(레닌 저) 등의 일어판, 영어판 서적으로 타 출판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쇄, 출간하는 수준이었다. 보임사의 경우 광주사태, 대우자동차 농성 자료, 슬라이드 자료, 노동자와 농민 의식화 자료 등이었다. 불법 연행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언론을 통해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면회 과정에서 전기고문, 약물복용 등 고문 사실을 폭로했다.

일지

3월 25일 오전 5시~10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보임기획 사무실을 급습하여 고경대, 고경미, 김미영, 채선미, 박성인 연행. 연행 당시 마이콤, 복사기, 카메라, 책 압수.
3월 25일 오후 4시경, 화양리 부근에서 고성국, 이범, 전수호, 곽탁성 연행.
3월 26일 오후 6시 30분경, 치안본부, 영장도 없이 백산서당의 원고 및 책 200여 점 압수.
3월 27일 오후 1시경, 이범의 처와 고성국의 여동생이 사라진 사람들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잡혀갔다는 것을 확인함. 언협에서 금요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신문사들(동아, 조선, 한국, 중앙)에 전달.
3월 28일 오전 10시경, 이범의 처와 고성국의 여동생이 와서 각각 이범과 고성국을 면회. 한국일보에 금요회 항의성명 기사가 게재.
3월 29일 1시 30분경, 30분 간격으로 한 사람씩 차례로 면회했는데 전원이 심한 고문으로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고 함. 심한 전기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고 함. 가족들이 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청구하니 이곳은 영장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대꾸했다고 함. 고대 정치외교학회에서 성명 발표. 최환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동아, 중앙의 기자를 불러서 사건 브리핑(불온유인물 작성에 자료를 제공한 혐의/트럭 4대분의 자료 조사 중/47명을 더 수배해 조사할 계획/14명 중 일부 명단공개/이범, 고경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나머지는 일반 구속).
3월 30일 12시경, 가족 공동명의로 호소문 발표.
3월 30일 4시경, 가족 공동명의로 음식물 전달.
3월 31일 11시경, 김상복, 김진순, 김희준, 주천중, 김혜중의 실종을 확인함. 채선미의 집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통지서 발부. 고경대, 고경미의 집으로도 국보법 위반 구속통지 도착.
4월 1일, 14명 전원에게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통지서 발부.
4월 5일, 김상복 첫 면회 허가됨.
4월 6~7일, 김상복, 강우근의 면회가 거절됨.
4월 8일, 김상복으로부터 전기고문 사실을 들음.

4월 11일, 김상복 면회에서 약물복용 사실 확인.
4월 12일, 김상복, 고경대만 남영동 분실에 남기고 나머지 12명은 관할서로 송치.
4월 14일, 신촌교회에서 14명 석방을 위한 기도회 개최.
4월 14일, 중앙일보 1판 기사를 필두로 각 신문에 '좌경이념서적출판' 사건으로 보도.
4월 15일, 남영동 분실에서 전원 정오~6시 20분까지 마지막 면회 허용.
4월 16일, 검찰청 송치. 다산기획 쪽은 김원치 검사, 보임기획 쪽은 신광옥 검사가 담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다산기획, 보임기획, 백산서당 등 소위 '의식화 출판조직'에 대한 최근 수사당국의 조치에 관한 보고서".)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강우근(1963년생)</td><td>직업</td><td colspan="3">서울대 미대 졸업
보임기획 디자이너</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보임·다산기획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6.3.25.</td><td>구속일</td><td>1986.3.31.</td><td>송치일</td><td>1986.4.12.</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표현물소지 등)</td><td>재판
결과</td><td colspan="2">1986.9.27.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1987.7.9. 특별사면</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2">생태운동가, 동화책 작가</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5">저는 강우근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갓 미대를 졸업한 제 자식이 무슨 연유로 이토록 처참하게 고문을 받고 있는 겁니까. 저는 구속통지서 받고서야 아들의 소재를 알고 남영동으로 달려가 어렵게 면회를 했습니다. 갇힌 제 몸뚱이보다 밖에 있는 저를 더 걱정하는 아들놈은 애써 밝은 척했지만 얼음보다 찬 손과 걸음걸이의 부자연스러움에 익히 들어 아는 고문이라는 것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차마 잃어버린 자유와 고문의 사실을 물어볼 용기도 없이 첫 면회를 끝내고 4월 10일 두 번째 면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도 면회의 요구는 계속했으나 빈번히 거절당하고 그들이 약속한 4월 10일 겨우 면회를 했지요.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과 아무리 쥐어 잡아도 힘이 없는 아들의 손을 아쉽게 놓고 속옷이나 갈아입혀 가자고 생각하고 입고 있던 옷을 돌려받아 집으로 돌아가서 옷가지를 펼쳐보고는 무언가 내 생각보다 심상치 않게 일이 벌어짐을 느꼈습니다. 평소 옷을 오래도록 갈아입지 않았고 더러움을 타지 않던 아들아이의 팬티에는 누런 고름과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고름도 고름이지만 피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원주에 있는 큰아들을 불러 팬티를 보여주니 이건 단순한 분비물이 아니라 대장과 콩팥에 이상이 생겨 나오는 체액일 거라면서 손이 찬 것도 외상은 없어도 속으로 골병이 들었으니 체온이 떨어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분비물의 내용이야 과학적 검사를 거치면 확실해지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또 다른 사실은 연행이틀 만에 풀려난 전 보임 직원 주천중의 말입니다. 자기와 제 아들은 옆방에 있었는데 자기가 거기 있을 때 반나절도 더 되는 긴 시간 동안 단 일 분의 숨도 없이 구타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것 이상 확실한 고문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우근 어머니 진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고문근절대책공청회 자료집 - 고문피해의 증언」, 1987.1.20.)

4월 10일 함께 연행된 강우근의 어머니가 속옷을 갈아입혀서 입었던 속옷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속옷에는 고름과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의대 5학년인 강우근의 형에게 보인 결과 그것은 콩팥이나 대장에 이상이 생겨 나오는 체액일 가능성이 높다며 외상은 없어도 속으로 골병은 상당히 든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군요. (김상복의 여동생 김애성 진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고문근절대책공청회 자료집 - 고문피해의 증언」, 1987.1.20., 33쪽.)</td></tr>
</table>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고경대(1958년생)</td><td>직업</td><td colspan="3">연세대 사학과 졸업
보임기획 대표</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보임·다산기획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6.3.25.</td><td>구속일</td><td>1986.3.31.</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표현물소지 등)</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86.9.27.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1988.12.20. 특별사면</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사진작가(제주)</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누나인 제가(의사임) 직접 29일 첫 면회를 했습니다. 동생은 당시 29일에 면회했던 9가족 중 가장 심한 상태로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절과 신경의 이상은 물론 몸의 중심도 가누지 못한 상태로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으며 무슨 말이든 모른다고만 하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과 손을 만지면 따가운 듯 떨쳐버리지도 못하고 속으로 속으로 움츠려만 드니 무슨 말을 물어볼 수도, 그토록 애태웠던 동생을 만져볼 수도 없었습니다. (고경대 누나 고경심 증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고문근절대책공청회 자료집 - 고문피해의 증언」, 1987.1.20., 34쪽.)

고경대(31), 고경미(26) 남매(86년 보임·다산기획 사건) = 86년 3월 25일께 서적출판을 둘러싼 세미나가 용공 이적단체 구성을 목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남영동 분실에 연행, 30여 일 동안 고문과 취조를 받았다. 처음 3일 동안 주로 구타와 박종철 씨가 당한 것과 같은 물고문을 받았는데 차라리 이것은 견딜 수 있었으나 동생 경미를 함께 취조하면서 가한 협박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심적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당시 우리 보임사건을 총지휘했던 사람은 '화이트'라고 불린 백 전무였고, 다산기획은 홍 상무였는데 최근 국정감사를 보고 백 전무는 백남은, 홍 상무는 홍승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가벗긴 채 물고문, 전기고문", 한겨레, 1988.10.25., 11면.)</td></tr>
</table>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김상복(1956년생)</td><td>직업</td><td colspan="3">강남사회복지대 2년 중퇴
전 기독청년연합 교육문화분과위원장</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보임·다산기획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6.3.26.</td><td>구속일</td><td>1986.4.1.</td><td>송치일</td><td colspan="2">1986.4.16.</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표현물소지 등)</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86.9.27.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1988.8.15. 특별사면</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KBC파트너스 대표코치</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지난 86년 3월 26일 연행돼 20여 일 동안 남영동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는 한쪽 다리가 없는 불구인데 짚고 다니던 목발로 세 차례 걸쳐 등, 가슴 등 온몸을 수없이 구타당했다. 물고문도 다섯 차례나 당했다. 몸을 거꾸로 번쩍 들어 욕조 속에 처박는 고문을 세 차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샤워기로 물을 쏟아붓는 고문을 두 차례 받았다. 고문은 이(김)봉우 상무(경감), 최 아무개 경사 등 담당수사관들이 직접 했으며 백남은 전무가 총괄 지휘했다. 백남은은 “이 자리에서 이재문, 이태복, 김근태, 허인회가 모두 나한테 당했다”, “근태는 결국 내 앞에서 살려달라고 말하며 기었다”고 계속 자랑했다. 백 전무는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해댔다. “허인회가 나가더니 고문 받았다고 떠들고 김근태도 계속 떠드는데 너도 나가거든 실컷 떠들어봐라. 그러나 나는 끄떡도 안 한다. 증거가 있느냐? 고문으로 내 목이 날아갈 것 같았다면 아예 고문하지도 않는다. 어디 한번 싸워보자.”
(“발가벗긴 채 물고문, 전기고문”, 한겨레, 1988.10.25., 11면.)

86년 3월 26일 남영동에서 20여 일 동안 조사받으면서 몸을 거꾸로 번쩍 들어 욕조 속에 처박는 ‘물고문’ 3번,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샤워기로 물을 쏟아붓는 ‘물고문’ 2차례 등 모두 5차례나 받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방마다 욕조가 마련돼 있고 새로 이전한 홍은동에도 신축 당시 욕조가 수십 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목욕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남영동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치고 목욕을 했다는 경우는 없어 결국 물고문을 위한 시설이 당초부터 마련돼 있다고 봐야 한다.
물고문은 여러 가지로 ‘변형’됐다. 의자에 앉힌 채 머리를 뒤로 젖혀 코에 물을 붓거나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붓는 등 더 악랄한 방법으로 발전했다. 어떤 고문자들은 육개장을 주문해 건더기는 먹고, 국물은 물고문에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변형된 물고문은 고문기구가 갖춰져 있지 않은 일선 경찰서에서 형사범들을 상대로 자주 행해진다.
(“일상화된 반문명적 폭력 고문(2)”, 한겨레, 1988.12.28., 5면.)</td></tr>
</table>

이름	박동선(1966년생)		직업	학생(서울대 미학과 2)	
사건명	서울대 대자보 사건				
체포일	1986.10.	구속일	-	송치일	-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결과	집행유예	
재심 여부			현재 상황	-	
사건 개요	1986년 10월 11일 치안본부는 서울대 인문회관 벽에 북한의 '민주조선' 10월 5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대자보를 수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공안당국은 대자보의 내용을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등의 대남모략 선동문구"라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지금까지 지하불온 유인물과 학원가의 벽보 가운데 북괴의 주장을 인용 각색해서 사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전문을 그대로 옮겨 쓴 벽보는 이번이 처음으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남 모략선동 전문 그대로 옮겨", 한국일보, 1986.10.12.) 1986년 하반기는 '조직 사건의 시기'였다. 1986년 봄 개헌 정국이 조성됐고, 특히 5.3 인천사태 후 전두환 정권의 위기감은 학생운동 진영에 대한 꼬투리 잡기 식 탄압으로 이어졌다. 한편 학생운동 진영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는데, 전학련으로 결속돼 있던 학생운동 세력들이 NL(민족해방)과 CA(제헌의회그룹)로 분화된 것이다. 이 중 '반미자주화 투쟁'에 방점을 둔 NL 진영은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1986년 3월 29일 구국학생연맹(구학련)을 결성했다. 구학련은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의 첫 시도로 반공 이데올로기에 충격 요법으로 대응해보자는 의미에서 대자보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압할 만한 큰 사건을 찾고 있었던 전두환 정권에 좋은 빌미가 됐다. (김세진이재호기억저장소, 서울대 대자보 사건(H-1096).;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년. 141~162쪽.; 김덕련, "건대 사태, 사형도 고려" 못 말리는 전두환 정권, 프레시안, 2017.1.19.) 이 사건 이후 구학련에 대한 대규모 검거가 시작됐고 이후 ML(마르크스레닌주의)당, 반제동맹당, 전북노투사건 등 일련의 공안사건 수사바람을 불러일으켰다. ("(2)학원격동의 서막…서울대 연합시위", 중앙일보, 1986.12.4.) 2006년 12월 4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구학련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황인욱을 민주화유공자로 지정했다. "황 씨가 1986년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조직부 산하 제2지역 세포(조직원)로 가입한 뒤 북한 관련 대자보를 서울대에 붙인 것은 민주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김동민,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라", 오마이뉴스, 2006.12.16.)				
고문 피해 진술	그 일이 있었던 것은 1986년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미학과 다녔고,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종철이 형은 언어학과 3학년이었죠. 그때 서울대 대자보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6년도에 아침 새벽에 하숙, 자취집에 형사들이 끌고 가서 처음에 끌려간 곳은 관악서였습니다. 관악서에서 1차 물고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으로 끌려간 곳은 지금도 어딘지는 모릅니다. 제가 눈을 감겨서 끌려 다녔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주 넓은 방에 전구 빛이 핏빛, 조금 붉은 빛이었습니다. 거기서 조사도 받지 않고, 다시 온 곳이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습니다. 거기서 2차로 물고문을 받았고요.				

	첫 번째 관악서에서 물고문을 받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문하는 목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문할 때는 종철이 형처럼 핵심 인사 누구하고 니가 계속 모임을 가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만날 장소와 시간을 불어라, 그거였어요. 그때 제 선배와 모임 하고 있던 것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관악서 자체는 물고문하는 시설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큰 다라에 물을 부어서 거기서 물고문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저 혼자 잡혀간 게 아니었어요. 같이 모임을 하던 여러 명이 있었어요. 관악서 형사들이 물고문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숙련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내가 하다가 고통스러워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 큰 다랑이가 엎어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다음 계속 진행되지 않았던 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정보가 나갔나 봐요. 그 사람의 모임, 장소, 시간. 그래서 1차 물고문 당한 것은 물고문을 당했지만, 많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저 혼자 잡혀갔고 제가 모임과 시간, 약소 장소를 안 불었다면 종철이 형처럼 저도 아주 끝까지 물고문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 안기부였던 것 같아요. 안기부를 거쳐서 여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받습니다. 거기 이동할 때에는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려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하고. 지금 저는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때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도 눈을 가리고 있었고 눈을 떠보니까 남영동 대공분실 5층. 그때는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니 거기더라고요. 거기서 또 2차로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2차 물고문은 어쨌든 간에 제가 했던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선전, 선동이라는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라든지 이런 의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남한 사회를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라든지 이런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서에 내가 사인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물고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로 미루어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끌려온 사람 거의 모든 사람에게 통과의례로 물고문이 행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저같이 대학교 2학년이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까지 물고문이 행해졌다는 것은, 박종철에서 경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찰의 돌발적 사고가 아니라, 항시적으로 대공분실에 오는 모든 피해자들한테 통과의례로서 물고문이 행해지고 있었고, 그런 행해지는 과정 속에서 박종철 사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한두 명이 저를 물고문을 했습니다. 그때 물고문을 겪고 나서는 저를 취조하는 형사의 눈을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겁을 먹는 거죠. 여기서 취조를 받는 게 한 20일 정도까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문을 받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후유증, 트라우마 같은 것들은 평생 남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그때 스물 몇 살에 그렇게 됐고, 서른한 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 화장실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대요. 화장실에서 내가 혼잣말로 떠들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서 그때까지 자기 혼잣말로 떠드는 것이 남아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하다 보면, 저 스스로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동선,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안산 노해투(노동운동자해방투쟁위원회) 및 안산 목회자 사건 개요

1987년 1월 10일 치안본부는 “반월공단지역에서 위장취업자 등 근로자를 포섭, 민중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북괴방송 청취, 김일성 주체사상 학습, 용공이적 유인물 살포, 파출소 방화 등의 활동을 벌여 온 용공지하단체 ‘안산노동자해방투위’를 적발, 지도총책 최석주 씨 등 핵심간부 9명과 안산선교협회 소속 방병규 등 전도사 2명을 검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안산 노해투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념에 따라 현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북괴방송을 청취,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해 왔다는 혐의이며, 안산선교협회는 반월공단노동자권리투쟁위 등 지하단체와 접촉하면서 근로자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안산선교소식, 안산노동자신문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해온 혐의다. (“반월공단 용공조직 적발 치안본부”, 동아일보, 1987.1.10., 7면.)

그러나 연행자들과 가족들은 고문에 의해 안산의 반월공단에 산재하던 ‘반월공단노동자권리투쟁위’, ‘반월공단통일협의회’, ‘노동자생존권투쟁위’와 ‘안산선교협의회’ 등을 묶어 이적단체로 조작했다고 항변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년, 280쪽.)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김봉수(1964년생)</td><td>직업</td><td colspan="3">반월공단 노동자
김준목 전도사 동생</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안산 노해투 및 안산 목회자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6.12.10.</td><td>구속일</td><td>-</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 제7조 5항</td><td>재판
결과</td><td colspan="2">-</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2">식당 운영(여수)</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5">어떻게 하든 안산의 세 교회와 노동운동권을 압살하여 이제야 겨우 싹이 트려는 안산의 민주 세력을 애초에 짓밟아 뭉개버리겠다는 야심으로 김준목의 동생 김봉수 씨마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였습니다.
김봉수 씨는 85년 겨울 해군 제대하여 86년 초부터 반월공단에 입사해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12월 10일 일하다가 작업복을 입은 채 그대로 연행되어 보름간 치본 대공분실에서 구금되었다가 서대문구치소로 송치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치안본부에서 면회를 하여 보니 그 건강하던 자식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옆에 있는 담당자의 공포분위기에 질려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더듬거려 손목을 잡아보니 양 손목에는 검은 반점이 몇 개가 있어 일제시대에 독립군에게 가했다고 말로만 듣던 공포의 전기고문이 생각났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잔인한 고문의 흔적이었고 백지장처럼 흰 얼굴의 일그러진 모습에서 모진 고문과 고통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 어머님께서는 눈물이 앞을 가려 통곡만 하시다 나왔다고 하십니다. 또한 저들은 “이놈은 나가면 또 노동운동을 할 놈이다. 자술서를 안 쓰고 있다. 또 나가면 절대 반월엔 가지 말고 개장사나 하며 먹고 살아라” 하며 어머님 앞에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인간의 탈을 쓴 자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자들에 시달려 며칠 사이에 머리가 온통 하얗게 희었으며 불면과 공포로 시달리며 장남인 김준목이 수감되어 있는 수원교도소와 김봉수가 수감되어 있는 서대문구치소를 번갈아 날마다 다니시며 옥바라지로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원곡감리교회, 반월교회, 안산노동교회 교우일동, 저희 목회자님들을 돌려주십시오!, 1986.12.29.)</td></tr>
</table>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김현수(1960년생)</td><td>직업</td><td colspan="3">안산노동교회 전도사</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5">안산 노해투 및 안산 목회자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6.10.26.</td><td>구속일</td><td colspan="2">-</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 위반</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사)들꽃청소년세상 이사장</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폭력과 불법절차에 의한 범죄구성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 달 전, 안산노동교회의 기물을 파손하며 예배 중인 목회자를 납치하듯 연행해 가더니, 이번에 또다시 목회자를 개 끌듯 머리채를 낚아채 연행해서는 소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미궁 속에서, 어떤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알 길 없는 상황 하에서 갑자기 엄청난 죄인으로 둔갑하였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떳떳이 정당한 절차를 따라 수사하지 못하는가? 국민의 세금에 의해, 국민의 치안을 위탁받은 경찰이 왜 컴컴한 밀실에서 가족과 교우에게 혐의사실마저도 밝히지 않은 채, 폭력적 수사를 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법 집행자에 의해 결정되는 죄목을 우리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성명서 - 김현수 준목, 방병규 전도사 구속사건을 보고, 1986.12.18.)

10월 26일 안산노동교회 김현수 준목이 예배를 집례하던 중 광명서 형사들은 밧줄을 타고 내려와 유리문을 부수고 성전을 난입하여 흉포하게 잡아갔습니다. 일제시대에도 목회자를 연행할 때는 예배가 끝난 후 연행해 갔다고 하는데, 그 후 12월 1일에는 반월교회의 방병규 전도사님, 원곡감리교회의 이광호 전도사님이 잇달아 어처구니없이 연행되었고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 혐의를 들씌워 놓았습니다. 저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자 보름간 가족 면회조차 허용치 않았고, 24일간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묶어놓고 우리 목회자님들을 용공으로 몰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전도사님 가족들이 면회할 때마다 저들은 “두 교회에서 화염병과 각목이 나왔다. 교회 세울 때 공산당처럼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기립박수하며 교회 창립에 찬동했다”는 등 누구나가 믿기 어려울 만큼 유치하게 터무니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치안본부가 두 전도사님들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켜 놓고 조사해봐도 두 전도사에게서 나올 만한 증거가 없자 말도 안 되는 혐의라도 끌어 붙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는 악랄한 저들의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원곡감리교회, 반월교회, 안산노동교회 교우일동, 저희 목회자님들을 돌려주십시오!, 1986.12.29.)</td></tr>
</table>

이름	방병규(1960년생)		직업	서울대 농대 제적 반월교회 전도사	
사건명	안산 노해투 및 안산 목회자 사건				
체포일	1986.12.1.	구속일	1986.12.8.	송치일	1986.12.23.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 결과	1987.7.9. 특별사면	
재심 여부	-		현재 상황	-	

고문 피해 진술

12월 27일 10시 40분경 508호 안왕선 검사실에서 방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방 전도사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밤낮 이틀간에 걸쳐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여러 목회자님들께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들은 방 전도사님을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을 먹이고 찬물을 가득 넣은 욕조에 장정 4명이 사지를 붙들고 거꾸로 처박아 강제로 물을 먹게 하였다 합니다. 또한 온몸을 사정없이 구타하는 등 말로만 들어도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는 고문을 당했다고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고문 당시 방 전도사가 반항하느라 몸부림치다가 욕조 모서리에 갈비뼈를 다쳐 면회 당시까지도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매우 아프다고 하며 손등의 감각도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몸서리가 쳐서 수갑 찬 손을 만져보니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고문당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파스를 붙이고 있을 정도이면 그 당시의 고문이 얼마나 가혹했었나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15일 동안 가족조차 면회를 해주지 않는 억압 상황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문에 못 이겨 방 전도사님은 수사관의 강요대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와 지역노동운동가들의 연관을 캐내려고 갖은 고문을 하여 수사했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서의 정당한 선교활동을 말도 되지 않는 사건으로 조작하려 함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방병규의 부인 정영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고문근절대책공청회 자료집 - 고문피해의 증언, 1987.1.20., 35쪽.)

연행하자마자 팬티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긴 채 수갑을 뒤로 채워 무릎을 꿇게 하고 군홧발로 허벅지와 발꿈치 등을 수없이 구타하고, 치안본부의 장기인 물고문을 자행했습니다. 큰 욕조에 찬물을 가득 붓고 장정 4명이 사지를 붙잡아 물속에 죽지 않을 만큼 처박아 물을 먹였다가 꺼내는 고문을 수차례 했으며 거꾸로 매달아 입을 수건으로 막고 물을 먹이기, 또한 통닭구이라는 악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욕조에 처박히다가 눈가장자리가 찢겨 피가 나자 그제야 고문행위를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노해투 건으로 같은 시기에 강제 연행된 김봉수 등 많은 노동자, 학생들도 치안본부의 기본 고문인 욕조에 처박히기, 거꾸로 매달려 물 먹이기 등의 물고문과 뒷수갑한 채 무릎 꿇려 구타하기, 통닭구이 등을 당했다고 합니다. 영장도 없이 납치되어 가려진 채 강제로 연행된 수많은 애국청년 민주인사들은 여지없이 이러한 살인적인 고문에 못 이겨 전혀 근거 없는 "나는 빨갱이,

	용공분자다"라는 조작된 자술서를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극렬좌경이니, 용공분자니 하는 것은 이러한 조작에 의한 것임으로 우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안산노동교회, 반월교회, 원곡교회 교우 일동, 1987.1.21.) 12월 23일 서대문 구치소로 송치된 후 옷과 담요 등을 가지고 12월 26일 면회를 갔으나 접견금지라 하여 담당검사를 찾아가 면회를 요청하여 토요일(27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2월 27일 10시 40분경 508호 안왕선 검사실에서 방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방 전도사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밤낮 이틀간에 걸쳐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여러 목회자님들께 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들은 방 전도사님을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을 먹이고 찬물을 가득 넣은 욕조에 장정 4명이 사지를 붙들고 거꾸로 처박아 강제로 물을 먹게 하였다 합니다. 또한 온몸을 사정없이 구타하는 등 말로만 들어도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는 고문을 당했다고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고문 당시 방 전도사가 반항하느라 몸부림치다가 욕조 모서리에 갈비뼈를 다쳐 면회 당시까지도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매우 아프다고 하며 손등의 감각도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몸서리가 쳐서 수갑 찬 손을 만져보니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고문당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파스를 붙이고 있을 정도이면 그 당시의 고문이 얼마나 가혹했었나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15일 동안 가족조차 면회를 해주지 않는 억압 상황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문에 못 이겨 방 전도사님은 수사관의 강요대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방병규 전도사님의 고문진상을 밝힙니다, 1986.12.31.) 방병규 전도사님은 서대문 구치소로 송치되자마자 사모님이 검사실에서 방 전도사님을 면회한 바에 의하면 2일간의 모진 고문 끝에 손등이 마비되고 갈비뼈가 다쳐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 합니다.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 먹이기, 고춧가루 퍼붓기, 때리기, 깊은 욕조에 찬물을 채워 장정 4명이 거꾸로 처박아 물 먹이기 등으로 세 교회가 모여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는 거짓 자술서를 강요하였다 합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모진 고문에 항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우들은 현재까지 확인 안 된 이 전도사님과 김봉수 씨의 고문실태도 위와 비슷하거나 아마도 더 악독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치안본부에서 조사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혹독하게 고문당하는 추세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원곡감리교회, 반월교회, 안산노동교회 교우일동, 저희 목회자님들을 돌려주십시오!, 1986.12.29.) 지난 12월 1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헌신적 목회활동을 해오던, 본 노회 산하 반월교회의 방병규 전도사님과 원곡감리교회의 이광호 전도사님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한밤중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수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안산 노동교회 김현수 준목의 부인을 연행하기 위해 6, 7명의 소속 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난입하려 함으로써 4일

	간 문 밖 출입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김준목의 동생인 김봉수 씨를 불법연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연행된 이들이 어디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생사마저 확인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가족과 교우들은 경악과 공포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방 전도사님의 사모님은 출산 1주일 만에 갑작스런 일을 당하고, 이리저리 소재를 확인하여 다니느라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가끔 정신이 혼미하여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성명서(김현수 준목, 방병규 전도사 구속사건을 보고), 1986.12.18.)

이름	이광호(1961년생)		직업	감신대 신학과 졸 원곡감리교회 전도사	
사건명	안산 노해투 및 안산 목회자 사건				
체포일	1986.12.10.	구속일	1986.12.8.	송치일	-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		재판 결과	-	
재심 여부	-		현재 상황	-	
고문 피해 진술	지난 12월 1일 서울에 다녀오시던 중 방병규 전도사(반월교회)의 연행소식을 전해들은 이광호 전도사님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인 광명서 김재성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재성은 이 전도사님에게 밤 11시에 약속 다방에서 만나자고 하여 만나 이야기를 한 후에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괴한 3명에 의해 머리채를 잡힌 채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거리에는 이 전도사님의 구두 한 짝만이 뎅그라니 남아 있었습니다. 졸지에 목자를 잃은 저희 교인들과 가족들은 전도사님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 끝에 치안본부 대공분실(남영동 소재)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으나 저들은 “그런 사람 없다”고 잡아떼는가 하면 “조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 끝난 후에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등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전도사님 가족들을 우롱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원곡교회 교인 일동, 원곡교회 교인 호소문, 1986.12.) 우리 안산시에 있는 반월교회 방병규 전도사님과 원곡감리교회 이광호 전도사님도 지난 12월 1일 박종철 군을 죽인 동일장소인 남영동 대공분실 2단에 강제로 연행되어 박종철 군과 같은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저들은 전도사님들을 연행하자마자 팬티를 제외한 모든 옷을 벗긴 채 수갑을 뒤로 채워 무릎을 꿇게 하고 군홧발로 허벅지와 발꿈치 등을 수없이 구타하고, 치안본부의 장기인 물고문을 자행했습니다. 큰 욕조에 찬물을 가득 붓고 장정 4명이 사지를 붙잡아 물속에 죽지 않을 만큼 처박아 물을 먹였다가 꺼내는 고문을 수차례 했으며, 거꾸로 매달아 입을 수건으로 막고 물을 먹이기, 또한 통닭구이라는 악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욕조에 처박히다가 눈 가장자리가 찢겨 피가 나자 그제사 고문행위를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한국기독교장로회 안산노동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반월교회, 대한기독교감리회 원곡교회 교우 일동, 안산 시민에게 드리는 글, 1987.1.21.)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김찬훈(1964년생)</td><td>직업</td><td colspan="3">서울대 외교학과</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전국학생운동지도부사건(HWCT)</td></tr>
<tr><td>체포일</td><td>1986.10월 전</td><td>구속일</td><td colspan="2">-</td><td>송치일</td><td>-</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죄</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988.12.21. 선고실효</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td></tr>
<tr><td>사건
개요</td><td colspan="6">1987년 10월 15일 치안본부는 합의 직선제 개헌 반대, 국민투표 거부, 제헌의회 소집, 민중혁명 정부수립 등을 주장하는 ‘민민투’를 배후 조종해온 ‘전국학생운동 지도부(HWCT)’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1차례 대중집회에 학생을 투입해 국민투표 거부 등을 선동하고, 제헌의회를 통해 임시혁명정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기관지인 ‘민족민주선언’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 반미반파쇼 사상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거부’ 11명 구속”, 중앙일보, 1987.10.15.; “국민투표 거부 전국학생운동지도부 적발”, KBS, 1987.10.15.)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민민투의 정체다. 1986년 후반 당시 학생운동 진영은 크게 NL(민족해방파), CA(제헌의회파)로 나뉘었다. 양 노선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사회구성체 논쟁에서부터 시작됐다. NL 계열은 현 한국 사회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CA 계열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판단했다. CA 계열은 개헌투쟁의 슬로건으로 헌법제정민중회의, 제헌의회론을 주장했다. (오근석,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논장, 1988년, 125~132쪽.)

1987년 6월항쟁에서 민주운동 세력이 승리하고, 이어 당시 여당인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이는 6.29선언을 발표했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직선제를 두고서, NL 계열은 ‘선거’를 통해 군부독재 재집권을 저지하자는 ‘군부독재 종식 투쟁론’을 내세웠고, 반면 CA 계열은 선거가 아닌 ‘민중 혁명’으로 군부독재를 타도하자는 ‘군부독재 타도 투쟁론’을 주장한 것이다. (“항쟁과 2016년 촛불 항쟁”, 레디앙, 2016.12.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 리포트4: 군부독재 종식과 선거투쟁〉, 1987.11.)

이들로서는 여야 합의만으로 진행되는 직선제 개헌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도,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은 양 김(김대중, 김영삼) 후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패요. 주먹질이나 발길질해요, 막 짓밟고. 침대에 앉혀놓고 물어봤던 게 노동자 1선이 누구냐고 집중적으로 캐는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윗사람이 있고 하니깐. 그게 안 되니깐 일단 옷을 다 벗기고. 패면서는 물을 채우고 있었어요. 10여 분 동안 먼저 푸쉬업을 시켜요. 앉았다 일어나기도 10여 분 시키고, 땀이 나냐고 자기들은 확인하고. 이것만 봐도 물고문이 굉장히 일상화되었다는 생각이 기술적으로 다 질식사나 쇼크사 이런 것들 안 당하게끔 충분히 몸에 땀을 내고 이렇게 물고문을 시작하는데. 종철이가 제 후배인데, 종철이를 고문했던 그 팀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제일 먼저 조한경 경위는 조 전무라고 그랬고 강진규를 강 부장이라고 그랬고 황정웅 이 세 사람은 분</td></tr>
</table>

	명하고. 사장이라고 하는 게 박원택 경정,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정호도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이 네 명이 주도를 했었고 강진규는 팬티만 입고 욕조 안에 들어가고. 황정웅하고 ○○○는 뒤에 수건으로 묶고 어깨를 잡고, 강진규가 얼굴을 저거 하면 욕조에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몇 초 간격인지 이런 거 전혀 알 수 없어요. 정말 순식간이고 물속에서 그런 흐름만 느껴지지, 이러다가 죽겠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이걸 몇 번을 반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때리고, 조사하고, 조수들이 주로 그동안 시위했던 것을 죽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이미 주동자들은 구속된 사람들도 많았고, 일선들 캐려고 했던 거고. 그 조사를 황정웅이 했었는데, 좀 정신병자 같아요. 막 볼펜으로 쑤셔요. 눈이든 머리이든. 상당히 당뇨병도 있다고 했는데 히스테릭하달까.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하는 놈이어서 항상 조서가 제대로 꾸려질 때까지 폭행과 협박을 해 가는데. 실제로 여기 얼마나 있었는지, 며칠 있었는지, 시점 등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자체 공간이 밀폐돼 있어서, 들어오는 경찰마다 욕하고 패고, 윽박지르고 하니까. 저는 대공분실에 끌려왔는지도 몰랐는데, 경찰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깐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제가 교도소에 있는데 종철이 사건이 터졌던 거죠. 사실 박종철 열사 사건 직전부터 특히 물고문은 일반적이었고, 전기고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고문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물고문으로 죽기는 굉장히 힘든. 왜냐면 사전에 운동을 시키고 땀까지 내고 쇼크사를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하고 있었기에. 그전부터 물고문은 일상화됐던 것이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찰서인지 알았어요. 서울시내 경찰서란 경찰서는 다 가봤는데. 경찰 심문은 익숙했거든요. 정도가 굉장히 달라요. 주황색, 빨강색이라는데 저는 굉장히 진한 주황색으로 느껴졌는데 그게 두려움을 많이 조장하고. 조한경이라는 친구는 약간 신사인 것처럼 하고 강진규는 완전히 폭력배고 황정웅은 병자, 사이코 같아요. 황정웅이 가장 무서웠어요. 언제나 이렇게 볼펜으로 찔러대는데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이후에도 뾰족한 것을 볼 때 느낌들이 남아 있어서. (고문은) 조직적으로 일상적으로, 이건 아주 매뉴얼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건. 2명이 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강진규는 무조건 (욕조) 안에 들어가서 해요. 강진규가 모든 걸 주도하고. 황정웅은 몸이 비실비실해서,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체조 같은 걸 시켜서 땀을 한 30분 내게 하고. 일상적으로. 검사들이 몰랐을 리 없고. (김찬훈, 제2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3.10.)

••남노련(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사건 개요

1987년 5월 1일, 치안본부는 수도권일대 공장지역에서 근로자 의식화 교육, 노사분규 주도 등을 해온 지하운동조직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남노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985년 7월, 위원장 유용화를 중심으로 고려대 운동권 출신의 선후배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특히 북괴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 입각해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통해 민중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침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1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30명이 수배됐으며 1988년 5월까지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사건은 1년 반에 걸쳐 계속됐다. ("남노련 지하조직 13명 구속", 경향신문, 1987.5.1., 11면.; "고·연대 운동권출신 13명 '지하혁명조직'혐의 구속", 중앙일보, 1987.5.1.)

하지만 남노련은 '대중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목표로 한 조직이었다. 1985년 8월, 가혹한 노동운동 탄압을 뚫고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이 탄생했지만 운동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계속됐다. 그러던 중 대중적인 활동을 목표로 1986년 봄, 서노련과는 다른 노선의 조직이 탄생했는데 이것이 남노련의 전신인 전국노동자임금인상공동투쟁위원회(전노임투)다. '최저생계비 일당 7천 원'을 주장한 전노임투는 대중적 기반의 약화로 곧 중단됐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구로, 영등포지역 임금투쟁위원회로 이어졌다. 그 활동의 결과가 1986년 6월 남노련 탄생의 기반이 됐다.

남노련은 서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펼쳤으며, 주로 가두집회에서 선전활동을 진행했고 노동자들을 위한 신문 '횃불'도 창간했다. 노해사는 수도권 일대에서 야학 활동을 하며, 노동운동가를 길러내는 남노련의 교육조직이었다. 고려대 운동권 출신 노동자들의 운동조직이었던 남노련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과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한 고문과 용공조작을 통해 굉장한 '지하혁명 조직사건'으로 완성됐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1970-80년대 주요노동조합 설명자료집」, 126~127쪽.;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년, 282~284쪽.;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년., 228~233쪽.)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최규엽</td><td>직업</td><td colspan="3">고려대 사학과 졸업</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남노련(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7.11.10.(보안사)
11.11.(남영동 대공분실)</td><td>구속일</td><td colspan="2">-</td><td>송치일</td><td>약 20일 후</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 및
북괴고무찬양 등)</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심 징역 2년6월
1988.12.21. 사면</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금천구청장 출마</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우리는 지난 11월 10일 오전 9시 30분경 영등포역 앞에서 군인들이 최규엽(고려대 독문과 제적, 35세) 씨 등 일가족 모두를 연행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
이 땅의 척박한 노동현실에 뛰어들어 진정으로 노동자답게 투쟁해온 그를 군인들인 보안사령부 송파분실 요원들이 노모와 두 살 먹은 어린 아들, 부인과 함께 연행한 사실에 주목한다. 송파분실에서 풀려난 그의 가족들에 의하면 최 씨는 이미 연행과 동시에 모진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한 구타와 고문의 내용은 그간의 남노련 관계자들에게 행해진 고문 등 가혹행위로 엄청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입증되어 왔다. …
11일 오전 최규엽 씨는 박종철을 죽인 악명 높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옮겨졌다. … 11일 오후 면회를 신청한 최규엽 씨 가족들을 치안본부 남영동 관계자들은 쫓아내 버렸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성명서 -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최규엽 씨를 즉각 석방하라, 1987.11.11.)

내가 고문을 처음 받아본 것은 전주고등학교 3학년 시절 유신헌법 반대데모로 전주경찰서 반공분실 지하에서 조사를 받을 때이다. 기본적으로 고문이라는 것은 피고문자에게 수치심과 고통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가함으로써 피고문자의 인간성을 박탈하고 모든 자존심을 상실케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잔인한 수단이다.
고문을 한 뒤에 그들이 하는 일은 달래기 조가 따로 있어서 밥도 주고 심지어 약도 발라주기도 한다. 지극히 고립된 조건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나에게 따듯한 위로의 말과 밥 한 그릇은 오히려 고문 받을 때보다도 더욱더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나는 고문조와 달래기 조가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따로 움직인다는 것을 1981년 소위 전민노련 사건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알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고문 뒤에 가장 반가운 것이 "밥"이다.
1980년 6월 광주민중항쟁 서울확대사건에 연루되어 성북 경찰서에 잡혀가자마자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통닭구이 물고문부터 시작해서 날이 샐 때까지 온몸에 구타를 당했다. 때릴 곳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발바닥까지 때려서 유치장에 걸어가지 못하고 부축을 받고 기어가다시피 겨우 갔다. 사람이 많이 맞으면 나중에는 아픈지도 모른다. 탈진이 되어서 일어</td></tr>
</table>

날 수도 없었고 밥을 먹기도 힘들었다. 그다음 날 정보과 형사가 유치장까지 찾아와서 따듯한 말로 위로하고 사식 한 그릇 권하면서 파스를 발라주며 선배의 거처를 실토하라고 이야길 할 때 정말 그 순간은 어려웠다. 나는 밥을 게걸스럽게 먹으면서 내가 선배의 거처를 정말 몰라서 망정이었지 내가 만약 경찰이 요구하는 선배의 거처를 알았다면 당장 불었을 것이다.

1981년 남영동에서 고문수사를 받을 때도 실컷 죽여놓고 밥 한 그릇 주면서 "왜 이 고생이냐 마음만 바꿔 먹으면 출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이야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면서 달랠 때 그리고 다시 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할 때가 정말 견디기 어려웠고 이때는 실제 실수도 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나는 앞의 세 차례의 고문수사에서 '적'이 주는 밥 한 그릇에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던 자존심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 후 나는 내가 변혁운동을 하려면 고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고문을 극복할 수 없는 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실 이 당시 고문 때문에 운동을 그만둔 사람들이 많았다. 고문을 극복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고문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었다.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

1987년 12월 서울남부지역 노동자연맹 사건으로 나는 당시 제일 잔인하다는 '보안사령부'에 잡혀갔다. 당시 이 사람들은 나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나의 아내, 당시 3살 먹은 우리 아들까지 같이 연행해 갔고, 연행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 어머니와 애는 바로 내보냈지만 아내는 내보내지 않았다. 잡혀가자마자 한 바탕 코스를 밟았다. 온몸 폭행 뒤-물고문-전기고문-나는 죽어도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다 끝내고 나더니 전통적인 달래기 수법을 썼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이었다. 설렁탕을 본 순간 지금이야말로 내가 전두환 독재정권에게, 고문 수사관들에게 그동안 당한 모욕과 굴욕을 말끔히 씻어낼 때라 생각했다. 나는 박영진 동지가 분신투쟁으로 죽은 후에 정말 많은 반성을 했다. 이제는 정말 죽어야 한다. 죽지 않고는 안 된다. 죽을 때가 오면 멋있게 깨끗이 죽자. 그리고 살아 있다는 것이 어느 때는 부끄러웠다. 나는 보안사 놈들에게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죽이라고 소리쳤다. 그때 이놈들은 깜짝 놀라면서 눈들이 휘둥그레 해지면서 열었던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이들은 나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나를 이첩하고 말았다.

(최규엽 개인 블로그)

최규엽 씨가 연행될 당시 그 현장에는 그의 늙으신 어머니, 그의 처 이덕자 씨, 두 살 된 그의 어린 아들 최요한 군까지 모두 4명이 있었는데 최규엽 씨 어머니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고 울부짖으며 매달리자 그놈들은 일가족 4명을 몽땅 강제로 차에 싣고 연행하였습니다. …

최규엽 씨 부부는 늙으신 어머님과 어린 아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진술에 응할 수가 없다고 버텼고, 두 사람이 풀려나는 모습을 확인하며 부인 이덕자 씨가 "어머니 여기가 송파예요. 잊지 마세요!"라고 소리치자 그놈들은 "입 닥쳐" 하며 마구 윽박질렀습니다.

	최규엽 씨가 단식으로 부인 이덕자 씨의 석방을 계속 요구하자 그놈들은 이덕자 씨를 밤 9시경 풀어주었습니다. 이덕자 씨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 끌려가서 취조실에 넣어졌는데, 서 있다 보니 웬 놈이 들어와서 “앉아” 하고 소리쳤답니다. 부인 이 씨가 빤히 쳐다보자 “앉으라면 앉아” 하고 다시 소리치길래 “당신이 뭔데 남의 처에게 앉으라 말라 반말이냐”고 항의하자 “뭐 이 쌍년이” 하며 욕을 퍼부었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름이 뭐야” 하고 묻기에 “당신의 직위가 뭐고 이름이 뭔데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항의하고 계속 진술을 거부하였답니다. 부인 이 씨는 강제 불법감금 12시간 만에 풀려나면서 남편 최 씨를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매우 처절한 몰골로 앉아 있었는데 부인 이 씨가 “옷 벗기고 물 먹였냐”고 펄펄 뛰자 옆에 있던 수사요원은 험악한 인상을 가진 놈이었는데 “신경 쓰이는 소리하지 말어” 하면서 협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최 씨는 부인 이 씨를 위로하며 “그런 게 아니고 들어왔을 때 높은 사람한테 몇 대 맞은 것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수사관들에게 에워싸인 채 그 정도 얘기했다면 대단한 용기를 갖고 얘기한 것일 겁니다. 남노련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송파에서 모진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최규엽 씨에게 행해지고 있는 무자비하고도 어마어마한 고문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규엽 씨의 연행이유가 남노련 의장이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군인이 사람 잡는 세상을 개탄한다!, 최규엽 씨 가족 일동, 1987.11.11.)

이름	박성희(1964년생)		직업	고려대 간호학과 82학번	
사건명	남노련(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사건				
체포일	1987.4.26	구속일	-	송치일	-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 및 고무찬양 등)		재판 결과	-	
재심 여부	-		현재 상황	-	
고문 피해 진술	박성희(고대 간호학 82)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모두 송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송치가 늦었다. 그 이유는 보안사에서 당한 각종 고문 중 특히 전기고문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라고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보안사 및 치안본부의 살인고문 박살내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987.5.21.)				

이름	최동규(1960년생)	**직업**	남노련 11지부장 연세대 중문과 제적		
사건명	남노련(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사건				
체포일	1987.4.26.(보안사) 1987.4.30.(남영동 이첩)	**구속일**	-	**송치일**	약 20일 후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 및 북괴고무찬양 등)	**재판 결과**	-		
재심 여부	-	**현재 상황**	2009년 군장대학 사회복지과 객원교수 블로그(http://blog.daum.net/moonnature/5133027)		
고문 피해 진술	85년 제대 후 노동운동 준비를 한 뒤 86년부터 노동운동조직에서 활동했다. 무대는 구로동. 당시 나는 조그만 전자회사에 취업했다. 말이 현장 활동이지, 쉽지는 않았다. 현장 일도 익숙하지 않았고, 주변 노동자를 의식화시키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다. 현장 일 그만둔 후에는 밖에서 조직 일을 했다. 조직명은 남서울노동운동연합(남노련). 신입 조직원을 교육하고, 현장 다니는 조직원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했다. 그러다가 87년 우이동에서 회의하다가 10여 명이 보안사에 체포되었다. 그래서 성남 인근에 있는 보안사로 끌려가, 이제는 기억도 희미한데 5일 정도 혹독하게 고문을 당했다.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특히 옆에서 터져 나오는 동료들의 비명은 견디기 어려웠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이후 남영동 치안분실로 끌려갔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건물이다. 여기서도 2주일 정도 심문은 계속되었다. 끝없이 쓰고 또 쓰고… 묻고 또 묻고… 지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았다. 보안사, 치안본부의 조사과정은 전부 불법이다. 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물론 고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몸도 마음도 무너진 채 서대문구치소로 넘어갔다. (최동규 개인 블로그) 박종철 군 사건이 터지자 남영동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정권은 - 이전에도 노동운동 관련자를 다른 부문운동보다 악랄하게 탄압하기는 했지만 - 서노련 사건 전후 주로 악용하던 보안사로 수사기관을 바꾸게 된다. 그리하여 4월 26일 도봉산에서 연행된 10여 명은 서울 송파구 국군보안사령부로 연행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은 뒤 다시 남영동 대공분실로 이첩된다. 이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고문과 수사의 일시적 분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들이 당한 고문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극심한 공포와 부상을 가져왔다. 이재권은 면회 시에 “어머니, 내가 박종철보다도 더 많이 당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난 게 정말 기적입니다”라며 울부짖는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군무이탈로 계속 보안사에서 조사받았던 유용화는 고문자가 송정호 준위였다고 증언했다. 나머지 9명은 사흘 후 남영동 대공분실로 갔으나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최동규(28, 연대 중문과 제적)는 남영동에서 “너 물 한 번 더 먹을래? 짜릿한 맛 좀 더 봐야겠군!” 하고 보안사의 고문을 연상하게 하여 공포 분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또 서원기(33, 고대 심리학과 제적)는 수배 중인 다른 사건 관계자 이범영, 박계동 등의 행적을 추궁하는 수사관의 구타에 남영동에서 한 달간이나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년., 237~238쪽.) 〈남영동 1985〉를 보며, 김근태 의장님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곳에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모진 고문을 반복적으로 당할 때 느낄 공포와 좌절감에 대해 새삼 아픔을 느끼고, 김근태 의장에게 애정을 느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낸 김근태 의장은 주변에게 따스했다. 지사적 꼿꼿함은 은연중 드러났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젠틀함과 부드러움 그 자체였다. 고문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나의 경우, 80년대 중반 노동운동을 하다가 보안사, 남영동을 거쳐 구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민간인을 구금할 법적 권한조차 없는 보안사가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구금하고 고문까지 버젓이 자행했던 불법 무도한 시절이었다. 불법적으로 구금, 고문당한 10여 일은 끔찍했다. 되풀이되는 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자꾸 움츠러드는 부끄러운 자신을 보게 된, 다시 떠올리기 싫은 시간이다. 폭력 앞에 떨고 초라해지는 과정은 그 이전에 막연하게 가졌던 개인의 운동적 신념에 대한 자신감을 흔드는, 개인을 근본부터 흔드는 충격적인 과정이었다. 고문 때 직면한 부끄러운 모습은 고문 이후에도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로움을 주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새삼 김근태 의장이 그립다. 그리고 독재 하수인을 단죄하지 못한 지난 민주정부 시절의 불철저함에 대해 화가 난다. (최동규 개인 블로그)

이름	서원기(1954년생)	직업	고려대 심리학과		
사건명	남노련(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사건				
체포일	1987.4.27. (보안대 → 남영동 대공분실)	구속일	15일	송치일	약 20일 후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 및 고무찬양 등)	재판 결과	-		
재심 여부	-	현재 상황	-		
고문 피해 진술	서원기(33세, 고려대 심리학과 75학번) 씨의 경우, 그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4월 27일 서울 3라7755 은백색 포니엑셀에 실려 보안대에 연행되었다가 엄청난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치본 남영동 대공분실에 넘겨져 또다시 구타당함이 이경은 씨의 면회로 밝혀졌다. 그에 따르면 보안사의 고문에 지쳐 남영동으로 넘어왔는데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대공수사 2단 6과 소속 김정동 경사에게 계속적인 구타를 보름 동안 당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남노련 관계 조사 때문이 아닌 박계동, 이범영 등의 수배자를 잡아 현상금과 특진을 하려는 개인적 탐욕 때문에 빚어진 고문이었다. 김정동이라는 놈은 서 씨의 처 이경은 씨에게 “물을 댓 주전자 먹였다. 짓밟지는 않고 인사 정도 했다”고 천연덕스럽게 고문사실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고문해도 무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보안사 및 치안본부의 살인고문 박살내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987.5.21.)				

이름	이재권(1963년생)	직업	고려대 신방과		
사건명	남노련(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사건				
체포일	-	구속일		송치일	
적용 법조	-	재판 결과	가석방		
재심 여부	-	현재 상황	-		
고문 피해 진술	1987년 남노련(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합) 사건이 터지면서 보안사 송파분실로 끌려갔다. 밤새도록 몽둥이찜질에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 “고문이란 고문은 다 받아봤다.” 1박 2일 생지옥을 빠져나와 남영동 대공분실로 옮겼다. 그해 초 터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여파 때문에 남영동에선 고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덩치가 산만 한 수사관은 이 부대표의 쇄골(빗장뼈)에 손가락을 걸고 뻑하면 계속 잡아당겼다. “나중엔 뼈가 흔들흔들해졌다.” … 남노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 부대표는 1년 반 만에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때가 1988년이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 부대표는 울사협(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노동상담소와 임지본(임투지원본부)에서 간사로 활동했다. 민족학교 사건으로 수배돼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도망도 다녔다. (이종호, “신문을 키우는 건 독자들의 작은 실천”, 울산저널, 2014.1.9.) 1987년 5월은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가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던 때였다. 우연찮게도 나는 마침 그때 박 열사가 죽은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취조를 받았다. 고문기술자 한 놈은 비쩍 마른 나의 쇄골 안쪽 깊숙이 손가락을 집어넣어 잡아당기며 무조건 항복과 범죄사실의 인정을 강요했고 다른 한 놈은 콜트 45구경 권총을 내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며 ‘너 같은 놈들 수없이 인천 앞바다에 돌 매달아 던져봤다’고 위협했다. 한 놈은 쇄골을 뽑아대고 한 놈은 빈총의 방아쇠를 연신 당기며 화풀이하듯이 하는 말이 ‘박종철이 같은 빨갱이 새끼 하나 죽은 것이 뭐 그리 대수냐’며 고문을 계속했다. (이재권, “[이재권의 따따부따] 포기하지 않는 1%의 소중함”, 울산저널, 2016.1.20.)				

●●노해사(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 개요

1987년 2월 27일 공안당국은 “용공지하단체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이하 노해사)를 결성한 뒤 노동야학교실을 개설, 근로자들을 의식화시켜 온 혐의로 노해사 회장 김영진 씨를 비롯, 공계진·김덕형·박재국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들의 ‘노해사’ 중앙지도위원회 산하에 교육부를 두고 한광야학, 신도림야학, 작은자리야학 등 3개 야학교실을 개설했으며 조직부와 투쟁부 산하에는 각 지역별 책임자를 두어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이론으로 근로자들을 사상무장시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암약해 왔다”고 밝혔다. (“지하단체 노해사 적발”, 동아일보, 1987.2.27., 11면.)

사건은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조작을 거듭했다. 구속 당시 노해사 의장이었던 김영진은 1987년 5월 남노련 사건이 발생하자, 노해사 사건 관련자들도 남노련 소속의 하부조직으로 처리됐다. 김영진의 경우 공소사실이 남노련 사건으로 변경됐고, 직책도 노해사 의장에서 남노련 중앙위원으로 바뀌었다. 남노련 위원장으로 구속된 유용화도 그해 11월 최규엽이 구속되자 최규엽이 중앙위원장으로, 유용화는 중앙위원으로 바뀌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년., 226~228쪽.)

실제로 노해사는 부천, 광명을 중심으로 생활야학, 즉 한자, 작문 등 상식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둔 야학활동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여기서 배출된 노동자들을 노동운동가로 키워내는 활동에 중점을 뒀을 뿐,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는 공안당국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년., 230쪽.) 또한 당초 공계진, 김진형 씨 등에 대해 적용한 ‘이적단체가입죄’를 검찰이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가 무리였음을 자인하고 말았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년, 283~284쪽.)

[일지]

1987년 1월 11일 새벽, ‘작은자리’ 회관(부천 소재)에서 운영하는 한울야학의 교사였던 박재국(숭실대 82), 강은정(성신여대 82)과 박재국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던 김영진(고대 78), 박재국의 처 홍영이(숭실대 82) 등 4명이 정체불명의 수사관에 의해 연행됨. 산후조리 중이던 김영진의 처와 박재국의 어머니에게 영장 제시는 물론 연행이유, 장소 등을 전혀 밝히지 않은 불법연행.

1월 11일 오전 11시경, 야학교사 김미란(고대 82) 연행

1월 12일, 김영진 고문해서 캐낸 장소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 의해 박태연(전 노조사무장)과 공계진(고대 80) 연행. 같은 시기에 임란(고대 82), 한광야학 교사 김정규(고대), 장정옥(고대 81) 강제연행.

1월 15일,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이 강은정 증거수집 위해 집으로 전화 걸어 남영동 대공분실에 불법연행 됐음을 간접적으로 알게 됨.

1월 20일, 박재국, 강은정, 임란 집에 구속 공문 왔으나 구속 사유는 공란.

1월 21일, 구속 서면 통보(실제 구속일자는 15일), 가족 면회 요구했으나 김영진만 거부당함. 이를 항의하자 수사계장은 김영진이 양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으며 이 때문에 면회가 되지 않고 있음을 발설. 연행 당시 2층에서 뛰어내리다 당한 것이며 연행 다음 날 즉시 치료를 해줬다고 말함. 그

러나 김영진은 연행 당시 300미터 이상 도망가다가 잡혔다고 주장.
2월 2일, 김영진 부인 면회. 두 다리, 한쪽 팔에 깁스했으며, 깁스는 연행 당일 아닌 일주일 지난 17일에 한 것으로 밝혀짐. 부상이 일주일 이상 방치됐거나 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보임. 특히 오른쪽 다리의 경우 깁스가 약간 깨어진 틈으로 부상을 확인했을 때 불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상이었음.
2월 3일, 김영진(불구속) 제외 9명 구속 송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구속자 가족 일동, 1987.2.4.)

<table>
<tr><td>이름</td><td colspan="2">김영진(78학번)</td><td>직업</td><td colspan="3">고려대 법대 졸업</td></tr>
<tr><td>사건명</td><td colspan="6">노해사(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 및
남노련 사건</td></tr>
<tr><td>체포일</td><td>1987.1.11.</td><td>구속일</td><td>1987.1.15.</td><td>송치일</td><td colspan="2">1987.2.3. (불구속)</td></tr>
<tr><td>적용
법조</td><td colspan="2">국가보안법</td><td>재판
결과</td><td colspan="3">1심 징역 10년
1988.12.21. 사면</td></tr>
<tr><td>재심
여부</td><td colspan="2">-</td><td>현재
상황</td><td colspan="3">노동운동, 2012.6.16. 사망</td></tr>
<tr><td>고문
피해
진술</td><td colspan="6">지난 1월 11일 새벽, 제 남편 김영진과 그의 후배 박재국(숭실대 82) 홍영이(숭실대 82) 부부, 강은정(성신여대 82)이 부천의 아파트에서 정체불명의 사나이에 의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출산 2주의 저와 박재국 씨의 어머니는 김영진과 그들이 고문과 급기야는 의문의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는 장막 속의 수사기관에 끌려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본능적으로 연행을 저지하며 이에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권이나 민주적 절차를 비웃은 폭군처럼 심야에 강제연행을 하면서도 영장 제시는 고사하고 연행이유와 장소, 자신들의 정체 따위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면을 하고 침입한 가정파괴범처럼 우리에게 가하는 어떠한 사회적 비난도 가볍게 짓밟을 수 있음을 과시하며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남편 김영진과 그의 동료들이 혹독한 고문과 협박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어린 딸을 안고 행방을 수소문한 결과 가까스로 이들이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으로 연행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일 뿐 일체의 면회를 거부당한 채 이들의 무사함을 가슴 조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이 불법연행, 무단 구금된 지 5일째 되는 날 우리를 경악케 했던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들이 아무런 법적, 사회적 보호 장치 없이 무서운 고문에 방치되고 있음을 알았을 때 우리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랜 수사가 진행된 후 남영동 분실에서 일부 풀려나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부천을 중심으로 노동현장과 야학에서 활동하던 김영진과 그의 동료들은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의 이름 아래 무서운 반국가 용공조직 결성의 기도를 자백하라고 강요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김영진과 같이 연행된 야학 교사들을 김영진을 총책임자로 7개의 그룹에 각 그룹마다 3~4명씩 총 20여 명의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을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가 순수한 노동운동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반국가 용공조직임을 강요받거나, 여타의 연루자를 발설하라는 것으로 무서운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연행 11일이 지난 1월 22일 딸을 면회 갔던 한 어머니가 ‘김영진은 왜 가족의 면회조차 허락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수사책임자는 ‘김영진과 연루된 사람이 57명에 이르고 있으니 그들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면회를 시켜줄 수 없다’고 변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자신을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가족 면회까지도 무참히 유린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투였으며, 은연중에 면회 따위</td></tr>
</table>

	를 계속 요구하면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간접적인 위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김영진을 가족에게로 구출하자, 노동자 해방사상 연구회 사건 경위서, 1987.1.22.) 87년 1월 11일 연행된 김영진 등 10여 명은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 당한 악랄함으로 유명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지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특히 김영진은 연행 당시 두 다리가 부러지는 등 심한 부상을 당한 채 물고문 등 실로 악랄한 고문을 당했다. 이후 탈영병이라는 이유로 보안사를 거쳐 육군본부 헌병대대로 이관되어서는 살인적 처우에 항거하기도 했는데 구타가 끊이지 않아 88년 12월에 석방되어 나왔으나 아직도 한쪽 다리를 절고 있다고 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년., 237쪽.)

이름	황정옥(1964년생)		직업	고려대 사회학 노동운동가		
사건명	노해사(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					
체포일	1987.1.15.	구속일	1987.2.27.		송치일	-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재판 결과	1심 징역 1년6월(87년 7월 말 금보석 출소) 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심 여부	-		현재 상황	-		

고문 피해 진술

87년 1월 15일경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으로 남영동으로 잡혀갔던 사람이고요.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 사건은 나중에 터지는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이라는 본 조직을 위한. 당시 학생들이 위장취업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예비학교였거든요. 그 사건으로 들어갔고요. 제가 남노련의 안가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15일경에 대여섯 명이 우루루 나와서 차에 태우고 겨울이었으니깐 코트를 벗겨서 뒤집어 씌워서 갔고. 저한테는 보안사 간다, 너 하나 쥐도 새도 없이 죽일 수 있다, 가기 전에 심리적으로 꺾어버리려고 해요. 그런 상태로 나선형 계단으로 해서 올라왔고 그때 저는 남영동인지 몰랐지요, 나선형 계단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경찰서만 가봤지. 저희도 조직사건으로 들어가면 운동을 했으니깐 매뉴얼이 있었어요.

… 일단 심리적으로 사람을 꺾으려고 해요. 그래야 불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물고문이 시작되죠. 저도 제가 물을 몇 번 먹었는지 모르겠고, 구타를 어떻게 당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0년 전이니깐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이공의 흰옷」이라고 베트남에서 전설적인 여성이 고문을 당하면서 극복하는 소설이 있었는데, 제가 86년 말에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분이 받은 고문은 우리가 받은 고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났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결의를 다졌던 생각이 나요. 고문을 당하면서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그 여성분만 생각났어요. 이념이고 뭐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더한 상황에서도 버텨냈다, 버텨야겠다 생각밖에 안 했구요. 일정 정도 버티다가 죽겠다 안 되겠다는 상황에서 손을 들어서, 말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밤새 조서를 썼어요.

저희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조서를 쓸 땐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써라. 왜냐면 반복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내가 뭘 쓰는지 생각하면서 계속 암기하면서. 2차, 3차 계속 밤새 쓰게 해요. 그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약간은 변경하면서. 제가 이상했던 게 그다음 날 되고, 조서가 제대로 안 나오면 고문이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데 형사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박종철 열사가 그때 5층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저희는 박종철 열사와 다른 팀이었겠죠. 비상이 걸리면서 형사들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저는 박종철 열사에게 개인적으로 남들보다 빚이 더 있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고문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 모진 고문 당해서 뭔가 불었다는 사람을 저는 절대 뭐라고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2일, 3일, 4일, 5일 당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다행스럽게 박종철 열사 덕분에 그 위기를 넘겼어요.

… 1차 조사가 끝나고 나니깐 지금은 없어졌는데, 남영동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어요. 5

	층에 방이 한계가 있으니깐 모두 5층에서 끝까지 수사를 할 수 없으면 컨테이너 박스로 이동시켰고. 컨테이너 박스도 1인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YH 박태연 사무국장님과 통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컨테이너에서 시위했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가 막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5층에 있다가 컨테이너로 옮겨서 계속 수사하고, 마무리하면서 용산서로 보냈어요. 용산서에 며칠 있었던 것 같은데. 용산서 가서 물어보니깐 거기서 알려줬던 것 같아요. 학생이 한 명 죽었다는 얘기 듣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던 기억이 납니다. … 또 하나는 권인숙 양 사건이 86년에 있었잖아요. 저는 87년 1월에, 직후에 들어갔고 체포 초기에야 여자, 남자가 어딨습니까. 때리고 물고문할 때는. 상황이 좀 바뀌니깐 형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너에게 손도 안 댔다, 너 나중에 괜히 권인숙이처럼, 지들은 그래요. 권인숙이 빨갱이들이 이용했다, 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너 나 성고문 했다고 얘기하지 마라고 하면서 저는 깔끔하게 대해줬어요. 그때는 여자 경찰이 없으니깐 뭐 생리대도 사다주고. 야 내가 별짓을 다 한다 내 딸 생리대도 안 사다줬는데 너한테 사다준다. 이래서 권인숙 선생님에게도 큰 빚이 있죠, 감사하죠. 그 직후에는 남영동에서도 여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쓰는, 물론 박종철 열사 사건의 여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학생을 대할 때는 그들도 조심했던 기억이 나요. … (금품을 요구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성북서 형사가 남영동에 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희 작은아버지가 잘산다고 생각했는지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공직에 있는데 안 잘리려면 손을 써줄 테니깐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 … (본 건물 건너편에, 주차장 있는 쪽 임시 가건물이 나오는데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기록을 보면 나오고 그 사람들이 고문치사를 벌였다. 여기가 대공수사단 1단, 여기가 2단인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업무 공간쯤으로 생각했는데 임시유치장 역할도 했다, 사실 5층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잡혀올 때니깐. 여기에 20일 계속 둘 수 없으니까 어느 기간 경과하면 여기로 한다 이거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혹시 가리고 움직였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땅이 생각나는 거 보니깐 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컨테이너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이 안에선 가리진 않았다. 거기서도 그 박태연 언니와 통방을 했거든요. 거기 1인실에서. (건물을 왔다 갔다 할 때?) 안 했을 것 같아요. 땅을 기억하고 컨테이너라는 걸 기억하는 걸 볼 때. 저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게 박종철 열사 직후였기에 조사도 편하게 받았고 상대적으로 형사들이 저를 부드럽게 대해줬어요. 그다음 날부터는. (황정옥,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이름	박종철(1965년생)		직업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사건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체포일	1987.1.13.	구속일	-	송치일	-
적용 법조	-		재판 결과	-	
재심 여부	-		현재 상황	2018.7.23. 아버지 박정기 사망	
사건 개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어 군부독재의 종말을 이끈 사건이다.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던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 사망했다.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 중앙일보, 1987.1.15.) 전두환 5공 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1986년 가을부터 민주화운동에 대해 한층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공안당국은 기존의 대통령 간접선거를 유지하는 4.13호헌조치를 준비하면서 공안사건의 급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각 대공부서는 공안사건 관련자들을 빠르게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었던 박종철은 1월 13일 하숙집에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 의해 연행됐다. 1985년 10월에 일어난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선배 박종운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함이었다. 수사관들은 박종철에게 모진 물고문을 반복했고, 1월 14일 오전 11시경 고문 도중 욕조 턱에 박종철의 목이 눌리면서 박종철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의식을 잃었다. 급히 중앙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처치했으나 박종철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고문으로 인한 사망 증거를 없애기 위해 14일 밤 즉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시신 화장 신청을 넣었으나 당시 담당검사 최환(현 변호사, 전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고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15일 한양대병원 영안실에서 부검이 진행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황적준 박사는 “학생이 ‘물고문 도중 질식사 한 것 같다”며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1월 17일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치안본부장 강민창은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했으나 낮 12시쯤 사망했다”며 “내가 아는 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부검 결과와는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종철 사망 직후 대공분실 조사실에 왔던 중앙대 내과의사 오연상이 “박종철은 병원 이송 전에 이미 사망했고, 자신은 진료가 아닌 사체 검안서를 썼으며 당시 대공분실에 도착했을 때 조사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다. 고문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청와대,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 검찰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고문은 사실이나, 전기고문을 한 적은 없으며,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은 2명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경찰 고위층이 사건 은폐, 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국은 보도지침과 언론통제를 통해				

	폭로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으려 하였으나, 5월 22일 동아일보 1면에 고문가담 경찰 은폐 관련 보도가 등장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군부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던 전두환 정권 하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고문수사, 인권탄압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고문으로 인한 죽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경관 2명을 내세워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경찰 당국의 부끄러운 행태도 이 사건에서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점이다. (“경찰서 대학생 쇼크사 검찰, 진상규명 나서”, 경향신문, 1987.1.16.; 김정남, 「1987년 1월에서 6월까지 -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름, 2007년.)
당사자 주장	“오전 11시 45분경 조사실에서 도착했을 당시 박 군은 바지만 입은 채 웃옷이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약간 비좁은 조사실 바닥에는 물기가 있었다. 도착 즉시 박 군을 검진한 결과 동공이 모두 열린 채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며 변을 배설한 것으로 보아 항문도 열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징후가 명백히 나타나 있었다. 외상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사망 시 등에 들리는 수포음이 전체적으로 들렸다.” (“박종철의 시체를 맨 처음 검안한 의사 오연상의 증언”, 동아일보, 1987.1.17.) “치안본부장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와서 커피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유정방 과장이라고 알지? 그 양반이 들어와서 큰일 났다고 수사실에서 박종철이라고 하는 대학생을 연행해 수사를 하는데 지금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그때 내가 생각했어. 시간 늦추지 말고 본부장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 둘째는 부산에 박종철 군 부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고 용산 경찰서와 서울 지검에 과장, 계장을 보내서 보고하게 하고 나는 치안본부에 들어갔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단장) (김종원, 정윤식, “[단독] 박종철 고문치사 당시 지휘관 ‘31년만의 고백’”, SBS, 2008.1.23.) **박종철 부검의였던 황적준 박사의 일기** 1월 15일 밤 10시 25분 부검 끝내고 영안실 사무실에서 안 검사에게 약 40분간 외상부위와 사인에 대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임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 1월 16일 새벽 2시 “아침에 있을 급한 불(본부장의 기자회견)부터 끄자”라는 간부들의 설득에 따라 착잡한 심정으로 ‘외표 검사상 사인이 될 만한 특이소견 보지 못함’, ‘내경 소견은 오른쪽 폐하엽 하면에서 출혈반 소견’으로 발표용 부검 소견 작성에 동의. 1월 16일 오후 3시경 부검에 입회한 한양대 박 교수와 박 군 삼촌의 목격담이 동아일보에 비교적 상세히 보도된 것을 읽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검감정서」만은 사실대로 기술해야겠다’라고 결심. 1월 16일 오후 3시 20분

	본부장 소집무실과 5차장실을 왕래하면서 대기하는 동안 강 본부장, 박 5차장, 주 4차장, 유2차장이 나에게 “19일까지 감정서를 ‘심장쇼크사’로 보고하라”고 회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강 본부장이 “목욕이나 하라”며 국과수 간부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줌. → 황적준 부검의가 부검 직후에는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회유 때문에 부검 소견을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로 발표하지 못하였으나, 부검에 입회했던 한양대 박 교수와 박종철 삼촌의 언론 보도를 보고 사실대로 부검감정서를 작성함. p.27 부검에 입회했던 한양대병원 박동호 교수와 삼촌 박월길 씨는 자신이 듣고 본 것을 언론에 증언했다. 동아일보 1월 16일자는 그들의 증언을 인용해 “숨진 박 군은 머리에 피하출혈과 목, 가슴, 하복부, 사타구니 등 수십 군데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보도하였고, 이어서 각 언론은 경쟁적으로 박종철 군에 대한 고문의혹을 제기하여 국민의 양심을 자극하였다. 이렇게 하여 고문사실은 기정사실화되었다. (김정남, 「1987년 1월에서 6월까지 -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름, 2007년, 27쪽.) p.1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살해 사건에 대한 수차에 걸친 정부당국의 발표는 연행목적과 연행시간 및 조사기간, 고문행태 부검내용 최종사인 등을 제대로 밝힌 것이라기보다는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은폐 축소 왜곡 기만한 것이라고 단정한다. p.5. 3. 최종 사인은 전기고문에 의한 충격사 법의학상 박 군의 사체에 나타난 검지, 엄지 간의 출혈반은 전기고문에 의한 흔적이다. 전기고문의 경우 직류의 전류를 사용하므로 직류의 유입구의 유출구에 홍반, 즉 출혈반(전류반이라고도 함)의 소견이 보인다. 박 군의 검지, 엄지 간의 출혈반은 전기고문 시 직류의 유입구에 나타난 전류반이고 사타구니와 폐의 출혈반은 직류의 유출구에서 나타난 전류반이다. 법의학상 보더라도 전기고문에 의한 충격사가 박 군의 최종 사인이다. p.6. 4. 정부당국의 사건 은폐 축소 왜곡기도 (가) 경찰·검찰 발표상의 허위 검찰은 박 군 연행 시간이 경찰발표(14일 상오 8시 10분)보다 1시간 30분 빠른 상오 6시 40분이었다고 밝혔으나 박 군에 대한 조사시간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상오 10시 50분에서 11시 20분까지 30분이었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자술서를 쓰고 추궁 당한 뒤 물고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받는데 모두 30분밖에 안 걸렸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박 군이 13일 밤 자정경에 강제 연행된 후 10여 시간 이상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엄청난 폭행과 끔찍한 전기고문을 당한 것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p.8 (사) 고문범인은 2명 이상

신체를 결박하지 않고 욕조 물고문을 시행하였다면 조한경, 강진규 단 2명만으로는 사망 직전에 일어나는 사람의 엄청난 사력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으므로 2명 이상이 고문에 가담했다고 보아야 한다.

p.10 〈고 박종철 군 고문살해 사건의 경위 및 문제점〉

1. 박종철 군의 최종 사인은 전기고문 충격사

당국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도 법의학상으로 보면 거의 전부가 타살의 경우에 해당됨으로 살인이 명백하다.

고 박 군의 경우 발표대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면 법의학상 시체의 외부 소견으로서 욕조 턱의 폭과 동일한 폭의 경부액흔(눌린 흔적, 보통 피하출혈)이 특이한 소견으로 나타나야 하고 안면과 설근부의 울혈종창과 안결막 점막에 일혈점(보통 출혈점)이 뚜렷이 높게 나타나며 후두제연골의 골절이 나타나고 내부 소견으로서 질식사의 3대 징후인 일혈점(출혈점)의 발생, 혈액의 암적색 유동성, 장기의 울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 외부의 각 소견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폐의 출혈만을 들고 있는바, 당국의 발표 사인은 축소 왜곡 은폐로 믿을 수 없고 법의학상 최종 사인이 전기고문에 의한 사인이 명백하다.

법의학상 전기 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내부 소견으로서는 때때로 질식 사체와 유사한 소견을 보이므로 전기고문에 의한 충격사가 최종 사인이다.

p.10~11. 2. 검지와 엄지 간의 출혈반은 전기고문 때문

법의학상 낙뢰사(벼락 맞아 죽음)에서는 사체에 화상이 나타나지만 전기고문 등 감전사의 경우에는 화상이 나타나지 않고, 전기고문의 경우 직류의 전류를 사용하므로 직류의 유입구 또는 유출구에 홍반, 즉 출혈반(전류반이라고도 함)의 소견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박 군의 검지, 엄지 간의 출혈반은 전기고문 시 직류의 유입구에 나타난 전류반이고 사타구니와 폐의 출혈반은 직류의 유출구에서 나타난 전류반이다. 법의학상 전기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있어 생명에 대한 최저 전류의 한계를 직류는 5백 볼트 교류는 3백 볼트라고 하나 직류이거나 교류이거나 대체로 2백 볼트가 되면 위험하고 때로는 직류 60-100 볼트에서도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예도 있다.

때때로 저압전류로서도 동맥발육부진, 심장비대, 홍선임파체질, 신장염 등이 있는 사람일 경우 심전 정지를 일으켜 급격히 사망한다. 전류반이라 하여 전류가 흐른 경로에 어떤 부위의 체표에는 황갈색의 수지상문 피부변색이 생겨 오랫동안 남아 있어 법의학상 보더라도 박 군의 사체에 나타난 검지, 엄지 간의 출혈반은 전기고문에 의한 흔적이다.

p.11. 3. 온몸 수십 군데 피멍은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 폭행 입증

고 박 군의 삼촌 박월길 씨는 박 군의 사체를 직접 살펴보고 '두피를 벗기자 머리 한쪽에 피멍자국이 드러나 보였으며 이마, 뒤통수, 가슴, 하복부, 사타구니 등 온몸에 수십 군데 피

멍 등 상처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검에 입회한 한양대병원 박동호 의사는 경찰의 참고인 진술에서 '박 군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 있었고 전신에 보이는 피멍 상처는 구타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물론 검찰 발표에서도 이 같은 엄청난 폭행에 의한 상처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빠져 있다.

p.12. 6. 연행시간도 사건 은폐 위해 허위발표(실제 연행시간은 1월 13일 밤 자정경)
고 박 군의 동료 학우 신상민 군(21세, 서울대 언어학과 3년)의 증언에 의하면 2차로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시간이 13일 22:30이고 학우 박명진 군의 증언에 의하면 14일 00:10 귀가하여 보니 고 박 군이 성적표를 전하여 주고 갔기에 40분이 경과되어 14일 00:50에 고 박 군 하숙집에 찾아갔으나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인기척이 없어 돌아왔다.
고 박 군 하숙집 여주인 임정숙 씨의 진술에 의하면 13일 아침에 등교한 후 변사 소식이 들릴 때까지 고 박 군이 귀가한 바 없다고 해 연행 시간은 13일 22:30 이후 14일 00:10 사이로 13일 밤 자정경에 연행되었음이 확신된다.

p.13. 7. 고문 범인 2명 이상이다.
검찰은 1월 24일 고문 경찰관들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1월 14일 6시 40분경 피고인 조한경 및 공소외 경위 황정웅 등 6명이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46-26 박종철의 하숙집에 가서 동인을 임의동행하여 동일 7시 10분께 서울 용산구 갈월동 98-1 치안본부 대공2부 건물 5층 제9호 조사실로 데리고 왔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수사팀이 6명이라면 그 전원이 고문에 가세했을 것이므로 6명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며 불법연행과 불법감금에 대한 것도 추궁해야 하고 6명 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물고문, 특히 신체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욕조 물고문을 시행하였다면 단 2명만으로서는 사망 직전에 일어나는 사람의 엄청난 사력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으므로 2명 이상이 고문에 가담했다고 보아야 한다.

p.14. 9. 동공이 모두 열린 채 숨진 박 군
1월 14일 11:30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의 위급 연락을 받고 중앙대 용산병원 내과전문의 오연상 의사(32세)가 심폐 소생술 시술에 필요한 기구 및 약품을 소지하고 갈월동 소재 대공분실 건물 5층 제9호실에 11:45경 도착했다.
박 군을 최초로 검안한 오 의사는 '박 군을 처음 보았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물을 많이 먹었다는 말을 조사관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오 의사는 자신이 조사실에 도착했을 때 박 군은 조사실 간이침대(고문대) 위에 반듯이 누운 채 3명가량의 수사관으로부터 입으로 하는 입 대 입 인공호흡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군의 상체는 발가벗겨져 있었고 하체는 파자마(일명 고문복인 전투복)가 입혀져 있었다. 오 의사는 '도착 즉시 박 군을 검진한 결과 동공이 모두 열린 채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

	며 변을 배설한 것을 보아 항문도 열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징후가 명백히 나타나 있었다'고 말했다. 오 의사는 약간 비좁은 조사실 바닥에는 물기가 있었다고 말해 물고문이 행해졌음을 반증했다. p.14~15. 10. 복부팽만이 심했고 폐에서 수포음 들려 오연상 의사가 검진한바 이미 사망한 징후가 역력하였으나 동 분실의 소생술 시술 요청이 있었고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하고 젊은 건강체이므로 소생 기대를 걸고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술하였으나 무위로 그쳐 변사자의 사망시간을 12:05로 선언하였다. 시술방법은 전기 쇼크 방법은 취한 바 없고(준비하여 가지 않음)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고 공기풍선을 연결하는 외에 심장에 직접 강심제 주사 1앰플을 시주하였다. 심장에 주사 바늘을 2회 찔렀는데 그 이유는 처음 찌른 것이 실패되었기 때문이며, 심장에 직접 사주한 이유는 보조 간호원이 없었고 현장에 병원의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 의사는 검안서에서 '복부 팽만이 심했으며 폐에서 사망 시 등에 들리는 수포음이 전체적으로 들렸다'고 적었다. p.16~. 13. 박 군 사체 한양대 병원서 부검 … 박 의사는 '박 군의 두피를 열자 뒷머리 쪽에 피멍이 있었고 가슴 주위 살갗이 벌겋게 변해 있었으며 가슴부위와 피하층에도 구슬 크기만 한 피멍이 여러 군데 보였다. 또 목부분과 왼쪽 허벅지 윗부분에도 직경 1센티 크기쯤 피멍이 2~3개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사는 가슴이 퍼렇게 된 것이 시반인 줄 알았더니 피멍이었구나라고 부검팀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14. 부검 전후 부검의사와 대공 5차장 간에 벌어진 밀담 (황적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시작해 오후 4시 30분쯤 끝났다. 담배 한 갑을 다 태웠다. 전부 부검에 관계되는 것이다.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육안으로 알 수 없다. 입술과 코까진 흔적 있고 좌측 대퇴부에 두 줄 상처 나 있고 무릎 윗부분에 흔적 있었다. 키를 재고 사체 강직을 살펴보았다. 목 굳어진 것 없고 손목과 무릎 발목에 강직이 왔다. 보통 사반이 한쪽에 있기 마련인데 사반이 전체가 다 와 있었다. 사반이 앞, 뒤에 다 와 이상하게 생각했다. 사체를 뒤집어 보니 왼쪽 장딴지에 엄지손가락 반만 한 멍이 있어 길이를 재고 사진을 찍었다. 오른쪽 엄지에도 두 개의 멍이 있었다. 손을 보니 오른쪽 팔 윗부분에 눌린 자국이 있고 멍든 자국이 있었다. 오른쪽 검지와 엄지 사이에 멍든 자국이 있다. 전류를 통하면 타면서 탄흔처럼 흔적이 남는데 이것은 멍든 자국이다. 왼쪽 젖꼭지 부분에 주사바늘 2개 꽂힌 흔적 있다(최초 검안했던 오연상 의사가 심폐소생술 시술할 때 찌른 바늘 흔적). 뒤통수에 출혈이 있고 이마에도 피하 출혈이 있다. 머리 3~4군데 두피 출혈이 있다. 신민당 조사단 : 손등에 있는 반점은 전기고문에 의한 반점 아닌가? 황적준 : 멍든 자국이다. 위 내용물은 20그램밖에 되지 않고 점액질 회갈색이라고 적었다.

	밥 먹은 흔적 전혀 없다. 6시간 후면 위에 있는 내용물은 소장으로 내려간다. p.20. 17. 비좁은 조사실마다 물고문 위해 욕조시설 돼 있어 좁은 조사실의 욕조시설은 당초부터 물고문 시설로 시공하였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내무장관 이하 대공분실 관계자 모두가 이를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명령계통의 상급자에 대한 관련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감시용 모니터 시설이 있었음에도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함은 납득하기 어렵고 상급자의 가담사실을 은폐하여 주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감시용 모니터 필름을 공개해야 한다.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모니터 필름에 고문 현장이 생생히 녹화되어 있음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신민당 박종철군고문살인사건진상조사및고문근절특별대책위원회,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 진상보고서〉, 1987.2., 1~20쪽.)

이름	김철(1931년생)		직업	무역업	
사건명	김철 조총련 관련 간첩조작 사건				
체포일	1989.4.26.	구속일	1989.5.2.	송치일	-
적용 법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2호(목적수행), 제5조 제2항(금품수수), 제6조 제2항(잠입), 제7조 제1항(찬양고무), 제8조 제1항(통신연락) 위반죄		재판 결과	1989.10.30.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1991.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재심 여부	2010.2.5 재심 무죄		현재 상황	-	

사건 개요

무역업자 김철은 1989년 4월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유원호 등 수사관들에게 불법감금 당한 채 밀실, 고문 수사를 당한 뒤 간첩으로 조작됐다. 김철은 동업자인 정숙이 부탁으로 정숙이 부친 정춘식을 나리타공항에서 만나 돈을 전달받았고, 그 뒤로 2차례 3,600만 엔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유모 씨, 내연관계의 양모 씨에게 입북을 제의하고, 북괴방송을 청취하며 암호 지령을 받고, 전방의 군부대를 촬영, 고위 군 장성의 명단과 보직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보냈다고 공안당국은 밝혔다. (“서울형사지법 간첩혐의 사형구형 재미교포 일부 무죄”, 동아일보, 1989.10.30., 15면.)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은 김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개업자 강모 씨가 치안본부 대공2부에 간첩 허위 제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부인 유모 씨, 내연관계였던 양모 씨도 개인적 원한, 포상금 및 김철의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증거물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철은 정춘식을 나리타공항에서 만나 사업자금을 받은 것만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김일성 선집, 북괴방송 청취, 국가기밀 전달 건 등은 모두 조작된 내용이다.

이 사건은 치안본부가 정숙이의 아버지 정춘식이 조총련 간부라는 추정 하에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정숙이를 북한공작원으로 상정하고, 불법구금과 구금장소의 위법한 임의적 변경,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신청인의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물을 조작하고, 참고인의 진술과 증언을 허위로 유도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의 고문과 허위자백에 대한 진술을 무시하고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만을 작성하는 자백 위주의 수사로 일관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위법한 증거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유죄판결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고문 피해 진술

1989.4.23.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강남소재 로마모텔에 투숙하여 정현주와 같이 있었습니다. 이 숙소로 괴한 5~6명이 침입하여 사업차 가지고 다니던 돈 가방을 빼앗고 샤워하고 나온 저의 눈을 가리고는 여럿이 들어 차에 태우고 누구라고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다리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모진 구타와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때리기만 하니 깡패집단이 내 돈이 탐이 나서 납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사람은 해치치 말라고 하였더니 더욱 심하게 폭행을 가하였고 어딘지도 모르는 건물로 끌고 가서는 어느 한 방에 내동댕이쳤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저의 몸을 의자에 꽁꽁 묶어 놓고는 4~6명이 벌떼같이 둘러싸고 다시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온몸이 찢어지도록 아프더니 하도 많이 매를 맞으니까 나중에는 아픔도 잘 느끼지 못할 즈음에서야 “정춘식을 아느냐” 하여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니 정춘식이 간첩인데 간첩과 만나서 그의 돈을 받았으니 “네가 간첩이 아니라는 말이냐”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를 몽둥이로 때리고 심지어는 구두짝으로 머리를 때려 실신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내가 왜 이곳에 끌려왔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김철, 의견서, 4쪽)

이렇게 발로 차고 몽둥이로 치고 신발짝으로 머리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잠 안 재우기, 물고문, 볼펜으로 가슴, 옆구리, 얼굴을 찌르고 욕설로 돌변하였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형사들이 고문에 정통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납치를 당하고 나서부터 잠을 재우지 않아 깜박 졸면서 고개가 숙여지면 육각 볼펜을 책상위로 세게 굴리는데 이때의 볼펜 구르는 소리는 천둥소리같이 커서 놀라게 되었고 또 볼펜으로 옆구리, 가슴, 배, 얼굴을 찌르는데 참아낼 수가 없었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모두 다 들어주고 잠만 잘 수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매를 맞고 잠을 자지 못하니까 구름을 타고 있다가 떨어지는 환상, 어릴 때에 죽은 동생과 같이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깨는 꿈인지 환상인지가 보였고 눈이 가물가물 하면서 조사하는 형사의 얼굴이 반쪽밖에 보이지 않았던 환상들이 지금에 와서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즈음에 경찰이 “북한에서 온 사람과 만났지”라고 해서 “예, 만났습니다”라고 하니 어디에서 만났느냐고 해서 급한 김에 “인천 월미도(저는 인천에 살았기 때문 인천 월미도가 생각났음)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하니 형사의 말이 “그러면 월미도에 가면 그 장소를 알 수 있지”라고 해서 머뭇거리다가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저를 차에 태우고 인천 월미도로 갔는데 제가 이곳 같기도 하고 저곳 같기도 하다고 하니 이 새끼가 똑바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구둣발로 차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실신시키는 애들 장난감 놀이 같은 조사도 받아 보았습니다. 너무나 고문에 질린 나머지 헛소리같이 했던 말에 속았다며 나중에는 그들끼리 웃고 있었습니다.

또 “너의 고모 음전이 북한에서 고위급과 살고 있는데 강릉에서 만났지”라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이 “북한에서 고위급의 부인, 그것도 70살이 넘는 여자의 몸으로 간첩선을 타고 강릉까지 와서 조카를 만났겠느냐”고 하니 “이 빨갱이 새끼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말대답을 한다”며 물고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발목과 손목을 끈으로 묶고 긴 쇠파이프를 상하로 끼워서 한끝은 화장실 담벽 위에 다른 한쪽 끝은 책상에 올려놓으면 저의 몸은 쇠파이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데 이때 목은 쉽게 아래로 처지게 되고 노란 수건을 얼굴에 덮어씌우고 주전자로 얼굴과 코에 물을 부으면 호흡과 동시에 물을 삼키게 되고 수건이 콧구멍과 협착되면서 호흡이 곤란해져 금방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면 묶어놓은 손목과 발목의 아픔은 더욱더 가중되면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깨어나면 한 사람은 배를 눌러 물을 빼고 한 놈은 심장부위에 손

바닥을 대고 있었습니다. 깨어나면 다시 간첩행위에 대하여 자백하라고 하면서 어깨와 가슴, 다리를 마구 구타하는 데에는 참아 낼 힘은 모두 빠져버려 일어설 기력조차 없이 바닥에 '도살당하기 바로 직전의 돼지' 같은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죽어버려야겠는데 11명이나 되는 형사들의 눈길에서 단 1초도 비켜낼 수 없어 다만 애걸하며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살려만 달라고 빌고 빌면서 우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때의 그 수치와 굴욕,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통은 만 분지 일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때의 도살당하기 바로 직전의 돼지 같았던 그 모양은 여지까지 누구에게도 말 못 했던 '가슴 깊이 대못 박힌 치욕'은 오늘 판사님께 처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철, 의견서, 6~7쪽)

지금도 의문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나선형 계단을 밟고 형사 두 사람이 한 사람씩 저의 팔을 끼고 내려갔는데 수건으로 눈가리개를 하였지만 백열등이 천장에 하나 걸려 있었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났으며 나선형 계단을 밟는 소리는 귀신의 울음소리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 내려가서 눈가리개를 풀어 주었던 기억이 나는데 평판과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는 수도물을 세게 트는 소리가 들려서 또 물고문을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물고문과는 다른 방법이구나 생각하니 새로운 공포감으로 금방 죽음이 음습하여 와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니 "네놈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독한 놈"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 너 같은 빨갱이 하나 죽인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이 하나 없다"면서 입과 코, 얼굴에 물을 붓기 시작하였는데 수건으로 가려진 코는 물이 젖어 호흡을 할 수 없었으므로 입으로 숨을 쉬려고 하니까 물이 넘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몸부림 하나 칠 수가 없었고 한참을 고통 받다 기절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깨어서 보니 배는 임신부와 같이 되었고 정신은 몽롱하였으며 팔, 다리의 힘은 다 빠져 버린 상태에서 한 사람은 왼쪽 젖꼭지 밑 심장에 손바닥을 대고 있었고 한 사람은 저의 배 위에 올라타고 물을 빼고 있었는데 그 고통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려 달라고 애원했고 당신들도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를 이렇게 죽인다고 당신네들이 크게 잘될 게 무엇이 있겠는가, 당신네들의 대장을 만나게 해주시요, 라고 울면서 소리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진실위원회의 조사관과 같이 예전의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서 확인하였는데 제가 고문 받은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나선형 계단은 그때와 변함없이 그대로 있었는데 지하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억에도 나선형 계단이 끝나는 곳에 수도까지 있는 지하실 방이 있었는데 없다고 하니 내가 그때에 환상으로 고문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선형 계단이 지금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면 환상도 꿈도 분명히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 전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방으로 끌려가니 미리 준비해 놓은 치킨과 맥주 2병, 무슨 국밥(먹지 않았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윤

전무는 나는 공주가 고향인데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양반이다, 공주에는 양반들이 많이 사는 고장이다, 그런데 김 사장(김철)을 유 반장(유원호)이 구속시켰는데 우리들이 조사를 해보니 거물이 아니고 피래미다, 그러나 유 반장이 다루는 사건을 내가(윤 전무)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나서기가 힘들다면서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다. 김 사장도 살고 우리도 사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가요" 하여 저는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이 고마워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는 "이렇게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 잡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제가 재차 물으니 김 사장(김철)이 3~4년 감옥에 갈 각오를 한다면 어려울 것 없이 우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므로 그렇게 하자고 하였고 제발 물고문과 폭행은 하지 말 것과 잠을 좀 재워달라고 하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둥근 얼굴에 백발이고 키는 중키, 몸체는 뚱뚱한 육십대 쯤의 남자가 조사를 한다며 그들이 이미 작성한 조사서를 내밀며 이대로만 쓰고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그것을 읽어보니 전 내용이 간첩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으로서 윤 전무가 말한 3~4년이 아니고 곧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내 손으로는 쓸 힘도 없고 윤 전무가 말한 내용과는 다르지 않느냐고 항의하였더니 물고문이 또다시 계속되어 2~3번을 더 기절하고 깨어나서 생각난 것이 거짓말 탐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첩인지 아닌지는 거짓말 탐지기를 대보면 알 것 아니냐고 악을 썼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에는 잠깐 눈을 붙이게 하고 고문 받던 방에서 이동하여 다른 방으로 가니까 낯선 기계와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있었고 얇은 성냥갑 같은 딱지를 제 몸 여기저기에 붙이고는 기계와 연결시켜놓고 한참을 누워 있으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기억에 없고(가늠할 수 없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끝났다면서 우리들은 국립과학수사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러 번 물고문을 받으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았으니 내가 간첩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항변할 때마다 구타와 물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물고문과 폭행, 잠 안 재우기가 계속되어 끝이 없는데 더 이상 버틸 힘도 의지력도 여유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되는구나' 하는 절박한 생각만이 저를 함몰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그들의 요구대로 자백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이토록 얼과 혼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쓴 자술서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의 온전한 필치가 아님을 쉽게 판단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쓴 자술서는 자백서가 아니고 '조작서'인 것입니다.

(김철, 의견서, 8~10쪽)

김근태가 고문을 폭로한 지 4년이 지난 1989년 5월, 김철(73) 씨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남영동은 변함없이 그를 간첩으로 만들었다. 김철 씨는 "맞고 고문당한 건 지나간 것이니 잊힌다 해도, 가족·인간관계가 깨지고 말살된 것은 분하고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7년의 감옥살이 동안 혼자 독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간첩이 아닌데 간첩이 돼 징역을 살고 있다는 것, 차라리 그때 내가 고문실서 그냥 죽을걸, 그랬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정은주, “고문기억, 심장에 박혀 멈춘 시간”, 한겨레, 2012.11.22.) 그는 “수개월 동안 밀폐된 고문실에서 일제강점기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독립군을 고문했던 방식으로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에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끔찍했던 고문실은 그 자체가 공포다. 그는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강타하는 것도 모자라 물고문, 거꾸로 매달고 온몸을 찌르기, 성기 고문, 바늘로 손톱 찌르기, 잠 안 재우기 등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며 “고문실이 생생히 떠오를 때면, 온몸이 쑤시는 통증으로 잠을 못 자고 뜬눈으로 밤을 꼬박 새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고통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사람들은 저에게 이제 무죄를 받았으니 다 해결된 것 아니냐, 국가로부터 보상금 받았으니 다 된 것 아니냐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무죄나 손해배상이 고통을 어느 정도는 위로해주지만, 고문 수사관들과 그들의 범죄를 알고서도 오히려 저를 간첩으로 몰아세운 검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고문 고통 여전… 용서 비는 사람이 없다”, 한겨레, 2013.12.17.)

참고문헌

1. 단행본

김근태, 「남영동 : 김근태 고문 및 옥중기록」, 중원문화, 1987.
김근태, 「남영동 : 이제 다시 일어나!」, 중원문화, 2007.
김근태, 「남영동」, 중원문화, 2012.
김명식,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세월호 추모관까지」, 뜨인돌, 2017.
김재술 등, 「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거름, 1987.
김정남, 「진실, 광장에 서다 - 민주화운동 30년의 역정」, 창비, 2005.
김정남,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 1987년 1월에서 6월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1987·1988 제3집」, 역사비평사, 1989.
동녘편집부, 「빼앗긴 봄의 들판에서」, 동녘, 2016.
리영희·대담 임헌영, 「대화」, 한길사, 2005.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사람생각, 199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1.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 국가보안법 적용사」, 역사비평사, 1989.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 고문의 한국현대사 1.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역사」, 역사비평사, 2006.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 고문의 한국현대사 2. 일제 강점기에서 박정희 정권까지」, 역사비평사, 2006.
박원순, 「야만시대의 기록 - 고문의 한국현대사 3. 전두환에서 노무현 정권까지」, 역사비평사, 2006.
서중석, 「80년대 민중의 삶과 투쟁」, 역사비평사, 1988.
서중석, 「한국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2007.
송건호, 「민주언론 민족언론」, 두레, 1987.
5공정치범명예회복협의회,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살림터, 1997.
오근석,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논장, 1988.
이경일, 「10년 전에는 무얼 하셨죠?」, 우석출판사, 1993.

이근안,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강남, 2013.
이수일,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 한겨레출판, 2010.
이인우, 「조작간첩 함주명의 나는 고발한다」, 길, 2014.
정인하, 「김수근 건축론: 한국 건축의 새로운 이념형」, 도서출판 미건사, 1996.
편집부, 「공안사건기록」, 세계, 1986.
편집부, 「항소이유서」, 사상계, 1988.
홍성우·한인섭, 「인권변론 한 시대」, 경인문화사, 2011.
한홍구, 「대한민국사 – 단군에서 김두한까지」, 한겨레출판, 2003.

2. 논문

김두식, “고문 공간으로서의 남영동 대공분실과 그 이용자들 : 1985년의 김근태 씨 고문 사건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43호(2012.12.), 동성출판사.
이효정, “구 남영동 대공분실 리모델링을 통한 추모공간 계획 = (A) study on the memorial planning through remodelling for Namyeong-dong ex-anti-communist government organization”,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4.8.
이진우, “남영동 인권센터 계획안 장소성과 공간 시퀀스의 재생”,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2008.2.

3. 공공기관 기록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2003.
국가인권위원회, <고문 피해자 인권상황실태조사>, 인권의학연구소, 2011.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2007.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백서, 2007.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2010~2012.
대한민국법제처, <대한민국법제 50년사>, 1999.
신민당 박종철군고문살인사건진상조사및고문근절특별대책위원회,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 진상보고서>, 1987.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2000~20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서, 2007~200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2009.12.29.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조사보고서>, 2008.

4. 시민단체 기록

고경심 외 6명, “보임사, 백산서당 관련 구속자 가족의 호소문”, 1986.3.30.
구속자 가족 일동, “학림, 부림사건 구속자 고문 증언 모음(피고인들의 고문에 대한 법정진술)”, 1982.5.
김영진 가족 일동, “김영진을 가족에게로 구출하자, 노동자 해방사상 연구회 사건 경위서”, 1987.1.22.
구속자 가족 일동, “노동자 해방 사상 연구회 사건 경위서”, 1987.2.4.
김주언, “언론탄압 관련 성명서”, 1986.8.10.
남민전 김정자, “항소이유서[80노1109 국가보안법위반외]”, 1980.7.28.
문용식, “항소이유서[깃발사건 관련]”, 1986.4.4.
정영란, “방병규 전도사님의 고문진상을 밝힙니다”, 1986.12.31.
원곡감리교회, 반월교회, 안산노동교회 교우 일동, “저희 목회자님들을 돌려주십시오!”, 1986.12.29.
안산노동교회, 반월교회, 원곡교회 교우 일동, “안산 시민에게 드리는 글[반월교회 방병규 전도사와 원곡감리교회 이광호 전도사 남영동 치안공부 대공분실에 강제연행, 고문당한 사건에 관하여]”, 1987.1.21.
원곡교회 교인 일동, “원곡교회 교인 호소문”, 1986.12.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고문 및 용공조작은 절대로 은폐될 수 없다”, 1986.7.
김세진이재호기억저장소, “서울대 대자보 사건(H-1096)”.
남영동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제1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2.10.
남영동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제2차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2018.3.10.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고문근절대책공청회 자료집-고문피해의 증언>, 1987.1.20.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련 탄압사건 백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싸우길 원한다>, 1986.4.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나는 간첩이 아니다”, 조작간첩사건자료집③>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안사 및 치안본부의 살인고문 박살내자!”, 1987.5.21.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간첩조작은 이제 그만”.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간첩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 간첩사건 조작 증언 자료집>, 1989.12.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분단의 철창을 열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992.5.11.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노동자공동위원회 등, “성명서-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최규엽 씨를 즉각 석방하라”, 1987.11.11.
조한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남영동 대공분실 건축물 분석”, 박종철기념사업회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1970-80년대 주요노동조합 설명자료집>
송소연, “함주명, 그 빼앗긴 세월”, <민주가족>,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송준용, <송건호 선생을 위해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에 보낸 탄원서>, 1998.5.5.
연세대총학생회 등, <고문은 계속되고 있다! - 고문피해 동문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1994.6.8.
인권의학연구소, <고문 방지 및 고문 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2012.11.19.
인권하루소식,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1998.7.7.
인권하루소식,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1997.11.24.
인권하루소식, "항의방문자 전원연행", 1996.6.3.
인권하루소식, "누구는 통근, 누구는 밤샘", 1998.5.8.
정구원, "10% 진실 90% 쓰레기", 민주공원 홈페이지, 2003.7.7.
조연행, "호소문[구속된 아들 권운상에 대한 석방을 촉구]", 1981.5.19.
조연행, "호소문[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장애자 권운상의 모 조연행 씨가 작성한 호소문]", 1981.10.29.
진실의 힘, "김태룡의 오래된 기다림", 소식지 20호, 2014.
진실의 힘, "2013년 제3회 진실의 힘 인권상 결정문", 2013.6.26.
최규엽 개인 블로그, https://01037926722.modoo.at.
최규엽 씨 가족 일동, "군인이 사람 잡는 세상을 개탄한다!", 1987.11.11.
최동규 개인 블로그, http://blog.daum.net/moonnature.
"다산기획, 보임기획, 백산서당 등 소위 '의식화 출판조직'에 대한 최근 수사당국의 조치에 관한 보고서", 198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3년 인권주간자료집 - 민생과 인권>, 1983.12.1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 리포트4: 군부독재 종식과 선거투쟁>, 1987.11.
한국기독교장로회 경인노회, "성명서(김현수 준목, 방병규 전도사 구속사건을 보고)", 1986.12.18.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 1970년대 사건 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등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태백·정선>, 2005.
황인오, "舍北으로 돌아가다!!! 14. 사북항쟁기록", 2002.8.

5. 언론보도

1) 신문, 잡지

강이종행, "'이근안이 만든 간첩' 함주명 씨, 21년 만에 무죄판결", 오마이뉴스, 2005.7.15.
강준상, "<남영동 1985> '87년 체제'에 유폐된 고문의 기억" 월간 한국노총 488호, 2012.12.
권오성, "아직도 김근태형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 한겨레, 2012.1.3.
김경애, "38년 만에 일본서 날아온 '돌멩이의 노래'…삶 되찾은 듯", 한겨레, 2016.7.22.
김덕련, "'건대 사태, 사형도 고려' 못 말리는 전두환 정권", 프레시안, 2017.1.19.

김동민,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라”, 오마이뉴스, 2006.12.16.
김영화, “박처원 전치안감 집유”, 한국일보, 2000.5.24.
김산, “아직, 안 잡혀가셨어요?” 한겨레21, 통권1007호, 2014.4.21.
김수정, “해직 언론인, 그대의 자리는 언론현장입니다”, 미디어스, 2012.12.4.
김은남, “똑똑히 지켜보라는 계시가 들렸다”, 시사IN, 제270호, 2012.11.17.
김은남, 송지혜, “‘제2의 김근태’ 아직도 많다”, 시사IN, 제270호, 2012.11.17.
김종원, 정윤식, “[단독] 박종철 고문치사 당시 지휘관 ‘31년만의 고백’”, SBS, 2008.1.23.
김종섭, “남영동분실 폐쇄 ‘작살내 버려’”, 열린전북, 2005.8.30.
김지훈, 이정국, 박아름, “당신의 집 근처에 공포의 ‘하얀방’이 있다”, 한겨레, 2012.10.18.
김효엽, “박종철 고문치사 가담자 조한경 등 3명 경찰 산하기관 재직”, MBC, 1998.6.8.
마감취재팀, “누가 박처원 치안감에게 이근안을 도피시키라 명령했나”, 월간 말, 1999.12.
문경란,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으로”, 시사IN, 제541호, 2018.1.30.
문병호, “40년 외길, 대공수사의 대부”, 중앙일보, 1987.5.29.
박래군,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정한 배움터로”, 희망세상, 37호, 2005.10.
문학진, “김근태 씨 족친 ‘이름 모를 전기고문기술자’ 경기도경 공안실장 이근안 씨”, 한겨레, 1988.12.21.
문학진, “일상화된 반문명적 폭력고문(1)”, 한겨레, 1988.12.27.
부형권, “박처원은 누구?”, 동아일보, 1999.11.16.
서동구, “나는 이렇게 언론계서 쫓겨났다”, 신동아, 1988.12.
손우정, “‘이제부터 내가 널 맡겠다’ 이근안의 관절꺾기에 그만”, 오마이뉴스, 2015.8.18.
손원제, “박처원 전 치안감 누구?”, 한겨레, 1999.11.16.
송소연, “피고인 없는 무죄…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2017.7.10.
송창석, “이근안 전 동료경관이 밝힌 당시 고문수법”, 한겨레, 1999.11.25.
송호진, “아프지만 봐야 하는 영화 <남영동 1985>”, 주먹밥, 제38호, 5·18기념재단.
양영권, “이근안, 고문장소에 아들 근무시키기도…가책 못 느껴”, 머니투데이, 2011.12.30.
어수갑,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사제단의 박종철 고문치사 진상발표”,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5.5.6.
오연호, “이근안 무사도피 1천5백일의 배후”, 월간 말, 1993.3.
원희복, “[광복 70년 역사르포] (23) 남영동 대공분실~연세대…박종철·이한열, 6·10항쟁 불씨가 되다”, 주간경향, 2015.7.29.
유시춘 외 9명, “[실록민주화운동] 제4부 58. 김근태 고문사건”, 경향신문, 2004.5.30.
유희락, “일상화된 반문명적 폭력 고문(2)”, 한겨레, 1988.12.28.
이경일. “고문기술자 이근안과 보낸 사흘 – 80년 구속언론인 수기”, 신동아, 1996.3.
이룰태림, “[길을 찾아서] 언론인 쫓아내고 보도지침 내리고…27년 전과 달라진 게 있는가”, 한겨레, 2014.5.26.
이본영, “아들 무덤에 바친 ‘무죄판결’”, 한겨레, 1999.8.9.
이상원, “80년 4월 사북항쟁과 80년 6월 세계미스 유니버스대회 폭파 미수사건”, 오마이뉴스, 2003.7.9.

이세영, “살인 기계 빚어낸 애국적 판단 중지: 김수근이 설계한 남영동 대공분실… ‘도덕적 책임’ 대체한 ‘기술적 책임’이 재앙을 부르다”, 한겨레21, 통권995호, 2014.1.20.
이심기, “박종철군 치사관련 경관 3명, 출소후 경찰단체 채용 ‘물의’”, 한국경제신문, 1998.6.9.
이재권, “[이재권의 따따부따] 포기하지 않는 1%의 소중함”, 울산저널, 2016.1.20.
이종완, “‘모든 기자들의 생일로 승화시켜야…’ 기자의날 제정 기념 릴레이 인터뷰 – 김태홍 제20대 한국기자협회장”, 한국기자협회보, 2006.3.29.
이종호, “신문을 키우는 건 독자들의 작은 실천”, 울산저널, 2014.1.09.
이철현, 최영재, “고문 명령 내린 용서받지 못할 자들”, 시사저널, 제526호, 1999.11.25.
이철현, “이근안 배후 세력 검·경은 알고 있었다”, 시사저널, 제524호, 1999.11.11.
이태훈, “검찰 ‘로열 패밀리’, 공안검사 영욕 30년”, 신동아, 2006.3.13.
이창섭, “80년 기협·경향 사건 전말”, 신문과 방송, 332호, 1998.8.
이태호, “꺾이지 않은 대의로 살아온 26년”, 신문과 방송, 364호, 2001.4.
이헌진, “‘고문경관’ 이근안 자수, 관절뽑기…전기찜질 악명 높았다”, 동아일보, 1999.10.29.
임지영, “고문, 당신도 아파보라”, 시사IN, 제270호, 2012.11.17.
임필수, “무엇을 배울 것인가,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 항쟁”, 레디앙, 2016.12.5.
전국언론노동조합, “‘해직언론인, 그대의 자리는 언론현장’, 리영희재단 ‘해직언론인 복직 촉구 콘서트’ 개최”, 언론노보, 2012.12.4.
정대하, “고문 고통 여전…용서 비는 사람이 없다”, 한겨레, 2013.12.17.
정윤섭, “‘민추위’사건 문용식 씨 고문피해 증언”, 연합뉴스, 2004.4.13.
정은주, “고문기억, 심장에 박혀 멈춘 시간”, 한겨레21, 2012.11.22.
조수진, “파킨슨병 김근태, 뇌정맥혈전증 입원”, 동아일보, 2011.12.9.
조연수, “[특별연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자랑스러운 당신”, 미디어오늘, 2012.12.6.
주진우, “피멍 든 역사 지우고 ‘인권’ 피워낼까”, 시사저널, 통권824호, 2005.8.9.
최재영, “환갑 넘긴 도피행각 심신한계 추정”, 경향신문, 1999.10.19.
하종대, “[발굴취재_조한경 인터뷰] ‘두 번 자살 시도했죠. 이름도 바꿨습니다’”, 신동아, 2000년 1월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박근혜 묻는다…“‘남영동 1985’ 봤나?”, 프레시안, 2015.4.27.
한홍구, “법정에 선 ‘밀실 고문’…재판부는 ‘증거 보전’ 기각”, 한겨레, 2009.12.21.
홍성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흔적, 남영동 대공분실”, 미디어스, 2013.9.29.
“간첩 꼼짝할 수 없게”, 경향신문, 1960.5.25.
“용공서적출판 14명 구속”, 경향신문, 1986.4.14.
“대공기능 강화”, 경향신문, 1986.10.2.
“국회속기록”, 경향신문, 1986.10.30.
“경찰서 대학생 쇼크사 검찰, 진상규명 나서”, 경향신문, 1987.1.16.
“말지 세 피고인 구형”, 경향신문, 1987.5.28.
“(2)물고문으로 허위자백 강요”, 경향신문, 1988.10.27.
“80년 언론공작 (1) 통폐합의 신호탄 경향탄압”, 경향신문, 1988.10.26.

“80년 언론공작 (3) ‘증인만들기’ 협박과 강압”, 경향신문, 1988.10.28.
“[실록민주화운동] 제3부 (45)서울대 무림사건”, 경향신문, 2004.2.22.
“대공 경호경찰 특진 65% 수사분야 11%…시국치안 치중”, 한겨레, 1988.10.21.
“발가벗긴 채 물고문, 전기고문”, 한겨레, 1988.10.25.
“언론대학살 전말”, 한겨레, 1988.11.6.
“‘제도언론’ 겨냥한 싹쓸이”, 한겨레, 1988.11.6.
“80년 기자 대학살 그 진행과정을 파헤친다”, 한겨레, 1988.10.29.
“문제의 공안사건을 점검한다 (4)납북 어부, 조총련 관련 사건”, 한겨레, 1988.12.10.
“김근태 씨 재정신청 결정문 <요지>”, 한겨레, 1988.12.16.
“‘나도 이근안에게 당했다’ 폭로 잇따라”, 한겨레, 1988.12.22.
“시국 사범 고문피해 성난 폭로 잇따라”, 한겨레, 1988.12.25.
“일상화된 반문명적 폭력 고문(2)”, 한겨레, 1988.12.28.
“각종 고문사건 수사 ‘실종’”, 한겨레, 1989.2.15.
“‘아내 진술 강요 간첩증거 삼아’ 장기수가족 주장 ‘조작·불법’사례”, 한겨레, 1989.12.7.
“김근태 씨 고문경관 실형”, 한겨레, 1991.1.31.
“대공수사 부서는 시국사건 수사에서 일체 손을 떼기로”, 조선일보, 1988.12.31.
“[이근안] 80년 당한 이경일 씨 ‘요즘도 고문악몽’”, 조선일보, 1999.11.2.
“이근안 등 시효만료/정신적고통 손배소/반제동맹복역 3명”, 국민일보, 1994.7.13.
“‘탁 치니 억 하고…’ 2018년 그들은 어디에”, YTN, 2018.7.9.
“학처장 간담회 서울대캠퍼스에 불온유인물”, 동아일보, 1980.12.13.
“반월공단 용공조직 적발 치안본부”, 동아일보, 1987.1.10.
“박종철의 시체를 맨 처음 검안한 의사 오연상의 증언”, 동아일보, 1987.1.17.
“‘고문은 최대죄악’ 분노의 메아리, 특별취재반”, 동아일보, 1987.1.23.
“두 고문경관 구속기소”, 동아일보, 1987.1.24.
“지하단체 노해사 적발”, 동아일보, 1987.2.27.
“검찰발표 전문”, 동아일보, 1987.5.22.
“치안본부장 등 경찰 수뇌들 고문치사 처음부터 알았다”, 동아일보, 1988.1.12.
“다큐멘터리 5공의 언론수난 <14> 보도지침 - 제목 크기까지 간섭”, 동아일보, 1988.11.17.
“서울형사지법 간첩혐의 사형구형 재미교포 일부 무죄”, 동아일보, 1989.10.30.
“[고문기술자 이근안 자수] 고문 피해자들의 증언”, 동아일보, 1999.10.30.
“(2)학원격동의 서막…서울대 연합시위”, 중앙일보, 1986.12.4.
“경찰에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 중앙일보, 1987.1.15.
“서울대생 박종철군 사망관련 치안본부 조사발표문”, 중앙일보, 1987.1.19.
“박군 치사범 조작 수사결과 발표 전문”, 중앙일보, 1987.5.29.
“‘국민투표거부’ 11명 구속”, 중앙일보, 1987.10.15.
“(57) 언론숙청·통폐합|하루아침에 ‘쑥밭’ 된 기협”, 중앙일보, 1988.11.17.
“치안본부 대공분실 축소”, 중앙일보, 1989.1.17.
“국민투표 거부 전국학생운동지도부 적발”, KBS, 1987.10.15.

“대남 모략선동 전문 그대로 옮겨”, 한국일보, 1986.10.12.
“‘이근안의 85년 남영동 고문사건’, 그때를 아십니까”, 신동아, 1999.12.
<말 특집호-보도지침 권력과 언론의 음모>, 월간 말, 1986.9.6.

2) 방송

KBS 인물현대사, “국가에 충성한 죄? - 고문기술자 이근안”, 2004.4.2.
KBS 시사투나잇, “내가 겪은 고문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싶었다’”, 2004.
KBS 스페셜, “함주명 그는 어떻게 간첩이 되었나”, 2005.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고문, 끝나지 않은 전쟁”, 2000.
MBC PD수첩, “(특집) 고문; 이근안 뿐인가”, 1999.
MBC 후 플러스, “고문과 실적주의”, 2010.
EBS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남영동 1981, 사라진 아버지와 버려진 딸”, 2013.7.18.